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8. 9

동향분석실

머 리 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퇴직 연금선호도, 기술 발전에 대한 반응, 사이버보험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센터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9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는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통계는 전국 해당 가구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일반 국민 2,4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수집함
3. 통계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4. 활용 통계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 통계 자료를 이용함
 - 가구기준 :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 인구기준 : 2018년 4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행정자치부)
5.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 조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조사개요에 수록되어 있으며,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은 결과 값은 해석에서 제외함(예: 은퇴자, 무직 등)
6.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조사는 되었으나 정보가 없는 경우
 - [0] 조사 결과 값이 0이거나 0의 근사값인 경우
7. 수록된 자료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점은 보험연구원으로 문의

■ 목차

요약 / 1

I. 조사의 개요 / 53

1. 조사의 목적 / 53
2. 주요 조사항목 / 54
3. 조사방법 / 56
4. 표본의 특성 / 57
5. 구분 기준 / 58

II. 생명보험 / 60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 60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70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 88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 92

III. 손해보험 / 114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 114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123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 136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 138

IV.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 149

1.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 149
2. 사이버보험 관련 / 181
3. 자연재해보험 / 207
4.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실태 / 223
5. 건강생활서비스 / 256
6. 노후생활 준비 실태 / 344
7.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 / 360
8.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 380
9.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 394

| 부록 | 설문지 / 402

■ 표 차례

- 〈표 I-1〉 표본의 특성 / 57
- 〈표 II-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 60
- 〈표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61
- 〈표 II-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62
- 〈표 II-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 63
- 〈표 II-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및 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 65
- 〈표 II-6〉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65
- 〈표 II-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자녀 수별 / 66
- 〈표 II-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연령별 / 66
- 〈표 II-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67
- 〈표 II-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학력별 / 67
- 〈표 II-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직업별 / 68
- 〈표 II-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68
- 〈표 II-1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 68
- 〈표 II-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69
- 〈표 II-15〉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 71
- 〈표 II-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71
- 〈표 II-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72
- 〈표 II-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72
- 〈표 II-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복수응답) / 73
- 〈표 II-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복수응답) / 73
- 〈표 II-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복수응답) / 73
- 〈표 II-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 74
- 〈표 II-23〉 실손의료보험 채널별 구성비 / 75
- 〈표 II-24〉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76
- 〈표 II-25〉 재해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77
- 〈표 II-26〉 간병보험 채널별 구성비 / 78
- 〈표 II-27〉 사망보험 채널별 구성비 / 79

■ 표 차례

- 〈표 II-28〉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 80
- 〈표 II-29〉 연금보험 채널별 구성비 / 81
- 〈표 II-30〉 어린이보험 채널별 구성비 / 82
- 〈표 II-31〉 변액보험 채널별 구성비 / 83
- 〈표 II-32〉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84
- 〈표 II-33〉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 84
- 〈표 II-34〉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85
- 〈표 II-3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85
- 〈표 II-3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86
- 〈표 II-3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86
- 〈표 II-3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87
- 〈표 II-39〉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 88
- 〈표 II-40〉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89
- 〈표 II-41〉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90
- 〈표 II-42〉 생명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 93
- 〈표 II-43〉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94
- 〈표 II-44〉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 / 95
- 〈표 II-45〉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 96
- 〈표 II-46〉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 97
- 〈표 II-47〉 간병보험 가입 이유 / 98
- 〈표 II-48〉 사망보험 가입 이유 / 99
- 〈표 II-49〉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 100
- 〈표 II-50〉 연금보험 가입 이유 / 101
- 〈표 II-51〉 어린이보험 가입 이유 / 102
- 〈표 II-52〉 변액보험 가입 이유 / 103
- 〈표 II-5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05
- 〈표 II-54〉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가입 종목별 상품 만족도 / 106
- 〈표 II-55〉 생명보험 상품 만족도 / 107

■ 표 차례

- 〈표 II-5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110
- 〈표 II-57〉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12
- 〈표 III-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 114
- 〈표 III-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115
- 〈표 III-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116
- 〈표 III-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116
- 〈표 III-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보험 종목별(2018년) / 117
- 〈표 III-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및 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 118
- 〈표 III-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119
- 〈표 III-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연령별 / 119
- 〈표 III-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120
- 〈표 III-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학력별 / 120
- 〈표 III-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직업별 / 121
- 〈표 III-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121
- 〈표 III-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122
- 〈표 III-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 123
- 〈표 III-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24
- 〈표 III-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124
- 〈표 III-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25
- 〈표 III-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125
- 〈표 III-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26
- 〈표 III-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126
- 〈표 III-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127
- 〈표 III-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 128
- 〈표 III-2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129
- 〈표 III-24〉 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130
- 〈표 III-2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 131
- 〈표 III-26〉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131

■ 표 차례

- 〈표 III-27〉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132
- 〈표 III-2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132
- 〈표 III-2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133
- 〈표 III-3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133
- 〈표 III-3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134
- 〈표 III-3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134
- 〈표 III-33〉 향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 135
- 〈표 III-34〉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136
- 〈표 III-3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137
- 〈표 III-36〉 손해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 138
- 〈표 III-37〉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139
- 〈표 III-3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41
- 〈표 III-3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 142
- 〈표 III-40〉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 143
- 〈표 III-41〉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 145
- 〈표 III-4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47
- 〈표 IV-1〉 필요 정보 수집 경로 / 150
- 〈표 IV-2〉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일주일 기준) / 152
- 〈표 IV-3〉 소비재, 금융상품 등 구입 시 정보 수집 경로 / 154
- 〈표 IV-4〉 인공지능과 대화/채팅 경험 / 156
- 〈표 IV-5〉 전자상거래 소비재 구매 경험 / 158
- 〈표 IV-6〉 전자상거래 서비스 구매 경험 / 160
- 〈표 IV-7〉 전자상거래 금융상품 구매 경험 / 162
- 〈표 IV-8〉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 / 164
- 〈표 IV-9〉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 / 166
- 〈표 IV-10〉 인터넷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이해 정도 / 168
- 〈표 IV-11〉 인공지능의 설명 신뢰도 / 170
- 〈표 IV-12〉 인공지능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 172

■ 표 차례

- 〈표 IV-13〉 금융상품 가입 시 상담 희망 채널 / 174
- 〈표 IV-14〉 해당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금융회사 관련자 / 176
- 〈표 IV-15〉 해당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인공지능 / 177
- 〈표 IV-16〉 해당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주위사람 / 178
- 〈표 IV-17〉 인공지능 권유 상품 가입 의향 / 180
- 〈표 IV-18〉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경험 / 182
- 〈표 IV-19〉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가능성 / 184
- 〈표 IV-20〉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가입 여부 / 186
- 〈표 IV-21〉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인지 여부 / 188
- 〈표 IV-22〉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가입 의향 / 190
- 〈표 IV-23〉 사이버 금융범죄 손해보장보험 가입 희망 유형 / 192
- 〈표 IV-24〉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 194
- 〈표 IV-25〉 사이버 폭력 피해 가능성 / 196
- 〈표 IV-26〉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여부 / 198
- 〈표 IV-27〉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인지 여부 / 200
- 〈표 IV-28〉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의향 / 202
- 〈표 IV-29〉 사이버 폭력 피해 보장 상품 선호 유형 / 204
- 〈표 IV-30〉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한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 206
- 〈표 IV-31〉 자연재해보험 가입 계획 / 208
- 〈표 IV-32〉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도 / 210
- 〈표 IV-33〉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신뢰성 / 212
- 〈표 IV-34〉 자연재해보험의 서비스 제공의 진실성 / 214
- 〈표 IV-35〉 자연재해보험의 자연재해 대책으로서 적절성 평가 / 216
- 〈표 IV-36〉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충분성 / 218
- 〈표 IV-37〉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상 피해 염려 / 220
- 〈표 IV-38〉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 부재에 따른 손해 염려 / 222
- 〈표 IV-39〉 최근 6개월 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 상태 / 224
- 〈표 IV-40〉 의료기관 방문 경험 / 226

■ 표 차례

- 〈표 IV-41〉 의료기관 방문 횟수: 입원 / 228
- 〈표 IV-42〉 의료기관 방문 횟수: 외래진료 / 229
- 〈표 IV-43〉 의료기관 방문 횟수: 약국 / 230
- 〈표 IV-44〉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 / 232
- 〈표 IV-45〉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입원 / 234
- 〈표 IV-46〉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외래진료 / 235
- 〈표 IV-47〉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약 처방 / 236
- 〈표 IV-48〉 최근 6개월 내 실손의료보험 주 청구 방법 / 238
- 〈표 IV-49〉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입원(첫 번째로 큰 금액) / 240
- 〈표 IV-50〉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첫 번째로 큰 금액) / 242
- 〈표 IV-51〉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두 번째로 큰 금액) / 243
- 〈표 IV-52〉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세 번째로 큰 금액) / 244
- 〈표 IV-53〉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네 번째로 큰 금액) / 245
- 〈표 IV-54〉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처방(첫 번째로 큰 금액) / 247
- 〈표 IV-55〉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처방(두 번째로 큰 금액) / 248
- 〈표 IV-56〉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처방(세 번째로 큰 금액) / 249
- 〈표 IV-57〉 최근 6개월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251
- 〈표 IV-58〉 단체보험 가입 여부 / 253
- 〈표 IV-59〉 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 255
- 〈표 IV-60〉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 257
- 〈표 IV-61〉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실천 방법 / 259
- 〈표 IV-62〉 최근 6개월간 식생활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 261
- 〈표 IV-63〉 최근 6개월간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 실천 방법 / 263
- 〈표 IV-64〉 최근 6개월간 흡연 경험 / 265
- 〈표 IV-65〉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경험 / 267
- 〈표 IV-66〉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방법 / 269
- 〈표 IV-67〉 최근 6개월간 음주 경험 / 271
- 〈표 IV-68〉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경험 / 273

■ 표 차례

- 〈표 IV-69〉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실천 방법 / 275
- 〈표 IV-70〉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련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 277
- 〈표 IV-71〉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경험 / 279
- 〈표 IV-72〉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방법 / 281
- 〈표 IV-73〉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283
- 〈표 IV-74〉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285
- 〈표 IV-75〉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87
- 〈표 IV-76〉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89
- 〈표 IV-77〉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91
- 〈표 IV-78〉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293
- 〈표 IV-79〉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295
- 〈표 IV-80〉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97
- 〈표 IV-81〉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99
- 〈표 IV-82〉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301
- 〈표 IV-83〉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303
- 〈표 IV-84〉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05
- 〈표 IV-85〉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07
- 〈표 IV-86〉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09
- 〈표 IV-87〉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311

■ 표 차례

- 〈표 IV-88〉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 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313
- 〈표 IV-89〉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 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15
- 〈표 IV-90〉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 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17
- 〈표 IV-91〉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 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19
- 〈표 IV-92〉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 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321
- 〈표 IV-9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받은 경험 / 323
- 〈표 IV-9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등급 / 325
- 〈표 IV-9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차 검진 참여 여부 / 327
- 〈표 IV-9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받은 경험 / 329
- 〈표 IV-9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 331
- 〈표 IV-98〉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333
- 〈표 IV-99〉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35
- 〈표 IV-100〉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37
- 〈표 IV-101〉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39
- 〈표 IV-102〉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341

■ 표 차례

- 〈표 IV-103〉 생체 정보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등의 개입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되는지 여부 / 343
- 〈표 IV-104〉 현재 건강상태 / 345
- 〈표 IV-105〉 노후 준비 여부 / 347
- 〈표 IV-106〉 노후 준비 방법(1순위) / 349
- 〈표 IV-107〉 예상하는 노후 소득 중 가장 큰 수입원(1순위) / 351
- 〈표 IV-108〉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 353
- 〈표 IV-109〉 향후 본인 부모 부양 의향 / 355
- 〈표 IV-110〉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 / 357
- 〈표 IV-111〉 향후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도 / 359
- 〈표 IV-112〉 개인연금 가입 여부 / 361
- 〈표 IV-113〉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363
- 〈표 IV-114〉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 365
- 〈표 IV-115〉 개인연금 납입 방법 / 367
- 〈표 IV-116〉 개인연금 수령 방법 / 369
- 〈표 IV-117〉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371
- 〈표 IV-118〉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373
- 〈표 IV-119〉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 375
- 〈표 IV-120〉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 377
- 〈표 IV-121〉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379
- 〈표 IV-122〉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 381
- 〈표 IV-123〉 IRP 가입 의향 / 383
- 〈표 IV-124〉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385
- 〈표 IV-125〉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 387
- 〈표 IV-126〉 퇴직연금 연금+일시금으로 수령 시 선호하는 연금 비중 / 389
- 〈표 IV-127〉 퇴직연금 수익률 인지 여부 / 391
- 〈표 IV-128〉 지난 1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 / 393
- 〈표 IV-129〉 종신보험 가입 여부 / 395

■ 표 차례

〈표 IV-130〉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인지도 / 397

〈표 IV-131〉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 399

〈표 IV-132〉 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401

■ 그림 차례

- 〈그림 I-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53
- 〈그림 II-1〉 2018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 61
- 〈그림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63
- 〈그림 II-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64
- 〈그림 II-4〉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87
- 〈그림 II-5〉 생명보험 보상 경험 / 92
- 〈그림 II-6〉 생명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93
- 〈그림 II-7〉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04
- 〈그림 II-8〉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109
- 〈그림 II-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11
- 〈그림 III-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추이 / 115
- 〈그림 III-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117
- 〈그림 III-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118
- 〈그림 III-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135
- 〈그림 III-5〉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139
- 〈그림 III-6〉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40
- 〈그림 III-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 144
- 〈그림 III-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 146
- 〈그림 IV-1〉 필요 정보 수집 경로 / 149
- 〈그림 IV-2〉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일주일 기준) / 151
- 〈그림 IV-3〉 소비재, 금융상품 등 구입 시 정보 수집 경로 / 153
- 〈그림 IV-4〉 인공지능과 대화/채팅 경험 / 155
- 〈그림 IV-5〉 전자상거래 소비재 구매 경험 / 157
- 〈그림 IV-6〉 전자상거래 서비스 구매 경험 / 159
- 〈그림 IV-7〉 전자상거래 금융상품 구매 경험 / 161
- 〈그림 IV-8〉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 / 163
- 〈그림 IV-9〉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 / 165
- 〈그림 IV-10〉 인터넷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이해 정도 / 167

■ 그림 차례

- 〈그림 IV-11〉 인공지능의 설명 신뢰도 / 169
- 〈그림 IV-12〉 인공지능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 171
- 〈그림 IV-13〉 금융상품 가입 시 상담 희망 채널 / 173
- 〈그림 IV-14〉 해당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 175
- 〈그림 IV-15〉 인공지능 권유 상품 가입 의향 / 179
- 〈그림 IV-16〉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경험 / 181
- 〈그림 IV-17〉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가능성 / 183
- 〈그림 IV-18〉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가입 여부 / 185
- 〈그림 IV-19〉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인지 여부 / 187
- 〈그림 IV-20〉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가입 의향 / 189
- 〈그림 IV-21〉 사이버 금융범죄 손해보장보험 가입 희망 유형 / 191
- 〈그림 IV-22〉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 193
- 〈그림 IV-23〉 사이버 폭력 피해 가능성 / 195
- 〈그림 IV-24〉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여부 / 197
- 〈그림 IV-25〉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인지 여부 / 199
- 〈그림 IV-26〉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의향 / 201
- 〈그림 IV-27〉 사이버 폭력 피해 보장 상품 선호 유형 / 203
- 〈그림 IV-28〉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한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 205
- 〈그림 IV-29〉 자연재해보험 가입 계획 / 207
- 〈그림 IV-30〉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도 / 209
- 〈그림 IV-31〉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신뢰성 / 211
- 〈그림 IV-32〉 자연재해보험의 서비스 제공의 진실성 / 213
- 〈그림 IV-33〉 자연재해보험의 자연재해 대책으로서 적절성 평가 / 215
- 〈그림 IV-34〉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충분성 / 217
- 〈그림 IV-35〉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상 피해 염려 / 219
- 〈그림 IV-36〉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 부재에 따른 손해 염려 / 221
- 〈그림 IV-37〉 최근 6개월 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 상태 / 223
- 〈그림 IV-38〉 의료기관 방문 경험 / 225

■ 그림 차례

- 〈그림 IV-39〉 의료기관 방문 횟수 / 227
- 〈그림 IV-40〉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 / 231
- 〈그림 IV-41〉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 233
- 〈그림 IV-42〉 최근 6개월 내 실손의료보험 주 청구 방법 / 237
- 〈그림 IV-43〉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입원(첫 번째로 큰 금액) / 239
- 〈그림 IV-44〉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첫 번째로 큰 금액) / 241
- 〈그림 IV-45〉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처방(첫 번째로 큰 금액) / 246
- 〈그림 IV-46〉 최근 6개월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250
- 〈그림 IV-47〉 단체보험 가입 여부 / 252
- 〈그림 IV-48〉 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 254
- 〈그림 IV-49〉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 256
- 〈그림 IV-50〉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실천 방법 / 258
- 〈그림 IV-51〉 최근 6개월간 식생활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 260
- 〈그림 IV-52〉 최근 6개월간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 실천 방법 / 262
- 〈그림 IV-53〉 최근 6개월간 흡연 경험 / 264
- 〈그림 IV-54〉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경험 / 266
- 〈그림 IV-55〉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방법 / 268
- 〈그림 IV-56〉 최근 6개월간 음주 경험 / 270
- 〈그림 IV-57〉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경험 / 272
- 〈그림 IV-58〉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실천 방법 / 274
- 〈그림 IV-59〉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련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 276
- 〈그림 IV-60〉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경험 / 278
- 〈그림 IV-61〉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방법 / 280
- 〈그림 IV-62〉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282
- 〈그림 IV-63〉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284
- 〈그림 IV-64〉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86
- 〈그림 IV-65〉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88
- 〈그림 IV-66〉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90

■ 그림 차례

- 〈그림 IV-67〉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292
- 〈그림 IV-68〉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294
- 〈그림 IV-69〉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96
- 〈그림 IV-70〉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98
- 〈그림 IV-71〉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300
- 〈그림 IV-72〉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302
- 〈그림 IV-73〉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04
- 〈그림 IV-74〉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06
- 〈그림 IV-75〉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08
- 〈그림 IV-76〉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310
- 〈그림 IV-77〉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312
- 〈그림 IV-78〉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14
- 〈그림 IV-79〉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16
- 〈그림 IV-80〉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18

■ 그림 차례

- 〈그림 IV-81〉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320
- 〈그림 IV-8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받은 경험 / 322
- 〈그림 IV-8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등급 / 324
- 〈그림 IV-8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차 검진 참여 여부 / 326
- 〈그림 IV-8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받은 경험 / 328
- 〈그림 IV-8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 330
- 〈그림 IV-87〉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332
- 〈그림 IV-88〉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34
- 〈그림 IV-89〉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36
- 〈그림 IV-90〉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38
- 〈그림 IV-91〉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340
- 〈그림 IV-92〉 생체 정보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등의 개입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되는지 여부 / 342
- 〈그림 IV-93〉 현재 건강상태 / 344
- 〈그림 IV-94〉 노후 준비 여부 / 346
- 〈그림 IV-95〉 노후 준비 방법(1순위) / 348
- 〈그림 IV-96〉 예상하는 노후 소득 중 가장 큰 수입원(1순위) / 350
- 〈그림 IV-97〉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 352
- 〈그림 IV-98〉 향후 본인 부모 부양 의향 / 354
- 〈그림 IV-99〉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 / 356

■ 그림 차례

- 〈그림 IV-100〉 향후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도 / 358
- 〈그림 IV-101〉 개인연금 가입 여부 / 360
- 〈그림 IV-102〉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362
- 〈그림 IV-103〉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 364
- 〈그림 IV-104〉 개인연금 납입 방법 / 366
- 〈그림 IV-105〉 개인연금 수령 방법 / 368
- 〈그림 IV-106〉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370
- 〈그림 IV-107〉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372
- 〈그림 IV-108〉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 374
- 〈그림 IV-109〉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 376
- 〈그림 IV-110〉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378
- 〈그림 IV-111〉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 380
- 〈그림 IV-112〉 IRP 가입 의향 / 382
- 〈그림 IV-113〉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384
- 〈그림 IV-114〉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 386
- 〈그림 IV-115〉 퇴직연금 연금+일시금으로 수령 시 선호하는 연금 비중 / 388
- 〈그림 IV-116〉 퇴직연금 수익률 인지 여부 / 390
- 〈그림 IV-117〉 지난 1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 / 392
- 〈그림 IV-118〉 종신보험 가입 여부 / 394
- 〈그림 IV-119〉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인지도 / 396
- 〈그림 IV-120〉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 398
- 〈그림 IV-121〉 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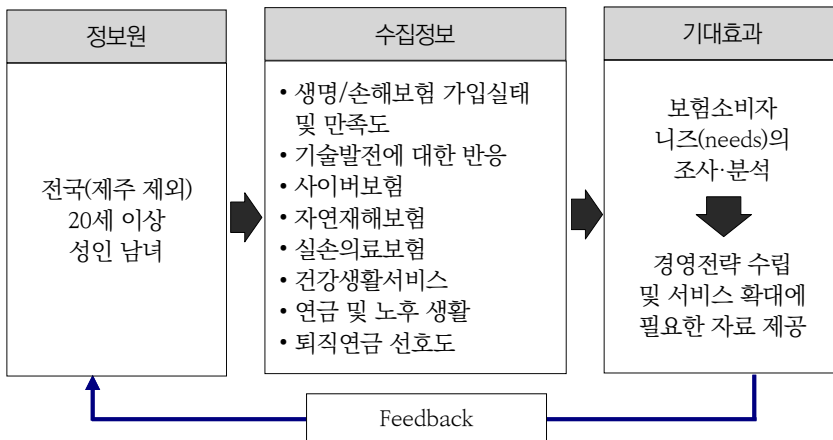
요약

가.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요약 그림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2) 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크기: 총 2,44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추출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 행정자치부, 2018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0\%$
- 조사기간: 2018년 5월 25일~2018년 7월 21일(약 9주간)
-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센터

3) 주요 조사항목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만족도 조사와 최근 보험산업과 관련된 이슈별 설문조사를 포함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와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와 향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함
 -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기술발전에 대한 소비자 반응(AI 등), 사이버보험, 자연재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상품 등을 설문 내용에 포함함

나.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1) 가구당 가입 현황

- 2018년 조사에서는 보험산업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4%¹⁾로 나타남
 - 2018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5.9%이고, 가구당 가입건수는 3.7건으로 조사됨
 - 2018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91.0%이며, 가입건수는 가구당 3.7건임

1)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의 가입률을 의미하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함

〈요약 표 1〉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구당 가입률(%)		98.0	96.1	96.1	97.5	99.7	96.3	97.0	98.4
생명보험	가입률(%)	87.3	86.3	83.0	85.8	87.2	81.8	84.9	85.9
	가입건수(건)	3.8	3.8	3.6	4.0	3.5	3.4	4.0	3.7
손해보험	가입률(%)	91.4	87.2	86.8	87.7	91.8	88.9	89.5	91.0
	가입건수(건)	3.0	2.9	3.1	3.3	3.4	3.5	3.4	3.7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가구 소득 등에 따른 가구당 보험가입률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음

-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는 전년 대비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하락한 반면, 중·소도시, 군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지역의 경우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2017년 대비 10.7%p 하락함

- 세대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60대 이상(8.7%p)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요약 표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전체 가입률			96.3	97.0	98.4	87.2	84.9	85.9	88.9	89.5	91.0
거주 지역별	대도시		99.1	97.9	99.0	85.5	87.3	86.1	92.0	91.8	90.5
	중·소도시		94.8	96.8	98.1	87.3	84.0	85.4	87.0	88.0	91.7
	군지역		88.7	93.6	96.9	95.8	77.0	87.7	82.0	85.6	89.6
세대주 연령	30대		99.5	99.0	99.7	85.6	87.4	83.6	94.6	91.9	93.7
	40대		99.8	99.6	99.6	88.8	90.2	87.6	95.3	95.3	97.6
	50대		98.3	98.4	99.7	86.3	91.0	92.6	91.7	94.0	96.3
	60대 이상		87.6	93.9	96.1	66.1	75.3	84.0	73.1	83.3	80.7
가구 소득	저소득		86.5	87.7	93.2	60.5	66.5	72.9	66.5	69.5	75.9
	중소득		99.0	98.8	99.6	85.4	87.2	86.8	94.2	92.3	93.7
	고소득		99.0	100.0	100.0	92.9	93.1	94.2	97.4	97.9	96.8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2018년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6.7%를 기록하였음
 - 생명보험의 개인 보험가입률은 79.5%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개인 보험가입률은 80.0%를 기록함

〈요약 표 3〉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명보험	79.3	78.9	73.4	78.2	79.5
손해보험	74.3	79.7	76.2	78.4	80.0
전체	93.8	96.7	93.8	94.5	96.7

- 전체적으로 30~50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개인 보험 가입률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대와 60대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음
 - 또한, 저소득 가구에 속한 개인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요약 표 4〉 개인별 보험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전체 가입률	93.8	94.5	96.7	73.4	78.2	79.5	76.2	78.4	80.0	
성별	남성	95.5	94.2	97.1	69.9	77.0	78.1	86.0	83.4	88.6
	여성	92.2	94.8	96.2	76.9	79.3	80.8	66.5	73.4	71.6
연령	20대	91.9	88.8	93.5	62.4	69.7	63.8	67.5	63.0	77.1
	30대	98.6	96.7	98.6	78.8	77.6	77.3	83.8	81.7	87.6
	40대	97.3	98.9	99.2	82.2	86.6	84.3	84.1	86.6	88.8
	50대	98.3	98.0	98.8	82.1	87.9	89.2	83.3	87.7	83.8
	60대 이상	84.5	90.1	93.7	61.5	69.1	79.3	62.9	71.5	66.6
직업	화이트칼라	98.9	97.6	98.3	78.3	85.7	82.6	87.5	82.6	87.3
	블루칼라	96.3	93.6	96.8	75.5	75.8	72.9	76.5	76.4	81.5
	농/임/어업	96.2	78.9	92.1	72.8	53.7	63.2	82.9	68.4	65.8
	자영업	77.8	98.2	98.6	44.4	86.1	85.7	66.7	85.6	86.0
	주부	89.9	95.6	96.4	77.9	75.8	83.1	63.7	75.1	66.4
	은퇴자	91.7	89.5	92.3	66.7	36.8	92.3	83.3	89.5	53.8
	학생	0.0	79.7	85.7	0.0	57.6	57.1	0.0	59.3	64.3
무직/기타	75.0	71.0	59.5	38.9	54.8	40.5	55.6	48.4	48.6	
학력	중졸 이하	66.3	81.1	88.7	43.6	55.6	68.5	40.6	57.7	60.1
	고졸	96.5	94.9	97.4	77.0	77.5	80.8	76.8	77.9	76.9
	대재 이상	97.6	96.9	97.7	78.2	83.7	80.5	83.9	83.3	86.5
결혼 여부	기혼	94.1	95.9	97.2	75.1	80.3	83.6	77.2	81.3	79.9
	미혼	92.8	89.2	94.9	67.2	69.9	63.6	72.4	67.3	80.4
가구 소득	저소득	83.5	85.5	90.8	57.1	62.6	69.0	59.8	61.3	66.2
	중소득	96.8	95.7	97.6	76.4	79.4	79.8	80.4	81.2	82.7
	고소득	96.8	98.4	99.2	81.4	86.8	86.9	81.7	84.3	84.7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의 가입률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실손의료보험(28.6%), 사망보험(21.4%) 등의 순임

〈요약 표 5〉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저축 성 보험	간병 보험	어린 이보 험	비가 입	
전체	(2,440)	60.0	28.6	21.4	17.5	8.9	7.1	4.1	2.5	1.6	20.5	
성별	남성	(1,214)	55.1	27.6	25.9	16.7	10.0	8.2	3.0	2.1	1.2	21.8
	여성	(1,226)	64.8	29.5	16.9	18.4	7.8	6.0	5.2	2.9	2.0	19.2
연령	20대	(398)	44.2	27.1	10.6	12.6	3.0	4.8	1.3	0.5	0.5	36.2
	30대	(428)	53.0	32.2	22.9	13.8	9.1	6.3	3.3	1.4	3.3	22.4
	40대	(502)	63.7	29.5	27.3	17.3	12.9	12.0	7.2	1.2	3.4	15.7
	50대	(493)	68.6	33.5	30.6	22.5	12.4	8.7	5.1	3.4	0.2	10.8
	60대 이상	(619)	65.1	22.3	15.0	19.5	6.5	3.9	3.2	4.8	0.6	20.7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55.9	27.0	22.4	11.8	8.8	6.3	4.2	2.2	0.9	20.2
	중·소도시	(1,174)	63.6	30.7	19.8	20.4	8.2	8.1	3.8	2.0	1.9	20.3
	군지역	(163)	61.3	23.9	25.2	35.6	14.7	4.9	5.5	8.6	3.7	23.9
직업	화이트칼라	(774)	58.7	34.4	28.3	19.8	10.5	11.5	4.7	1.9	2.3	17.3
	블루칼라	(632)	58.1	24.5	14.1	15.5	7.6	4.7	4.6	2.4	0.9	27.1
	농/임/어업	(38)	52.6	10.5	5.3	26.3	15.8	0.0	0.0	5.3	0.0	36.8
	자영업	(442)	63.8	28.5	28.7	15.6	11.5	8.6	4.5	3.6	0.5	14.3
	주부	(449)	65.7	26.9	15.8	18.0	6.0	3.1	3.1	2.2	2.4	16.9
	은퇴자	(26)	69.2	26.9	23.1	34.6	11.5	0.0	3.8	7.7	3.8	7.7
	학생	(42)	38.1	33.3	4.8	9.5	0.0	2.4	0.0	0.0	0.0	42.9
	무직/기타	(37)	32.4	10.8	13.5	10.8	2.7	2.7	0.0	2.7	0.0	59.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38)	64.5	28.6	20.4	18.6	8.3	4.4	4.0	2.6	0.8	19.2
	고졸	(1,167)	57.4	31.5	24.9	16.1	10.4	10.0	4.6	2.2	2.6	19.5
	대재 이상	(22)	54.5	13.6	9.1	22.7	4.5	22.7	0.0	0.0	0.0	31.8
	모름/무응답	(468)	58.8	18.4	8.8	12.4	3.0	2.1	2.8	2.8	0.2	31.0
가구 소득	저소득	(1,383)	59.8	29.8	22.2	17.2	8.4	7.0	3.5	2.6	2.0	20.1
	중소득	(589)	61.5	33.8	29.4	22.4	14.8	11.2	6.6	2.0	1.5	13.1
	고소득	(568)	19.4	33.3	28.0	19.4	23.1	9.2	7.2	1.2	1.2	13.2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남성(76.2%), 30대(78.7%)의 개인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자동차보험은 남성(70.0%), 40대(59.0%)의 개인 가입률이 높음

〈요약 표 6〉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장기손해 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비가입
전체		(2,440)	71.1	46.2	3.5	20.0
성별	남성	(1,214)	76.2	70.0	2.6	11.4
	여성	(1,226)	66.2	22.6	4.3	28.4
연령	20대	(398)	68.1	31.9	4.3	22.9
	30대	(428)	78.7	54.4	3.0	12.4
	40대	(502)	77.9	59.0	5.4	11.2
	50대	(493)	73.8	54.0	3.4	16.2
	60대 이상	(619)	60.3	33.1	1.8	33.4
지역규모	대도시	(1,103)	71.7	43.0	3.6	18.9
	중·소도시	(1,174)	70.6	47.9	3.2	21.1
	군지역	(163)	71.2	55.8	4.9	18.4
직업	화이트칼라	(774)	76.6	59.0	4.0	12.7
	블루칼라	(632)	72.9	48.7	3.5	18.5
	농/임/어업	(38)	60.5	34.2	2.6	34.2
	자영업	(442)	75.1	60.6	3.2	14.0
	주부	(449)	61.2	13.8	2.9	33.6
	은퇴자	(26)	50.0	38.5	0.0	46.2
	학생	(42)	54.8	7.1	7.1	35.7
	무직/기타	(37)	43.2	16.2	2.7	51.4
	중졸 이하	(213)	53.1	20.2	0.9	39.9
교육 수준	고졸	(1,038)	69.7	40.5	3.1	23.1
	대재 이상	(1,167)	75.7	55.7	4.4	13.5
	모름/무응답	(22)	77.3	63.6	0.0	22.7
가구 소득	저소득	(468)	59.2	30.1	1.9	33.8
	중소득	(1,383)	74.4	49.2	3.3	17.3
	고소득	(589)	73.0	52.0	5.1	15.3

-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의 경우 71.1%로 2017년(68.9%) 대비 2.2%p 상승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40대 이하는 상승한 반면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전년 대비 하락함
 -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중소득층에서는 개인 보험가입률이 상승한 반면, 고

소득층에서는 다소 하락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모든 학력에서 전년 대비 같거나 상승함

〈요약 표 7〉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2017	2018
가입률	68.9	71.1
연령	20대	68.1
	30대	78.7
	40대	77.9
	50대	73.8
	60대 이상	60.3
학력	중졸 이하	53.1
	고졸	69.7
	대재 이상	75.7
결혼	기혼	71.0
	미혼	71.7
가구 소득	저소득	59.2
	중소득	74.4
	고소득	73.0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²⁾은 93.3%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88.6%로 나타남
- 다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직판채널과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 비율이 2017년에 비하여 증가함
 - 생명보험의 경우 직판채널과 은행채널 가입률이 전년 대비 각각 1.8%p, 0.5%p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직판채널과 은행채널 가입률이 각각 0.9%p, 0.1%p 상승함

2) 전체 보험상품 가입자 중 각각 채널로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요약 표 8〉 생명보험/손해보험 가입 채널별 가입률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명 보험	대면	96.3	96.0	95.5	96.4	97.3	96.8	95.8	93.3
	직판	2.1	2.6	2.4	1.9	1.6	2.7	3.6	5.4
	은행	1.9	1.6	3.1	3.2	1.7	1.9	2.4	2.9
	기타	0.0	0.0	0.0	0.0	0.0	2.0	2.8	3.2
손해 보험	대면	95.5	92.7	93.2	94.2	94.0	95.2	90.8	88.6
	직판	4.7	6.2	8.0	9.1	7.8	8.0	13.3	14.2
	은행	0.5	1.1	1.9	1.3	0.3	0.9	1.0	1.1
	기타	0.0	0.0	0.0	0.0	0.0	2.6	4.3	4.1

- 주: 1) 상기 채널별 가입률은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 채널별 비중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동일)
 2) 판매채널의 구분은 <I. 조사의 개요> 참고
 3)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4)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3)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모든 생명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질병 보장보험이 10.3%로 가장 높았음
- 질병 보장보험의 뒤를 이어 간병보험 10.0%, 저축성보험 및 연금보험 6.9%, 재해 상해보험 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9〉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실손의료보험	28.6	94.5	5.5
질병 보장보험	60.0	89.7	10.3
재해 상해보험	17.5	93.9	6.1
간병보험	2.5	90.0	10.0
사망보험	21.4	96.5	3.5
저축성보험	4.1	93.1	6.9
연금보험	8.9	93.1	6.9
어린이보험	1.6	98.1	1.9
변액보험	7.1	98.6	1.4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은 34.4%, 상해보험 5.4%, 장기손해보험 4.6%로 나타남

〈요약 표 10〉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6.2	65.6	34.4
장기손해보험	71.1	95.4	4.6
상해보험	3.5	94.6	5.4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모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후자금 마련(12.9%), 저축수단(9.9%), 유산상속 목적(3.2%)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5.1%였으며, 목돈마련 저축수단(3.6%), 노후자금 마련(3.2%), 투자수단(1.7%) 등이 뒤를 이음

〈요약 표 11〉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7	2018	2017	2018
위험보장	96.0	93.4	98.0	95.1
노후자금 마련	15.7	12.9	1.7	3.2
목돈마련 저축수단	6.1	9.9	2.0	3.6
유산상속 목적	2.6	3.2	0.3	0.3
자산증식 투자수단	1.2	2.4	0.5	1.7
세제혜택 유리	1.0	0.5	1.0	1.1

4)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최근 3년 이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사 상품에 가입한 가입률³⁾은 생명보험의 경우 68.8%, 손해보험의 경우 77.3%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 다음으로 중소형사 26.7%, 외국사 10.7%, 공제/기타 2.7%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사 22.9%, 외국사/직판사 4.6%, 공제/기타 0.9% 순임

〈요약 표 12〉 최근 3년 이내 가입자의 보험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고려 사항 \ 선호 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형사	75.8	73.6	62.9	65.4	68.8	82.6	82.3	77.0	79.9	77.3
중·소형사	21.8	21.8	23.2	27.7	26.7	17.5	18.7	20.1	19.1	22.9
외국사/직판사	9.8	8.7	9.8	9.6	10.7	6.0	3.6	1.8	5.1	4.6
공제/기타	5.9	4.8	4.0	2.8	2.7	1.0	2.0	1.1	0.7	0.9

주: 3년 이내 보험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회사군별 가입률을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상품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고, 브랜드 신뢰성(18.2%), 가격 경쟁력(17.3%), 서비스 지원(12.0%) 순으로 조사됨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에도 보험소비자들은 상품 경쟁력(36.1%)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19.4%)과 가격 경쟁력(17.4%), 서비스 지원(13.4%)이 뒤를 이음

3) 3년 이내 보험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회사군별 가입률을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요약 표 13〉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고려 사항	선호 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상품 경쟁력		48.9	48.0	45.8	44.0	38.2	45.4	46.9	40.8	42.7	36.1
브랜드 신뢰성		17.2	15.6	22.8	20.7	18.2	18.7	16.6	21.6	19.7	19.4
서비스 지원		15.1	14.3	11.2	13.2	12.0	17.5	16.4	14.5	12.7	13.4
가격 경쟁력		10.4	11.0	11.2	13.8	17.3	10.4	12.8	12.3	16.3	17.4
개인적 관계		4.3	4.2	4.4	2.9	5.0	4.7	2.8	5.4	3.8	4.7
회사 규모		2.7	2.7	2.2	1.9	4.1	1.8	1.8	2.2	2.1	2.7
설계사 전문성		0.7	1.4	1.1	0.9	1.7	0.5	1.0	1.3	0.7	0.9
경영 철학		0.3	0.6	0.3	0.7	1.2	-	0.6	1.2	0.7	0.6
과거 거래 경험		0.3	1.2	0.3	1.0	1.1	0.5	0.6	0.5	1.0	2.6
계약 편의성		0.2	1.1	0.8	0.9	1.2	0.5	0.6	0.3	0.7	2.0

주: 상품 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다.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1) 금융상품과 인터넷

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 및 의사소통 매체

- 평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로는 '인터넷'이 45.0%로 가장 높았고, '부모, 친구 등 주위사람'(34.3%), '텔레비전/라디오'(19.3%), '신문'(1.4%)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4〉 평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인터넷	부모, 친구 등 주위사람	텔레비전/라디오	신문
전체	(2,440)	45.0	34.3	19.3	1.4

-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 만나서 대화'(32.1%), '전화'(23.2%), '이메일'(0.6%)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5〉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직접 만나서 대화	전화	이메일
전체	(2,440)	44.1	32.1	23.2	0.6

나) 소비재, 금융상품 등 구입 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

- 소비재, 금융상품 등을 구입할 때 구매결정을 위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주위 사람의 추천'이 58.5%로 가장 많았고, '구매 사이트에 남긴 사용자들의 평점 및 후기'(16.1%),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한 지인들의 추천'(15.9%), '해당 업체의 광고'(9.5%)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6〉 소비재, 금융상품 등 구입 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주위 사람의 추천	구매 사이트에 남긴 사용자들의 평점 및 후기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한 지인들의 추천	해당 업체의 광고
전체	(2,440)	58.5	16.1	15.9	9.5

다) 인공지능과 대화/채팅 경험

- 인공지능과 대화/채팅을 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적은 없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22.5%), '영상물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채팅하는 것을 본 적이 있

다(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7〉 인공지능과 대화/채팅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인공지능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적은 없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영상물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채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등으로 직접 대화/채팅해 보았다
전체	(2,440)	45.6	22.5	17.8	14.1

라) 인터넷 혹은 모바일 등에서 상품 등을 구입한 경험

-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통해 소비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7%로 ‘(경험이) 없다’(47.3%)에 비해 5.4%p 높게 나타남
-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이) 있다’가 33.3%로 ‘(경험이) 없다’(66.7%)에 비해 33.4%p 낮게 나타남
- 인터넷 혹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이) 있다’가 16.2%로 ‘(경험이) 없다’(83.8%)에 비해 67.6%p 낮게 나타남

〈요약 표 18〉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구매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소비재	(2,440)	52.7	47.3
서비스	(2,440)	33.3	66.7
금융상품	(2,440)	16.2	83.8

마)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 및 가입 이유

-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를 살펴본 결과, '예·적금'이 4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43.2%), '주식 혹은 펀드'(21.7%)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9〉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적금	보험	주식 혹은 펀드
전체	(396)	49.7	43.2	21.7

-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 혹은 수수료가 저렴해서(예·적금의 경우 금리가 높아서)'가 51.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편리해서'(41.9%), '금융기관 종사자 혹은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6.8%)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20〉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료 혹은 수수료가 저렴해서(예·적금의 경우 금리가 높아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편리해서	금융기관 종사자 혹은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전체	(396)	51.3	41.9	6.8

바) 인터넷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이해 정도

-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 살펴본 결과, '이해했다(읽고 잘 이해했다+읽고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는 응답이 90.4%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이해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21〉 인터넷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이해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읽고 잘 이해했다	읽고 대략적으로 이해했다	읽었으나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읽지 않고 상품가입을 위해 동의하였다
전체	(396)	29.5	60.9	6.3	3.3

2) 금융상품과 인공지능

가) 인공지능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제공 시 신뢰 여부 및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 인공지능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을 대화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신뢰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이 36.0%로 '신뢰하기 어렵다'(64.0%)에 비해 28.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22〉 인공지능의 설명 신뢰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신뢰한다	신뢰하기 어렵다
전체	(2,440)	36.0	64.0

-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설명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은 신뢰하지만 왠지 믿기 어렵다'는 응답이 66.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33.2%),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23〉 인공지능의 설명 신뢰 못하는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은 신뢰하지만 왠지 믿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	기타
전체	(1,561)	66.6	33.2	0.2

나) 금융상품 가입 시 상담 희망 채널 및 상담 받고 싶은 이유

- 금융상품 가입 시,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 채널을 살펴본 결과, '은행, 증권, 보험설계사 등 금융회사 관련자'가 7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위사람'(13.3%), '인공지능'(10.5%),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24〉 금융상품 가입 고려 시, 상담 받고 싶은 채널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금융회사 관련자	주위사람	인공지능	기타
전체	(2,440)	76.1	13.3	10.5	0.2

- 금융상품 가입 시 상담받고 싶은 채널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금융회사 관련자'의 경우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것 같아서'가 26.7%로 가장 많았음
- '인공지능'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가 29.4%로 가장 많았고, '주위사람'을 선택한 응답자는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42.8%)를 가장 많이 꼽음

〈요약 표 25〉 해당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것 같아서	상담의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금융회사 관련자	(1,856)	26.7	24.2	23.9	19.7	5.4
인공지능	(255)	23.1	18.8	23.5	5.1	29.4
주위사람	(325)	12.3	16.0	42.8	25.8	3.1

다) 인공지능의 금융상품 가입 권유 시 가입 의향

- 향후 일상적인 삶을 관리해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여 개인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할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8.8%로 '가입을 고려하지 않겠다'(33.8%)에 비해 5.0%p 낮게 나타남

〈요약 표 26〉 인공지능 권유 상품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고려	보통	가입 미고려
전체	(2,440)	28.8	37.5	33.8

라. 사이버보험 관련

1)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에 따른 피해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1.0%의 응답자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사이버 폭력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1.3%의 응답자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요약 표 27〉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사이버 금융범죄	(2,440)	1.0	99.0
사이버 폭력	(2,440)	1.3	98.7

2) 본인이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 본인이 사이버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낮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42.2%로 '높은 편이다'(19.1%)에 비해 23.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낮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49.1%로 '높은 편이다'(12.8%)에 비해 4배 정도 높게 나타남

〈요약 표 28〉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 가능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사이버 금융범죄	(2,440)	19.1	38.8	42.2
사이버 폭력	(2,440)	12.8	38.1	49.1

3)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 여부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99.5%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가 99.8%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29〉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사이버 금융범죄	(2,440)	0.5	99.5
사이버 폭력	(2,440)	0.2	99.8

4)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 인지 여부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판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아니오'가 91.6%로 약 10명 중 9명 이상이 상품 판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사실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가 94.7%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상품 판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30〉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사이버 금융범죄	(2,429)	8.4	91.6
사이버 폭력	(2,435)	5.3	94.7

5)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 의향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9.5%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4.3%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31〉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사이버 금융범죄	(2,224)	9.5	90.5
사이버 폭력	(2,307)	4.3	95.7

6)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선호 상품 유형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 시 희망하는 상품 유형을 살펴본 결과,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형 보험에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의 종합 보험상품’이 52.1%,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만을 보장하는 단독형 보험상품’이 47.9%로 나타남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 상품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형 보험에 사이버 폭력 피해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의 보험상품'이 65.7%, '사이버 폭력 피해만을 보장하는 단독형 보험상품'이 34.3%로 나타남

〈요약 표 32〉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보장 선호 상품 유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단독보장	종합보장
사이버 금융범죄	(211)	47.9	52.1
사이버 폭력	(99)	34.3	65.7

7)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한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 시, 자신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낮은 편이다'는 응답이 38.0%로 '높은 편이다'(18.8%)는 응답에 비해 19.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33〉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한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전체	(2,440)	18.8	43.3	38.0

마. 자연재해보험

1) 자연재해보험

- 향후 자연재해보험을 가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가입)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9.6%로, '(가입) 계획이 있다'(19.3%)에 비해 30.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할 의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없다’는 응답이 49.5%로 ‘있다’(21.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상 범위에 대해 신뢰할만한지 살펴본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2%로, ‘신뢰한다’(27.7%)는 응답에 비해 10.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정직하고 진실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보험회사의 보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살펴본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로, ‘신뢰한다’(26.8%)는 응답에 비해 12.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안으로 적절한지 살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8.2%로, ‘적절하지 않다’(26.8%)는 응답에 비해 11.4%p 높게 나타남
-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안으로 충분한지 물어본 결과,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2.0%로, ‘충분하다’(31.5%)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는지 문의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5.0%로, ‘그렇지 않다’(29.5%)에 비해 5.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 손해에 대해 걱정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1.9%로, ‘그렇지 않다’(28.5%)에 비해 3.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34〉 자연재해보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연재해보험 가입 계획 있음	(2,440)	49.6	31.0	19.3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도 있음	(2,440)	49.5	29.5	21.0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신뢰함	(2,440)	38.2	34.1	27.7
자연재해보험의 서비스 제공 진실함	(2,440)	39.0	34.2	26.8
자연재해 대책으로서 부적절함	(2,440)	38.2	35.0	26.8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불충분함	(2,440)	31.5	36.4	32.0
재산상 피해 염려함	(2,440)	29.5	35.5	35.0
대처 능력 부재에 따른 손해 염려함	(2,440)	28.5	39.6	31.9

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실태

1) 최근 6개월 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 상태 및 의료기관 방문 경험

- 최근 6개월 동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77.3%로, ‘없다’(22.7%)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최근 6개월간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37.8%로 ‘없다’(62.2%)에 비해 24.4%p 낮게 나타남

〈요약 표 35〉 최근 6개월 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 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가입 상태	(2,440)	77.3	22.7
의료기관 방문경험	(1,886)	37.8	62.2

2) 의료기관 방문 횟수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목적별 방문 횟수를 살펴본 결과, 입원의 경우 평균 0.2건, 외래진료(1.6건), 약국(2.6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36〉 의료기관 방문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평균: (건)
입원	(713)	86.3	10.4	2.9	0.4	-	-	0.2
외래진료	(1,205)	1.5	69.8	14.0	6.8	2.7	5.2	1.6
약국	(713)	6.0	19.8	34.5	18.2	7.9	13.6	2.6

3)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

- 의료기관 혹은 약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 진료(약제)비를 지급한 후 보험 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8.1%로, '경험이 없다'(61.9%)에 비해 23.8%p 낮게 나타남

〈요약 표 37〉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713)	38.1	61.9

4)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 최근 6개월 내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자를 대상으로 목적별 청구건수를 살펴본 결과, 입원은 평균 0.3건, 외래진료는 2.4건, 그리고 약국은 1.7건으로 나타남

〈요약 표 38〉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평균: (건)
입원	(272)	74.3	23.9	1.8	-	-	-	0.3
외래진료	(272)	7.4	32.4	27.6	14.0	7.4	11.4	2.4
약국	(272)	33.1	20.2	22.1	11.4	4.4	8.8	1.7

5)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이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을 살펴본 결과, ‘보험설계사를 통해’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22.4%), ‘팩스’(22.1%), ‘보험회사 직접 방문’(13.6%), ‘기타 대리인’(8.5%)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39〉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	팩스	보험회사 직접 방문	기타 대리인
전체	(272)	52.2	22.4	22.1	13.6	8.5

6)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입원

- 최근 6개월간 입원 관련 실손의료보험에 미청구한 금액으로 ‘10만 원 이상’이 33.3%, ‘1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이 33.3%, ‘1만 원 미만’ 또한 33.3%로 나타남
- 최근 6개월간 입원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의 평균은 334,833.3원으로 나타남(중복 응답 중 가장 큰 금액 기준)

〈요약 표 40〉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입원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평균: (원)
첫 번째 큰 금액	(3)	33.3	33.3	33.3	334,833.3

7)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

- 최근 6개월간 외래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에 미청구한 금액으로 '5천 원 이상~1만 원 미만'이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천 원 미만'(25.1%), '1만 원 이상~2만 원 미만'(17.4%), '2만 원 이상'(7.1%) 순으로 나타남
- 최근 6개월간 외래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의 평균은 9,339.9원으로 나타남(중복 응답 중 가장 큰 금액 기준)

〈요약 표 41〉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	평균: (원)
첫 번째 큰 금액	(351)	25.1	50.4	17.4	7.1	9,339.9

8)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청구

- 최근 6개월간 약 처방 관련 실손의료보험에 미청구한 금액으로 '5천 원 미만'이 6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천 원 이상~1만 원 미만'(27.0%), '1만 원 이상~2만 원 미만'(4.7%), '2만 원 이상'(1.7%) 순으로 나타남
- 최근 6개월간 약 처방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의 평균은 4,867.9원으로 나타남(중복 응답 중 가장 큰 금액 기준)

〈요약 표 42〉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청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2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	평균: (원)
첫 번째 큰 금액	(344)	66.6	27.0	4.7	1.7	4,867.9

9)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금액이 소액이어서’라는 응답이 90.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팩스 청구 혹은 보험회사 직접방문 청구 등이 번거로워서’(5.4%), ‘시간이 없어서’(2.2%), ‘진단서 발급비용 등 비용이 지출되어서’(1.9%)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3〉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금액이 소액이어서	팩스 청구 혹은 보험회사 직접방문 청구 등이 번거로워서	시간이 없어서	진단서 발급비용 등 비용이 지출되어서
전체	(372)	90.6	5.4	2.2	1.9

10) 단체보험 가입 여부 및 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 단체보험에 가입 여부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15.2%로 ‘아니다’(84.8%)에 비해 69.6% 낮게 나타남
-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응답자 중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1.1%로 ‘아니다’(18.9%)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44〉 단체보험/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단체보험 가입 여부	(2,440)	15.2	84.8
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371)	81.1	18.9

사. 건강생활서비스

1)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규칙적 운동

가) 최근 6개월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적어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 유무

- 최근 6개월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적어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없다'가 48.6%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있다'(29.7%), '직업적으로 혹은 건강을 위하여 거의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21.7%)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5〉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없다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있다	직업적으로 혹은 건강을 위하여 거의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전체	(1,614)	48.6	29.7	21.7

나) 최근 6개월 동안 규칙적 운동 실천 방법

-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운동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서 운동함'이 6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간 헬스클럽 등 참여'(24.5%), '의료기관 방문'(5.9%), '보건소 프로그램'(3.7%), '모바일 앱 등 이용'(2.8%),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프로그램'(2.1%)의 순서로 나타남

〈요약 표 46〉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실천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서 운동함	민간 헬스클럽 등 참여	의료기관 방문	보건소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프로그램
전체	(829)	61.0	24.5	5.9	3.7	2.8	2.1

2)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식생활 습관

가) 최근 6개월 동안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유무

- 최근 6개월간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없다'가 71.0%로 '있다'(29.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요약 표 47〉 최근 6개월간 식생활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1,614)	71.0	29.0

나)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 실천 방법

-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서 실천'이 61.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민간 프로그램에 참여'(16.7%),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따름'(8.8%), '모바일 앱 등을 이용'(7.5%),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2.8%),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프로그램 이용'(2.6%)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8〉 최근 6개월간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 실천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서 실천	민간 프로그램에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따름	모바일 앱 등을 이용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프로그램
전체	(468)	61.8	16.7	8.8	7.5	2.8	2.6

3)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흡연

가) 최근 6개월 동안 1개비 이상 흡연 경험

- 최근 6개월간 1개비 이상 흡연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험없음’이 70.9로 ‘경험있음’(29.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49〉 최근 6개월간 흡연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1,614)	70.9	29.1

나) 최근 6개월 동안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 경험

- 최근 6개월간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없다’가 80.9%로 ‘있다’(19.1%)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50〉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470)	80.9	19.1

다) 최근 6개월 동안 금연 시도 방법

-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금연 시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혼자만의 의지로 시도’가 7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기관을 방문(금연 처방)’(12.2%), ‘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이용’(8.9%), ‘모바일 앱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5.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프로그램 참여’(3.3%)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1〉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만의 의지로 시도	의료기관을 방문 (금연처방)	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이용	모바일 앱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프로그램 참여
전체	(90)	70.0	12.2	8.9	5.6	3.3

4)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음주

가) 최근 6개월 동안 평균 일주일에 1번 이상 1잔 이상의 음주 경험

- 최근 6개월간 평균 일주일에 1번 이상 1잔 이상의 음주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57.4%로 ‘아니다’(42.6%)에 비해 14.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52〉 최근 6개월간 음주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614)	42.6	57.4

나) 최근 6개월 동안 1달 이상 금주 혹은 절주 경험

- 최근 6개월 동안 1달 이상 금주 혹은 절주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없다’가 91.9%로 약 10명 중 9명은 금주 혹은 절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53〉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927)	91.9	8.1

다) 최근 6개월 동안 금주 혹은 절주 실천 방법

- 금주 혹은 절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만의 의지로 실천’이 58.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에 따름’(20.0%),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이용’(9.3%),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6.7%),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실천’(5.3%)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4〉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실천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만의 의지로 실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에 따름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이용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실천
전체	(75)	58.7	20.0	9.3	6.7	5.3

5)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스트레스

가) 최근 6개월 동안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 최근 6개월간 일상생활 속에서 소화불량, 두통, 수면장애와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징후 때문에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복용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가 75.2%로 ‘있다’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55〉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련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1,614)	75.2	24.8

나) 최근 6개월 동안 스트레스 관리 경험

- 스트레스 관련 의약품 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없다’가 81.8%로 ‘있다’(18.2%)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56〉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401)	81.8	18.2

다) 최근 6개월 동안 스트레스 관리 방법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이용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만의 의지로 실천’이 65.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에 따름’(12.3%),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실천’(9.6%),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이용’(6.8%),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5.5%)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7〉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만의 의지로 실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에 따름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이용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
전체	(73)	65.8	12.3	9.6	6.8	5.5

6)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가) 현재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63.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8.3%), '30일 이내에 있다'(13.6%),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4.1%)의 순으로 나타남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55.0%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4.7%), '30일 이내에 있다'(14.7%),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5.5%)의 순으로 나타남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71.1%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8.9%), '30일 이내에 있다'(8.1%),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1.9%)의 순으로 나타남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70.2%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9.6%), '30일 이내에 있다'(9.4%),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0.8%)의 순으로 나타남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52.6%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4%), '30일 이내에 있다'(13.0%),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5.0%)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8〉 현재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규칙적 운동하기	(785)	63.9	18.3	13.6	4.1
식생활 개선	(1,614)	55.0	24.7	14.7	5.5
금연	(470)	71.1	18.9	8.1	1.9
금주 혹은 절주	(927)	70.2	19.6	9.4	0.8
스트레스 관리	(401)	52.6	29.4	13.0	5.0

나)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52.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7.9%), '30일 이내에 있다'(15.0%), '즉시 하겠다'(4.7%)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2.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9%), '30일 이내에 있다'(19.1%), '즉시 하겠다'(8.1%)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60.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3.8%), '30일 이내에 있다'(12.6%), '즉시 하겠다'(3.2%)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56.0%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6%), '30일 이내에 있다'(10.4%), '즉시 하겠다'(4.1%)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9.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6.2%), '30일 이내에 있다'(16.5%), '즉시 하겠다'(8.0%)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9〉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규칙적 운동하기	(785)	52.4	27.9	15.0	4.7
식생활 개선	(1,614)	42.9	29.9	19.1	8.1
금연	(470)	60.4	23.8	12.6	3.2
금주 혹은 절주	(927)	56.0	29.6	10.4	4.1
스트레스 관리	(401)	39.4	36.2	16.5	8.0

다)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3.3%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7.5%), '30일 이내에 있다'(20.9%), '즉시 하겠다'(8.3%)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4.9%

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7%), '30일 이내에 있다'(20.8%), '즉시 하겠다'(12.5%)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7.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8.5%), '30일 이내에 있다'(15.5%), '즉시 하겠다'(8.1%)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9.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6.4%), '30일 이내에 있다'(15.6%), '즉시 하겠다'(8.5%)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6.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7%), '30일 이내에 있다'(21.4%), '즉시 하겠다'(10.5%)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0〉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규칙적 운동하기	(785)	43.3	27.5	20.9	8.3
식생활 개선	(1,614)	34.9	31.7	20.8	12.5
금연	(470)	47.9	28.5	15.5	8.1
금주 혹은 절주	(927)	49.4	26.4	15.6	8.5
스트레스 관리	(401)	36.4	31.7	21.4	10.5

라)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1.1%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8.9%), '30일 이내에 있다'(19.6%), '즉시 하겠다'(10.3%)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3.5%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0.7%), '30일 이내에 있다'(23.2%), '즉시 하겠다'(12.6%)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4.7%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0.2%), '30일 이내에 있다'(14.5%), '즉시 하겠다'(10.6%)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5.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8.8%), '30일 이내에 있다'(15.9%), '즉시 하겠다'(9.9%)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2.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0.7%), '30일 이내에 있다'(19.0%), '즉시 하겠다'(17.5%)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1〉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규칙적 운동하기	(785)	41.1	28.9	19.6	10.3
식생활 개선	(1,614)	33.5	30.7	23.2	12.6
금연	(470)	44.7	30.2	14.5	10.6
금주 혹은 절주	(927)	45.4	28.8	15.9	9.9
스트레스 관리	(401)	32.9	30.7	19.0	17.5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받은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72.0%로 10명 중 약 7명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6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614)	28.0	72.0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차 검진 참여 여부 및 사후관리 서비스 받은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차 검진을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가 31.2%로 10명 중 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14.7%로 약 10명 중 1명만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6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차 검진 참여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2차 검진 참여 여부	(1,162)	68.8	31.2
사후관리 서비스 받은 경험	(1,162)	85.3	14.7

9)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21.3%로 10명 중 약 2명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6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162)	78.7	21.3

10)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와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가 33.3%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 있다'(23.9%), '즉시 하겠다'(9.6%)의 순으로 나타남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1.3%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3%), '30일 이내에 있다'(27.0%), '즉시 하겠다'(12.4%)의 순으로 나타남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0.6%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2.9%), '30일 이내에 있다'(18.5%), '즉시 하겠다'(7.9%)의 순으로 나타남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9.6%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6.1%), '30일 이내에 있다'(16.0%), '즉시 하겠다'(8.4%)의 순으로 나타남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횡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가 32.7%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에는 없다'(26.2%), '30일 이내에 있다'(22.9%), '즉시 하겠다'(18.2%)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5〉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규칙적 운동하기	(553)	33.3	33.3	23.9	9.6
식생활 개선	(1,162)	31.3	29.3	27.0	12.4
금연	(340)	40.6	32.9	18.5	7.9
금주 혹은 절주	(670)	39.6	36.1	16.0	8.4
스트레스 관리	(275)	26.2	32.7	22.9	18.2

11) 모바일 혹은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생체 정보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등의 개입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되는지 여부

-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의 생체 정보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등에 개입하는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가 55.4%로 '아니다'(44.6%)에 비해 10.8%p 높게 나타남

〈요약 표 66〉 생체 정보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등의 개입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되는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614)	44.6	55.4

아. 노후생활 준비 실태

1) 현재 건강상태

-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건강하다'(매우 건강함+건강함)는 응답이 7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21.8%), '건강하지 않다'(전혀 건강하지 않음+건강하지 않음, 3.6%)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7〉 현재 건강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건강	보통	건강하지 않음
전체	(2,440)	74.5	21.8	3.6

2) 노후 준비 여부

-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54.1%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45.9%)는 응답에 비해 높았음

〈요약 표 68〉 노후 준비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하고있다	하고있지 않다
전체	(2,440)	54.1	45.9

가) 노후 준비 방법 및 예상하는 가장 큰 수입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으로는 '공적연금'(44.2%)을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은행예금'(22.0%), '부동산'(11.1%), '연금저축'(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 중 가장 큰 수입원으로 예상하는 상품으로는 '공적연금'이 36.8%로 가장 높았고, '은행 예금'(20.4%), 부동산(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9〉 노후 준비 방법(1순위) 및 예상하는 가장 큰 수입원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공적 연금	은행 예금	부동 산	연금 저축	퇴직 연금· 퇴직 금	보험	주식 및 채권	일반 펀드
노후 준비 방법	(1,320)	44.2	22.0	11.1	8.4	8.1	3.6	1.7	1.0
예상하는 가장 큰 수입원	(1,320)	36.8	20.4	16.7	9.5	8.7	3.7	3.1	1.1

나)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 노후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24.4%), ‘관심이 부족해서’(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70〉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더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낮아서	관심이 부족해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주택마련 및 부채 상환을 위해서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기타
전체	(1,120)	38.8	24.4	13.7	11.9	8.5	1.3	1.3	0.3

3) 부모 부양 의향 및 본인 자식의 부모 부양에 대한 기대

가) 향후 본인 부모 부양 의향

- 향후 본인의 부모를 부양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음’은 33.3%, ‘없음’ 또한 33.3%로 나타남

〈요약 표 71〉 향후 본인 부모 부양 의향 및 본인이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본인 부모 부양	(2,440)	33.3	33.4	33.3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	(2,440)	7.3	29.0	63.8

나) 향후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도

- 향후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지 살펴본 결과, ‘기대한다’는 응답은 4.9%

로 기대하지 않음(70.0%)에 비해 특히 낮았음

〈요약 표 72〉 향후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기대함	보통	기대하지 않음
전체	(2,440)	4.9	25.2	70.0

자. 연금 가입 상태 및 가입 니즈

1) 연금 가입 실태

가) 개인연금 가입 여부

-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22.7%로 비가입(7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요약 표 73〉 개인연금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비가입
전체	(2,440)	22.7	77.3

나)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는 납입중(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입완료(연금 대기중)'(12.6%), 연금수령(2.0%) 순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납입중 상태는 30대(96.7%)와 40대(93.0%), 화이트칼라(9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납입중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74〉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납입중	납입완료 (연금대기중)	연금수령
전체	(555)	85.4	12.6	2.0

다)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 개인연금의 현재 가입 기간은 '10년 초과'가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9~10년'(21.3%), '5~6년'(17.5%), '3~4년'(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75〉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이하	10년 초과
전체	(555)	4.3	7.0	12.6	17.5	10.3	21.3	27.0

라) 개인연금 납입 방법

- 개인연금의 납입방법으로는 월납이 98.6%로 일시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요약 표 76〉 개인연금 납입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월납	일시납
전체	(555)	98.6	1.4

마) 개인연금 수령 방법

- 개인연금의 수령 방법은 '연금수령'(73.7%), '연금+일시금'(22.7%), '일시금(3.6%)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77〉 개인연금 수령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수령	연금+일시금	일시금
전체	(555)	73.7	22.7	3.6

바)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생명보험회사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요약 표 78〉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생명 보험회사	손해 보험회사	은행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잘 모름
전체	(555)	63.4	15.9	8.8	5.0	3.6	3.2

사)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개인연금의 가입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만족(71.5%), 보통(24.9%), 불만족(3.6%)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79〉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전체	(555)	0.2	3.4	24.9	63.6	7.9	3.76

아)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로는 '수익률이 낮아서'(45.0%),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35.0%), '수수료가 높아서'(20.0%)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80〉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수익률이 낮아서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수수료가 높아서
전체	(20)	45.0	35.0	20.0

자)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42.8%),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19.5%), ‘다른 금융상품 및 부동산 자산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81〉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금융상품 및 부동산 자산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수익률이 낮을 것 같아서	가입 필요성을 못 느껴서	세제 혜택이 부족해서	가입 시기를 놓쳐서	기타
전체	(1,885)	42.8	19.5	16.1	8.0	7.7	3.7	2.2	0.1

차)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을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7.3%로 ‘없다’(72.7%)에 비해 낮게 나타남

〈요약 표 82〉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885)	27.3	72.7

2) 퇴직연금

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 응답)

-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68.7%로 가장 많았고, 'DB형'(20.7%), DC형(9.5%), IRP(2.2%)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83〉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 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DB형	DC형	IRP	없음
전체	(1,915)	20.7	9.5	2.2	68.7

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의향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17.5%)로 '없다'(8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요약 표 84〉 IRP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872)	17.5	82.5

다)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은퇴시점이 다가 왔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살펴 본 결과, 연금(74.9%), 일시금(25.1%)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85〉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	일시금
전체	(1,915)	74.9	25.1

라)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을 살펴본 결과, 종신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20년(18.0%), 30년(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86〉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년	10년	20년	30년	종신
전체	(1,435)	1.0	8.7	18.0	12.7	59.6

마) 퇴직연금 연금+일시금으로 수령 시 선호하는 연금 비중

- 퇴직연금을 연금과 일시금 혼합하여 수령 시 선호하는 연금비율을 살펴 본 결과, '0%(전액 일시금)'이 31.0%로 가장 많았고, '연금비율 40%'(21.9%), '연금비율 60%'(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87〉 퇴직연금 연금+일시금으로 수령 시 선호하는 연금 비중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 (전액 일시금)	20%	40%	60%	80%	100% (전액 연금)
전체	(480)	31.0	12.7	21.9	16.7	5.2	12.5

바) 퇴직연금 수익률 인지 여부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가 25.1%, '모른다'가 74.9%로 나타남

〈요약 표 88〉 퇴직연금 수익률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183)	25.1	74.9

사) 지난 1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

- 지난 1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3~4%'가 30.4%로 가장 많았고, '4~5%'(26.1%), '2~3%'(23.9%), '1~2%'(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89〉 지난 1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 이하	0~1%	1~2%	2~3%	3~4%	4~5%
전체	(46)	4.3	2.2	13.0	23.9	30.4	26.1

3) 종신보험

가) 종신보험 가입 여부

- 종신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입'이 22.8%로 나타남

〈요약 표 90〉 종신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비가입
전체	(2,440)	22.8	77.2

나)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인지도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가 30.5%로 나타남

〈요약 표 91〉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40)	30.5	69.5

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가 35.4%, ‘아니오’가 64.6%로 나타남

〈요약 표 92〉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40)	35.4	64.6

라) 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후소득 수준’이 50.2%로 가장 높았고, ‘기대수명 증가’(28.3%), ‘시중금리 변동’(12.4%), ‘유산 상속 필요성’(9.1%)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93〉 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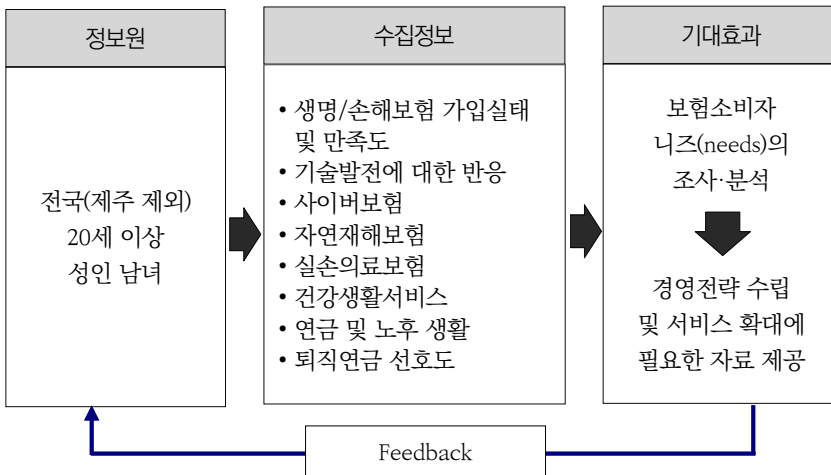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노후소득 수준	기대수명 증가	시중금리 변동	유산상속 필요성
전체	(2,440)	50.2	28.3	12.4	9.1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보험소비자의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본적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등을 조사함
 - 또한,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함
 - 주요 이슈로는 기술발전에 대한 소비자 반응(AI 등), 사이버보험, 자연재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상품 등을 설문 내용에 포함함

〈그림 I-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2. 주요 조사항목

-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가입률(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개인별)
 - 가입한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상품 만족도(개인별)
 - 가입한 생명/자동차보험회사 제공서비스 만족도(개인별)
 - 보험금 지급 항목(가구당)

- 향후 생명/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 가입한 보험회사 변경 의향(생명/자동차보험)
 -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생명/손해보험)
 - 향후 1년 내 선호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생명/손해보험)
 -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생명/손해보험)

-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 평소 필요 정보 수집 경로 및 의사소통 매체
 - 인공지능과 대화/채팅 경험
 - 온/오프라인 소비재, 금융상품, 서비스 등의 구매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경로
 - 온/오프라인 소비재, 금융상품, 서비스 등 구입 경험 및 금융상품 가입 이유
 - 인공지능을 통한 금융상품 설명 및 상담에 대한 태도/가입 의향

- 사이버보험
 -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및 피해자가 될 가능성
 -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 관련 보험상품 가입/인지여부
 -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 관련 보험상품 가입 의향 및 희망 가입경로

■ 자연재해보험

-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서비스 신뢰도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의료기관 혹은 약국 방문 경험
- 의료기관 혹은 약국 방문에 대한 진료비 청구 또는 미청구 경험/금액
- 단체보험/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 건강생활서비스

- 규칙적 운동/식생활 습관 개선/금연/음주/스트레스 관리 여부
- 생활습관 변화 의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 여부

■ 노후생활 준비 실태,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

- 노후 준비 여부 및 준비 방법
- 노후 준비를 하지 못(안)하는 이유
- 향후 부모 부양 의향, 자녀 부양 의향 및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 정도
- 개인연금의 가입 여부/가입 상태/가입 기간/납입방법/향후 수령방법/가입 금융회사/가입 만족도/불만족 이유
- 개인연금 가입 못(안)한 이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개인형 IRP 가입 의향
- 선호 연금 수령 방법(연금·일시금) 및 수령 기간
- 연금과 일시금 혼합 수령 시 선호 연금 비중

■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 종신보험 가입 여부
-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인지 여부 및 전환 의향
- 종신보험 연금으로 전환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3. 조사방법**■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 크기

- 총 2,44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 추출방법

-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자치부, 2018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0\%$

■ 조사기간

- 2018년 5월 25일~2018년 7월 21일(약 9주간)

■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센터

4. 표본의 특성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1〉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 체		(2,440)	100.0
성별	남성	(1,214)	49.8
	여성	(1,226)	50.2
응답자 연령별	20대	(398)	16.3
	30대	(428)	17.5
	40대	(502)	20.6
	50대	(493)	20.2
	60대 이상	(619)	25.4
지역 규모별	대도시	(1,103)	45.2
	중·소도시	(1,174)	48.1
	군지역	(163)	6.7
응답자 직업별	화이트칼라	(774)	31.7
	블루칼라	(632)	25.9
	농/임/어업	(38)	1.6
	자영업	(442)	18.1
	주부	(449)	18.4
	은퇴자	(26)	1.1
	학생	(42)	1.7
응답자 교육수준별	무직/기타	(37)	1.5
	중졸 이하	(213)	8.7
	고졸	(1,038)	42.5
	대재 이상	(1,167)	47.8
가구연간 소득 수준별	모름/무응답	(22)	0.9
	저소득(3,000만 원 미만)	(468)	19.2
	중소득(3,000~6,000만 원 미만)	(1,383)	56.7
	고소득(6,000만 원 이상)	(589)	24.1

주: 응답자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 세대주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와 같이 30표본 이하의 경우 분석결과와 활용 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5. 구분 기준

■ 직업분류

- 화이트칼라: 경영/관리,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
-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
- 자영업: 자영업
-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
- 주부: 주부
- 은퇴자: 은퇴자

■ 보험회사 그룹 구분

○ 생명보험회사

- 대형사: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3개사)
- 국내 중·소형사: 흥국생명,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신한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DGB생명(구 우리아비바, 구 LIG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구 PCA생명), 하나생명(구 하나HSBC),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 KB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IBK연금보험, NH농협생명(13개사)
- 외국사: 동양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ACE생명, 뉴욕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구 카디프생명, 구 SH&C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라이나생명(8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기타 공제, 기타

○ 손해보험회사

- 대형사: 삼성화재, 현대해상(현대하이카다이렉트 포함),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4개사)
- 중·소형사: 메리츠화재(구 동양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구 대한화재),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구 흥국쌍용화재),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AHA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

(ACE, CHUBB), NH농협손해보험(8개사)

- 직판: AXA손해보험(구 교보AXA손해보험, 구 교보자동차보험), 더케이손해보
 험회사(구 교원나라 자동차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구 에르고
 다음다이렉트)(3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등 기타 공제, 기타

■ 판매채널 분류

- 대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대형법인대리점(GA) 등 전통채널
- 직판: 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 기타: 보험회사 임직원, TV 홈쇼핑 채널, 대형 할인점 등

II.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가. 생명보험 가구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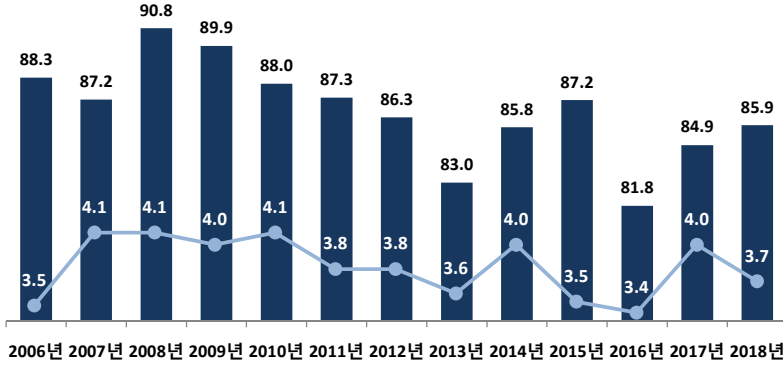
-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5.9%로 2017년(84.9%) 대비 1.0%p 증가했으며, 가구 가입건수는 2017년(4.0건) 대비 소폭 감소한 3.7건으로 조사됨

〈표 II-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구 가입률(%)	87.3	86.3	83.0	85.8	87.2	81.8	84.9	85.9
가구 가입건수(건)	3.8	3.8	3.6	4.0	3.5	3.4	4.0	3.7

〈그림 II-1〉 2018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N=2,440,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2) 세부 분석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증가는 자영업(12.6%p)에서 두드러짐

〈표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률(%p)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률(%p)	
직업	화이트칼라	90.5	88.9	-1.6	4.7	4.3	-0.4
	블루칼라	82.7	79.9	-2.8	3.7	3.2	-0.5
	자영업	61.1	73.7	12.6	2.0	2.9	0.9
	농/임/어업	89.6	89.4	-0.2	4.1	3.7	-0.4
	주부	84.8	88.2	3.4	3.9	3.7	-0.2
	은퇴자	42.1	92.3	50.2	1.3	4.0	2.7
	학생	81.4	90.5	9.1	4.3	5.0	0.7
가구 소득	무직/기타	71.0	59.5	-11.5	2.8	2.4	-0.4
	저소득	66.5	72.9	6.4	1.9	1.9	0.0
	중소득	87.2	86.8	-0.4	3.8	3.8	0.0
	고소득	93.1	94.2	1.1	5.8	5.1	-0.7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거주 지역별로 보면, 군지역의 가구 가입률 증가폭이 컸음

○ 특히, 군지역 생명보험 가입률은 2017년(77.0%) 대비 10.7%p 증가함

〈표 II-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률(%p)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률(%p)	
지역 규모	대도시	87.3	86.1	-1.2	3.9	3.4	-0.5
	중·소도시	84.0	85.4	1.4	4.2	3.9	-0.3
	군지역	77.0	87.7	10.7	3.1	4.6	1.5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질병보장보험의 가구 가입률이 6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33.9%), 사망보험(29.4%), 재해상해보험(22.7%), 연금보험(13.9%), 변액보험(12.6%), 어린이보험(10.5%), 저축성보험(8.1%) 순으로 조사됨

○ 종목별 가구 가입건수도 질병보장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해상해보험(2.0건), 사망보험(1.6건), 간병/어린이/변액보험(각각 1.5건) 등으로 나타남

○ 질병 및 생명 등의 위험 보장을 위한 상품의 가구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저축성보험 상품의 가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I-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2018년 가구 가입률	2018년 가구 가입건수
실손의료보험	33.9	2.1
질병보장보험	67.7	2.1
재해상해보험	22.7	2.0
간병보험	3.9	1.5
사망보험	29.4	1.6
저축성보험	8.1	1.2
연금보험	13.9	1.3
어린이보험	10.5	1.5
변액보험	12.6	1.5
비가입	1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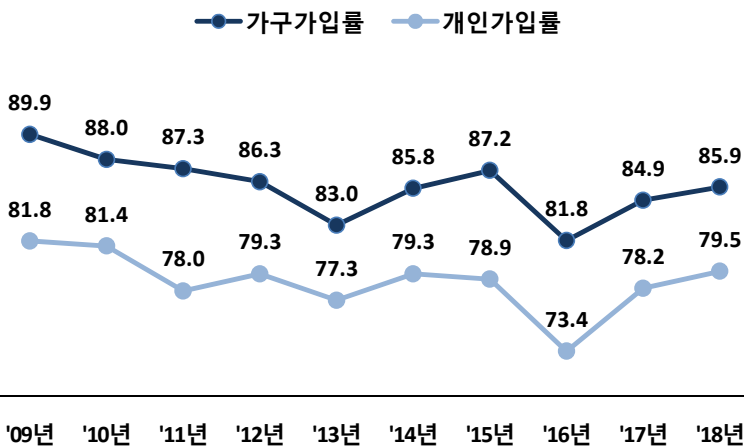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개인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8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9.5%로, 2017년(78.2%) 대비 1.3%p 증가함

〈그림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N=2,44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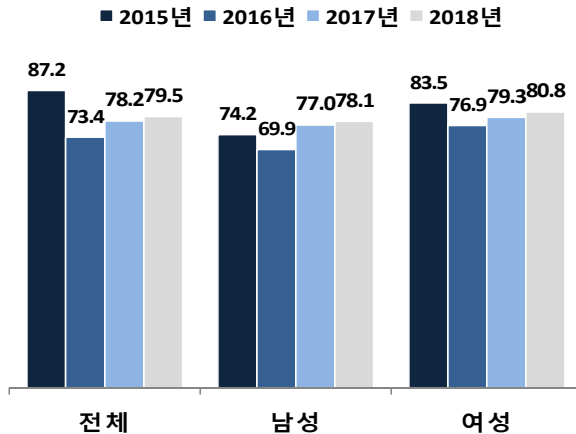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 성별에 따른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여성이 80.8%, 남성이 78.1%로, 여전히 여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 가입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여성의 전년(79.3%) 대비 1.5%p, 남성은 전년(77.0%) 대비 1.1%p 증가함

〈그림 II-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N=2,440, 단위: %)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결혼 여부별

- 기혼자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기혼 83.6% > 미혼 63.6%)과 개인 가입건수(기혼 1.8건 > 미혼 1.1건)는 모두 미혼자에 비해 높았음
- 2017년 대비 기혼자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미혼자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소폭 감소함
 - 기혼자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하였으나, 미혼자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6.3%p 감소함

〈표 II-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및 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률(%p)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률(%p)
결혼 여부	기혼	80.3	83.6	3.3	1.7	1.8	0.1
	미혼	69.9	63.6	-6.3	1.2	1.1	-0.1

- 기혼 남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83.7%로 기혼 여성(83.5%)에 비하여 0.2%p 높았고, 미혼 여성 개인 가입률은 68.2%로 미혼 남성(60.2%)에 비해 8.0%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83.7%, 83.5%)의 개인 가입률이 미혼자(각각 60.2%, 68.2%)의 개인 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1.8건, 1.7건)의 개인 가입건수가 미혼자(각각 1.0건, 1.2건)보다 많았음

〈표 II-6〉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개인 가입률(%)	83.6	63.6	78.1		80.8	
			83.7	60.2	83.5	68.2
개인 가입건수(건)	1.8	1.1	1.6		1.6	
			1.8	1.0	1.7	1.2

주: 가입건수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자녀 수별

-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74.9%로 기혼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자녀가 1명인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4.1%p 증가하여 다른 계층에 비

해 증가세가 컸음

- 한편, 자녀가 있는 계층 가운데 자녀가 2명(82.9%)인 계층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II-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자녀 수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가입률(%)	74.9	81.7	82.9	80.7
가입건수(건)	1.4	1.6	1.8	1.9
2017년 대비 가입률(%p)	1.7	4.1	0.1	1.2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연령별로는 50대(89.2%), 40대(84.3%)의 개인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개인 가입건수도 역시 해당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40대, 50대 각각 1.9건, 2.0건)
- 20대, 30대, 40대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3.8	77.3	84.3	89.2	79.3
가입건수(건)	1.1	1.5	1.9	2.0	1.5
2017년 대비 가입률(%p)	-5.9	-0.3	-2.3	1.4	10.3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대도시가 79.8%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9.6%, 군지역 76.1%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는 대도시가 1.5건, 중·소도시 1.7건, 군지역 2.1건으로 나타남

〈표 II-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대도시	79.8	1.5
중·소도시	79.6	1.7
군지역	76.1	2.1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학력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고졸 학력자(80.8%)에서 가장 높았고, 가입건수는 대재 이상 학력자(1.7건)에서 가장 높았음
 - 중졸 이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68.5%로 고졸 학력자보다 12.3%p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 가입건수 역시 1.1건으로 대재 이상 학력자보다 0.6건 적게 나타남

〈표 II-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학력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68.5	1.1
고졸	80.8	1.6
대재 이상	80.5	1.7
모름/무응답	63.6	1.5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은퇴자가 9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85.7%), 주부(83.1%), 화이트칼라(82.6%), 블루칼라(7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는 은퇴자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이트칼라(1.9건), 자영업(1.7건), 주부(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직업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82.6	1.9
블루칼라	72.9	1.4
농/임/어업	63.2	1.2
자영업	85.7	1.7
주부	83.1	1.5
은퇴자	92.3	2.2
학생	57.1	1.0
무직/기타	40.5	0.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소득이 많을수록 가입률(저소득 69.0% < 중소득 79.8% < 고소득 86.9%)과 개인 가입건수(저소득 1.2건 < 중소득 1.6건 < 고소득 1.9건)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II-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저소득	69.0	1.2
중소득	79.8	1.6
고소득	86.9	1.9

-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 계층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률(%p)
저소득	71.1	57.1	62.6	69.0	6.4
중소득	78.6	76.4	79.4	79.8	0.4
고소득	82.5	81.4	86.8	86.8	0.0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실손의료보험(28.6%), 사망보험(21.4%) 등의 순임

〈표 II-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저축성 보험	간병 보험	어린이 보험	비 가입	
전체	(2,440)	60.0	28.6	21.4	17.5	8.9	7.1	4.1	2.5	1.6	20.5	
성별	남성	(1,214)	55.1	27.6	25.9	16.7	10.0	8.2	3.0	2.1	1.2	21.8
	여성	(1,226)	64.8	29.5	16.9	18.4	7.8	6.0	5.2	2.9	2.0	19.2
연령	20대	(398)	44.2	27.1	10.6	12.6	3.0	4.8	1.3	0.5	0.5	36.2
	30대	(428)	53.0	32.2	22.9	13.8	9.1	6.3	3.3	1.4	3.3	22.4
	40대	(502)	63.7	29.5	27.3	17.3	12.9	12.0	7.2	1.2	3.4	15.7
	50대	(493)	68.6	33.5	30.6	22.5	12.4	8.7	5.1	3.4	0.2	10.8
	60대 이상	(619)	65.1	22.3	15.0	19.5	6.5	3.9	3.2	4.8	0.6	20.7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55.9	27.0	22.4	11.8	8.8	6.3	4.2	2.2	0.9	20.2
	중·소도시	(1,174)	63.6	30.7	19.8	20.4	8.2	8.1	3.8	2.0	1.9	20.3
	군지역	(163)	61.3	23.9	25.2	35.6	14.7	4.9	5.5	8.6	3.7	23.9
직업	하이테크칼라	(774)	58.7	34.4	28.3	19.8	10.5	11.5	4.7	1.9	2.3	17.3
	블루칼라	(632)	58.1	24.5	14.1	15.5	7.6	4.7	4.6	2.4	0.9	27.1
	농/임/어업	(38)	52.6	10.5	5.3	26.3	15.8	0.0	0.0	5.3	0.0	36.8
	자영업	(442)	63.8	28.5	28.7	15.6	11.5	8.6	4.5	3.6	0.5	14.3
	주부	(449)	65.7	26.9	15.8	18.0	6.0	3.1	3.1	2.2	2.4	16.9
	은퇴자	(26)	69.2	26.9	23.1	34.6	11.5	0.0	3.8	7.7	3.8	7.7
	학생	(42)	38.1	33.3	4.8	9.5	0.0	2.4	0.0	0.0	0.0	42.9
	무직/기타	(37)	32.4	10.8	13.5	10.8	2.7	2.7	0.0	2.7	0.0	59.5

〈표 II-14〉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저축성 보험	간병 보험	어린이 보험	비 가입	
전체	(2,440)	60.0	28.6	21.4	17.5	8.9	7.1	4.1	2.5	1.6	20.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38)	64.5	28.6	20.4	18.6	8.3	4.4	4.0	2.6	0.8	19.2
	고졸	(1,167)	57.4	31.5	24.9	16.1	10.4	10.0	4.6	2.2	2.6	19.5
	대재 이상	(22)	54.5	13.6	9.1	22.7	4.5	22.7	0.0	0.0	0.0	31.8
	모름/ 무응답	(468)	58.8	18.4	8.8	12.4	3.0	2.1	2.8	2.8	0.2	31.0
가구 소득	저소득	(1,383)	59.8	29.8	22.2	17.2	8.4	7.0	3.5	2.6	2.0	20.1
	중소득	(589)	61.5	33.8	29.4	22.4	14.8	11.2	6.6	2.0	1.5	13.1
	고소득	(568)	19.4	33.3	28.0	19.4	23.1	9.2	7.2	1.2	1.2	13.2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가.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8년에도 생명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채널(93.3%),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해 생명보험을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대면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가입이 전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5.4%, 은행을 통한 가입은 2.9%로 증가 추세임

〈표 II-15〉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면	96.3	96.0	95.5	96.4	97.3	96.8	95.8	93.3
직판	2.1	2.6	2.4	1.9	1.6	2.7	3.6	5.4
은행	1.9	1.6	3.1	3.2	1.7	1.9	2.4	2.9
기타	-	-	-	-	-	2.0	2.8	3.2

주: 1) 상기 구성비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 구분은 〈I. 조사의 개요〉 참고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응답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3.6	93.0
직판	5.3	5.5
은행	2.7	3.0
기타	3.2	3.3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았음
- 20대와 30대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음(각각 86.6%, 89.5%)
- 한편,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각각 12.2%, 9.6%)

〈표 II-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86.6	89.5	94.6	96.8	95.1
직판	12.2	9.6	5.0	3.0	1.6
은행	3.5	3.9	2.4	2.5	2.6
기타	3.9	2.4	5.0	2.3	2.9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전 지역에 걸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도시	대면	95.9	96.8	96.2	95.8	96.9	96.7	94.6	91.1
	직판	1.6	2.1	2.7	1.8	0.9	2.3	3.4	6.8
	은행	1.4	1.7	2.9	3.3	1.9	2.3	2.8	3.5
	기타	-	-	-	-	-	1.6	2.7	4.2
중·소도시	대면	96.6	94.8	94.8	97.1	97.7	97.5	97.2	95.5
	직판	2.9	3.2	2.0	2.4	2.5	2.8	4.0	4.6
	은행	2.5	1.5	2.9	1.9	1.1	0.8	1.9	1.8
	기타	-	-	-	-	-	2.5	3.0	2.6
군지역	대면	96.5	97.4	94.6	96.1	96.4	92.2	95.3	91.9
	직판	1.2	2.6	2.7	0.0	0.0	5.9	2.3	1.6
	은행	2.3	1.3	5.4	9.2	3.6	7.8	2.3	6.5
	기타	-	-	-	-	-	2.0	2.3	1.6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부분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임
-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은행(4.2%)채널을 통한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복수응답)

(단위: %)

구분	자영업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주부	농/임/어업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
대면	96.3	90.8	92.4	95.7	95.8	91.7	100.0	80.0
직판	1.8	9.2	5.4	2.9	0.0	4.2	4.2	6.7
은행	2.9	3.9	2.2	2.4	4.2	0.0	0.0	0.0
기타	2.4	3.6	2.8	3.8	0.0	8.3	0.0	13.3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모든 학력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중졸 이하 계층에서는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이 6.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대재 이상 계층에서는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8.7%로 특히 높음

〈표 II-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복수응답)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무응답
대면	89.7	96.5	90.9	100.0
직판	2.7	2.3	8.7	0.0
은행	6.2	1.8	3.4	0.0
기타	4.8	2.1	4.0	0.0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명 중 9명 이상이 대면채널을 이용함

〈표 II-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3.2	93.0	93.9
직판	2.5	5.1	8.0
은행	2.5	3.3	2.3
기타	4.3	2.6	3.9

나. 생명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대부분의 보험 종목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대부분 보험 종목에서 10% 이하로 낮게 나타났음

〈표 II-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실손의료보험	90.4	3.9	1.7	4.0
질병 보장보험	92.8	3.1	1.8	2.3
재해 상해보험	89.0	5.6	1.9	3.5
간병보험	86.9	-	4.9	8.2
사망보험	91.0	4.0	1.2	3.8
저축성보험	88.0	3.0	3.0	6.0
연금보험	89.4	2.3	4.6	3.7
어린이보험	89.5	-	-	10.5
변액보험	89.0	3.5	3.5	4.0

2) 세부 분석

■ 실손의료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실손의료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0.4%로 가장 높고, 직판은 3.9%, 은행 채널을 통한 가입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았음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중·소도시(91.4%), 군지역(89.7%), 대도시(89.3%) 순으로 나타남
-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율이 압도적인 가운데, 직판을 통한 가입은 고소득 계층(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3〉 실손의료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697)	90.4	3.9	1.7	4.0	
성별	남성	(335)	90.4	3.9	1.8	3.9
	여성	(362)	90.3	3.9	1.7	4.1
연령	20대	(108)	87.0	6.5	2.8	3.7
	30대	(138)	84.8	8.7	2.2	4.3
	40대	(148)	86.5	2.0	1.4	10.1
	50대	(165)	97.0	1.8	0.6	0.6
	60대 이상	(138)	94.9	1.4	2.2	1.4
지역규모	대도시	(298)	89.3	4.0	2.3	4.4
	중·소도시	(360)	91.4	4.2	0.6	3.9
	군지역	(39)	89.7	0.0	7.7	2.6
직업	화이트칼라	(266)	87.6	5.3	2.3	4.9
	블루칼라	(155)	88.4	6.5	1.3	3.9
	농/임/어업	(4)	100.0	0.0	0.0	0.0
	자영업	(126)	95.2	1.6	0.8	2.4
	주부	(121)	91.7	0.8	2.5	5.0
	은퇴자	(7)	100.0	0.0	0.0	0.0
	학생	(14)	100.0	0.0	0.0	0.0
	무직/기타	(4)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9)	96.6	0.0	3.4	0.0
	고졸	(297)	95.3	1.7	1.3	1.7
	대재 이상	(368)	85.9	6.0	1.9	6.3
	모름/무응답	(3)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86)	94.2	1.2	1.2	3.5
	중소득	(412)	91.5	3.2	1.9	3.4
	고소득	(199)	86.4	6.5	1.5	5.5

■ 질병보장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질병보장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2.8%로 가장 높고, 직판은 3.1%, 은행 채널을 통한 가입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남성이 93.0%로 여성(92.6%)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82.4%)가 타 연령 대비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판채널(11.9%)을 통한 가입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중·소도시(94.5%), 군지역(93.0%), 대도시(90.6%) 순으로 나타남
- 주부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95.6%로 높았음
- 직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 비율은 고소득 계층(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4〉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1,464)	92.8	3.1	1.8	2.3	
성별	남성	(669)	93.0	3.1	1.6	2.2
	여성	(795)	92.6	3.1	1.9	2.4
연령	20대	(176)	82.4	11.9	2.8	2.8
	30대	(227)	92.1	4.0	1.8	2.2
	40대	(320)	93.1	1.6	1.6	3.8
	50대	(338)	95.6	2.4	1.2	0.9
	60대 이상	(403)	95.0	0.7	2.0	2.2
지역규모	대도시	(617)	90.6	4.4	2.4	2.6
	중·소도시	(747)	94.5	2.5	0.7	2.3
	군지역	(100)	93.0	0.0	6.0	1.0
직업	화이트칼라	(454)	89.0	6.4	2.0	2.6
	블루칼라	(367)	93.5	2.5	1.4	2.7
	농/임/어업	(20)	95.0	0.0	5.0	0.0
	자영업	(282)	95.4	0.4	2.5	1.8
	주부	(295)	95.6	1.4	1.4	1.7
	은퇴자	(18)	88.9	5.6	0.0	5.6
	학생	(16)	93.8	6.3	0.0	0.0
	무직/기타	(12)	83.3	8.3	0.0	8.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2)	89.3	0.9	6.3	3.6
	고졸	(670)	96.7	0.7	1.0	1.5
	대재 이상	(670)	89.3	6.0	1.8	3.0
	모름/무응답	(12)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75)	93.1	1.5	2.2	3.3
	중소득	(827)	93.7	2.8	1.8	1.7
	고소득	(362)	90.3	5.2	1.4	3.0

■ 재해상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재해상해보험은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89.0%, 직판채널은 5.6%, 은행채널은 1.9%로 조사됨

〈표 II-25〉 재해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428)	89.0	5.6	1.9	3.5	
성별	남성	(203)	89.2	4.9	2.0	3.9
	여성	(225)	88.9	6.2	1.8	3.1
연령	20대	(50)	80.0	12.0	4.0	4.0
	30대	(59)	81.4	10.2	3.4	5.1
	40대	(87)	88.5	8.0	0.0	3.4
	50대	(111)	93.7	1.8	2.7	1.8
	60대 이상	(121)	92.6	2.5	0.8	4.1
지역규모	대도시	(130)	83.8	6.9	3.1	6.2
	중·소도시	(240)	91.7	5.8	0.0	2.5
	군지역	(58)	89.7	1.7	6.9	1.7
직업	화이트칼라	(153)	90.8	5.9	0.7	2.6
	블루칼라	(98)	86.7	7.1	2.0	4.1
	농/임/어업	(10)	100.0	0.0	0.0	0.0
	자영업	(69)	91.3	2.9	4.3	1.4
	주부	(81)	84.0	7.4	2.5	6.2
	은퇴자	(9)	88.9	0.0	0.0	11.1
	학생	(4)	100.0	0.0	0.0	0.0
	무직/기타	(4)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2)	85.7	4.8	2.4	7.1
	고졸	(193)	93.3	3.1	1.0	2.6
	대재 이상	(188)	85.1	8.5	2.7	3.7
	모름/무응답	(5)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8)	84.5	3.4	3.4	8.6
	중소득	(238)	89.9	6.3	1.7	2.1
	고소득	(132)	89.4	5.3	1.5	3.8

■ 간병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간병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86.9%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은 4.9%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간병보험 가입은 여성이 88.6%, 남성이 84.6%임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간병보험 가입이 대도시(91.7%), 군지역(85.7%), 중·소도시(82.6%) 순으로 나타남

〈표 II-26〉 간병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면	직판	기타
전체		(61)	86.9	4.9	8.2
성별	남성	(26)	84.6	7.7	7.7
	여성	(35)	88.6	2.9	8.6
연령	20대	(2)	100.0	0.0	0.0
	30대	(6)	66.7	16.7	16.7
	40대	(6)	83.3	0.0	16.7
	50대	(17)	94.1	0.0	5.9
	60대 이상	(30)	86.7	6.7	6.7
지역규모	대도시	(24)	91.7	4.2	4.2
	중·소도시	(23)	82.6	0.0	17.4
	군지역	(14)	85.7	14.3	0.0
직업	화이트칼라	(15)	93.3	0.0	6.7
	블루칼라	(15)	86.7	0.0	13.3
	농/임/어업	(2)	50.0	50.0	0.0
	자영업	(16)	81.3	12.5	6.3
	주부	(10)	100.0	0.0	0.0
	은퇴자	(2)	100.0	0.0	0.0
	무직/기타	(1)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87.5	12.5	0.0
	고졸	(27)	85.2	3.7	11.1
	대재 이상	(26)	88.5	3.8	7.7
가구 소득	저소득	(13)	84.6	7.7	7.7
	중소득	(36)	86.1	5.6	8.3
	고소득	(12)	91.7	0.0	8.3

■ 사망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사망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1.0%로 가장 높고, 직판은 4.0%, 은행은 1.2%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험 가입은 남성이 92.0%, 여성이 89.4%임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험 가입이 군지역(92.7%), 중·소도시 (92.3%), 대도시(89.5%) 순으로 나타남

〈표 II-27〉 사망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521)	91.0	4.0	1.2	3.8
성별	남성	(314)	92.0	3.2	1.3	3.5
	여성	(207)	89.4	5.3	1.0	4.3
연령	20대	(42)	90.5	7.1	0.0	2.4
	30대	(98)	83.7	9.2	4.1	3.1
	40대	(137)	87.6	5.1	0.0	7.3
	50대	(151)	95.4	0.7	1.3	2.6
	60대 이상	(93)	96.8	1.1	0.0	2.2
지역규모	대도시	(247)	89.5	6.5	0.8	3.2
	중·소도시	(233)	92.3	1.7	1.7	4.3
	군지역	(41)	92.7	2.4	0.0	4.9
직업	화이트칼라	(219)	87.7	6.4	1.8	4.1
	블루칼라	(89)	91.0	3.4	0.0	5.6
	농/임/어업	(2)	100.0	0.0	0.0	0.0
	자영업	(127)	95.3	1.6	0.0	3.1
	주부	(71)	91.5	2.8	2.8	2.8
	은퇴자	(6)	100.0	0.0	0.0	0.0
	학생	(2)	100.0	0.0	0.0	0.0
	무직/기타	(5)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87.5	6.3	0.0	6.3
	고졸	(212)	95.3	2.8	0.0	1.9
	대재 이상	(291)	88.0	4.8	2.1	5.2
	모름/무응답	(2)	100.0	0.0	0.0	0.0
자영업	저소득	(41)	100.0	0.0	0.0	0.0
	중소득	(307)	87.9	6.2	2.0	3.9
	고소득	(173)	94.2	1.2	0.0	4.6

■ 저축성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저축성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88.0%로 가장 높고, 은행은 3.0%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가입은 여성 89.1%, 남성이 86.1%임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가입은 군지역(100.0%), 대도시(89.1%), 중·소도시(84.4%) 순으로 나타남

〈표 II-28〉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은행	직판	기타
전체		(100)	88.0	3.0	3.0	6.0
성별	남성	(36)	86.1	2.8	2.8	8.3
	여성	(64)	89.1	3.1	3.1	4.7
연령	20대	(5)	80.0	20.0	0.0	0.0
	30대	(14)	92.9	0.0	0.0	7.1
	40대	(36)	77.8	2.8	5.6	13.9
	50대	(25)	92.0	4.0	4.0	0.0
	60대 이상	(20)	100.0	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46)	89.1	4.3	4.3	2.2
	중·소도시	(45)	84.4	2.2	2.2	11.1
	군지역	(9)	10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6)	88.9	2.8	2.8	5.6
	블루칼라	(29)	82.8	6.9	3.4	6.9
	자영업	(20)	90.0	0.0	5.0	5.0
	주부	(14)	92.9	0.0	0.0	7.1
	은퇴자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100.0	0.0	0.0	0.0
	고졸	(42)	97.6	0.0	2.4	0.0
	대재 이상	(54)	79.6	5.6	3.7	11.1
가구 소득	저소득	(13)	100.0	0.0	0.0	0.0
	중소득	(48)	83.3	4.2	6.3	6.3
	고소득	(39)	89.7	2.6	0.0	7.7

■ 연금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연금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89.4%로 가장 높고, 은행은 2.3%,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4.6%로 나타남

〈표 II-29〉 연금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은행	직판	기타
전체		(217)	89.4	2.3	4.6	3.7
성별	남성	(121)	89.3	3.3	4.1	3.3
	여성	(96)	89.6	1.0	5.2	4.2
연령	20대	(12)	91.7	0.0	8.3	0.0
	30대	(39)	87.2	5.1	5.1	2.6
	40대	(65)	83.1	3.1	4.6	9.2
	50대	(61)	95.1	1.6	1.6	1.6
	60대 이상	(40)	92.5	0.0	7.5	0.0
지역규모	대도시	(97)	86.6	4.1	7.2	2.1
	중·소도시	(96)	91.7	1.0	2.1	5.2
	군지역	(24)	91.7	0.0	4.2	4.2
직업	화이트칼라	(81)	85.2	6.2	6.2	2.5
	블루칼라	(48)	87.5	0.0	4.2	8.3
	농/임/어업	(6)	100.0	0.0	0.0	0.0
	자영업	(51)	94.1	0.0	3.9	2.0
	주부	(27)	92.6	0.0	3.7	3.7
	은퇴자	(3)	100.0	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	66.7	11.1	22.2	0.0
	고졸	(86)	95.3	1.2	2.3	1.2
	대재 이상	(121)	86.8	2.5	5.0	5.8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4)	92.9	0.0	7.1	0.0
	중소득	(116)	91.4	0.9	4.3	3.4
	고소득	(87)	86.2	4.6	4.6	4.6

■ 어린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어린이보험의 경우 대면채널이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0〉 어린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기타
전체		(38)	89.5	10.5
성별	남성	(14)	100.0	0.0
	여성	(24)	83.3	16.7
연령	20대	(2)	100.0	0.0
	30대	(14)	100.0	0.0
	40대	(17)	76.5	23.5
	50대	(1)	100.0	0.0
	60대 이상	(4)	10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0)	90.0	10.0
	중·소도시	(22)	86.4	13.6
	군지역	(6)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8)	94.4	5.6
	블루칼라	(6)	66.7	33.3
	자영업	(2)	100.0	0.0
	주부	(11)	90.9	9.1
	은퇴자	(1)	100.0	0.0
교육 수준	고졸	(8)	100.0	0.0
	대재 이상	(30)	86.7	13.3
가구 소득	저소득	(1)	100.0	0.0
	중소득	(28)	92.9	7.1
	고소득	(9)	77.8	22.2

■ 변액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변액보험의 경우 대면채널이 89.0%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3.5%로 나타남

〈표 II-31〉 변액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기타
전체		(173)	89.0	3.5	3.5
성별	남성	(99)	89.9	2.0	4.0
	여성	(74)	87.8	5.4	2.7
연령	20대	(19)	73.7	10.5	10.5
	30대	(27)	85.2	3.7	7.4
	40대	(60)	90.0	1.7	0.0
	50대	(43)	90.7	4.7	4.7
	60대 이상	(24)	10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70)	87.1	5.7	4.3
	중·소도시	(95)	89.5	2.1	3.2
	군지역	(8)	10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89)	87.6	5.6	4.5
	블루칼라	(30)	83.3	3.3	3.3
	자영업	(38)	94.7	0.0	2.6
	주부	(14)	92.9	0.0	0.0
	학생	(1)	10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100.0	0.0	0.0
	고졸	(46)	93.5	0.0	4.3
	대재 이상	(117)	86.3	5.1	3.4
	모름/무응답	(5)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0)	80.0	10.0	10.0
	중소득	(97)	91.8	2.1	4.1
	고소득	(66)	86.4	4.5	1.5

다.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현재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93.3%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이 5.4%, 은행은 2.9%로 나타남
- 향후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6.3%로 가장 높았으나, 직판 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도 16.9%로 나타남

〈표 II-32〉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3.3	76.3
직판	5.4	16.9
은행	2.9	6.4
기타	3.2	5.6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남성과 여성 모두,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선호 채널로 대면채널을 가장 많이 꼽음

〈표 II-33〉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77.7	74.7
직판	16.3	17.6
은행	6.6	6.2
기타	4.9	6.4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60대 이상이 88.1%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59.5%로 가장 낮았음
- 한편, 20대와 30대의 직판채널 선호도가 각각 39.5%와 26.9%로 향후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4〉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20대	59.5	39.5	3.5	2.0
30대	71.7	26.9	7.3	5.9
40대	79.4	7.2	8.8	8.8
50대	86.3	2.7	5.5	6.0
60대 이상	88.1	3.1	6.9	5.6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대도시	77.4	16.0	5.9	6.7
중·소도시	75.6	18.4	6.0	4.3
군지역	66.7	12.1	18.2	6.1

주: 군지역은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대부분의 직업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주부에서 87.5%로 특히 높음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학생(31.3%), 은행채널에 의한 선호도는 농/임/어업(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주부	농/임/어업	블루칼라	자영업	화이트칼라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
대면	87.5	33.3	76.9	81.9	69.9	100.0	62.5	66.7
직판	5.6	0.0	18.8	3.4	25.9	0.0	31.3	25.0
은행	5.0	50.0	5.5	8.7	6.2	0.0	6.3	0.0
기타	7.5	16.7	3.1	9.4	5.1	0.0	0.0	8.3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대재 이상의 경우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직판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II-3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중졸 이하	72.7	9.1	12.7	14.5
고졸	83.9	6.8	6.2	5.9
대재 이상	71.6	24.3	5.9	4.6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구매채널로 향후 대면채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표 II-3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실손의료보험	72.4	19.4	2.2	6.0
질병 보장보험	74.9	20.3	1.6	3.2
재해 상해보험	72.7	17.3	0.7	9.3
간병보험	82.0	4.9	2.9	10.2
사망보험	81.1	12.8	2.4	3.7
저축성보험	63.3	17.8	17.2	1.8
연금보험	76.3	16.0	6.5	1.2
어린이보험	85.1	10.6	-	4.3
변액보험	77.9	12.5	9.6	3.8

주: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저축성보험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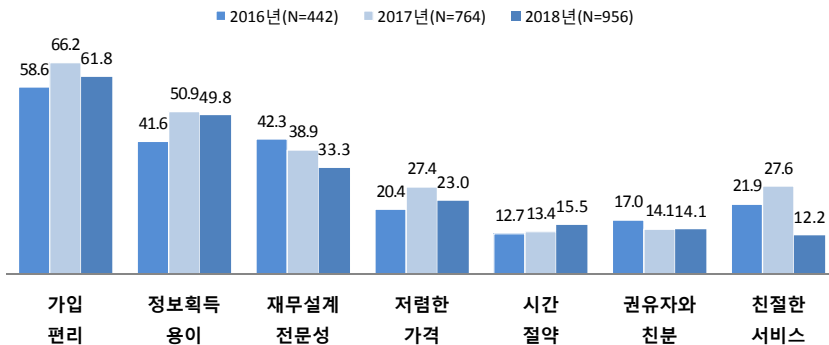
라.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채널별 선호 이유로는 가입 편리성(61.8%)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 정보획득 용이(49.8%), 재무설계 전문성(33.3%)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2) 세부 분석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시 종목별 채널 선호 이유

- 대부분 생명보험 종목에서 가입 시 가입편리성을 향후 채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변액보험의 경우 재무설계 전문성(54.8%)이 가장 높음

〈표 II-39〉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가입 편리	정보 획득 용이	저렴한 가격	재무 설계 전문성	좋은 보험 서비스	시간 절약	친절한 보험 설계사	권유자 친분
실손의료보험	70.1	35.1	31.3	23.9	8.2	10.4	7.5	11.9
질병 보장보험	61.0	43.4	20.3	23.5	12.0	17.5	10.0	10.4
재해 상해보험	48.7	46.7	23.3	22.0	12.7	10.0	13.3	20.7
간병보험	58.2	52.0	15.2	19.3	12.3	11.9	16.8	12.3
사망보험	51.8	48.8	14.6	32.9	15.2	12.2	11.0	11.0
저축성보험	55.0	44.4	15.4	33.7	13.0	13.6	9.5	10.7
연금보험	52.7	46.7	18.3	36.1	15.4	11.8	6.5	10.1
어린이보험	44.7	31.9	17.0	29.8	27.7	21.3	14.9	10.6
변액보험	51.0	52.9	13.5	54.8	10.6	10.6	5.8	10.6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모든 생명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 가입 의향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병보험 10.0%, 저축성보험 및 연금보험(각각 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40〉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실손의료보험	28.6	94.5	5.5
질병보장보험	60.0	89.7	10.3
재해상해보험	17.5	93.9	6.1
간병보험	2.5	90.0	10.0
사망보험	21.4	96.5	3.5
저축성보험	4.1	93.1	6.9
연금보험	8.9	93.1	6.9
어린이보험	1.6	98.1	1.9
변액보험	7.1	98.6	1.4

나.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남성(11.4%)이 여성(9.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성(6.1%)이 남성(4.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질병보장보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20대의 향후 가입 의향이 가장 높았음
 - 20대 향후 1년 내 질병보장보험 가입 의향은 18.3%로 상대적으로 높음
- 화이트칼라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서 보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41〉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보험	간병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사망보험	
전체	(2,440)	10.3	10.0	6.9	6.9	6.7	
성별	남성	(1,214)	11.4	9.2	8.6	8.1	6.6
	여성	(1,226)	9.2	10.8	5.2	5.8	6.9
연령	20대	(398)	18.3	3.5	10.8	12.1	10.3
	30대	(428)	14.5	5.1	11.9	12.4	9.6
	40대	(502)	9.2	7.0	8.2	7.2	8.2
	50대	(493)	8.1	15.0	5.3	4.7	5.7
	60대 이상	(619)	4.8	16.0	1.3	1.5	2.1
지역규모	대도시	(1,103)	13.4	10.8	8.1	7.7	8.0
	중·소도시	(1,174)	8.3	9.4	6.4	6.5	6.2
	군지역	(163)	3.7	9.2	3.1	4.9	1.8
직업	화이트칼라	(774)	11.4	6.6	11.5	11.4	9.9
	블루칼라	(632)	13.0	10.9	5.5	6.5	5.5
	농/임/어업	(38)	2.6	7.9	2.6	0.0	0.0
	자영업	(442)	7.2	15.4	5.7	2.9	4.8
	주부	(449)	7.8	10.2	3.8	5.1	5.6
	은퇴자	(26)	3.8	7.7	0.0	0.0	0.0
	학생	(42)	21.4	0.0	2.4	7.1	7.1
	무직/기타	(37)	8.1	13.5	2.7	2.7	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3.8	13.6	0.9	0.5	2.3
	고졸	(1,038)	9.1	11.9	4.0	5.2	6.0
	대재 이상	(1,167)	12.6	7.6	10.6	9.5	8.2
	모름/무응답	(22)	9.1	9.1	4.5	13.6	4.5
가구 소득	저소득	(468)	11.1	12.0	3.2	4.7	3.0
	중소득	(1,383)	10.9	9.5	7.7	7.2	6.8
	고소득	(589)	8.1	9.7	8.1	8.0	9.5

〈표 II-41〉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재해 상해보험	실손 의료보험	변액보험	어린이보험
전체		(2,440)	6.1	5.5	4.3	1.9
성별	남성	(1,214)	6.0	4.9	4.8	1.6
	여성	(1,226)	6.3	6.1	3.8	2.2
연령	20대	(398)	8.5	9.5	6.0	0.5
	30대	(428)	8.4	6.8	8.4	8.6
	40대	(502)	5.8	4.4	4.4	1.6
	50대	(493)	6.3	3.7	3.7	0.0
	60대 이상	(619)	3.2	4.4	0.6	0.0
지역규모	대도시	(1,103)	7.8	5.5	5.1	2.7
	중·소도시	(1,174)	5.3	6.1	3.9	1.4
	군지역	(163)	1.2	0.6	1.2	0.6
직업	화이트칼라	(774)	7.6	5.2	6.7	2.7
	블루칼라	(632)	5.1	6.8	4.6	1.7
	농/임/어업	(38)	2.6	5.3	0.0	0.0
	자영업	(442)	5.4	1.8	2.0	0.2
	주부	(449)	6.7	6.0	3.1	3.1
	은퇴자	(26)	3.8	3.8	0.0	0.0
	학생	(42)	2.4	14.3	0.0	0.0
	무직/기타	(37)	5.4	18.9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4.2	5.6	0.5	0.0
	고졸	(1,038)	4.3	4.7	2.8	1.1
	대재 이상	(1,167)	8.1	6.1	6.2	3.1
	모름/무응답	(22)	4.5	9.1	9.1	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4.7	8.1	1.5	0.4
	중소득	(1,383)	6.5	4.8	4.8	2.8
	고소득	(589)	6.5	4.9	5.3	1.0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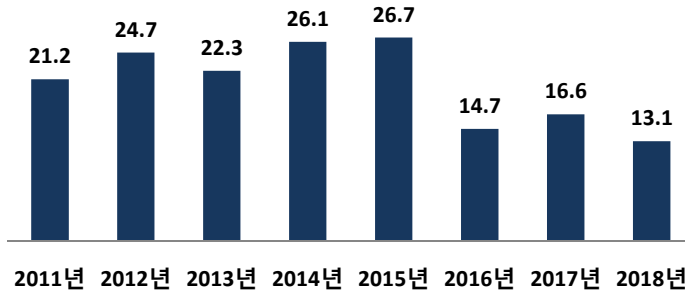
가. 생명보험 보상 경험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 가구 중 13.1%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었음

〈그림 II-5〉 생명보험 보상 경험

(생명보험 가입가구 대비, 단위: %)



- 생명보험의 보상 경험자의 전체 평균 보상건수는 3.4건, 평균 보상액수는 708,268원이었음

〈표 II-42〉 생명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단위: 건, 원)

구분	사례 수	평균 보상건수	평균 보상액수
전체	314	3.4	708,268
실손의료보험	206	4.0	542,583
중증질병	11	1.2	3,880,000
일반질병	45	1.4	565,778
성인병	3	1.0	2,050,000
재해(상해)	22	1.2	535,000
치매	1	1.0	300,000
저축	0	0.0	-
교통사고	8	1.1	433,750
재산손실	0	0.0	-
자녀에 대한 보상	46	2.5	335,954
기타	8	1.1	667,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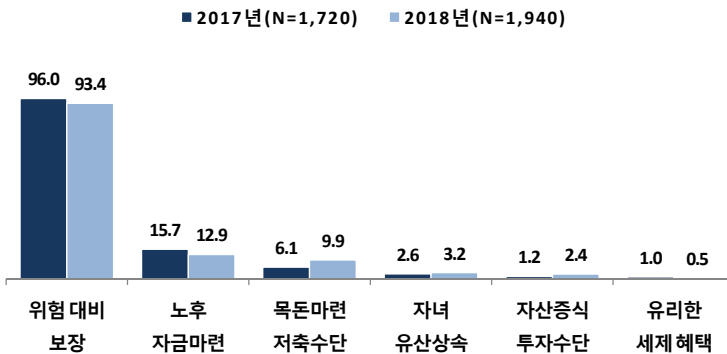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93.4%)을 생명보험 가입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노후자금 마련(12.9%), 목돈마련 저축수단(9.9%) 등의 순이었음
- 유산상속, 자산증식, 세제혜택을 위한 보험 가입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음

〈그림 II-6〉 생명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보험종목별 가입 이유

- 실손의료보험(97.4%), 어린이보험(97.4%), 질병보장보험(96.9%), 재해상해보험(95.8%), 간병보험(88.5%), 사망보험(67.6%), 변액보험(37.0%)의 경우 위험보장을 가입 이유로 꼽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한편, 연금보험(59.9%) 가입자의 경우 보험 가입 이유로 노후자금 마련을 가장 많이 들었고, 저축성보험(54.0%) 가입자는 목돈마련을 가입 이유로 꼽음

〈표 II-43〉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 보장	자산 증식	목돈 마련	노후 자금	세제 혜택	유산 상속	기타
실손의료보험	97.4	1.1	0.7	0.4	0.3	0.0	0.0
질병 보장보험	96.9	0.3	1.8	1.0	0.0	0.0	0.1
재해 상해보험	95.8	0.2	2.6	0.9	0.5	0.0	0.0
간병보험	88.5	0.0	6.6	3.3	0.0	0.0	1.6
사망보험	67.6	2.5	9.8	10.9	0.4	9.0	0.2
저축성보험	22.0	7.0	54.0	15.0	2.0	0.0	0.0
연금보험	17.5	3.7	18.0	59.9	0.5	0.5	0.0
어린이보험	97.4	0.0	2.6	0.0	0.0	0.0	0.0
변액보험	37.0	6.9	18.5	31.2	0.6	8.1	0.0

2) 세부 분석

■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 수단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음
- 위험에 대비한 보장 수단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44〉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유리한 세제혜택	
전체	(697)	97.4	1.1	0.7	0.4	0.3	
성별	남성	(335)	97.3	0.6	0.9	0.9	0.3
	여성	(362)	97.5	1.7	0.6	0.0	0.3
연령	20대	(108)	96.3	1.9	1.9	0.0	0.0
	30대	(138)	97.8	0.7	0.7	0.7	0.0
	40대	(148)	97.3	0.0	0.7	0.7	1.4
	50대	(165)	98.8	0.6	0.0	0.6	0.0
	60대 이상	(138)	96.4	2.9	0.7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298)	97.3	1.7	0.0	1.0	0.0
	중·소도시	(360)	97.2	0.8	1.4	0.0	0.6
	군지역	(39)	100.0	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66)	97.0	1.1	0.8	0.8	0.4
	블루칼라	(155)	98.7	0.6	0.6	0.0	0.0
	농/임/어업	(4)	75.0	25.0	0.0	0.0	0.0
	자영업	(126)	96.0	1.6	0.8	0.8	0.8
	주부	(121)	100.0	0.0	0.0	0.0	0.0
	은퇴자	(7)	100.0	0.0	0.0	0.0	0.0
	학생	(14)	85.7	7.1	7.1	0.0	0.0
	무직/기타	(4)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9)	89.7	6.9	3.4	0.0	0.0
	고졸	(297)	98.0	1.0	0.3	0.3	0.3
	대재 이상	(368)	97.6	0.8	0.8	0.5	0.3
	모름/무응답	(3)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86)	98.8	1.2	0.0	0.0	0.0
	중소득	(412)	97.3	1.2	0.7	0.2	0.5
	고소득	(199)	97.0	1.0	1.0	1.0	0.0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위해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음

〈표 II-45〉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기타
전체		(1,464)	96.9	1.8	1.0	0.3	0.1
성별	남성	(669)	96.1	1.9	1.3	0.4	0.1
	여성	(795)	97.6	1.6	0.6	0.1	0.0
연령	20대	(176)	98.3	0.6	0.0	1.1	0.0
	30대	(227)	97.4	1.8	0.9	0.0	0.0
	40대	(320)	97.8	0.9	0.9	0.3	0.0
	50대	(338)	96.2	2.7	0.9	0.3	0.0
	60대 이상	(403)	96.0	2.2	1.5	0.0	0.2
지역 규모	대도시	(617)	96.8	1.1	1.3	0.6	0.2
	중·소도시	(747)	96.9	2.3	0.8	0.0	0.0
	군지역	(100)	98.0	2.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454)	97.1	1.5	1.1	0.2	0.0
	블루칼라	(367)	95.6	1.9	1.9	0.5	0.0
	농/임/어업	(20)	100.0	0.0	0.0	0.0	0.0
	자영업	(282)	96.5	2.5	0.7	0.0	0.4
	주부	(295)	98.3	1.7	0.0	0.0	0.0
	은퇴자	(18)	100.0	0.0	0.0	0.0	0.0
	학생	(16)	93.8	0.0	0.0	6.3	0.0
	무직/기타	(12)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2)	98.2	1.8	0.0	0.0	0.0
	고졸	(670)	96.9	1.5	1.3	0.3	0.0
	대재 이상	(670)	96.7	2.1	0.7	0.3	0.1
	모름/무응답	(12)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75)	98.2	1.5	0.0	0.4	0.0
	중소득	(827)	96.5	1.9	1.2	0.2	0.1
	고소득	(362)	97.0	1.7	1.1	0.3	0.0

■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 직업, 성별, 지역 규모, 직업군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위해 재해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음

〈표 II-46〉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유리한 세제혜택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전체		(428)	95.8	2.6	0.9	0.5	0.2
성별	남성	(203)	94.1	3.4	1.5	0.5	0.5
	여성	(225)	97.3	1.8	0.4	0.4	0.0
연령	20대	(50)	96.0	2.0	0.0	2.0	0.0
	30대	(59)	94.9	3.4	1.7	0.0	0.0
	40대	(87)	96.6	2.3	0.0	1.1	0.0
	50대	(111)	93.7	2.7	2.7	0.0	0.9
	60대 이상	(121)	97.5	2.5	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30)	94.6	2.3	2.3	0.0	0.8
	중·소도시	(240)	95.4	3.3	0.4	0.8	0.0
	군지역	(58)	100.0	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53)	94.8	3.3	1.3	0.0	0.7
	블루칼라	(98)	95.9	1.0	2.0	1.0	0.0
	농/임/어업	(10)	100.0	0.0	0.0	0.0	0.0
	자영업	(69)	94.2	5.8	0.0	0.0	0.0
	주부	(81)	97.5	1.2	0.0	1.2	0.0
	은퇴자	(9)	100.0	0.0	0.0	0.0	0.0
	학생	(4)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4)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2)	95.2	4.8	0.0	0.0	0.0
	고졸	(193)	96.9	1.6	1.0	0.5	0.0
	대재 이상	(188)	94.7	3.2	1.1	0.5	0.5
	모름/무응답	(5)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8)	96.6	3.4	0.0	0.0	0.0
	중소득	(238)	96.6	2.5	0.4	0.4	0.0
	고소득	(132)	93.9	2.3	2.3	0.8	0.8

■ 간병보험 가입 이유

- 직업, 성별, 지역 규모, 직업군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위해 간병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음

〈표 II-47〉 간병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기타
전체		(61)	88.5	6.6	3.3	1.6
성별	남성	(26)	88.5	3.8	3.8	3.8
	여성	(35)	88.6	8.6	2.9	0.0
연령	20대	(2)	100.0	0.0	0.0	0.0
	30대	(6)	66.7	33.3	0.0	0.0
	40대	(6)	100.0	0.0	0.0	0.0
	50대	(17)	88.2	5.9	5.9	0.0
	60대 이상	(30)	90.0	3.3	3.3	3.3
지역규모	대도시	(24)	87.5	4.2	4.2	4.2
	중·소도시	(23)	82.6	13.0	4.3	0.0
	군지역	(14)	10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5)	80.0	13.3	6.7	0.0
	블루칼라	(15)	100.0	0.0	0.0	0.0
	농/임/어업	(2)	100.0	0.0	0.0	0.0
	자영업	(16)	81.3	6.3	6.3	6.3
	주부	(10)	90.0	10.0	0.0	0.0
	은퇴자	(2)	100.0	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87.5	12.5	0.0	0.0
	고졸	(27)	92.6	3.7	3.7	0.0
	대재 이상	(26)	84.6	7.7	3.8	3.8
가구 소득	저소득	(13)	92.3	7.7	0.0	0.0
	중소득	(36)	88.9	5.6	2.8	2.8
	고소득	(12)	83.3	8.3	8.3	0.0

■ 사망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48〉 사망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노후자금 마련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유리한 세제혜택	기타
전체		(521)	67.6	10.9	9.8	9.0	2.5	0.4	0.2
성별	남성	(314)	65.3	11.5	9.6	10.2	3.2	0.3	0.3
	여성	(207)	71.0	10.1	10.1	7.2	1.4	0.5	0.0
연령	20대	(42)	85.7	4.8	7.1	0.0	4.8	0.0	0.0
	30대	(98)	60.2	12.2	12.2	11.2	4.1	0.0	0.0
	40대	(137)	67.2	10.2	11.7	10.2	0.7	0.0	0.7
	50대	(151)	68.9	11.3	7.3	7.9	3.3	1.3	0.0
	60대 이상	(93)	65.6	12.9	9.7	10.8	1.1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247)	76.5	10.9	4.5	5.3	2.0	0.4	0.4
	중·소도시	(233)	56.7	10.7	16.3	12.9	3.4	0.4	0.0
	군지역	(41)	75.6	12.2	4.9	9.8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19)	63.0	8.7	13.2	12.8	2.7	0.0	0.5
	블루칼라	(89)	70.8	9.0	5.6	7.9	5.6	1.1	0.0
	농/임/어업	(2)	100.0	0.0	0.0	0.0	0.0	0.0	0.0
	자영업	(127)	68.5	14.2	10.2	5.5	1.6	0.0	0.0
	주부	(71)	73.2	16.9	2.8	5.6	0.0	1.4	0.0
	은퇴자	(6)	66.7	0.0	16.7	16.7	0.0	0.0	0.0
	학생	(2)	50.0	0.0	50.0	0.0	0.0	0.0	0.0
	무직/기타	(5)	100.0	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75.0	12.5	12.5	0.0	0.0	0.0	0.0
	고졸	(212)	73.1	10.4	6.6	7.1	2.4	0.9	0.0
	대재 이상	(291)	62.9	11.3	12.0	11.0	2.7	0.0	0.3
	모름/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1)	75.6	9.8	4.9	4.9	4.9	0.0	0.0
	중소득	(307)	68.4	10.4	10.1	9.1	2.0	0.7	0.0
	고소득	(173)	64.2	12.1	10.4	9.8	2.9	0.0	0.6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음

〈표 II-49〉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위험에 대비한 보장	노후자금 마련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전체		(100)	54.0	22.0	15.0	7.0	2.0
성별	남성	(36)	61.1	25.0	8.3	5.6	0.0
	여성	(64)	50.0	20.3	18.8	7.8	3.1
연령	20대	(5)	40.0	20.0	40.0	0.0	0.0
	30대	(14)	85.7	14.3	0.0	0.0	0.0
	40대	(36)	55.6	25.0	8.3	11.1	0.0
	50대	(25)	48.0	16.0	24.0	8.0	4.0
	60대 이상	(20)	40.0	30.0	20.0	5.0	5.0
지역규모	대도시	(46)	63.0	15.2	6.5	13.0	2.2
	중·소도시	(45)	53.3	24.4	17.8	2.2	2.2
	군지역	(9)	11.1	44.4	44.4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6)	58.3	19.4	8.3	13.9	0.0
	블루칼라	(29)	48.3	24.1	20.7	3.4	3.4
	자영업	(20)	50.0	25.0	20.0	5.0	0.0
	주부	(14)	64.3	14.3	14.3	0.0	7.1
	은퇴자	(1)	0.0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0.0	50.0	50.0	0.0	0.0
	고졸	(42)	52.4	23.8	16.7	4.8	2.4
	대재 이상	(54)	59.3	18.5	11.1	9.3	1.9
가구 소득	저소득	(13)	30.8	38.5	23.1	7.7	0.0
	중소득	(48)	60.4	20.8	12.5	2.1	4.2
	고소득	(39)	53.8	17.9	15.4	12.8	0.0

■ 연금보험 가입 이유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상관없이 가장 높음

〈표 II-50〉 연금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노후자금 마련	목돈마련 을 위한 저축수단	위험에 대비한 보장	자산증식 을 위한 투자수단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전체		(217)	59.9	18.0	17.5	3.7	0.5	0.5
성별	남성	(121)	57.0	23.1	15.7	4.1	0.0	0.0
	여성	(96)	63.5	11.5	19.8	3.1	1.0	1.0
연령	20대	(12)	33.3	41.7	16.7	8.3	0.0	0.0
	30대	(39)	61.5	17.9	15.4	5.1	0.0	0.0
	40대	(65)	56.9	16.9	21.5	4.6	0.0	0.0
	50대	(61)	59.0	16.4	18.0	3.3	1.6	1.6
	60대 이상	(40)	72.5	15.0	12.5	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97)	64.9	15.5	15.5	2.1	1.0	1.0
	중·소도시	(96)	52.1	22.9	18.8	6.3	0.0	0.0
	군지역	(24)	70.8	8.3	20.8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81)	49.4	25.9	17.3	6.2	0.0	1.2
	블루칼라	(48)	66.7	12.5	18.8	2.1	0.0	0.0
	농/임/어업	(6)	83.3	0.0	16.7	0.0	0.0	0.0
	자영업	(51)	70.6	13.7	13.7	2.0	0.0	0.0
	주부	(27)	55.6	14.8	22.2	3.7	3.7	0.0
	은퇴자	(3)	33.3	33.3	33.3	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	33.3	44.4	22.2	0.0	0.0	0.0
	고졸	(86)	67.4	9.3	18.6	2.3	1.2	1.2
	대재 이상	(121)	57.0	21.5	16.5	5.0	0.0	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4)	71.4	7.1	14.3	0.0	7.1	0.0
	중소득	(116)	56.9	18.1	19.0	5.2	0.0	0.9
	고소득	(87)	62.1	19.5	16.1	2.3	0.0	0.0

■ 어린이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97.4%로 높게 나타남

〈표 II-51〉 어린이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전체		(38)	97.4	2.6
성별	남성	(14)	92.9	7.1
	여성	(24)	100.0	0.0
연령	20대	(2)	100.0	0.0
	30대	(14)	100.0	0.0
	40대	(17)	100.0	0.0
	50대	(1)	100.0	0.0
	60대 이상	(4)	75.0	25.0
지역규모	대도시	(10)	100.0	0.0
	중·소도시	(22)	95.5	4.5
	군지역	(6)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8)	100.0	0.0
	블루칼라	(6)	100.0	0.0
	자영업	(2)	100.0	0.0
	주부	(11)	100.0	0.0
	은퇴자	(1)	0.0	100.0
교육 수준	고졸	(8)	87.5	12.5
	대재 이상	(3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	100.0	0.0
	중소득	(28)	96.4	3.6
	고소득	(9)	100.0	0.0

■ 변액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37.0%로 높게 나타남

〈표 II-52〉 변액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노후자금 마련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전체		(173)	37.0	31.2	18.5	8.1	6.9	0.6
성별	남성	(99)	34.3	29.3	20.2	9.1	9.1	1.0
	여성	(74)	40.5	33.8	16.2	6.8	4.1	0.0
연령	20대	(19)	31.6	15.8	31.6	5.3	15.8	0.0
	30대	(27)	37.0	29.6	11.1	3.7	14.8	3.7
	40대	(60)	43.3	23.3	20.0	13.3	1.7	0.0
	50대	(43)	39.5	41.9	9.3	7.0	7.0	0.0
	60대 이상	(24)	20.8	45.8	29.2	4.2	4.2	0.0
지역규모	대도시	(70)	38.6	30.0	12.9	8.6	10.0	0.0
	중·소도시	(95)	36.8	31.6	22.1	8.4	4.2	1.1
	군지역	(8)	25.0	37.5	25.0	0.0	12.5	0.0
직업	화이트칼라	(89)	38.2	23.6	23.6	6.7	7.9	1.1
	블루칼라	(30)	36.7	30.0	10.0	16.7	10.0	0.0
	자영업	(38)	28.9	47.4	18.4	5.3	5.3	0.0
	주부	(14)	42.9	42.9	7.1	7.1	0.0	0.0
	학생	(1)	100.0	0.0	0.0	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0.0	0.0	60.0	20.0	20.0	0.0
	고졸	(46)	37.0	28.3	21.7	10.9	4.3	0.0
	대재 이상	(117)	40.2	32.5	14.5	6.0	7.7	0.9
	모름/무응답	(5)	0.0	60.0	40.0	2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0)	30.0	30.0	10.0	10.0	20.0	0.0
	중소득	(97)	40.2	28.9	15.5	7.2	9.3	0.0
	고소득	(66)	33.3	34.8	24.2	9.1	1.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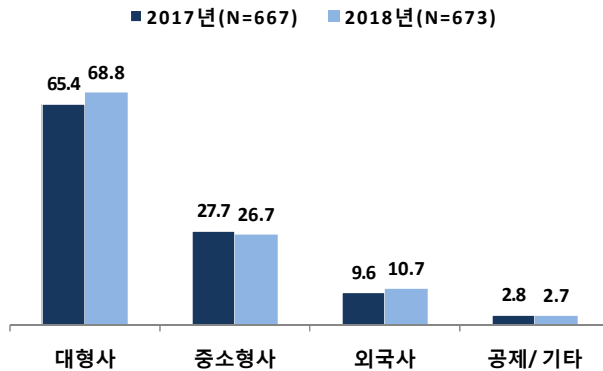
다.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회사군을 3개로 구분하여 국내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⁴⁾
- 최근 3년 이내 생명보험회사 가입자(N=673) 중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개 대형 보험회사 가입률⁵⁾은 68.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소형사(26.7%), 외국사(10.7%), 공제/기타(2.7%) 순임

〈그림 II-7〉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주: 3년 이내에 생명보험 회사에 가입한 사람 중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여 합계가 100%를 초과함

-
- 4) 대형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며,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13개 생명보험회사이며, 외국사는 ABL(구 알리안츠)생명을 비롯한 8개 회사를 포함함
- 5) 3년 이내에 생명보험 회사에 가입한 673명 중에서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복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함

2) 세부 분석

■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 비중

- 최근 3년 내 가입자 가운데 대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이 가장 높았음
- 대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은 30대(77.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5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전체		(673)	68.8	26.7	10.7	2.7
성별	남성	(330)	69.1	25.5	11.5	1.8
	여성	(343)	68.5	28.0	9.9	3.5
연령	20대	(148)	65.5	29.1	10.1	2.0
	30대	(157)	77.1	19.7	11.5	1.3
	40대	(140)	68.6	30.0	6.4	3.6
	50대	(113)	73.5	23.0	10.6	3.5
	60대 이상	(115)	57.4	33.0	15.7	3.5
지역규모	대도시	(303)	67.7	27.1	10.2	3.6
	중·소도시	(330)	69.4	26.7	10.6	1.2
	군지역	(40)	72.5	25.0	15.0	7.5
직업	화이트칼라	(299)	69.9	26.8	9.7	1.7
	블루칼라	(156)	65.4	25.6	12.8	3.2
	농/임/어업	(4)	75.0	25.0	0.0	25.0
	자영업	(92)	75.0	25.0	8.7	4.3
	주부	(108)	65.7	30.6	12.0	2.8
	은퇴자	(2)	50.0	0.0	50.0	0.0
	학생	(9)	77.8	22.2	0.0	0.0
	무직/기타	(3)	33.3	33.3	33.3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	62.5	30.0	15.0	0.0
	고졸	(227)	63.4	28.2	13.2	4.8
	대재 이상	(400)	72.5	26.0	8.5	1.8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6)	66.7	0.0	33.3	0.0
	저소득	(75)	58.7	29.3	17.3	2.7
	중소득	(386)	68.1	26.4	9.8	3.1
	고소득	(212)	73.6	26.4	9.9	1.9

라. 생명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 종목별 만족도는 간병보험(3.81점), 질병보장보험(3.80점), 실손의료보험(3.77점), 재해상해보험(3.6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저축성보험(3.98점), 연금보험(3.88점), 어린이보험(3.70점) 순으로 나타남

〈표 II-54〉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가입 종목별 상품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사례 수	상품 만족도(5점 만점)
실손의료보험		(219)	3.77
질병 보장보험		(342)	3.80
재해 상해보험		(90)	3.67
간병보험		(32)	3.81
사망보험	종신	(127)	3.78
	정기	(6)	3.50
저축성보험		(43)	3.98
연금보험		(51)	3.88
어린이보험		(20)	3.70
변액보험	연금	(12)	3.83
	유니버설 연금	(16)	3.63
	유니버설 종신	(15)	4.27
	종신	(24)	3.79

2) 세부 분석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
 -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는 연금보험(4.03점)과 저축성보험(3.98점)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II-55〉 생명보험 상품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실손의료 보험	질병보장 보험	재해상해 보험	간병 보험	사망보험	
						종신	정기
전체		3.77	3.80	3.67	3.81	3.78	3.50
성별	남성	3.80	3.80	3.62	4.00	3.77	4.50
	여성	3.73	3.80	3.71	3.71	3.79	3.00
연령	20대	3.87	3.79	3.47	2.50	3.72	3.00
	30대	3.81	3.84	3.73	4.00	3.82	3.67
	40대	3.74	3.81	3.89	4.00	3.79	4.00
	50대	3.76	3.90	3.84	3.63	3.82	-
	60대 이상	3.55	3.67	3.52	4.00	3.68	-
지역규모	대도시	3.76	3.81	3.64	3.86	3.84	4.00
	중·소도시	3.76	3.78	3.66	3.67	3.76	3.25
	군지역	3.86	3.79	3.75	4.00	3.69	4.00
직업	화이트칼라	3.83	3.79	3.79	3.89	3.86	3.75
	블루칼라	3.74	3.75	3.50	3.25	3.58	3.00
	농/임/어업	4.00	4.00	3.50	4.00	4.00	-
	자영업	3.73	3.91	3.67	4.00	3.67	-
	주부	3.57	3.75	3.65	4.40	3.77	-
	은퇴자	-	5.00	3.00	5.00	-	-
	학생	3.86	3.67	3.00	-	-	-
	무직/기타	-	4.00	-	2.00	5.00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70	3.82	3.33	4.00	3.50	-
	고졸	3.77	3.78	3.74	3.75	3.79	4.00
	대재 이상	3.77	3.84	3.67	3.79	3.80	3.00
	모름/무응답	-	2.40	3.33	-	3.00	-
가구 소득	저소득	3.84	3.78	3.58	3.60	4.00	-
	중소득	3.82	3.79	3.69	3.83	3.82	3.60
	고소득	3.64	3.81	3.65	4.00	3.66	3.00

주: 간병보험, 사망정기보험, 연금보험, 어린이보험, 변액보험 등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I-55〉 계속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보험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설 연금	변액 유니버설 종신	변액 종신
전체		3.98	4.03	3.70	3.83	3.63	4.27	3.79
성별	남성	3.86	4.05	3.75	4.25	3.60	4.22	3.67
	여성	4.03	4.00	3.69	3.63	3.67	4.33	3.92
연령	20대	4.00	4.00	3.50	4.00	4.33	4.29	4.25
	30대	3.71	4.08	3.57	3.50	3.00	4.67	4.67
	40대	4.05	4.00	4.00	4.25	3.00	4.00	3.55
	50대	4.00	3.86	3.00	3.50	3.83	4.00	3.40
	60대 이상	4.00	4.14	3.67	4.00	3.33	4.00	4.00
지역규모	대도시	4.00	4.18	3.83	3.83	4.00	4.00	3.60
	중·소도시	3.93	3.88	3.55	3.75	3.25	4.44	3.94
	군지역	4.00	4.00	4.00	4.00	4.00	-	3.33
직업	화이트칼라	3.96	4.00	3.89	3.80	3.70	4.29	4.00
	블루칼라	3.91	3.82	4.00	4.00	3.00	4.00	3.00
	농/임/어업	-	-	-	-	-	-	-
	자영업	4.00	4.09	4.00	4.50	4.00	-	3.67
	주부	4.25	4.29	3.38	3.00	3.00	-	4.00
	은퇴자	-	5.00	-	-	-	-	-
	학생	-	-	-	-	-	-	-
무직/기타	-	5.00	-	-	-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0	-	-	-	4.00	-	2.00
	고졸	3.86	3.80	4.00	3.75	3.67	4.00	4.00
	대재 이상	4.04	4.09	3.63	3.88	3.56	4.29	3.84
가구 소득	저소득	3.00	4.33	4.00	4.00	4.00	4.00	-
	중소득	3.95	4.03	3.80	3.90	3.78	4.33	3.77
	고소득	4.05	4.00	3.25	3.00	3.33	4.20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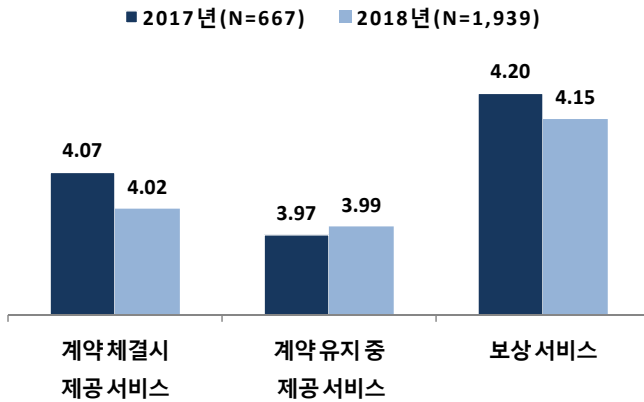
마.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N=1,939)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보상서비스가 4.15점, 계약 체결 시 서비스가 4.02점, 계약 유지 서비스가 3.99점으로 나타남
- 전년도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계약유지 중 제공 서비스가 소폭 상승함
- 반면,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그림 II-8〉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성별, 지역규모, 직업, 교육수준, 가구 연간 소득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II-5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사례 수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계약 유지 중 제공서비스	보상서비스
전체		(1,939)	4.02	3.99	4.15
성별	남성	(948)	4.04	4.01	4.12
	여성	(991)	4.00	3.97	4.18
연령	20대	(254)	3.98	3.91	4.09
	30대	(331)	4.14	4.09	4.38
	40대	(423)	3.97	3.96	4.08
	50대	(440)	3.99	4.01	4.22
	60대 이상	(491)	4.01	3.97	4.06
지역규모	대도시	(880)	3.99	3.95	4.06
	중·소도시	(935)	4.04	4.02	4.23
	군지역	(124)	4.03	4.04	4.40
직업	화이트칼라	(639)	4.04	4.00	4.20
	블루칼라	(461)	4.00	4.01	4.39
	농/임/어업	(24)	4.04	4.04	4.50
	자영업	(379)	4.04	4.02	3.80
	주부	(373)	3.99	3.94	4.23
	은퇴자	(24)	4.04	4.04	4.25
	학생	(24)	3.71	3.54	3.50
	무직/기타	(15)	3.93	3.93	3.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46)	4.02	3.99	4.17
	고졸	(839)	3.98	3.98	4.14
	대재 이상	(940)	4.04	3.99	4.17
	모름/무응답	(14)	4.21	4.21	4.00
가구 소득	저소득	(323)	4.00	3.97	4.19
	중소득	(1,104)	4.04	4.01	4.17
	고소득	(512)	3.98	3.96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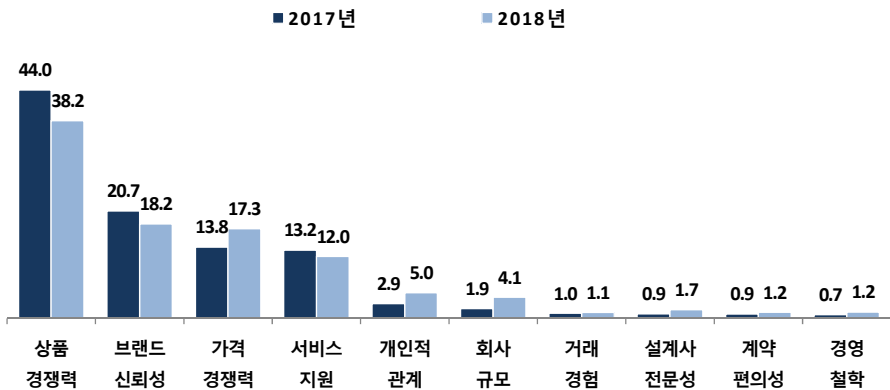
바.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의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험 니즈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38.2%)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18.2%), 가격 경쟁력(17.3%), 서비스 지원(12.0%), 개인적 관계(5.0%) 등의 순임

〈그림 II-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도별 가입가구 대비, 단위: %)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57〉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 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가격 경쟁력	서비스 지원	개인적 관계
전체		(2,440)	38.2	18.2	17.3	12.0	5.0
성별	남성	(1,214)	39.6	17.9	17.6	11.2	4.2
	여성	(1,226)	36.7	18.6	17.0	12.7	5.7
연령	20대	(398)	43.2	18.1	15.3	11.3	3.8
	30대	(428)	40.4	19.4	16.6	9.8	3.0
	40대	(502)	38.8	14.9	15.7	15.3	5.6
	50대	(493)	39.8	18.1	15.8	11.2	5.7
	60대 이상	(619)	31.5	20.4	21.5	11.8	6.0
지역규모	대도시	(1,103)	37.4	16.8	15.9	14.1	5.7
	중·소도시	(1,174)	39.1	19.5	18.1	10.1	3.9
	군지역	(163)	36.8	19.0	20.9	10.4	7.4
직업	화이트칼라	(774)	40.8	19.1	15.1	11.5	3.4
	블루칼라	(632)	35.3	18.0	21.2	9.8	5.7
	농/임/어업	(38)	28.9	23.7	28.9	5.3	7.9
	자영업	(442)	37.1	14.9	19.0	14.0	6.8
	주부	(449)	38.8	18.3	14.7	15.4	3.8
	은퇴자	(26)	46.2	26.9	3.8	7.7	11.5
	학생	(42)	47.6	11.9	11.9	11.9	7.1
	무직/기타	(37)	29.7	37.8	10.8	2.7	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29.1	20.7	22.1	12.2	8.5
	고졸	(1,038)	35.4	18.8	18.4	12.6	5.4
	대재 이상	(1,167)	42.6	17.0	15.4	11.4	3.9
	모름/무응답	(22)	22.7	36.4	18.2	9.1	4.5
가구 소득	저소득	(468)	35.5	20.3	21.4	9.4	6.2
	중소득	(1,383)	37.9	18.4	17.1	12.8	4.4
	고소득	(589)	40.9	16.1	14.6	12.1	5.3

〈표 II-57〉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회사 규모	거래 경험	설계사 전문성	계약 편의성	경영 철학
전체		(2,440)	4.1	1.7	1.2	1.2	1.1
성별	남성	(1,214)	4.3	1.7	1.2	1.2	0.9
	여성	(1,226)	3.9	1.6	1.1	1.2	1.4
연령	20대	(398)	3.0	0.8	1.5	1.8	1.0
	30대	(428)	4.0	2.6	1.6	0.9	1.6
	40대	(502)	3.2	2.6	1.0	1.2	1.6
	50대	(493)	3.7	1.8	1.4	1.8	0.8
	60대 이상	(619)	6.0	0.8	0.6	0.6	0.8
지역규모	대도시	(1,103)	4.0	1.3	1.5	2.0	1.4
	중·소도시	(1,174)	4.4	2.0	1.1	0.5	1.1
	군지역	(163)	2.5	1.8	0.0	1.2	0.0
직업	화이트칼라	(774)	3.5	1.9	1.7	1.3	1.7
	블루칼라	(632)	4.3	1.9	1.3	1.6	0.8
	농/임/어업	(38)	2.6	0.0	0.0	2.6	0.0
	자영업	(442)	4.8	0.9	1.1	0.7	0.7
	주부	(449)	4.7	1.8	0.7	0.7	1.3
	은퇴자	(26)	3.8	0.0	0.0	0.0	0.0
	학생	(42)	0.0	0.0	0.0	7.1	2.4
교육 수준	무직/기타	(37)	5.4	5.4	0.0	0.0	0.0
	중졸 이하	(213)	6.1	0.0	0.5	0.5	0.5
	고졸	(1,038)	4.3	1.8	1.3	1.0	1.1
	대재 이상	(1,167)	3.6	1.9	1.3	1.6	1.2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22)	0.0	0.0	0.0	0.0	9.1
	저소득	(468)	4.3	0.2	1.3	1.3	0.0
	중소득	(1,383)	3.9	2.2	1.3	0.8	1.2
	고소득	(589)	4.4	1.7	0.8	2.2	1.9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가.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8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91.0%로 2017년(89.5%) 대비 0.5%p 증가하고, 가입건수는 가구당 3.7건으로 2017년(3.4건) 대비 0.3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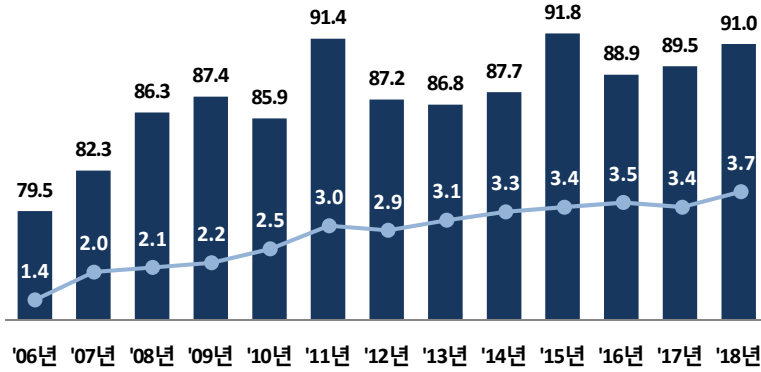
〈표 Ⅲ-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구 가입률	91.4	87.2	86.8	87.7	91.8	88.9	89.5	91.0
가구 가입건수	3.0	2.9	3.1	3.3	3.4	3.5	3.4	3.7

〈그림 III-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추이

(연도별 가입가구 대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자, 저소득, 중소득 계층에서는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소폭 상승했으며, 농/임/어업, 주부, 무직/기타, 고소득 계층에서는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 건)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률(%p)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건수(천)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2.2	94.2	2.0	3.8	4.0	0.2
	블루칼라	87.9	89.6	1.7	3.3	3.3	0.0
	자영업	90.7	92.5	1.8	3.5	4.1	0.6
	농/임/어업	76.8	73.7	-3.1	2.5	3.3	0.8
	주부	91.7	90.4	-1.3	1.8	1.7	-0.1
	은퇴자	89.5	73.1	-16.4	3.8	2.3	-1.5
	학생	93.2	100.0	6.8	0.8	-	-
	무직/기타	61.3	59.5	-1.8	2.0	1.9	0.1
가구 소득	저소득	69.5	75.9	6.4	1.7	1.7	0.0
	중소득	92.3	93.7	1.4	3.5	3.8	0.3
	고소득	97.9	96.8	-1.1	4.5	5.1	0.6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대도시(90.5%), 중·소도시(91.7%), 군지역(89.6%) 모두 90% 내외로 나타남

〈표 III-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도시	88.3	88.3	86.1	86.9	90.6	92.0	91.8	90.5
중·소도시	94.1	87.0	89.5	88.8	92.4	87.0	88.0	91.7
군지역	94.5	82.4	76.9	85.6	94.8	82.5	85.6	89.6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75.9% < 중소득 93.7% < 고소득 96.8%) 높음
- 저소득 가구와 중소득 가구의 가입률은 전년 대비 각각 6.4%p, 1.4%p 증가한 반면, 고소득 가구 가입률은 전년 대비 1.1%p 감소함

〈표 III-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저소득	79.9	66.6	63.0	63.6	73.2	66.5	69.5	75.9
중소득	94.9	92.4	92.7	90.9	94.3	94.2	92.3	93.7
고소득	94.9	96.0	96.8	95.2	97.8	97.4	97.9	96.8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손해보험 종목별 가구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이 8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동차보험(74.8%), 상해보험(5.8%) 순이었음
- 종목별 가구 가입건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3.3건, 상해보험 1.7건, 자동차보험 1.2건으로 나타남

〈표 III-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보험 종목별(2018년)

구분	2018년 가입률(%)	2018년 가입건수(건)
자동차보험	74.8	1.2
장기손해보험	82.1	3.3
상해보험	5.8	1.7
기타	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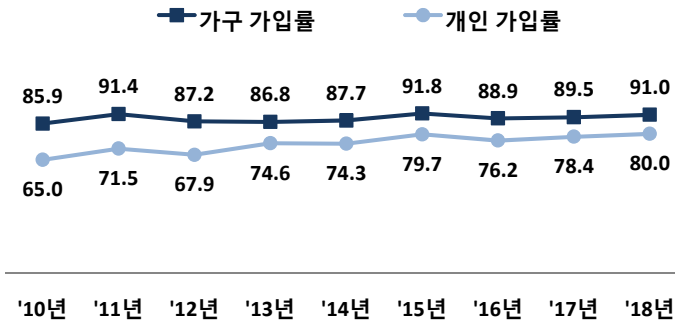
나.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8년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1.6%p 상승한 80.0%로 나타남

〈그림 III-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연도별 가입가구 또는 가입자 대비, 단위: %)



-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40대(88.8%, 2.0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79.9%, 1.7건)보다는 미혼(80.4%, 1.5건)에서 그리고 고소득(84.7%, 1.9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40대 이하에서는 전년 대비 상승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및 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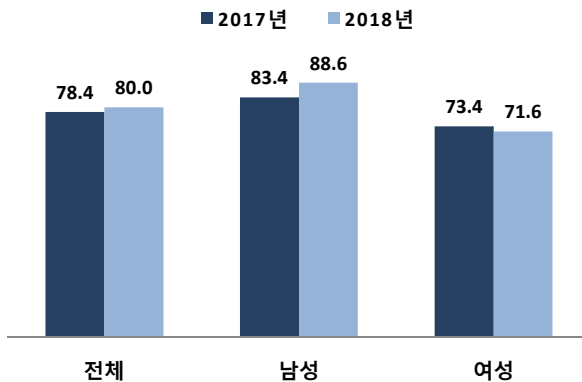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률(%p)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가입건수(건)
연령	20대	63.0	77.1	14.1	1.0	1.3	0.3
	30대	81.7	87.6	5.9	1.6	1.9	0.3
	40대	86.6	88.8	2.2	1.9	2.0	0.1
	50대	87.7	83.8	-3.9	1.8	1.9	0.1
	60대 이상	71.5	66.6	-4.9	1.2	1.3	0.1
결혼 여부	기혼	81.3	79.9	-1.4	1.6	1.7	0.1
	미혼	67.3	80.4	13.1	1.2	1.5	0.3
가구 소득	저소득	61.3	66.2	4.9	1.0	1.2	0.2
	중소득	81.2	82.7	1.5	1.6	1.7	0.1
	고소득	84.3	84.7	0.4	1.7	1.9	0.2

■ 성별 기준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의 경우, 남성이 88.6%, 여성이 71.6%로 여전히 남성 가입률이 더 높았음

○ 남성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5.2%p 상승한 반면, 여성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1.8%p 하락함

〈그림 III-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연도별 가입자 대비, 단위: %)



2) 세부분석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결혼 여부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남성(88.6%)이 여성(71.6%)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기혼 남성의 개인 가입률이 8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혼 남성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에 비해 전체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I-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개인 가입률(%)	79.9	80.4	88.6		71.6	
			89.8	84.4	70.9	75.1
개인 가입건수(건)	1.7	1.5	2.0		1.3	
			2.1	1.7	1.3	1.2

주: 가입건수는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청년층 연령대(30대 이하) 및 40대에서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장년층 연령대(50대 이상)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는 20대 1.3건, 30대 1.9건, 40대 2.0건, 50대 1.9건, 60대 이상 1.3건으로 나타남

〈표 III-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연령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77.1	87.6	88.8	83.8	66.6
가입건수(건)	1.3	1.9	2.0	1.9	1.3
2017년 대비 가입률(%p)	14.1	5.9	2.3	-3.9	-4.9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개인 가입률은 군지역이 81.6%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81.1%, 78.9%로 나타남
- 지역별 개인 가입건수는 군지역 1.9건, 중·소도시 1.7건, 대도시 1.6건 순으로 나타남

〈표 III-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대도시	81.1	1.6
중·소도시	78.9	1.7
군지역	81.6	1.9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대재 이상 고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86.5%, 개인 가입건수는 1.9건인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60.1%, 개인 가입건수는 1.0건임

〈표 III-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학력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60.1	1.0
고졸	76.9	1.5
대재 이상	86.5	1.9
모름/무응답	77.3	2.1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7.3%), 자영업(86.0%), 블루칼라(81.5%)의 개인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은퇴자(53.8%), 무직/기타(48.6%) 등 비경제활동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개인 가입건수는 자영업(2.0건), 화이트칼라(1.9건), 블루칼라(1.7건)가 1.5건 이

상이었으나, 은퇴자(1.1건), 주부(1.0건), 학생(0.8건), 무직/기타(0.7건)는 1건 내외로 상대적으로 적음

〈표 III-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직업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87.3	1.9
블루칼라	81.5	1.7
농/임/어업	65.8	1.4
자영업	86.0	2.0
주부	66.4	1.0
은퇴자	53.8	1.1
학생	64.3	0.8
무직/기타	48.6	0.7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중소득(82.7%)과 고소득(84.7%) 가구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저소득 가구의 개인 가입률(6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개인 가입건수는 고소득(1.9건)과 중소득 가구(1.7건)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저소득 가구 가입건수: 1.2건) 소득 수준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건수의 차이를 보임

〈표 III-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저소득	66.2	1.2
중소득	82.7	1.7
고소득	84.7	1.9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71.1%로 가장 높고,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다른 종목의 경우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남성(76.2%), 30대(78.7%), 40대(77.9%), 중소득(74.4%) 가구에 속한 개인의 가입률이 높음

〈표 III-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 보험	상해보험	비가입	
전체	(2,440)	46.2	71.1	3.5	20.0	
성별	남성	(1,214)	70.0	76.2	2.6	11.4
	여성	(1,226)	22.6	66.2	4.3	28.4
연령	20대	(398)	31.9	68.1	4.3	22.9
	30대	(428)	54.4	78.7	3.0	12.4
	40대	(502)	59.0	77.9	5.4	11.2
	50대	(493)	54.0	73.8	3.4	16.2
	60대 이상	(619)	33.1	60.3	1.8	33.4
지역규모	대도시	(1,103)	43.0	71.7	3.6	18.9
	중·소도시	(1,174)	47.9	70.6	3.2	21.1
	군지역	(163)	55.8	71.2	4.9	18.4
직업	화이트칼라	(774)	59.0	76.6	4.0	12.7
	블루칼라	(632)	48.7	72.9	3.5	18.5
	농/임/어업	(38)	34.2	60.5	2.6	34.2
	자영업	(442)	60.6	75.1	3.2	14.0
	주부	(449)	13.8	61.2	2.9	33.6
	은퇴자	(26)	38.5	50.0	0.0	46.2
	학생	(42)	7.1	54.8	7.1	35.7
무직/기타	(37)	16.2	43.2	2.7	51.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20.2	53.1	0.9	39.9
	고졸	(1,038)	40.5	69.7	3.1	23.1
	대재 이상	(1,167)	55.7	75.7	4.4	13.5
	모름/무응답	(22)	63.6	77.3	0.0	22.7
가구 소득	저소득	(468)	30.1	59.2	1.9	33.8
	중소득	(1,383)	49.2	74.4	3.3	17.3
	고소득	(589)	52.0	73.0	5.1	15.3

주: 가입상품 건수 기준임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가.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의 경우 전통적 채널인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등 대면채널(88.6%)을 통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과 통신판매 등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전년 대비 0.9%p 상승한 14.2%로 나타났으며, 은행을 통한 가입률은 1.1% 수준임

〈표 III-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면	95.5	92.7	93.2	94.2	94.0	95.2	90.8	88.6
직판	4.7	6.2	8.0	9.1	7.8	8.0	13.3	14.2
은행	0.5	1.1	1.9	1.3	0.3	0.9	1.0	1.1
기타	0.0	0.0	0.0	0.0	0.0	2.6	4.3	4.1

주: 1)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손해보험 가운데 개인보험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채널별 보험료 비중과는 다를 수 있음(이하 동일)

2)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3)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88%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직판채널(17.0%)을 통한 보험가입률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88.5	88.7
직판	17.0	10.8
은행	1.0	1.3
기타	3.6	4.7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대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았으며,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 가입률이 80% 이상임
- 20대와 30대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I-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81.1	79.4	88.3	94.2	97.3
직판	26.1	23.8	15.2	5.8	4.1
은행	1.0	1.3	0.7	1.7	1.0
기타	3.6	5.1	5.6	3.6	2.4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85% 이상임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대도시 15.0%, 중·소도시 14.7%, 군지역 6.0%로 나타남

〈표 III-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86.8	89.8	92.5
직판	15.0	14.7	6.0
은행	0.7	1.5	1.5
기타	4.9	3.5	3.0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직업에서 가장 높았으며, 화이트칼라를 제외한 대부분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화이트칼라(21.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농/임/ 어업	자영업	주부	은퇴자	학생	무직/ 기타
대면	83.7	89.1	96.0	93.9	90.6	100.0	92.6	88.9
직판	21.0	15.0	0.0	8.4	7.0	7.1	11.1	11.1
은행	0.6	1.6	0.0	1.1	1.7	0.0	3.7	0.0
기타	5.0	2.7	4.0	5.0	4.0	0.0	0.0	0.0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학력에서 가장 높았음
- 직판채널 가입률은 대재 이상(22.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무응답
대면	94.5	94.4	83.3	94.1
직판	3.1	5.9	22.2	17.6
은행	1.6	1.0	1.2	0.0
기타	4.7	3.1	4.9	0.0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저소득(89.4%)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89.4	88.9	87.6
직판	10.3	14.6	15.8
은행	0.3	1.2	1.4
기타	4.2	3.9	4.4

나. 손해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보험 종목별 가입 채널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보험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음

○ 직판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모든 보험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89.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동차보험(82.7%), 상해보험(67.1%) 순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상해보험이 28.2%로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자동차보험	82.7	15.6	-	1.7
장기손해보험	89.2	2.5	0.8	7.5
상해보험	67.1	28.2	1.2	3.5

주: 1) 기타 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2) 자동차보험은 은행채널이 없으므로 은행채널 통계는 제외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 자동차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82.7%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15.6%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판채널 이용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군지역(89.0%), 중·소도시(82.6%), 대도시(81.6%) 순으로 나타남
- 직판 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20대(31.5%)와 화이트칼라(19.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기타
전체		(1,127)	82.7	15.6	1.7
성별	남성	(850)	82.4	15.9	1.8
	여성	(277)	83.8	14.8	1.4
연령	20대	(127)	67.7	31.5	0.8
	30대	(233)	70.8	26.2	3.0
	40대	(296)	80.4	17.2	2.4
	50대	(266)	92.9	6.0	1.2
	60대 이상	(205)	95.6	3.9	0.5
지역규모	대도시	(474)	81.6	16.0	2.3
	중·소도시	(562)	82.6	16.5	0.9
	군지역	(91)	89.0	7.7	3.3
직업	화이트칼라	(457)	77.5	19.7	2.8
	블루칼라	(308)	81.8	16.9	1.2
	농/임/어업	(13)	100.0	0.0	0.0
	자영업	(268)	90.3	9.3	0.4
	주부	(62)	87.1	11.3	1.6
	은퇴자	(10)	100.0	0.0	0.0
	학생	(3)	66.7	33.3	0.0
	무직/기타	(6)	83.3	16.7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3)	90.7	4.7	4.6
	고졸	(420)	93.8	5.5	0.7
	대재 이상	(650)	74.8	23.1	2.2
	모름/무응답	(14)	92.9	7.1	0.0
가구 소득	저소득	(141)	87.2	12.1	0.7
	중소득	(680)	82.1	16.0	1.9
	고소득	(306)	82.0	16.3	1.6

■ 장기손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장기손해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89.3%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은 10.1%, 은행채널은 1.2%에 불과함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여성이 89.5%로 남성(89.2%)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19.6%), 30대(16.3%)에서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1,736)	89.3	10.1	1.2	4.0	
성별	남성	(925)	89.2	11.6	1.0	3.8
	여성	(811)	89.5	8.4	1.4	4.3
연령	20대	(271)	79.7	19.6	1.1	4.1
	30대	(337)	82.8	16.3	1.5	4.2
	40대	(391)	90.5	10.0	0.5	5.4
	50대	(364)	94.0	4.9	1.9	3.8
	60대 이상	(373)	96.5	2.7	0.8	2.7
지역규모	대도시	(791)	87.4	11.9	0.8	4.7
	중·소도시	(829)	90.8	9.0	1.4	3.6
	군지역	(116)	92.2	5.2	1.7	2.6
직업	화이트칼라	(593)	83.5	16.0	0.7	4.9
	블루칼라	(461)	90.9	10.0	1.3	2.6
	농/임/어업	(23)	95.7	0.0	0.0	4.3
	자영업	(332)	93.7	5.7	1.2	5.7
	주부	(275)	92.0	4.7	1.8	3.3
	은퇴자	(13)	100.0	7.7	0.0	0.0
	학생	(23)	100.0	0.0	4.3	0.0
	무직/기타	(16)	93.8	6.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3)	93.8	3.5	0.9	4.4
	고졸	(723)	94.9	3.9	1.0	3.2
	대재 이상	(883)	84.1	15.9	1.4	4.8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17)	94.1	17.6	0.0	0.0
	저소득	(277)	88.8	9.0	0.4	4.3
	중소득	(1,029)	89.2	10.1	1.2	3.7
	고소득	(430)	90.0	10.7	1.6	4.7

■ 상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상해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67.1%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28.2%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모든 직업군에서, 그리고 소득 및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4〉 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85)	67.1	28.2	1.2	3.5
성별	남성	(32)	68.8	28.1	3.1	0.0
	여성	(53)	66.0	28.3	0.0	5.7
연령	20대	(17)	41.2	58.8	0.0	0.0
	30대	(13)	46.2	46.2	0.0	7.7
	40대	(27)	74.1	14.8	3.7	7.4
	50대	(17)	100.0	0.0	0.0	0.0
	60대 이상	(11)	63.6	36.4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40)	57.5	37.5	0.0	5.0
	중·소도시	(37)	73.0	21.6	2.7	2.7
	군지역	(8)	87.5	12.5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1)	64.5	35.5	0.0	0.0
	블루칼라	(22)	63.6	27.3	4.5	4.5
	농/임/어업	(1)	100.0	0.0	0.0	0.0
	자영업	(14)	92.9	7.1	0.0	0.0
	주부	(13)	61.5	23.1	0.0	15.4
	학생	(3)	33.3	66.7	0.0	0.0
	무직/기타	(1)	0.0	10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0.0	0.0
	고졸	(32)	75.0	18.8	3.1	3.1
	대재 이상	(51)	60.8	35.3	0.0	3.9
가구 소득	저소득	(9)	66.7	33.3	0.0	0.0
	중소득	(46)	60.9	30.4	2.2	6.5
	고소득	(30)	76.7	23.3	0.0	0.0

주: 학생은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1,311)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1.8%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채널 선호비율이 27.9%로 나타남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현재 가입률(88.6%)보다는 16.8%p 낮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14.2%)보다 13.7%p 높게 나타났음

〈표 III-2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88.6	71.8
직판	14.2	27.9
은행	1.1	1.8
기타	4.1	3.4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남성(71.9%)과 여성(71.5%) 모두 가장 높음
- 남성은 직판(28.4%)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보다 높았고,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 대비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가 21.6%p 높게 나타남

〈표 III-26〉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성별	남성	71.9	28.4	1.0	2.8
	여성	71.5	27.2	2.8	4.1
결혼 여부	기혼	76.3	23.4	1.8	3.5
	미혼	54.2	45.0	1.5	3.0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92.1%로 가장 높음
- 20대에서는 직판채널(45.6%)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7〉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20대	54.0	45.6	0.9	4.0
30대	57.7	44.5	1.5	3.3
40대	72.8	28.3	1.7	2.4
50대	81.4	15.8	1.8	5.4
60대 이상	92.1	5.8	2.9	1.7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향후 채널 선호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70% 내외로 가장 높음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은 군지역(12.9%) 대비 대도시(26.8%)와 중·소도시(3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대도시	73.2	26.8	1.6	4.3
중·소도시	69.0	30.4	1.9	2.8
군지역	85.5	12.9	1.6	0.0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향후 가입채널 선호도는 직업군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 선호도는 화이트칼라(3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화이트칼라	64.5	35.3	1.2	3.4
블루칼라	70.0	29.7	1.2	3.8
농/임/어업	83.3	8.3	8.3	0.0
자영업	83.5	17.4	1.7	3.3
주부	79.8	18.0	4.4	3.3
은퇴자	100.0	0.0	0.0	0.0
학생	50.0	50.0	0.0	0.0
무직/기타	63.6	36.4	0.0	0.0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향후 대면채널 선호도는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86.8% > 고졸 82.1% > 대재 이상 62.8%) 높은 특징을 보임
- 반면,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10.3% < 고졸 16.3% < 대재 이상 37.5%)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3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중졸 이하	86.8	10.3	2.9	2.9
고졸	82.1	16.3	2.2	4.0
대재 이상	62.8	37.5	1.4	3.0
모름/무응답	92.3	30.8	0.0	0.0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가장 높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직판채널(저소득 20.3% < 중소득 28.6% < 고소득 30.4%)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3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저소득	79.7	20.3	3.1	3.1
중소득	71.0	28.6	1.6	3.8
고소득	69.1	30.4	1.4	2.6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향후 가입채널 선호도는 종목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높게 나타남
- 상해보험은 직판채널(35.9%) 및 은행채널(4.6%)에 대한 선호가 다른 보험 종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3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자동차보험	71.1	27.4	-	1.5
장기손해보험	74.8	22.3	2.7	4.8
상해보험	55.0	35.9	4.6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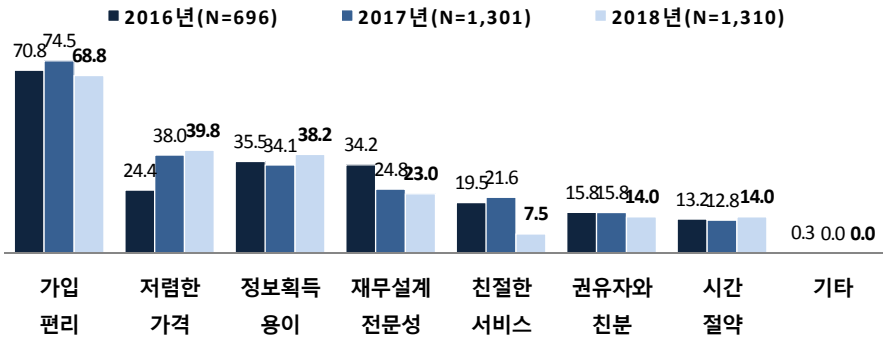
라.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의향자(N=1,310)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입 편리성을 68.8%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저렴한 가격(39.8%), 정보획득의 용이성(38.2%), 그리고 재무설계 전문성(23.0%) 등의 순임

〈그림 III-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

-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69.8%), 저렴한 가격(38.5%), 정보획득 용이(31.7%), 재무설계 전문성(18.0%) 등이 꼽힘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63.0%), 정보획득 용이(42.5%), 저렴한 가격(34.2%) 등이 꼽힘
-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56.5%), 저렴한 가격(49.6%), 그리고 정보획득 용이(32.1%) 등이 꼽힘

〈표 III-33〉 향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가입 편리	저렴한 가격	정보획득 용이	재무설계 전문성	권유자와 친분	시간 절약	좋은 보험 서비스	친절한 보험 설계사
자동차보험	69.8	38.5	31.7	18.0	13.7	11.1	9.0	6.9
장기손해보험	63.0	34.2	42.5	27.8	12.0	14.7	12.4	7.3
상해보험	56.5	49.6	32.1	15.3	13.7	16.8	6.1	9.9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은 34.4%, 장기 손해보험은 4.6%, 상해보험은 5.4%로 나타남

〈표 III-34〉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6.2	65.6	34.4
장기손해보험	71.1	95.4	4.6
상해보험	3.5	94.6	5.4

2) 세부 분석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2.7% < 고졸 4.3% < 대재 이상 5.2%)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은 화이트칼라(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 또한 화이트칼라(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경우, 남성(48.2%)이 여성(20.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상해보험 가입 의향은 청년층(20대 및 30대)이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모두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표 III-3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전체		34.4	4.6	5.4
성별	남성	48.2	4.6	5.0
	여성	20.8	4.6	5.7
연령	20대	33.7	6.0	7.5
	30대	41.8	5.2	5.8
	40대	40.4	4.5	5.0
	50대	38.9	4.3	5.1
	60대 이상	21.3	3.6	4.2
지역규모	대도시	32.5	5.4	5.1
	중·소도시	36.9	4.2	6.2
	군지역	30.1	2.0	1.2
직업	화이트칼라	44.2	5.3	7.1
	블루칼라	34.7	4.6	5.9
	농/임/어업	23.7	1.5	0.0
	자영업	40.7	3.5	3.8
	주부	16.5	4.9	4.2
	은퇴자	15.4	2.2	0.0
	학생	11.9	4.1	2.4
무직/기타	18.9	3.9	5.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4.6	2.7	3.8
	고졸	28.9	4.3	4.5
	대재 이상	42.5	5.2	6.4
	모름/무응답	59.1	6.5	4.5
가구 소득	저소득	20.3	4.5	3.6
	중소득	37.3	4.6	5.4
	고소득	38.9	4.7	6.6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가. 손해보험 보상 경험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N=2,221) 가운데 19.2%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보상 경험자의 전체 평균 보상건수는 3.9건, 평균 보상액수는 558,520원이었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평균 보상건수가 4.4건으로 다른 손해보험 종목보다 보상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평균 보상액수는 464,603원이었음

〈표 III-36〉 손해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단위: 건, 원)

구분	사례 수	평균 보상건수	평균 보상액수
전체	(427)	3.9	558,520
실손의료보험	(332)	4.4	464,603
중증 질병	(4)	1.0	5,125,000
일반 질병	(18)	1.6	230,000
성인병	(1)	2.0	180,000
재해상해	(19)	1.2	697,895
사망	(1)	1.0	350,000
교통사고	(60)	1.1	630,667
재산손실	(2)	1.0	525,000
자녀에 대한 보상	(27)	2.1	256,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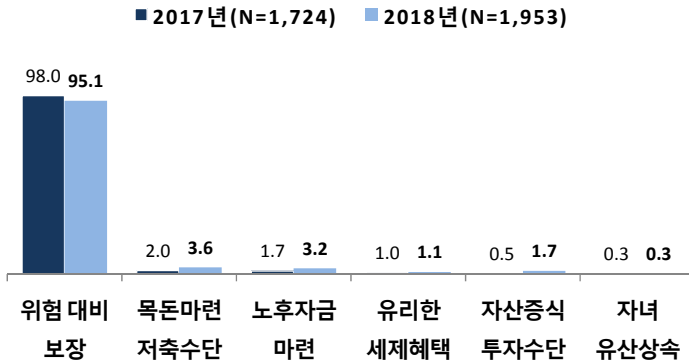
나.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5.1%)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손해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 상대적으로 저축, 노후 대비, 투자수단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남

〈그림 III-5〉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연도별 가입자 대비, 단위: %)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종목에 상관없이 보험 가입 이유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37〉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보장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세제혜택	유산상속	자산증식
자동차보험	95.4	1.6	1.2	1.2	0.5	-
장기손해보험	94.5	3.7	1.5	3.3	1.0	0.2
상해보험	92.9	2.4	-	1.2	1.2	2.4

주: 기타는 제외함(이하 동일)

다.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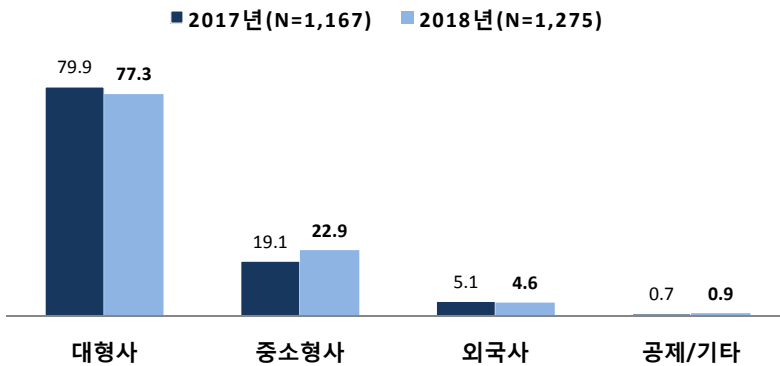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회사를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로 구분하여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그리고 외국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⁶⁾

○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가입자(N=1,275) 가운데 77.3%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개 대형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⁷⁾

〈그림 III-6〉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도별 가입자 대비,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대형사의 가입률은 전 연령에서 7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50대(8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대형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개 회사이며, 중소기업사는 7개 회사, 외국사는 4개 회사임

7) 3년 이내에 손해보험 회사에 가입한 1,167명 중에서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함

- 국내 중·소형사의 가입률은 여성(28.5%), 외국사 가입률은 30대(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내 대형사 가입률은 군지역(89.7%), 중·소형사 가입률은 대도시(2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0.5%)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별로 보면, 저소득(27.2%)이 중소득(21.7%)과 고소득(23.2%) 가구에 비해 중·소형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3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전체		(1,275)	77.3	22.9	4.6	0.9
성별	남성	(822)	79.7	19.8	5.2	1.1
	여성	(453)	73.1	28.5	3.5	0.7
연령	20대	(222)	76.1	23.4	3.2	1.8
	30대	(265)	78.9	20.4	8.3	0.4
	40대	(293)	78.2	23.5	4.4	0.3
	50대	(274)	81.0	20.8	3.3	0.7
	60대 이상	(221)	71.0	27.1	3.6	1.8
지역규모	대도시	(575)	75.8	25.7	5.0	1.0
	중·소도시	(622)	77.2	21.5	4.8	0.8
	군지역	(78)	89.7	12.8	0.0	1.3
직업	화이트칼라	(492)	80.5	19.5	4.5	1.0
	블루칼라	(345)	71.9	26.7	7.0	0.9
	농/임/어업	(14)	85.7	14.3	0.0	7.1
	자영업	(264)	78.8	23.1	3.0	0.8
	주부	(127)	74.8	29.1	3.1	0.0
	은퇴자	(6)	83.3	0.0	16.7	0.0
	학생	(17)	76.5	23.5	0.0	0.0
	무직/기타	(10)	90.0	0.0	0.0	1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1)	73.8	24.6	1.6	1.6
	고졸	(470)	75.7	26.0	3.8	1.1
	대재 이상	(732)	78.7	20.8	5.5	0.8
	모름/무응답	(12)	75.0	25.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91)	69.1	27.2	6.3	2.6
	중소득	(752)	78.7	21.7	5.1	0.8
	고소득	(332)	78.9	23.2	2.7	0.3

라.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이내에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이 3.98 점, 장기손해보험이 3.87점, 상해보험이 3.84점으로 모두 3.9점 내외 수준임

〈표 III-3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구분	3년 내 가입률(%)	상품만족도(5점 만점)
자동차보험 ²⁾	37.0	3.98
장기손해보험	26.5	3.87
상해보험	2.1	3.84

주: 1) 최근 3년 내 가입률로 전체 가입률과 차이가 있음

2)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률임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

- 지역 및 직업별로 보면,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가 군지역 및 농/임/어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교육 수준별로는 대재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III-40〉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자동차 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 보험	
		실손	상해	질병	간병	종합	저축성	어린이 보장		
전체	3.98	3.89	3.89	3.86	3.84	3.76	3.78	3.90	3.84	
성별	남성	4.00	3.89	3.91	3.89	3.75	3.67	3.79	3.86	3.76
	여성	3.93	3.89	3.87	3.84	3.91	3.92	3.77	4.00	3.90
연령	20대	4.00	3.88	3.79	3.79	-	3.75	3.50	-	3.75
	30대	3.96	4.01	3.89	3.87	3.50	4.00	3.80	4.00	3.70
	40대	3.99	3.91	4.00	4.13	3.00	3.71	3.60	4.00	4.07
	50대	4.00	3.83	3.83	3.72	3.83	3.64	4.14	3.00	3.67
	60대 이상	3.96	3.71	3.91	3.94	4.00	4.00	4.00	4.00	4.00
지역 규모	대도시	3.97	3.84	3.88	3.93	3.86	3.75	3.67	3.67	3.83
	중·소도시	4.00	3.93	3.91	3.73	3.82	3.78	3.82	4.00	3.83
	군지역	3.95	3.96	3.92	4.00	4.00	3.50	4.00	4.00	4.00
직업	화이트칼라	3.94	3.90	3.88	3.84	3.33	3.50	3.82	4.00	3.84
	블루칼라	3.95	3.82	3.81	3.87	3.86	3.78	3.82	4.00	3.79
	농/임/어업	4.20	4.00	4.00	4.00	4.00	4.00	4.00	-	4.00
	자영업	4.13	3.79	3.96	3.80	3.80	3.78	3.33	3.67	3.80
	주부	3.80	4.02	4.12	3.88	4.33	4.00	4.00	-	4.00
	은퇴자	4.00	4.00	4.00	-	-	-	-	-	-
	학생	3.67	4.00	-	4.00	-	-	-	-	4.00
무직/기타	3.50	3.67	4.00	4.00	-	-	-	-	3.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74	3.56	3.25	3.86	4.00	3.00	4.00	-	4.00
	고졸	3.99	3.86	3.89	3.80	3.92	3.87	3.83	4.00	4.00
	대재 이상	4.00	3.93	3.93	3.92	3.60	3.71	3.75	3.89	3.76
	모름/무응답	4.00	4.00	4.00	4.00	-	-	-	-	-
가구 소득	저소득	3.94	3.76	3.59	3.82	4.00	4.33	3.50	4.00	4.00
	중소득	3.99	3.90	3.89	3.89	4.00	3.76	3.83	4.00	3.83
	고소득	3.99	3.93	4.07	3.82	3.40	3.62	3.80	3.50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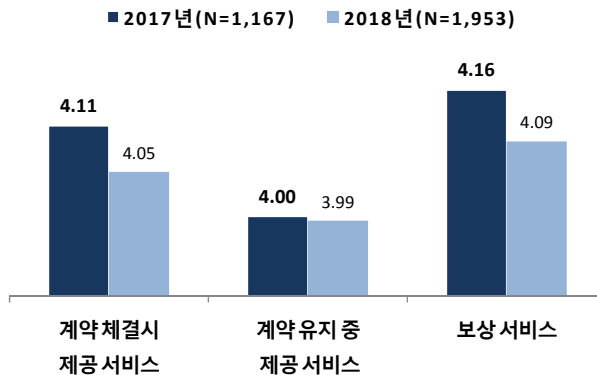
마.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N=1,953)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보상서비스가 4.09점, 계약 체결 시 서비스가 4.05점, 계약 유지 서비스가 3.99점으로 나타남
- 전년도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소폭 하락함

〈그림 III-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도별 가입자 대비,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성별, 지역규모, 직업, 교육수준, 가구 연간 소득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Ⅲ-41〉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사례 수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계약 유지 중 제공서비스	보상서비스
전체		(1,953)	4.05	3.99	4.09
성별	남성	(1,075)	4.05	3.99	4.14
	여성	(878)	4.07	4.00	4.04
연령	20대	(307)	4.04	3.96	4.15
	30대	(375)	4.07	4.00	3.99
	40대	(446)	4.08	4.02	4.18
	50대	(413)	4.05	4.03	4.01
	60대 이상	(412)	4.03	3.94	4.15
지역규모	대도시	(894)	4.08	3.95	4.09
	중·소도시	(926)	4.03	4.03	4.09
	군지역	(133)	4.05	4.04	4.25
직업	화이트칼라	(676)	4.04	3.98	4.05
	블루칼라	(515)	4.01	3.91	4.09
	농/임/어업	(25)	4.12	4.08	5.00
	자영업	(380)	4.10	4.09	4.24
	주부	(298)	4.08	4.05	3.98
	은퇴자	(14)	4.00	3.79	3.86
	학생	(27)	4.11	4.00	4.25
	무직/기타	(18)	4.17	4.00	4.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8)	4.04	3.95	3.96
	고졸	(798)	4.05	3.99	4.11
	대재 이상	(1,010)	4.07	4.00	4.10
	모름/무응답	(17)	3.82	4.00	4.00
가구 소득	저소득	(310)	3.98	3.90	3.98
	중소득	(1,144)	4.07	4.00	4.10
	고소득	(499)	4.06	4.03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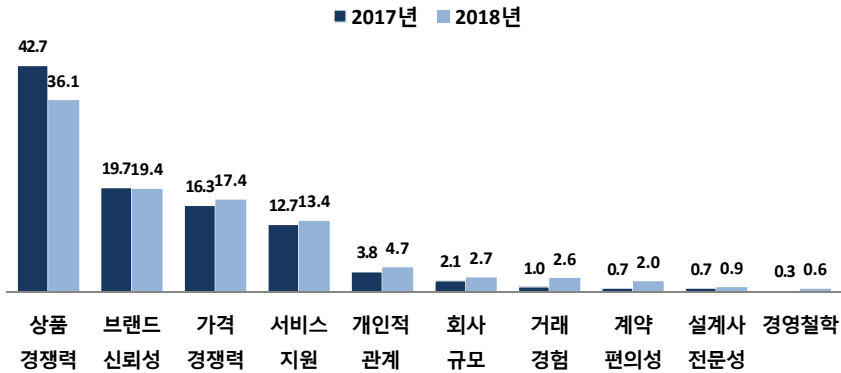
바.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36.1%)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19.4%), 가격 경쟁력(17.4%), 서비스 지원(13.4%) 등의 순임

〈그림 III-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N=2,440, 단위: %)



2)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함
 - 연령별로도 상품 경쟁력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브랜드 신뢰성의 경우에는 60대 이상(2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38.2%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1.3%)에서 상품 경쟁력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력별로는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대재 이상(39.1%)에서 가장 높음

〈표 III-4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 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가격 경쟁력	서비스 지원	개인적 관계
전체		(2,440)	36.1	19.4	17.4	13.4	4.7
성별	남성	(1,214)	36.3	19.5	17.4	13.3	5.0
	여성	(1,226)	36.0	19.3	17.5	13.5	4.3
연령	20대	(398)	36.9	20.6	17.8	10.6	5.0
	30대	(428)	41.4	17.1	17.3	14.5	2.6
	40대	(502)	35.5	16.1	17.3	16.5	4.2
	50대	(493)	35.1	20.9	16.4	11.0	5.5
	60대 이상	(619)	33.4	21.8	18.1	13.9	5.7
지역규모	대도시	(1,103)	34.5	17.8	17.7	15.3	5.1
	중·소도시	(1,174)	38.2	21.1	17.1	11.2	3.9
	군지역	(163)	33.1	18.4	17.8	16.6	7.4
직업	화이트칼라	(774)	41.3	19.3	15.2	12.5	3.7
	블루칼라	(632)	31.3	20.6	20.3	13.6	5.9
	농/임/어업	(38)	23.7	18.4	28.9	7.9	15.8
	자영업	(442)	34.4	15.6	18.1	15.8	4.8
	주부	(449)	36.5	18.5	17.1	14.3	3.3
	은퇴자	(26)	34.6	38.5	7.7	3.8	7.7
	학생	(42)	33.3	31.0	11.9	11.9	7.1
	무직/기타	(37)	43.2	35.1	10.8	2.7	2.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32.4	26.3	12.7	10.8	8.0
	고졸	(1,038)	33.7	19.7	17.2	14.7	5.1
	대재 이상	(1,167)	39.1	17.7	18.4	12.9	3.5
	모름/무응답	(22)	31.8	27.3	18.2	4.5	13.6
가구 소득	저소득	(468)	35.3	21.8	16.7	12.0	5.8
	중소득	(1,383)	36.3	18.6	17.9	13.9	4.3
	고소득	(589)	36.5	19.5	17.0	13.4	4.6

〈표 III-42〉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회사 규모	과거 거래경험	계약 체결의 편의성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전체		(2,440)	2.7	2.6	2.0	0.9	0.6
성별	남성	(1,214)	2.3	1.9	2.2	1.2	0.8
	여성	(1,226)	3.2	3.3	1.8	0.7	0.3
연령	20대	(398)	2.8	2.3	2.3	1.3	0.3
	30대	(428)	2.1	2.8	1.4	0.7	0.2
	40대	(502)	2.8	2.8	2.4	1.2	1.2
	50대	(493)	3.4	3.4	3.0	0.4	0.8
	60대 이상	(619)	2.6	1.9	1.1	1.0	0.3
지역규모	대도시	(1,103)	3.1	2.6	1.8	1.1	1.0
	중·소도시	(1,174)	2.6	2.8	2.2	0.7	0.2
	군지역	(163)	1.8	1.2	1.8	1.2	0.6
직업	화이트칼라	(774)	1.9	2.6	2.2	0.8	0.3
	블루칼라	(632)	2.7	1.4	2.1	1.3	0.8
	농/임/어업	(38)	2.6	0.0	2.6	0.0	0.0
	자영업	(442)	4.3	2.5	2.5	0.7	1.4
	주부	(449)	3.1	4.9	1.3	0.7	0.2
	은퇴자	(26)	3.8	0.0	0.0	3.8	0.0
	학생	(42)	0.0	2.4	2.4	0.0	0.0
	무직/기타	(37)	0.0	2.7	0.0	2.7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2.8	3.3	1.9	1.4	0.5
	고졸	(1,038)	3.2	2.9	2.1	0.8	0.5
	대재 이상	(1,167)	2.4	2.2	2.0	0.9	0.7
	모름/무응답	(22)	0.0	4.5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2.1	2.6	1.9	0.9	0.6
	중소득	(1,383)	3.0	2.7	1.7	0.9	0.7
	고소득	(589)	2.7	2.4	2.7	1.0	0.2

IV.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1.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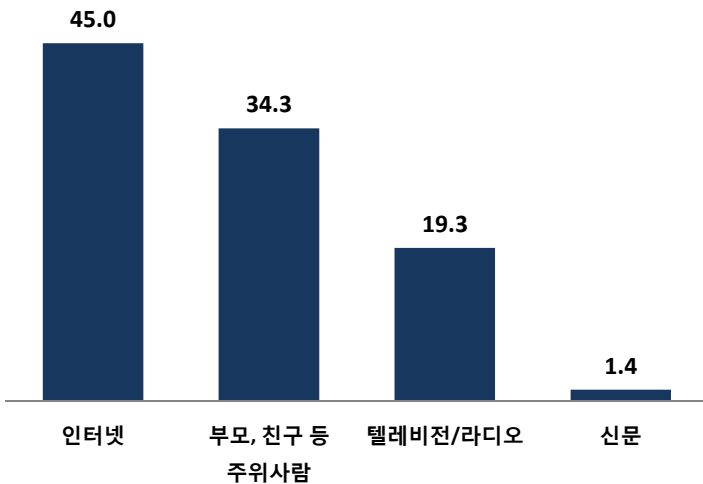
가. 금융상품과 인터넷

1) 필요 정보 수집 경로

- 평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로는 '인터넷'이 45.0%로 가장 높았고, '부모, 친구 등 주위사람'(34.3%), '텔레비전/라디오'(19.3%), '신문'(1.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 필요 정보 수집 경로

(N=2,440, 단위: %)



- ‘인터넷’을 통해 평소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남성(49.1%), 화이트칼라(66.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인터넷’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 필요 정보 수집 경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인터넷	부모, 친구 등 주위사람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전체		(2,440)	45.0	34.3	19.3	1.4
성별	남성	(1,214)	49.1	29.6	19.0	2.3
	여성	(1,226)	40.9	39.0	19.5	0.6
연령	20대	(398)	82.4	14.1	3.5	0.0
	30대	(428)	80.8	15.9	2.8	0.5
	40대	(502)	55.8	27.1	16.5	0.6
	50대	(493)	23.9	47.3	25.8	3.0
	60대 이상	(619)	4.2	55.6	37.8	2.4
지역규모	대도시	(1,103)	48.4	30.1	19.5	2.0
	중·소도시	(1,174)	44.5	36.0	18.6	0.9
	군지역	(163)	25.8	50.3	22.7	1.2
직업	화이트칼라	(774)	66.9	21.8	10.3	0.9
	블루칼라	(632)	44.0	35.3	19.6	1.1
	농/임/어업	(38)	2.6	68.4	28.9	0.0
	자영업	(442)	28.1	39.8	27.8	4.3
	주부	(449)	30.1	45.9	23.8	0.2
	은퇴자	(26)	0.0	65.4	30.8	3.8
	학생	(42)	76.2	19.0	4.8	0.0
	무직/기타	(37)	27.0	32.4	40.5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5.2	53.5	39.4	1.9
	고졸	(1,038)	28.7	44.9	24.6	1.8
	대재 이상	(1,167)	66.8	21.3	11.0	1.0
	모름/무응답	(22)	45.5	40.9	13.6	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26.5	41.2	30.6	1.7
	중소득	(1,383)	46.9	33.8	17.9	1.4
	고소득	(589)	55.3	30.1	13.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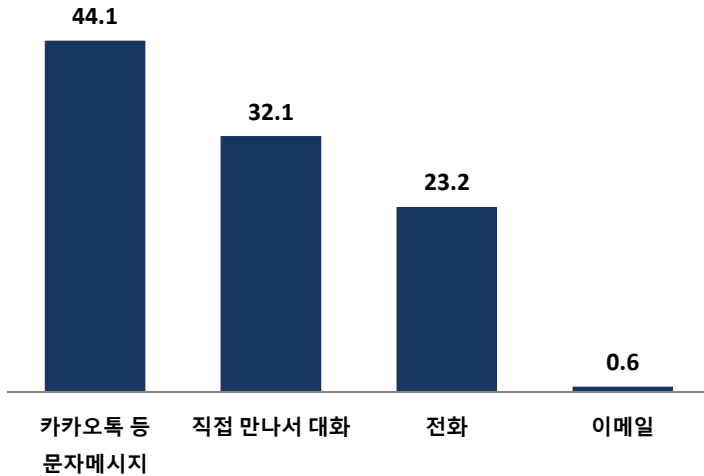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일주일 기준)

-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 만나서 대화'(32.1%), '전화'(23.2%), '이메일'(0.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일주일 기준)

(N=2,440, 단위: %)



-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라는 응답은 화이트칼라(61.1%), 학생(85.7%)에서 특히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일주일 기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직접 만나서 대화	전화	이메일
전체		(2,440)	44.1	32.1	23.2	0.6
성별	남성	(1,214)	44.0	32.9	22.2	1.0
	여성	(1,226)	44.2	31.3	24.2	0.2
연령	20대	(398)	86.4	7.8	5.3	0.5
	30대	(428)	74.5	13.1	11.4	0.9
	40대	(502)	45.4	26.5	27.3	0.8
	50대	(493)	26.8	40.0	32.7	0.6
	60대 이상	(619)	8.6	59.1	32.0	0.3
지역규모	대도시	(1,103)	47.5	24.2	27.3	1.0
	중·소도시	(1,174)	42.5	36.0	21.2	0.3
	군지역	(163)	32.5	57.1	9.8	0.6
직업	화이트칼라	(774)	61.1	19.3	18.7	0.9
	블루칼라	(632)	46.8	30.9	21.4	0.9
	농/임/어업	(38)	13.2	78.9	7.9	0.0
	자영업	(442)	26.2	43.9	29.9	0.0
	주부	(449)	31.8	38.3	29.4	0.4
	은퇴자	(26)	0.0	65.4	34.6	0.0
	학생	(42)	85.7	7.1	7.1	0.0
	무직/기타	(37)	18.9	62.2	18.9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8.5	60.1	31.0	0.5
	고졸	(1,038)	31.8	39.3	28.6	0.3
	대재 이상	(1,167)	61.9	20.7	16.6	0.9
	모름/무응답	(22)	27.3	27.3	40.9	4.5
가구 소득	저소득	(468)	28.4	47.4	23.9	0.2
	중소득	(1,383)	47.0	28.5	23.9	0.6
	고소득	(589)	49.7	28.4	2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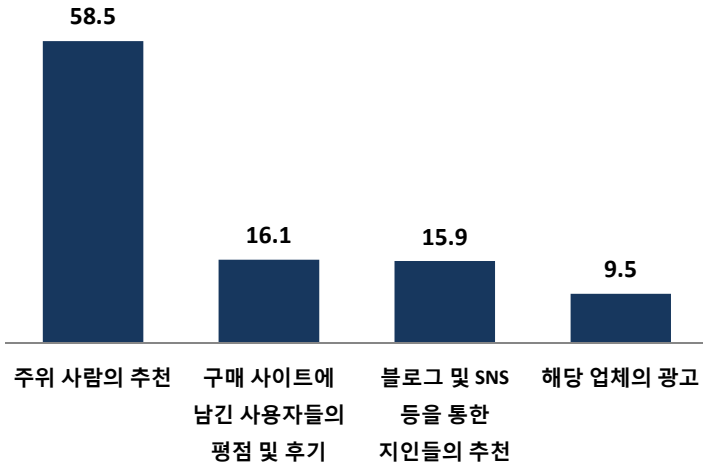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소비재, 금융상품 등 구입 시 정보 수집 경로

- 소비재, 금융상품 등을 구입할 때 구매결정을 위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주위 사람의 추천’이 58.5%로 가장 많았고, ‘구매 사이트에 남긴 사용자들의 평점 및 후기’(16.1%),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한 지인들의 추천’(15.9%), ‘해당 업체의 광고’(9.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 소비재, 금융상품 등 구입 시 정보 수집 경로

(N=2,440, 단위: %)



- ‘주위 사람의 추천’으로 구매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50대(73.4%) 및 60대 이상(88.2%), 군지역(71.8%), 농/임/어업(94.7%), 자영업(72.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 소비자, 금융상품 등 구입 시 정보 수집 경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주위 사람의 추천	구매 사이트에 남긴 사용자들의 평점 및 후기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한 지인들의 추천	해당 업체의 광고
전체		(2,440)	58.5	16.1	15.9	9.5
성별	남성	(1,214)	57.9	15.4	16.4	10.3
	여성	(1,226)	59.1	16.8	15.3	8.7
연령	20대	(398)	22.9	30.9	37.4	8.8
	30대	(428)	33.9	30.6	29.0	6.5
	40대	(502)	56.6	20.1	12.9	10.4
	50대	(493)	73.4	5.5	7.5	13.6
	60대 이상	(619)	88.2	1.8	1.9	8.1
지역규모	대도시	(1,103)	54.4	19.0	15.5	11.1
	중·소도시	(1,174)	60.6	13.9	17.4	8.2
	군지역	(163)	71.8	12.3	7.4	8.6
직업	화이트칼라	(774)	44.2	22.4	23.1	10.3
	블루칼라	(632)	58.4	14.6	17.2	9.8
	농/임/어업	(38)	94.7	2.6	0.0	2.6
	자영업	(442)	72.6	9.0	7.7	10.6
	주부	(449)	68.4	13.6	10.7	7.3
	은퇴자	(26)	73.1	3.8	0.0	23.1
	학생	(42)	11.9	54.8	31.0	2.4
	무직/기타	(37)	78.4	5.4	10.8	5.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87.3	2.8	2.3	7.5
	고졸	(1,038)	69.1	10.6	10.8	9.5
	대재 이상	(1,167)	43.9	23.3	22.9	9.9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22)	59.1	22.7	13.6	4.5
	저소득	(468)	71.6	10.0	10.7	7.7
	중소득	(1,383)	56.6	17.8	16.1	9.5
	고소득	(589)	52.6	17.0	19.5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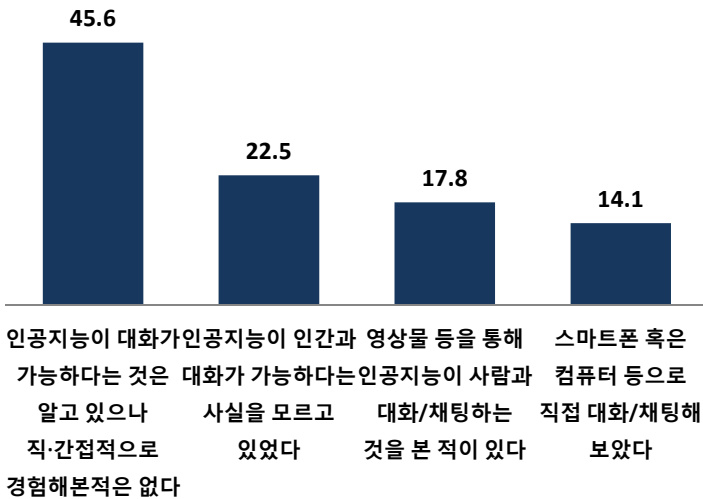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인공지능과 대화/채팅 경험

- 인공지능과 대화/채팅을 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적은 없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22.5%), ‘영상물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채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 인공지능과 대화/채팅 경험

(N=2,440, 단위: %)



- ‘인공지능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적은 없다’는 응답은 남성(49.2%), 40대(5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 인공지능과 대화/채팅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인공지능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적은 없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영상물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채팅하 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등으로 직접 대화/채팅해 보았다	
전체	(2,440)	45.6	22.5	17.8	14.1	
성별	남성	(1,214)	49.2	18.3	18.9	13.7
	여성	(1,226)	42.0	26.7	16.7	14.6
연령	20대	(398)	47.0	4.0	22.9	26.1
	30대	(428)	46.7	5.1	25.5	22.7
	40대	(502)	50.6	11.8	21.3	16.3
	50대	(493)	48.9	27.8	15.6	7.7
	60대 이상	(619)	37.2	50.9	8.1	3.9
지역규모	대도시	(1,103)	44.4	20.0	19.8	15.8
	중·소도시	(1,174)	46.7	24.4	17.4	11.6
	군지역	(163)	45.4	25.8	7.4	21.5
직업	화이트칼라	(774)	46.6	8.3	23.5	21.6
	블루칼라	(632)	48.3	23.1	16.9	11.7
	농/임/어업	(38)	28.9	65.8	2.6	2.6
	자영업	(442)	50.2	28.5	12.9	8.4
	주부	(449)	37.0	35.2	15.4	12.5
	은퇴자	(26)	57.7	34.6	3.8	3.8
	학생	(42)	50.0	2.4	31.0	16.7
무직/기타	(37)	29.7	54.1	10.8	5.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33.3	56.8	8.0	1.9
	고졸	(1,038)	46.1	31.1	13.5	9.3
	대재 이상	(1,167)	47.4	8.7	23.2	20.7
	모름/무응답	(22)	45.5	13.6	27.3	13.6
가구 소득	저소득	(468)	37.8	42.9	10.0	9.2
	중소득	(1,383)	46.3	20.2	19.6	14.0
	고소득	(589)	50.1	11.7	19.7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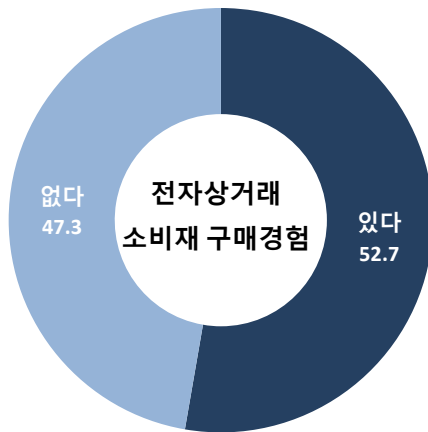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인터넷 혹은 모바일 등에서 상품 등을 구입한 경험: 소비재 구매 경험

-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통해 소비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7%로 '(경험이) 없다'(47.3%)에 비해 5.4%p 높게 나타남

〈그림 IV-5〉 전자상거래 소비재 구매 경험

(N=2,440, 단위: %)



-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대(85.2%), 대도시(58.7%), 화이트칼라(68.9%), 대재 이상(6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 전자상거래 소비재 구매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440)	52.7	47.3
성별	남성	(1,214)	52.1	47.9
	여성	(1,226)	53.3	46.7
연령	20대	(398)	85.2	14.8
	30대	(428)	81.8	18.2
	40대	(502)	65.3	34.7
	50대	(493)	40.0	60.0
	60대 이상	(619)	11.6	88.4
지역규모	대도시	(1,103)	58.7	41.3
	중·소도시	(1,174)	51.4	48.6
	군지역	(163)	21.5	78.5
직업	화이트칼라	(774)	68.9	31.1
	블루칼라	(632)	54.1	45.9
	농/임/어업	(38)	2.6	97.4
	자영업	(442)	37.6	62.4
	주부	(449)	42.5	57.5
	은퇴자	(26)	7.7	92.3
	학생	(42)	88.1	11.9
	무직/기타	(37)	37.8	62.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6.1	93.9
	고졸	(1,038)	43.6	56.4
	대재 이상	(1,167)	69.4	30.6
	모름/무응답	(22)	45.5	54.5
가구 소득	저소득	(468)	31.0	69.0
	중소득	(1,383)	57.1	42.9
	고소득	(589)	59.6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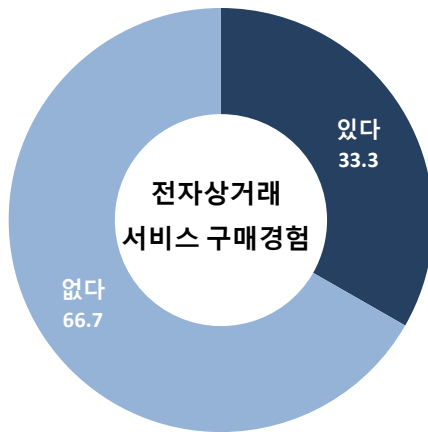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인터넷 혹은 모바일 등에서 상품 등을 구입한 경험: 서비스 구매 경험

-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이) 있다'가 33.3%로 '(경험이) 없다'(66.7%)에 비해 33.4%p 낮게 나타남

〈그림 IV-6〉 전자상거래 서비스 구매 경험

(N=2,440, 단위: %)



- 전자상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대(62.1%), 대도시(38.3%), 화이트칼라(47.4%), 대재 이상(4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 전자상거래 서비스 구매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440)	33.3	66.7
성별	남성	(1,214)	33.3	66.7
	여성	(1,226)	33.3	66.7
연령	20대	(398)	62.1	37.9
	30대	(428)	61.2	38.8
	40대	(502)	37.1	62.9
	50대	(493)	16.6	83.4
	60대 이상	(619)	5.7	94.3
지역규모	대도시	(1,103)	38.3	61.7
	중·소도시	(1,174)	31.9	68.1
	군지역	(163)	9.2	90.8
직업	화이트칼라	(774)	47.4	52.6
	블루칼라	(632)	32.0	68.0
	농/임/어업	(38)	2.6	97.4
	자영업	(442)	21.7	78.3
	주부	(449)	25.2	74.8
	은퇴자	(26)	3.8	96.2
	학생	(42)	61.9	38.1
	무직/기타	(37)	16.2	83.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4.2	95.8
	고졸	(1,038)	23.2	76.8
	대재 이상	(1,167)	47.5	52.5
	모름/무응답	(22)	36.4	63.6
가구 소득	저소득	(468)	21.4	78.6
	중소득	(1,383)	35.5	64.5
	고소득	(589)	37.5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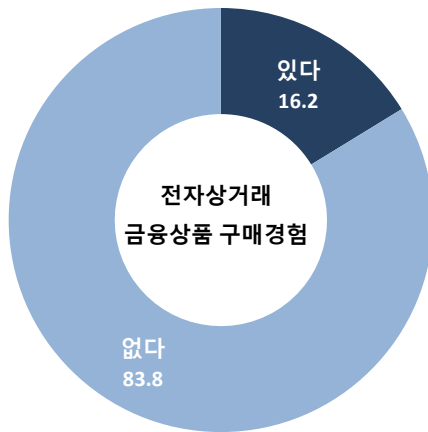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7) 인터넷 혹은 모바일 등에서 상품 등을 구입한 경험: 금융상품 가입 경험

- 인터넷 혹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이) 있다’가 16.2%로 ‘(경험이) 없다’(83.8%)에 비해 67.6%p 낮게 나타남

〈그림 IV-7〉 전자상거래 금융상품 구매 경험

(N=2,440, 단위: %)



- 전자상거래를 통해 금융상품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대(34.6%), 화이트칼라(25.8%), 대재 이상(2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 전자상거래 금융상품 구매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440)	16.2	83.8
성별	남성	(1,214)	18.0	82.0
	여성	(1,226)	14.5	85.5
연령	20대	(398)	27.1	72.9
	30대	(428)	34.6	65.4
	40대	(502)	19.5	80.5
	50대	(493)	6.3	93.7
	60대 이상	(619)	1.8	98.2
지역규모	대도시	(1,103)	17.5	82.5
	중·소도시	(1,174)	16.2	83.8
	군지역	(163)	8.0	92.0
직업	화이트칼라	(774)	25.8	74.2
	블루칼라	(632)	16.9	83.1
	농/임/어업	(38)	2.6	97.4
	자영업	(442)	7.0	93.0
	주부	(449)	9.8	90.2
	은퇴자	(26)	3.8	96.2
	학생	(42)	23.8	76.2
	무직/기타	(37)	5.4	94.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2.8	97.2
	고졸	(1,038)	7.9	92.1
	대재 이상	(1,167)	26.0	74.0
	모름/무응답	(22)	18.2	81.8
가구 소득	저소득	(468)	7.5	92.5
	중소득	(1,383)	17.1	82.9
	고소득	(589)	21.1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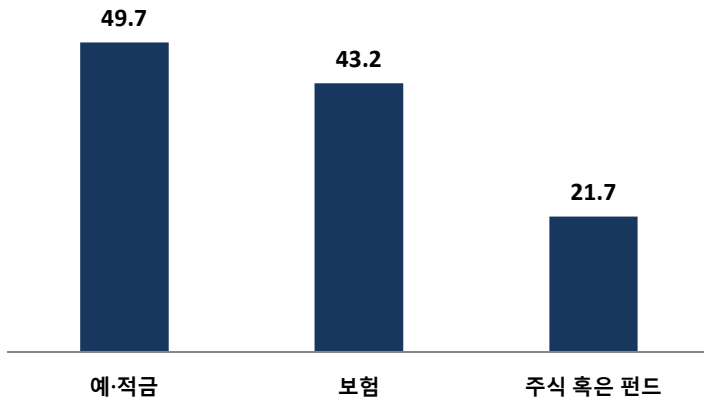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8)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

-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를 살펴본 결과, '예·적금'이 4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43.2%), '주식 혹은 펀드'(21.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

(N=396, 단위: %)



-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으로 '예·적금'이라는 응답은 여성(59.6%), 20대(5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이 '보험'이라는 응답은 남성(48.6%), 40대(52.0%), 대재 이상(46.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8〉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적금	보험	주식 혹은 펀드
전체		(396)	49.7	43.2	21.7
성별	남성	(218)	41.7	48.6	25.2
	여성	(178)	59.6	36.5	17.4
연령	20대	(108)	58.3	38.9	16.7
	30대	(148)	54.1	39.9	23.6
	40대	(98)	35.7	52.0	23.5
	50대	(31)	51.6	38.7	29.0
	60대 이상	(11)	27.3	63.6	9.1
지역규모	대도시	(193)	52.8	39.4	25.4
	중·소도시	(190)	47.4	45.3	18.4
	군지역	(13)	38.5	69.2	15.4
직업	화이트칼라	(200)	47.0	44.5	21.0
	블루칼라	(107)	52.3	48.6	17.8
	농/임/어업	(1)	0.0	100.0	0.0
	자영업	(31)	45.2	41.9	22.6
	주부	(44)	56.8	27.3	36.4
	은퇴자	(1)	0.0	100.0	0.0
	학생	(10)	60.0	30.0	10.0
	무직/기타	(2)	100.0	0.0	5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50.0	50.0	33.3
	고졸	(82)	58.5	31.7	24.4
	대재 이상	(304)	47.0	46.1	20.7
	모름/무응답	(4)	75.0	50.0	25.0
가구 소득	저소득	(35)	48.6	48.6	20.0
	중소득	(237)	52.3	39.2	22.4
	고소득	(124)	45.2	49.2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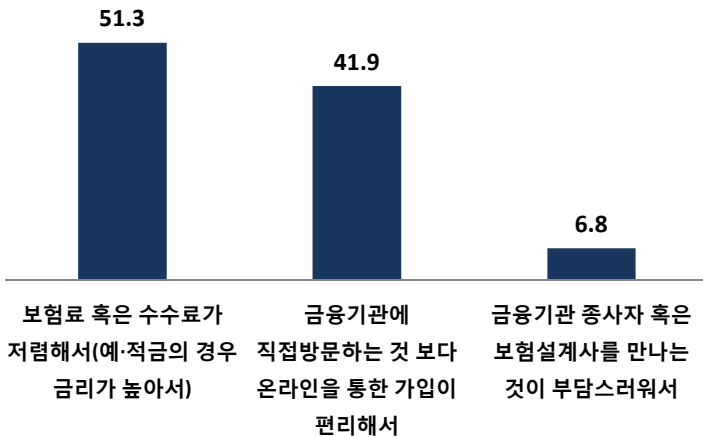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으며,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총합은 100%를 넘을 수 있음

9)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

-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 혹은 수수료가 저렴해서(예·적금의 경우 금리가 높아서)’가 51.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편리해서’(41.9%), ‘금융기관 종사자 혹은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6.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

(N=396, 단위: %)



- ‘보험료 혹은 수수료가 저렴해서’라는 응답은 50대(58.1%), 화이트칼라(5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편리해서’라는 응답은 주부(63.6%), 고졸(5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료 혹은 수수료가 저렴해서(예·적금 의 경우 금리가 높아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편리해서	금융기관 종사자 혹은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전체	(396)	51.3	41.9	6.8	
성별	남성	(218)	52.8	40.4	6.9
	여성	(178)	49.4	43.8	6.7
연령	20대	(108)	53.7	39.8	6.5
	30대	(148)	47.3	46.6	6.1
	40대	(98)	52.0	40.8	7.1
	50대	(31)	58.1	29.0	12.9
	60대 이상	(11)	54.5	45.5	0.0
지역규모	대도시	(193)	48.7	40.9	10.4
	중·소도시	(190)	52.1	44.2	3.7
	군지역	(13)	76.9	23.1	0.0
직업	화이트칼라	(200)	55.0	40.5	4.5
	블루칼라	(107)	49.5	38.3	12.1
	농/임/어업	(1)	0.0	100.0	0.0
	자영업	(31)	58.1	38.7	3.2
	주부	(44)	31.8	63.6	4.5
	은퇴자	(1)	100.0	0.0	0.0
	학생	(10)	60.0	20.0	20.0
	무직/기타	(2)	50.0	5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66.7	33.3	0.0
	고졸	(82)	40.2	52.4	7.3
	대재 이상	(304)	53.9	39.1	6.9
	모름/무응답	(4)	50.0	5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5)	37.1	45.7	17.1
	중소득	(237)	49.4	44.3	6.3
	고소득	(124)	58.9	36.3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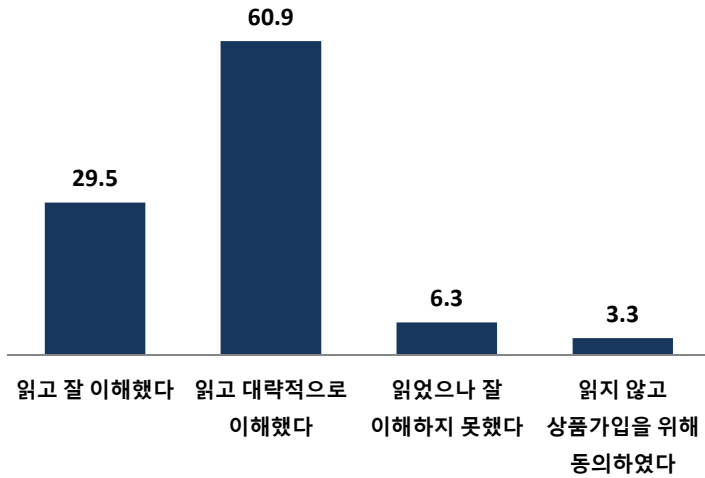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10) 인터넷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이해 정도

-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 살펴본 결과, '이해했다(읽고 잘 이해했다 혹은 읽고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는 응답이 90.4%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이해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0〉 인터넷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이해 정도

(N=396, 단위: %)



-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에 대한 이해도는 중·소도시(94.7%), 화이트 칼라(94.0%), 대재 이상(92.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10〉 인터넷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이해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읽고 잘 이해했다	읽고 대략적으로 이해했다	읽었으나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읽지 않고 상품가입을 위해 동의하였다	
전체	(396)	29.5	60.9	6.3	3.3	
성별	남성	(218)	26.1	65.1	7.3	1.4
	여성	(178)	33.7	55.6	5.1	5.6
연령	20대	(108)	38.9	52.8	4.6	3.7
	30대	(148)	31.8	60.1	7.4	0.7
	40대	(98)	21.4	69.4	3.1	6.1
	50대	(31)	16.1	58.1	19.4	6.5
	60대 이상	(11)	18.2	81.8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93)	29.5	58.0	7.3	5.2
	중·소도시	(190)	30.0	64.7	4.7	0.5
	군지역	(13)	23.1	46.2	15.4	15.4
직업	화이트칼라	(200)	30.0	64.0	4.5	1.5
	블루칼라	(107)	29.0	56.1	10.3	4.7
	농/임/어업	(1)	0.0	100.0	0.0	0.0
	자영업	(31)	19.4	64.5	6.5	9.7
	주부	(44)	34.1	61.4	2.3	2.3
	은퇴자	(1)	100.0	0.0	0.0	0.0
	학생	(10)	30.0	40.0	20.0	10.0
	무직/기타	(2)	50.0	5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16.7	66.7	16.7	0.0
	고졸	(82)	18.3	65.9	8.5	7.3
	대재 이상	(304)	33.2	58.9	5.6	2.3
	모름/무응답	(4)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5)	31.4	54.3	5.7	8.6
	중소득	(237)	25.7	65.0	5.9	3.4
	고소득	(124)	36.3	54.8	7.3	1.6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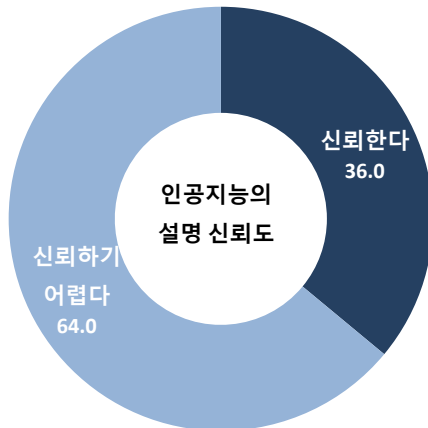
나. 금융상품과 인공지능

1) 인공지능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제공 시 신뢰 여부

- 인공지능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을 대화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신뢰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이 36.0%로 ‘신뢰하기 어렵다’(64.0%)에 비해 28.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1〉 인공지능의 설명 신뢰도

(N=2,440, 단위: %)



-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설명 및 주의사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남성(38.5%), 20대(61.1%) 및 30대(52.1%), 대도시(42.2%), 화이트칼라(49.0%), 학생(76.2%), 대재 이상(47.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인공지능의 상품 설명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1〉 인공지능의 설명 신뢰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신뢰한다	신뢰하기 어렵다
전체		(2,440)	36.0	64.0
성별	남성	(1,214)	38.5	61.5
	여성	(1,226)	33.6	66.4
연령	20대	(398)	61.1	38.9
	30대	(428)	52.1	47.9
	40대	(502)	34.3	65.7
	50대	(493)	29.8	70.2
	60대 이상	(619)	15.2	84.8
지역규모	대도시	(1,103)	42.2	57.8
	중·소도시	(1,174)	31.7	68.3
	군지역	(163)	25.2	74.8
직업	화이트칼라	(774)	49.0	51.0
	블루칼라	(632)	35.8	64.2
	농/임/어업	(38)	13.2	86.8
	자영업	(442)	23.5	76.5
	주부	(449)	27.2	72.8
	은퇴자	(26)	11.5	88.5
	학생	(42)	76.2	23.8
	무직/기타	(37)	21.6	78.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18.3	81.7
	고졸	(1,038)	27.2	72.8
	대재 이상	(1,167)	47.4	52.6
	모름/무응답	(22)	22.7	77.3
가구 소득	저소득	(468)	22.9	77.1
	중소득	(1,383)	36.6	63.4
	고소득	(589)	45.2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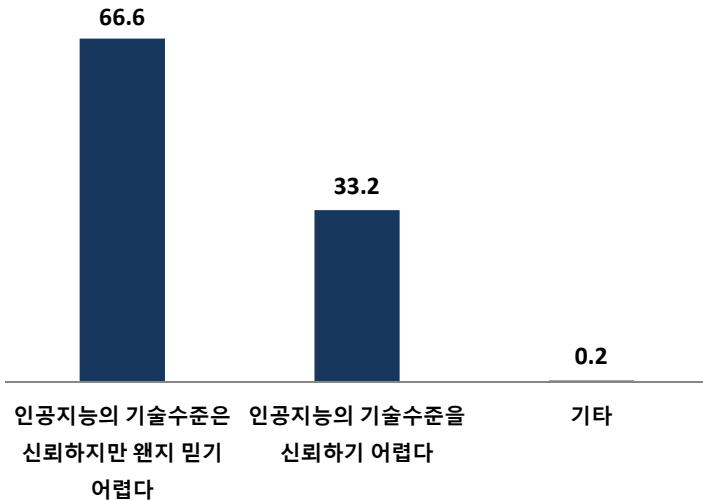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인공지능이 설명 및 주의사항을 제공 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설명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은 신뢰하지만 왠지 믿기 어렵다’는 응답이 66.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33.2%),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2〉 인공지능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N=1,561, 단위: %)



-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은 신뢰하지만 왠지 믿기 어렵다’는 응답은 30대(71.2%), 군지역(73.0%), 블루칼라(7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60대 이상(38.1%), 대도시(36.9%),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IV-12〉 인공지능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은 신뢰하지만 왠지 믿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	기타
전체		(1,561)	66.6	33.2	0.2
성별	남성	(747)	68.7	31.3	0.0
	여성	(814)	64.6	35.0	0.4
연령	20대	(155)	66.5	33.5	0.0
	30대	(205)	71.2	28.8	0.0
	40대	(330)	67.6	32.1	0.3
	50대	(346)	70.5	29.5	0.0
	60대 이상	(525)	61.5	38.1	0.4
지역규모	대도시	(637)	63.1	36.9	0.0
	중·소도시	(802)	68.3	31.3	0.4
	군지역	(122)	73.0	27.0	0.0
직업	화이트칼라	(395)	63.0	36.7	0.3
	블루칼라	(406)	70.0	29.6	0.5
	농/임/어업	(33)	60.6	39.4	0.0
	자영업	(338)	69.5	30.5	0.0
	주부	(327)	64.8	35.2	0.0
	은퇴자	(23)	56.5	43.5	0.0
	학생	(10)	70.0	30.0	0.0
	무직/기타	(29)	65.5	34.5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4)	59.2	40.8	0.0
	고졸	(756)	68.0	31.7	0.3
	대재 이상	(614)	67.8	32.1	0.2
	모름/무응답	(17)	35.3	64.7	0.0
가구 소득	저소득	(361)	62.3	37.4	0.3
	중소득	(877)	67.2	32.7	0.1
	고소득	(323)	69.7	30.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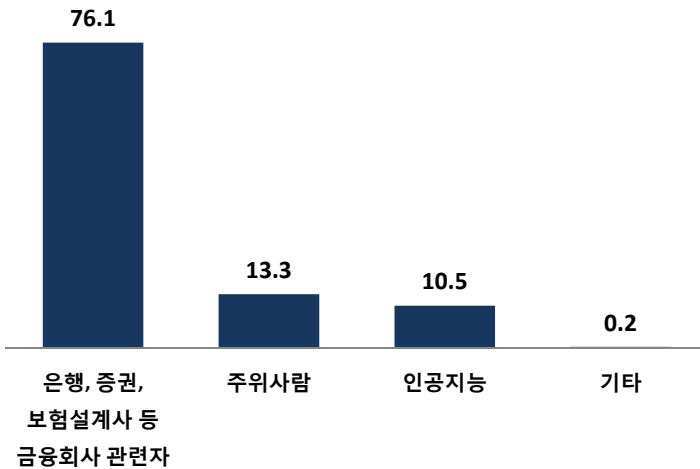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금융상품 가입 시 상담 희망 채널

- 금융상품 가입 시,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 채널을 살펴본 결과, '은행, 증권, 보험설계사 등 금융회사 관련자'가 7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위사람'(13.3%), '인공지능'(10.5%),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3〉 금융상품 가입 시 상담 희망 채널

(N=2,440, 단위: %)



- 금융회사 관련자에게 상담 받고 싶다는 응답은 50대(81.5%), 대도시(79.5%) 및 군지역(83.4%), 고졸(7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3〉 금융상품 가입 시 상담 희망 채널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금융회사 관련자	주위사람	인공지능	기타
전체		(2,440)	76.1	13.3	10.5	0.2
성별	남성	(1,214)	77.1	10.7	11.9	0.2
	여성	(1,226)	75.0	15.9	9.0	0.1
연령	20대	(398)	71.4	6.5	21.9	0.3
	30대	(428)	72.0	8.9	18.7	0.5
	40대	(502)	77.9	11.6	10.6	0.0
	50대	(493)	81.5	13.6	4.7	0.2
	60대 이상	(619)	76.1	22.0	1.9	0.0
지역규모	대도시	(1,103)	79.5	8.3	12.1	0.1
	중·소도시	(1,174)	71.8	18.1	9.9	0.3
	군지역	(163)	83.4	12.9	3.7	0.0
직업	화이트칼라	(774)	74.0	9.2	16.5	0.3
	블루칼라	(632)	76.9	11.7	11.1	0.3
	농/임/어업	(38)	65.8	28.9	5.3	0.0
	자영업	(442)	79.2	15.4	5.4	0.0
	주부	(449)	76.8	18.5	4.7	0.0
	은퇴자	(26)	73.1	23.1	3.8	0.0
	학생	(42)	76.2	2.4	21.4	0.0
	무직/기타	(37)	70.3	29.7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73.2	23.9	2.3	0.5
	고졸	(1,038)	79.6	14.6	5.7	0.1
	대재 이상	(1,167)	73.9	9.9	16.1	0.2
	모름/무응답	(22)	54.5	31.8	13.6	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74.4	19.4	6.2	0.0
	중소득	(1,383)	77.7	12.7	9.5	0.1
	고소득	(589)	73.5	9.8	16.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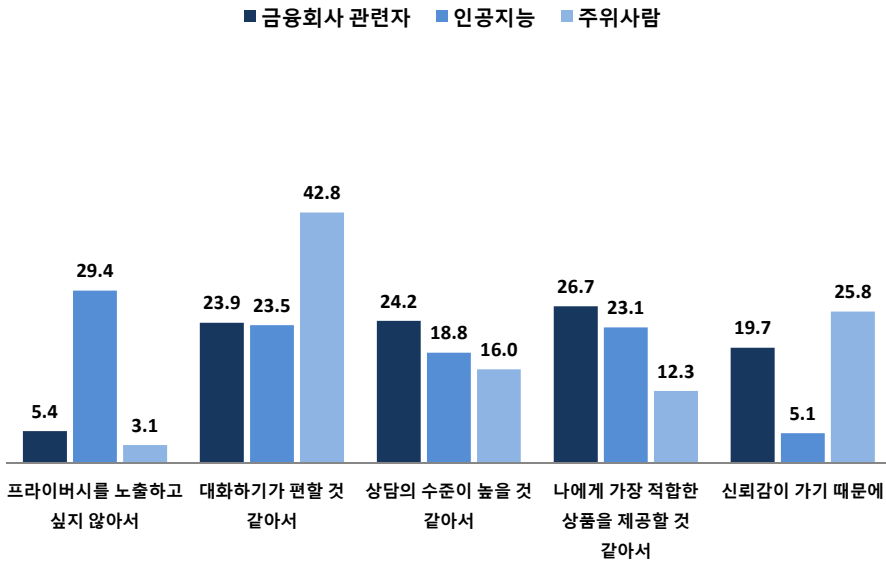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해당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 금융상품 가입 시 상담 받고 싶은 채널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금융회사 관련자'의 경우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것 같아서'가 26.7%로 가장 많았음
- '인공지능'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가 29.4%로 가장 많았고, '주위사람'을 선택한 응답자는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42.8%)를 가장 많이 꼽음

<그림 IV-14> 해당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N=1,856, 단위: %)



○ 금융회사 관련자 선호 응답자 중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것 같다'는 응답은 남성(29.9%), 군지역(36.0%), 블루칼라(3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4〉 해당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금융회사 관련자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것 같아서	상담의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전체		(1,856)	26.7	24.2	23.9	19.7	5.4
성별	남성	(936)	29.9	23.2	23.6	17.7	5.6
	여성	(920)	23.5	25.3	24.2	21.6	5.3
연령	20대	(284)	28.2	25.4	21.5	19.0	6.0
	30대	(308)	28.9	25.0	22.1	17.9	6.2
	40대	(391)	23.3	26.1	25.3	19.9	5.4
	50대	(402)	28.6	23.9	22.6	18.4	6.5
	60대 이상	(471)	25.7	21.9	26.5	22.1	3.8
지역규모	대도시	(877)	24.2	27.8	23.3	19.3	5.5
	중·소도시	(843)	27.9	23.7	23.0	19.6	5.8
	군지역	(136)	36.0	4.4	33.8	22.8	2.9
직업	화이트칼라	(573)	26.9	24.3	20.1	21.8	7.0
	블루칼라	(486)	31.3	23.0	26.7	14.6	4.3
	농/임/어업	(25)	12.0	0.0	48.0	40.0	0.0
	자영업	(350)	27.4	22.9	25.4	20.0	4.3
	주부	(345)	20.6	29.9	22.0	21.2	6.4
	은퇴자	(19)	31.6	26.3	26.3	15.8	0.0
	학생	(32)	31.3	18.8	21.9	25.0	3.1
교육 수준	무직/기타	(26)	15.4	19.2	38.5	19.2	7.7
	중졸 이하	(156)	25.6	19.2	26.3	25.0	3.8
	고졸	(826)	26.2	23.7	25.4	19.7	5.0
	대재 이상	(862)	27.5	25.8	22.2	18.6	6.0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12)	25.0	16.7	16.7	25.0	16.7
	저소득	(348)	26.4	22.1	27.0	21.8	2.6
	중소득	(1,075)	27.4	24.7	23.1	17.8	7.1
	고소득	(433)	25.2	24.9	23.6	22.6	3.7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인공지능 선호 응답자 중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여성 (35.5%), 20대(3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5〉 해당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인공지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것 같아서	상담의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전체		(255)	29.4	23.5	23.1	18.8	5.1
성별	남성	(145)	24.8	27.6	22.1	20.0	5.5
	여성	(110)	35.5	18.2	24.5	17.3	4.5
연령	20대	(87)	36.8	21.8	27.6	10.3	3.4
	30대	(80)	23.8	21.3	17.5	28.8	8.8
	40대	(53)	34.0	24.5	18.9	18.9	3.8
	50대	(23)	21.7	26.1	30.4	17.4	4.3
	60대 이상	(12)	8.3	41.7	33.3	16.7	0.0
지역규모	대도시	(133)	33.1	21.8	25.6	14.3	5.3
	중·소도시	(116)	24.1	26.7	20.7	23.3	5.2
	군지역	(6)	50.0	0.0	16.7	33.3	0.0
직업	화이트칼라	(128)	26.6	21.9	26.6	21.9	3.1
	블루칼라	(70)	30.0	27.1	18.6	12.9	11.4
	농/임/어업	(2)	0.0	50.0	50.0	0.0	0.0
	자영업	(24)	20.8	33.3	25.0	20.8	0.0
	주부	(21)	42.9	14.3	9.5	28.6	4.8
	은퇴자	(1)	0.0	0.0	100.0	0.0	0.0
	학생	(9)	66.7	11.1	22.2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40.0	40.0	0.0	0.0	20.0
	고졸	(59)	28.8	27.1	18.6	16.9	8.5
	대재 이상	(188)	29.3	21.8	25.5	20.2	3.2
	모름/무응답	(3)	33.3	33.3	0.0	0.0	33.3
가구 소득	저소득	(29)	24.1	20.7	27.6	20.7	6.9
	중소득	(131)	25.2	21.4	26.0	22.9	4.6
	고소득	(95)	36.8	27.4	17.9	12.6	5.3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주위사람 선호 응답자 중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남성(4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6〉 해당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 주위사람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상담의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것 같아서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전체		(325)	42.8	25.8	16.0	12.3	3.1
성별	남성	(130)	44.6	20.8	15.4	16.9	2.3
	여성	(195)	41.5	29.2	16.4	9.2	3.6
연령	20대	(26)	38.5	34.6	23.1	3.8	0.0
	30대	(38)	31.6	18.4	34.2	10.5	5.3
	40대	(58)	41.4	27.6	12.1	19.0	0.0
	50대	(67)	40.3	19.4	22.4	14.9	3.0
	60대 이상	(136)	48.5	28.7	8.1	10.3	4.4
지역규모	대도시	(92)	38.0	29.3	7.6	17.4	7.6
	중·소도시	(212)	43.9	24.1	20.3	10.4	1.4
	군지역	(21)	52.4	28.6	9.5	9.5	0.0
직업	화이트칼라	(71)	33.8	25.4	29.6	8.5	2.8
	블루칼라	(74)	47.3	27.0	14.9	10.8	0.0
	농/임/어업	(11)	72.7	18.2	0.0	9.1	0.0
	자영업	(68)	38.2	26.5	7.4	20.6	7.4
	주부	(83)	42.2	27.7	15.7	10.8	3.6
	은퇴자	(6)	50.0	33.3	16.7	0.0	0.0
	학생	(1)	0.0	0.0	100.0	0.0	0.0
교육 수준	무직/기타	(11)	72.7	9.1	0.0	18.2	0.0
	중졸 이하	(51)	52.9	23.5	3.9	13.7	5.9
	고졸	(152)	43.4	25.0	14.5	14.5	2.6
	대재 이상	(115)	38.3	27.8	21.7	9.6	2.6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7)	28.6	28.6	42.9	0.0	0.0
	저소득	(91)	56.0	26.4	4.4	8.8	4.4
	중소득	(176)	37.5	23.3	20.5	15.9	2.8
	고소득	(58)	37.9	32.8	20.7	6.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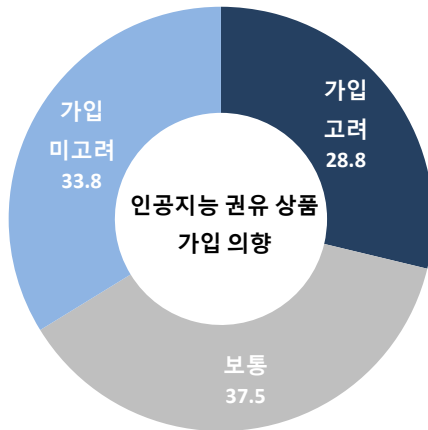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인공지능의 금융상품 가입 권유 시 가입 의향

- 향후 일상적인 삶을 관리해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여 개인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할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8.8%로 '가입을 고려하지 않겠다'(33.8%)에 비해 5.0% 낮게 나타남

〈그림 IV-15〉 인공지능 권유 상품 가입 의향

(N=2,440, 단위: %)



- 인공지능이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경우 '가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30대 (43.5%), 학생(45.2%), 대재 이상(3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7〉 인공지능 권유 상품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인공지능 권유 상품 가입 의향					종합결과			
		적극 가입 고려	가입 고려	보통	가입 고려 하지 않음	전혀 가입 고려 하지 않음	가입 고려	보통	가입 미고 려	
전체	(2,440)	3.1	25.7	37.5	25.2	8.5	28.8	37.5	33.8	
성별	남성	(1,214)	2.6	27.8	36.5	25.2	7.9	30.4	36.5	33.1
	여성	(1,226)	3.6	23.6	38.4	25.3	9.1	27.2	38.4	34.4
연령	20대	(398)	4.8	32.7	47.2	13.8	1.5	37.4	47.2	15.3
	30대	(428)	3.0	40.4	36.7	17.3	2.6	43.5	36.7	19.9
	40대	(502)	3.2	29.9	35.9	25.5	5.6	33.1	35.9	31.1
	50대	(493)	2.8	20.3	38.3	30.2	8.3	23.1	38.3	38.5
	60대 이상	(619)	2.3	11.8	32.3	33.9	19.7	14.1	32.3	53.6
지역규모	대도시	(1,103)	3.0	27.5	38.3	23.4	7.9	30.5	38.3	31.3
	중·소도시	(1,174)	2.9	25.3	36.6	26.7	8.5	28.2	36.6	35.2
	군지역	(163)	5.5	16.0	38.0	27.6	12.9	21.5	38.0	40.5
직업	화이트칼라	(774)	3.2	35.9	38.5	19.1	3.2	39.1	38.5	22.4
	블루칼라	(632)	4.0	25.6	37.7	23.4	9.3	29.6	37.7	32.8
	농/임/어업	(38)	10.5	7.9	15.8	28.9	36.8	18.4	15.8	65.8
	자영업	(442)	2.7	14.9	37.3	35.7	9.3	17.6	37.3	45.0
	주부	(449)	1.6	20.3	36.7	29.4	12.0	21.8	36.7	41.4
	은퇴자	(26)	3.8	19.2	38.5	15.4	23.1	23.1	38.5	38.5
	학생	(42)	4.8	40.5	38.1	16.7	0.0	45.2	38.1	16.7
	무직/기타	(37)	0.0	10.8	43.2	21.6	24.3	10.8	43.2	45.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2.8	9.9	33.8	29.6	23.9	12.7	33.8	53.5
	고졸	(1,038)	1.4	20.5	37.0	30.5	10.5	22.0	37.0	41.0
	대재 이상	(1,167)	4.6	33.0	38.6	19.9	3.9	37.6	38.6	23.7
	모름/무응답	(22)	4.5	31.8	31.8	18.2	13.6	36.4	31.8	31.8
가구 소득	저소득	(468)	1.5	14.3	35.0	29.3	19.9	15.8	35.0	49.1
	중소득	(1,383)	3.0	26.7	38.9	24.9	6.6	29.6	38.9	31.5
	고소득	(589)	4.8	32.3	36.0	22.9	4.1	37.0	36.0	27.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사이버보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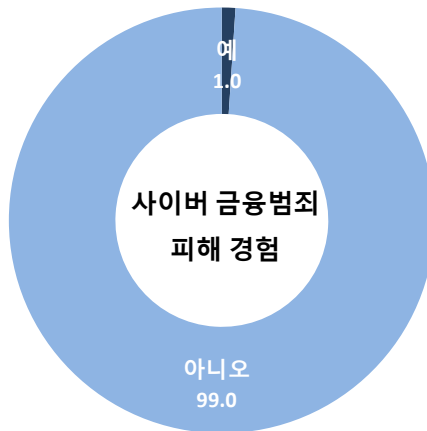
가. 사이버 금융범죄

1)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험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1.0%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6〉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경험

(N=2,440, 단위: %)



〈표 IV-18〉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40)	1.0	99.0
성별	남성	(1,214)	1.3	98.7
	여성	(1,226)	0.7	99.3
연령	20대	(398)	1.8	98.2
	30대	(428)	1.6	98.4
	40대	(502)	0.2	99.8
	50대	(493)	1.2	98.8
	60대 이상	(619)	0.6	99.4
지역규모	대도시	(1,103)	0.7	99.3
	중·소도시	(1,174)	1.4	98.6
	군지역	(163)	0.6	99.4
직업	화이트칼라	(774)	1.4	98.6
	블루칼라	(632)	1.3	98.7
	농/임/어업	(38)	0.0	100.0
	자영업	(442)	0.9	99.1
	주부	(449)	0.2	99.8
	은퇴자	(26)	3.8	96.2
	학생	(42)	0.0	100.0
	무직/기타	(37)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1.9	98.1
	고졸	(1,038)	0.7	99.3
	대재 이상	(1,167)	1.2	98.8
	모름/무응답	(22)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1.3	98.7
	중소득	(1,383)	1.1	98.9
	고소득	(589)	0.7	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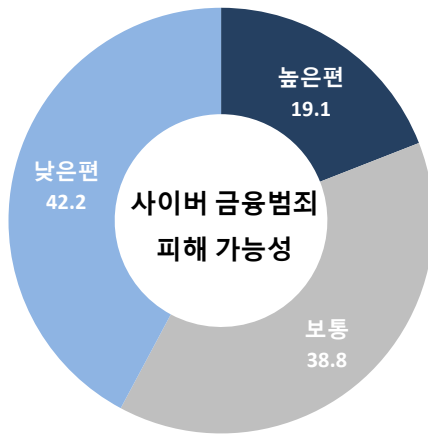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본인이 사이버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 본인이 사이버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낮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42.2%로 '높은 편이다'(19.1%)에 비해 23.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7〉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가능성

(N=2,440, 단위: %)



- 본인이 사이버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중·소도시 (21.4%), 화이트칼라(2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9〉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가능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본인이 사이버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종합결과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아주 낮은 편이다	높은편	보통	낮은편	
전체	(2,440)	2.3	16.8	38.8	29.6	12.5	19.1	38.8	42.2	
성별	남성	(1,214)	2.0	15.7	39.8	31.3	11.3	17.6	39.8	42.6
	여성	(1,226)	2.5	17.9	37.8	28.0	13.8	20.5	37.8	41.8
연령	20대	(398)	1.5	18.1	39.9	33.4	7.0	19.6	39.9	40.5
	30대	(428)	3.0	18.0	41.8	27.3	9.8	21.0	41.8	37.1
	40대	(502)	2.2	16.5	39.4	29.3	12.5	18.7	39.4	41.8
	50대	(493)	2.8	16.8	36.7	32.0	11.6	19.7	36.7	43.6
	60대 이상	(619)	1.8	15.3	37.0	27.1	18.7	17.1	37.0	45.9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1.7	15.8	34.1	32.0	16.4	17.5	34.1	48.4
	중·소도시	(1,174)	2.7	18.7	42.2	27.1	9.4	21.4	42.2	36.5
	군지역	(163)	2.5	10.4	46.0	31.9	9.2	12.9	46.0	41.1
직업	화이트칼라	(774)	2.3	19.1	40.7	28.7	9.2	21.4	40.7	37.9
	블루칼라	(632)	1.7	17.4	38.3	29.6	13.0	19.1	38.3	42.6
	농/임/어업	(38)	0.0	10.5	42.1	28.9	18.4	10.5	42.1	47.4
	자영업	(442)	2.9	12.4	40.0	31.9	12.7	15.4	40.0	44.6
	주부	(449)	2.7	16.7	34.1	30.1	16.5	19.4	34.1	46.5
	은퇴자	(26)	0.0	7.7	61.5	23.1	7.7	7.7	61.5	30.8
	학생	(42)	0.0	14.3	33.3	33.3	19.0	14.3	33.3	52.4
	무직/기타	(37)	2.7	27.0	35.1	18.9	16.2	29.7	35.1	35.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2.3	15.0	34.3	23.9	24.4	17.4	34.3	48.4
	고졸	(1,038)	2.1	15.8	39.4	29.4	13.3	17.9	39.4	42.7
	대재 이상	(1,167)	2.3	18.1	39.0	30.8	9.8	20.4	39.0	40.6
	모름/무응답	(22)	4.5	13.6	40.9	31.8	9.1	18.2	40.9	40.9
가구 소득	저소득	(468)	1.3	17.1	36.5	26.1	19.0	18.4	36.5	45.1
	중소득	(1,383)	2.2	16.1	40.6	30.4	10.6	18.4	40.6	41.1
	고소득	(589)	3.1	18.2	36.3	30.6	11.9	21.2	36.3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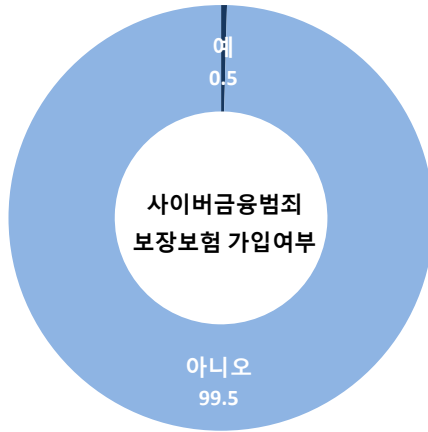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손해보장보험 가입 여부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99.5%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8〉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가입 여부

(N=2,440, 단위: %)



〈표 IV-20〉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40)	0.5	99.5
성별	남성	(1,214)	0.4	99.6
	여성	(1,226)	0.5	99.5
연령	20대	(398)	0.5	99.5
	30대	(428)	0.0	100.0
	40대	(502)	0.6	99.4
	50대	(493)	0.8	99.2
	60대 이상	(619)	0.3	99.7
지역규모	대도시	(1,103)	0.7	99.3
	중·소도시	(1,174)	0.3	99.7
	군지역	(163)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774)	0.4	99.6
	블루칼라	(632)	0.6	99.4
	농/임/어업	(38)	0.0	100.0
	자영업	(442)	0.9	99.1
	주부	(449)	0.0	100.0
	은퇴자	(26)	0.0	100.0
	학생	(42)	0.0	100.0
	무직/기타	(37)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0.5	99.5
	고졸	(1,038)	0.5	99.5
	대재 이상	(1,167)	0.4	99.6
	모름/무응답	(22)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0.2	99.8
	중소득	(1,383)	0.7	99.3
	고소득	(589)	0.2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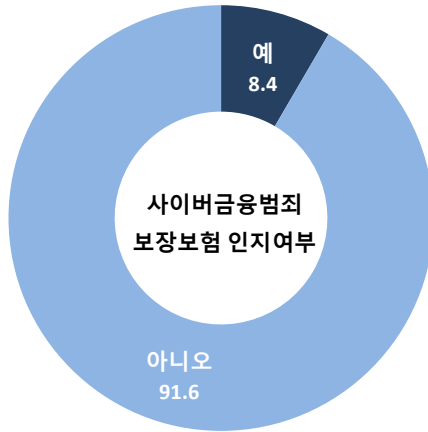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손해보장보험 인지 여부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판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아니오'가 91.6%로 약 10명 중 9명 이상이 상품 판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9〉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인지 여부

(N=2,429, 단위: %)



-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손해보장보험의 판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15.9%), 대도시(10.4%), 화이트칼라(12.1%), 대재 이상(1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1〉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29)	8.4	91.6
성별	남성	(1,209)	8.4	91.6
	여성	(1,220)	8.4	91.6
연령	20대	(396)	12.1	87.9
	30대	(428)	15.9	84.1
	40대	(499)	8.0	92.0
	50대	(489)	6.7	93.3
	60대 이상	(617)	2.6	97.4
지역규모	대도시	(1,095)	10.4	89.6
	중·소도시	(1,171)	7.1	92.9
	군지역	(163)	4.9	95.1
직업	화이트칼라	(771)	12.1	87.9
	블루칼라	(628)	8.3	91.7
	농/임/어업	(38)	2.6	97.4
	자영업	(438)	5.5	94.5
	주부	(449)	7.1	92.9
	은퇴자	(26)	0.0	100.0
	학생	(42)	4.8	95.2
	무직/기타	(37)	2.7	97.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2)	1.4	98.6
	고졸	(1,033)	5.3	94.7
	대재 이상	(1,162)	12.7	87.3
	모름/무응답	(22)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67)	5.6	94.4
	중소득	(1,374)	8.7	91.3
	고소득	(588)	10.0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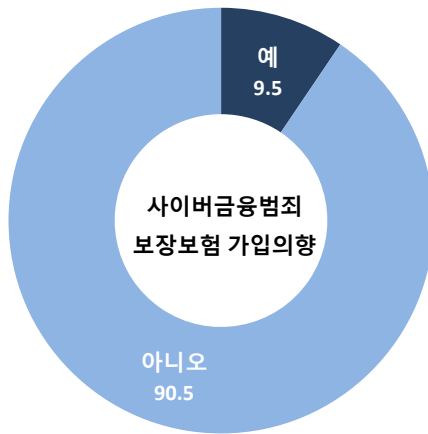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손해보장보험 가입 의향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9.5%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0〉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가입 의향

(N=2,224, 단위: %)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대(12.9%), 중·소도시(10.8%), 화이트칼라(11.9%), 대재 이상(11.9%), 중소득(11.6%)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2〉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224)	9.5	90.5
성별	남성	(1,107)	10.5	89.5
	여성	(1,117)	8.5	91.5
연령	20대	(348)	12.9	87.1
	30대	(360)	11.1	88.9
	40대	(459)	11.8	88.2
	50대	(456)	6.6	93.4
	60대 이상	(601)	7.0	93.0
지역규모	대도시	(981)	9.3	90.7
	중·소도시	(1,088)	10.8	89.2
	군지역	(155)	1.3	98.7
직업	화이트칼라	(678)	11.9	88.1
	블루칼라	(576)	9.7	90.3
	농/임/어업	(37)	0.0	100.0
	자영업	(414)	8.0	92.0
	주부	(417)	7.9	92.1
	은퇴자	(26)	3.8	96.2
	학생	(40)	5.0	95.0
	무직/기타	(36)	13.9	86.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9)	4.8	95.2
	고졸	(978)	8.0	92.0
	대재 이상	(1,015)	11.9	88.1
	모름/무응답	(22)	9.1	90.9
가구 소득	저소득	(441)	4.1	95.9
	중소득	(1,254)	11.6	88.4
	고소득	(529)	9.1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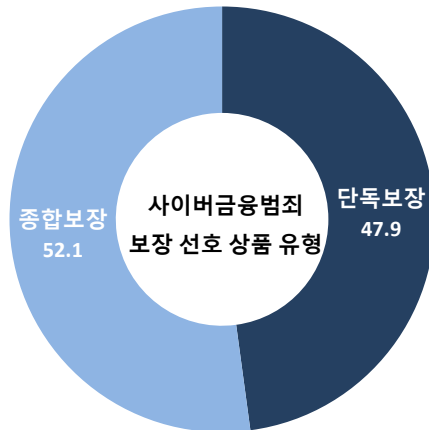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사이버 금융범죄에 의한 손해보장보험 가입 시 희망 유형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 시 희망하는 상품 유형을 살펴본 결과,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형 보험에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의 종합 보험상품'이 52.1%,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만을 보장하는 단독형 보험상품'이 47.9%로 나타남

〈그림 IV-21〉 사이버 금융범죄 손해보장보험 가입 희망 유형

(N=211, 단위: %)



- 선호하는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 상품 유형으로 종합보장 상품이라는 응답은 30대(6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단독보장 상품이라는 응답은 50대(70.0%), 중·소도시(5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3〉 사이버 금융범죄 손해보장보험 가입 희망 유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단독보장	종합보장
전체		(211)	47.9	52.1
성별	남성	(116)	52.6	47.4
	여성	(95)	42.1	57.9
연령	20대	(45)	44.4	55.6
	30대	(40)	32.5	67.5
	40대	(54)	44.4	55.6
	50대	(30)	70.0	30.0
	60대 이상	(42)	54.8	45.2
지역규모	대도시	(91)	40.7	59.3
	중·소도시	(118)	54.2	45.8
	군지역	(2)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81)	48.1	51.9
	블루칼라	(56)	42.9	57.1
	자영업	(33)	54.5	45.5
	주부	(33)	48.5	51.5
	은퇴자	(1)	100.0	0.0
	학생	(2)	50.0	50.0
	무직/기타	(5)	40.0	6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	80.0	20.0
	고졸	(78)	43.6	56.4
	대재 이상	(121)	48.8	51.2
	모름/무응답	(2)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18)	44.4	55.6
	중소득	(145)	51.7	48.3
	고소득	(48)	37.5	62.5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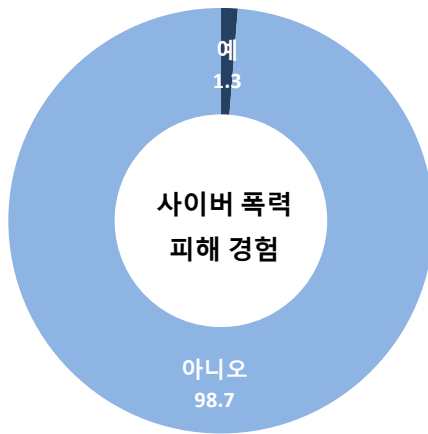
나. 사이버 폭력

1) 사이버 폭력에 따른 피해 경험

- 사이버 폭력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1.3%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2〉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N=2,440, 단위: %)



- 사이버 폭력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대(3.3%), 화이트칼라(1.9%), 학생(7.1%), 대재 이상(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4〉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40)	1.3	98.7
성별	남성	(1,214)	1.4	98.6
	여성	(1,226)	1.1	98.9
연령	20대	(398)	2.5	97.5
	30대	(428)	3.3	96.7
	40대	(502)	0.8	99.2
	50대	(493)	0.2	99.8
	60대 이상	(619)	0.3	99.7
지역규모	대도시	(1,103)	1.4	98.6
	중·소도시	(1,174)	1.4	98.6
	군지역	(163)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774)	1.9	98.1
	블루칼라	(632)	0.6	99.4
	농/임/어업	(38)	0.0	100.0
	자영업	(442)	0.5	99.5
	주부	(449)	1.3	98.7
	은퇴자	(26)	0.0	100.0
	학생	(42)	7.1	92.9
	무직/기타	(37)	2.7	97.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0.5	99.5
	고졸	(1,038)	0.6	99.4
	대재 이상	(1,167)	2.1	97.9
	모름/무응답	(22)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0.9	99.1
	중소득	(1,383)	1.2	98.8
	고소득	(589)	1.7	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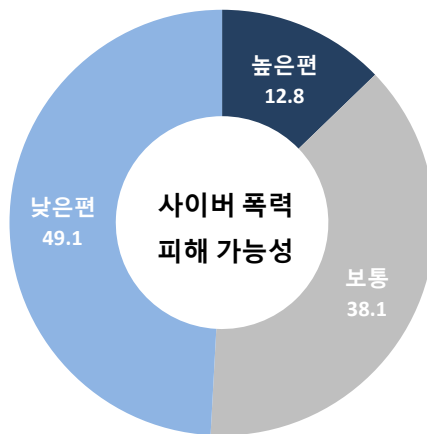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사이버 폭력 피해 가능성

- 본인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낮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49.1%로 '높은 편이다'(12.8%)에 비해 4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IV-23〉 사이버 폭력 피해 가능성

(N=2,440, 단위: %)



- 사이버 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30대(17.1%), 화이트칼라(15.6%), 대재 이상(1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5〉 사이버 폭력 피해 가능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본인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종합결과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아주 낮은 편이다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전체	(2,440)	1.5	11.3	38.1	34.5	14.7	12.8	38.1	49.1	
성별	남성	(1,214)	1.7	10.6	36.7	37.6	13.3	12.4	36.7	51.0
	여성	(1,226)	1.2	12.0	39.5	31.3	16.0	13.2	39.5	47.3
연령	20대	(398)	1.8	13.8	47.7	29.6	7.0	15.6	47.7	36.7
	30대	(428)	2.8	14.3	39.0	32.2	11.7	17.1	39.0	43.9
	40대	(502)	1.2	12.9	36.5	38.2	11.2	14.1	36.5	49.4
	50대	(493)	1.0	8.7	34.5	39.4	16.4	9.7	34.5	55.8
	60대 이상	(619)	1.0	8.4	35.4	32.1	23.1	9.4	35.4	55.3
지역규모	대도시	(1,103)	0.5	11.7	34.0	35.5	18.2	12.2	34.0	53.8
	중·소도시	(1,174)	2.5	10.7	41.7	33.0	12.2	13.2	41.7	45.1
	군지역	(163)	0.6	12.9	39.9	38.0	8.6	13.5	39.9	46.6
직업	화이트칼라	(774)	1.6	14.1	41.0	33.3	10.1	15.6	41.0	43.4
	블루칼라	(632)	1.7	8.9	38.4	36.7	14.2	10.6	38.4	50.9
	농/임/어업	(38)	2.6	7.9	36.8	34.2	18.4	10.5	36.8	52.6
	자영업	(442)	1.1	9.3	35.1	37.8	16.7	10.4	35.1	54.5
	주부	(449)	1.3	10.9	36.1	31.6	20.0	12.2	36.1	51.7
	은퇴자	(26)	0.0	15.4	38.5	30.8	15.4	15.4	38.5	46.2
	학생	(42)	0.0	19.0	33.3	28.6	19.0	19.0	33.3	47.6
	무직/기타	(37)	2.7	16.2	37.8	24.3	18.9	18.9	37.8	4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1.4	11.7	32.4	29.1	25.4	13.1	32.4	54.5
	고졸	(1,038)	1.0	8.0	38.3	35.4	17.3	9.0	38.3	52.7
	대재 이상	(1,167)	2.0	14.1	38.7	35.0	10.3	16.0	38.7	45.2
	모름/무응답	(22)	0.0	18.2	45.5	18.2	18.2	18.2	45.5	36.4
가구 소득	저소득	(468)	0.6	8.5	36.5	30.6	23.7	9.2	36.5	54.3
	중소득	(1,383)	1.4	11.5	39.5	35.2	12.4	12.9	39.5	47.6
	고소득	(589)	2.2	13.1	36.0	35.8	12.9	15.3	36.0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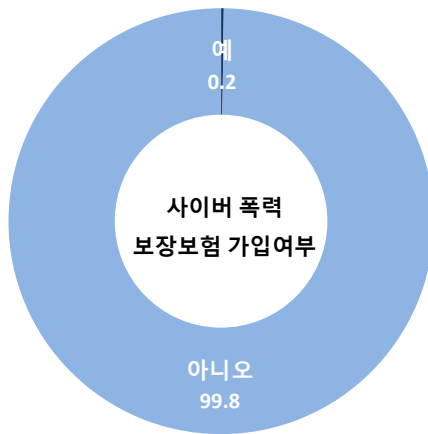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여부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가 99.8%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4〉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여부

(N=2,440, 단위: %)



〈표 IV-26〉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40)	0.2	99.8
성별	남성	(1,214)	0.2	99.8
	여성	(1,226)	0.2	99.8
연령	20대	(398)	0.0	100.0
	30대	(428)	0.5	99.5
	40대	(502)	0.0	100.0
	50대	(493)	0.4	99.6
	60대 이상	(619)	0.2	99.8
지역규모	대도시	(1,103)	0.4	99.6
	중·소도시	(1,174)	0.1	99.9
	군지역	(163)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774)	0.0	100.0
	블루칼라	(632)	0.5	99.5
	농/임/어업	(38)	0.0	100.0
	자영업	(442)	0.2	99.8
	주부	(449)	0.2	99.8
	은퇴자	(26)	0.0	100.0
	학생	(42)	0.0	100.0
	무직/기타	(37)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0.0	100.0
	고졸	(1,038)	0.3	99.7
	대재 이상	(1,167)	0.2	99.8
	모름/무응답	(22)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0.2	99.8
	중소득	(1,383)	0.1	99.9
	고소득	(589)	0.3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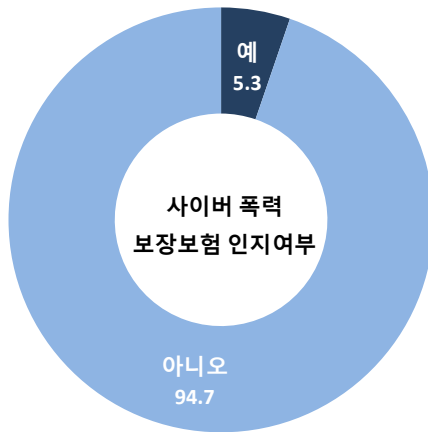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인지 여부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사실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가 94.7%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상품 판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5〉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인지 여부

(N=2,435, 단위: %)



-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판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10.3%), 대도시(7.9%), 화이트칼라(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IV-27〉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35)	5.3	94.7
성별	남성	(1,212)	5.4	94.6
	여성	(1,223)	5.2	94.8
연령	20대	(398)	6.3	93.7
	30대	(426)	10.3	89.7
	40대	(502)	5.4	94.6
	50대	(491)	3.7	96.3
	60대 이상	(618)	2.3	97.7
지역규모	대도시	(1,099)	7.9	92.1
	중·소도시	(1,173)	3.5	96.5
	군지역	(163)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774)	8.3	91.7
	블루칼라	(629)	4.0	96.0
	농/임/어업	(38)	0.0	100.0
	자영업	(441)	3.6	96.4
	주부	(448)	4.2	95.8
	은퇴자	(26)	0.0	100.0
	학생	(42)	7.1	92.9
	무직/기타	(37)	2.7	97.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0.5	99.5
	고졸	(1,035)	3.8	96.2
	대재 이상	(1,165)	7.5	92.5
	모름/무응답	(22)	4.5	95.5
가구 소득	저소득	(467)	2.4	97.6
	중소득	(1,381)	5.4	94.6
	고소득	(587)	7.2	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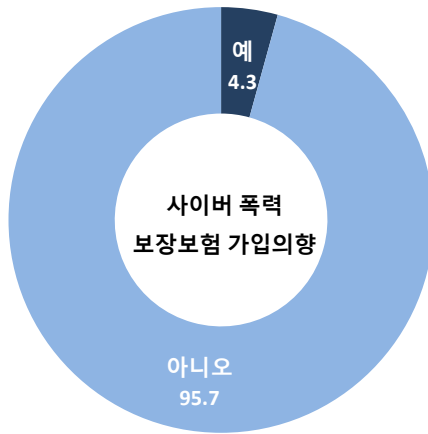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의향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4.3%의 응답자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6〉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의향

(N=2,307, 단위: %)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7.6%), 화이트칼라(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IV-28〉 사이버 폭력 보장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307)	4.3	95.7
성별	남성	(1,147)	3.1	96.9
	여성	(1,160)	5.5	94.5
연령	20대	(373)	6.7	93.3
	30대	(382)	7.6	92.4
	40대	(475)	6.5	93.5
	50대	(473)	2.5	97.5
	60대 이상	(604)	0.3	99.7
지역규모	대도시	(1,012)	4.2	95.8
	중·소도시	(1,132)	4.9	95.1
	군지역	(163)	1.2	98.8
직업	화이트칼라	(710)	5.6	94.4
	블루칼라	(604)	5.1	94.9
	농/임/어업	(38)	0.0	100.0
	자영업	(425)	1.9	98.1
	주부	(429)	4.0	96.0
	은퇴자	(26)	0.0	100.0
	학생	(39)	5.1	94.9
	무직/기타	(36)	2.8	97.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2)	0.5	99.5
	고졸	(996)	2.7	97.3
	대재 이상	(1,078)	6.5	93.5
	모름/무응답	(21)	4.8	95.2
가구 소득	저소득	(456)	1.5	98.5
	중소득	(1,306)	4.2	95.8
	고소득	(545)	6.8	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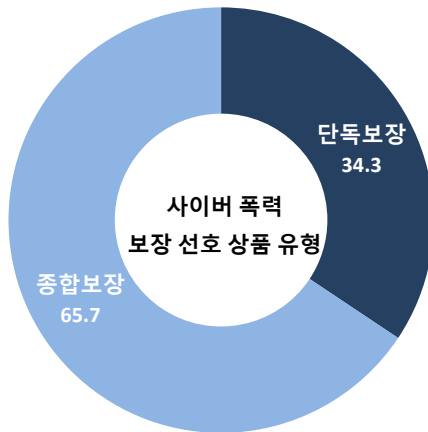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사이버 폭력 피해 보장 상품 선호 유형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 상품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형 보험에 사이버 폭력 피해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의 보험상품'이 65.7%, '사이버 폭력 피해만을 보장하는 단독형 보험상품'이 34.3%로 나타남

〈그림 IV-27〉 사이버 폭력 피해 보장 상품 선호 유형

(N=99, 단위: %)



〈표 IV-29〉 사이버 폭력 피해 보장 상품 선호 유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단독보장	종합보장
전체		(99)	34.3	65.7
성별	남성	(35)	31.4	68.6
	여성	(64)	35.9	64.1
연령	20대	(25)	48.0	52.0
	30대	(29)	34.5	65.5
	40대	(31)	22.6	77.4
	50대	(12)	33.3	66.7
	60대 이상	(2)	50.0	50.0
지역규모	대도시	(42)	35.7	64.3
	중·소도시	(55)	34.5	65.5
	군지역	(2)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40)	27.5	72.5
	블루칼라	(31)	29.0	71.0
	자영업	(8)	37.5	62.5
	주부	(17)	47.1	52.9
	학생	(2)	100.0	0.0
	무직/기타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0.0	100.0
	고졸	(27)	22.2	77.8
	대재 이상	(70)	38.6	61.4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7)	71.4	28.6
	중소득	(55)	30.9	69.1
	고소득	(37)	32.4	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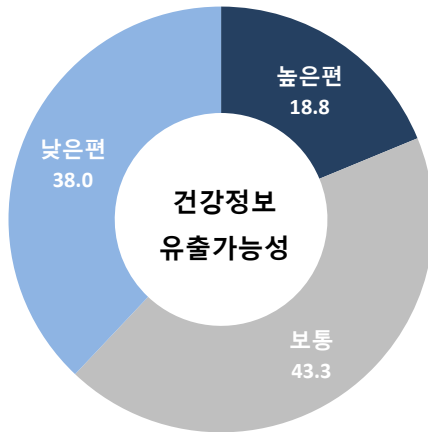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한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 시, 자신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낮은 편이다'는 응답이 38.0%로 '높은 편이다'(18.8%)는 응답에 비해 19.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8〉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한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N=2,440, 단위: %)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20대(25.1%), 중·소도시(20.6%), 화이트칼라(2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0〉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한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용 시, 자신의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종합결과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아주 낮은 편이다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전체	(2,440)	1.6	17.2	43.3	28.6	9.3	18.8	43.3	38.0	
성별	남성	(1,214)	1.2	16.5	44.3	30.0	8.0	17.7	44.3	38.0
	여성	(1,226)	1.9	17.9	42.3	27.2	10.7	19.8	42.3	37.9
연령	20대	(398)	1.0	24.1	46.0	23.9	5.0	25.1	46.0	28.9
	30대	(428)	2.8	17.5	50.9	21.7	7.0	20.3	50.9	28.7
	40대	(502)	1.4	17.5	44.2	30.5	6.4	18.9	44.2	36.9
	50대	(493)	1.6	17.4	39.1	31.0	10.8	19.1	39.1	41.8
	60대 이상	(619)	1.1	12.1	38.8	33.0	15.0	13.2	38.8	48.0
지역규모	대도시	(1,103)	0.9	15.8	39.0	31.4	13.0	16.7	39.0	44.3
	중·소도시	(1,174)	2.1	18.5	48.1	25.0	6.3	20.6	48.1	31.3
	군지역	(163)	1.8	17.8	37.4	36.2	6.7	19.6	37.4	42.9
직업	화이트칼라	(774)	1.8	20.3	47.4	24.5	5.9	22.1	47.4	30.5
	블루칼라	(632)	1.4	18.7	41.5	30.7	7.8	20.1	41.5	38.4
	농/임/어업	(38)	0.0	21.1	26.3	34.2	18.4	21.1	26.3	52.6
	자영업	(442)	1.1	12.2	41.4	32.1	13.1	13.3	41.4	45.2
	주부	(449)	2.0	15.1	41.6	29.2	12.0	17.1	41.6	41.2
	은퇴자	(26)	0.0	0.0	65.4	19.2	15.4	0.0	65.4	34.6
	학생	(42)	0.0	21.4	38.1	26.2	14.3	21.4	38.1	40.5
	무직/기타	(37)	2.7	16.2	37.8	32.4	10.8	18.9	37.8	4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1.4	11.7	37.6	33.3	16.0	13.1	37.6	49.3
	고졸	(1,038)	1.0	16.0	39.6	32.6	10.9	17.0	39.6	43.4
	대재 이상	(1,167)	2.1	19.3	47.1	24.7	6.8	21.4	47.1	31.4
	모름/무응답	(22)	0.0	18.2	68.2	4.5	9.1	18.2	68.2	13.6
가구 소득	저소득	(468)	1.3	12.6	37.0	34.2	15.0	13.9	37.0	49.1
	중소득	(1,383)	1.4	17.4	44.8	28.8	7.7	18.8	44.8	36.4
	고소득	(589)	2.0	20.5	44.8	23.8	8.8	22.6	44.8	32.6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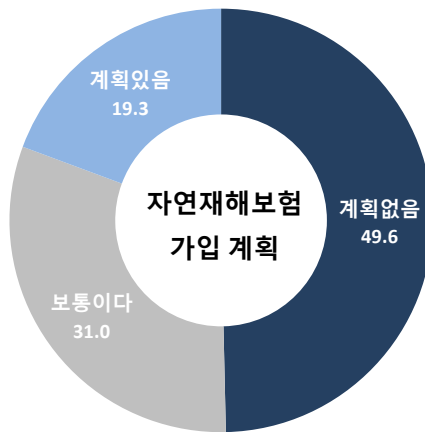
3. 자연재해보험

가. 자연재해보험 가입 계획

- 향후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가입)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9.6%로, ‘(가입) 계획이 있다’(19.3%)에 비해 30.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9〉 자연재해보험 가입 계획

(N=2,440, 단위: %)



- 자연재해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21.2%), 20대(24.4%), 화이트칼라(2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1〉 자연재해보험 가입 계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연재해보험 가입 계획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획 없음	보통이다	계획 있음	
전체	(2,440)	7.1	16.8	25.7	31.0	16.0	3.2	0.2	49.6	31.0	19.3	
성별	남성	(1,214)	6.4	15.6	25.1	31.7	17.1	3.9	0.2	47.1	31.7	21.2
	여성	(1,226)	7.8	17.9	26.3	30.3	14.8	2.5	0.2	52.1	30.3	17.5
연령	20대	(398)	5.8	15.1	29.6	25.1	20.4	3.8	0.3	50.5	25.1	24.4
	30대	(428)	5.8	12.9	24.5	34.3	18.2	3.7	0.5	43.2	34.3	22.4
	40대	(502)	4.8	15.3	25.9	32.9	16.9	4.2	0.0	46.0	32.9	21.1
	50대	(493)	8.3	15.6	23.3	32.5	17.4	2.6	0.2	47.3	32.5	20.3
	60대 이상	(619)	9.9	22.6	25.8	29.9	9.7	2.1	0.0	58.3	29.9	11.8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7.6	20.0	28.2	26.0	14.1	3.8	0.3	55.8	26.0	18.1
	중·소도시	(1,174)	6.3	14.2	24.2	35.0	17.5	2.6	0.1	44.7	35.0	20.3
	군지역	(163)	9.8	12.9	20.2	36.2	17.8	3.1	0.0	42.9	36.2	20.9
직업	화이트칼라	(774)	5.4	13.3	23.6	32.7	20.7	4.0	0.3	42.4	32.7	24.9
	블루칼라	(632)	7.1	17.1	26.1	30.7	15.8	3.2	0.0	50.3	30.7	19.0
	농/임/어업	(38)	21.1	13.2	15.8	34.2	13.2	2.6	0.0	50.0	34.2	15.8
	자영업	(442)	6.3	16.5	27.8	31.9	14.7	2.5	0.2	50.7	31.9	17.4
	주부	(449)	8.0	20.5	29.0	28.5	11.4	2.4	0.2	57.5	28.5	14.0
	은퇴자	(26)	11.5	30.8	11.5	30.8	3.8	11.5	0.0	53.8	30.8	15.4
	학생	(42)	9.5	26.2	23.8	23.8	14.3	2.4	0.0	59.5	23.8	16.7
	무직/기타	(37)	21.6	24.3	21.6	27.0	5.4	0.0	0.0	67.6	27.0	5.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14.6	21.6	23.0	30.5	8.9	1.4	0.0	59.2	30.5	10.3
	고졸	(1,038)	7.8	18.2	26.0	30.7	14.4	2.7	0.2	52.0	30.7	17.2
	대재 이상	(1,167)	5.1	14.8	25.9	31.6	18.4	3.9	0.2	45.8	31.6	22.5
	모름/무응답	(22)	9.1	4.5	31.8	18.2	31.8	4.5	0.0	45.5	18.2	36.4
가구 소득	저소득	(468)	10.3	21.8	27.1	29.9	8.8	1.9	0.2	59.2	29.9	10.9
	중소득	(1,383)	5.8	17.0	25.9	30.9	17.0	3.2	0.2	48.7	30.9	20.4
	고소득	(589)	7.8	12.2	24.3	32.1	19.4	4.2	0.0	44.3	32.1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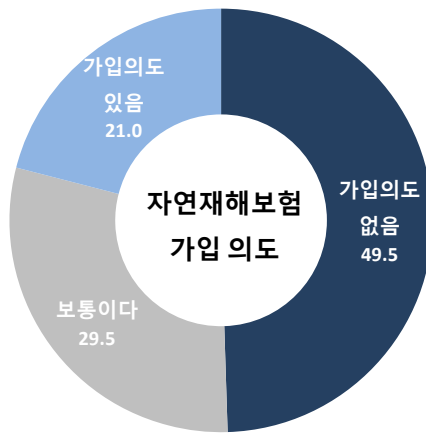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도

-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할 의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없다’는 응답이 49.5%로 ‘있다’(21.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0〉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도

(N=2,440, 단위: %)



-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할 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30대(27.8%) 화이트칼라(2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2〉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도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입 의도 없음	보통이다	가입 의도 있음	
전체	(2,440)	7.7	15.2	26.6	29.5	16.3	4.3	0.5	49.5	29.5	21.0	
성별	남성	(1,214)	7.6	15.0	25.8	30.6	16.6	4.0	0.4	48.4	30.6	21.1
	여성	(1,226)	7.9	15.3	27.4	28.5	15.9	4.5	0.5	50.7	28.5	20.9
연령	20대	(398)	7.0	15.6	22.9	33.9	16.1	4.5	0.0	45.5	33.9	20.6
	30대	(428)	4.9	13.3	25.7	28.3	21.3	5.8	0.7	43.9	28.3	27.8
	40대	(502)	6.2	14.3	27.1	29.1	17.7	4.6	1.0	47.6	29.1	23.3
	50대	(493)	7.7	15.0	27.8	29.8	15.2	4.1	0.4	50.5	29.8	19.7
	60대 이상	(619)	11.5	17.0	28.3	27.6	12.6	2.9	0.2	56.7	27.6	15.7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9.3	18.9	25.4	25.4	14.5	5.9	0.6	53.6	25.4	21.0
	중·소도시	(1,174)	6.4	12.0	27.8	33.7	17.3	2.6	0.3	46.2	33.7	20.1
	군지역	(163)	6.7	12.9	26.4	27.0	20.9	5.5	0.6	46.0	27.0	27.0
직업	화이트칼라	(774)	4.7	14.9	22.6	31.4	21.2	5.0	0.3	42.1	31.4	26.5
	블루칼라	(632)	8.1	15.8	29.3	26.6	13.9	5.9	0.5	53.2	26.6	20.3
	농/임/어업	(38)	21.1	10.5	23.7	23.7	18.4	2.6	0.0	55.3	23.7	21.1
	자영업	(442)	7.2	15.2	29.6	29.9	14.9	2.7	0.5	52.0	29.9	18.1
	주부	(449)	8.7	16.0	28.7	29.2	13.8	2.7	0.9	53.5	29.2	17.4
	은퇴자	(26)	19.2	7.7	26.9	23.1	15.4	7.7	0.0	53.8	23.1	23.1
	학생	(42)	21.4	9.5	11.9	42.9	11.9	2.4	0.0	42.9	42.9	14.3
	무직/기타	(37)	24.3	16.2	21.6	35.1	2.7	0.0	0.0	62.2	35.1	2.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17.8	12.7	24.4	30.0	12.7	2.3	0.0	54.9	30.0	15.0
	고졸	(1,038)	8.7	15.7	28.1	27.4	15.6	3.9	0.7	52.5	27.4	20.1
	대재 이상	(1,167)	5.1	15.2	25.9	31.4	17.3	4.9	0.3	46.1	31.4	22.5
	모름/무응답	(22)	9.1	13.6	13.6	27.3	27.3	9.1	0.0	36.4	27.3	36.4
가구 소득	저소득	(468)	12.6	17.5	29.1	28.0	9.6	2.8	0.4	59.2	28.0	12.8
	중소득	(1,383)	6.6	14.2	27.3	30.3	16.3	4.6	0.7	48.2	30.3	21.5
	고소득	(589)	6.6	15.4	22.9	28.9	21.4	4.8	0.0	45.0	28.9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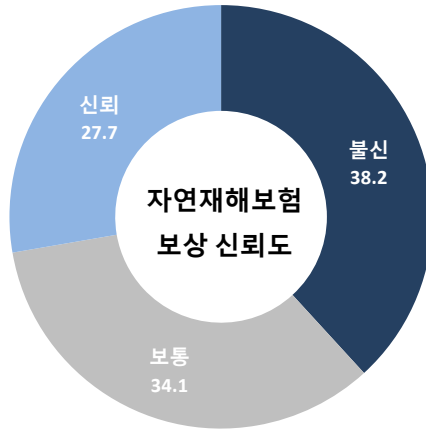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신뢰성

- 자연재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상 범위에 대해 신뢰할만한지 살펴본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2%로, '신뢰한다'(27.7%)는 응답에 비해 10.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1〉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신뢰성

(N=2,440, 단위: %)



- 자연재해보험의 손해보상 방안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0대(31.8%), 농/임/어업(3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3〉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신뢰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신뢰성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불신	보통	신뢰	
전체	(2,440)	3.0	10.2	25.0	34.1	21.8	5.6	0.4	38.2	34.1	27.7	
성별	남성	(1,214)	2.7	10.5	24.2	34.4	22.4	5.5	0.2	37.4	34.4	28.2
	여성	(1,226)	3.3	9.9	25.9	33.8	21.1	5.6	0.5	39.0	33.8	27.2
연령	20대	(398)	2.5	8.3	24.9	36.2	21.6	6.3	0.3	35.7	36.2	28.1
	30대	(428)	2.8	7.9	28.3	29.2	25.0	6.5	0.2	39.0	29.2	31.8
	40대	(502)	1.8	11.0	20.5	35.1	25.3	5.6	0.8	33.3	35.1	31.7
	50대	(493)	3.2	10.3	24.5	35.7	20.1	5.5	0.6	38.1	35.7	26.2
	60대 이상	(619)	4.2	12.1	27.0	34.1	18.1	4.5	0.0	43.3	34.1	22.6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4.0	14.1	25.1	28.6	21.3	6.2	0.8	43.2	28.6	28.3
	중·소도시	(1,174)	2.1	7.2	25.7	37.6	22.3	4.9	0.0	35.1	37.6	27.3
	군지역	(163)	2.5	4.9	19.6	46.0	20.9	6.1	0.0	27.0	46.0	27.0
직업	화이트칼라	(774)	2.3	7.9	23.1	35.8	23.9	6.5	0.5	33.3	35.8	30.9
	블루칼라	(632)	2.7	10.6	25.5	33.2	21.4	6.3	0.3	38.8	33.2	28.0
	농/임/어업	(38)	7.9	10.5	13.2	36.8	21.1	10.5	0.0	31.6	36.8	31.6
	자영업	(442)	2.9	9.7	26.5	35.3	21.5	4.1	0.0	39.1	35.3	25.6
	주부	(449)	3.1	12.5	28.1	33.0	18.7	4.0	0.7	43.7	33.0	23.4
	은퇴자	(26)	7.7	11.5	30.8	15.4	23.1	11.5	0.0	50.0	15.4	34.6
	학생	(42)	4.8	16.7	19.0	16.7	35.7	7.1	0.0	40.5	16.7	42.9
무직/기타	(37)	10.8	18.9	18.9	43.2	8.1	0.0	0.0	48.6	43.2	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4.7	12.7	17.8	39.0	19.7	6.1	0.0	35.2	39.0	25.8
	고졸	(1,038)	3.9	10.4	26.9	31.8	20.6	5.9	0.5	41.2	31.8	27.0
	대재 이상	(1,167)	1.8	9.6	24.9	34.9	23.4	5.1	0.3	36.2	34.9	28.9
	모름/무응답	(22)	4.5	4.5	18.2	54.5	9.1	9.1	0.0	27.3	54.5	18.2
가구 소득	저소득	(468)	5.6	10.5	30.3	34.8	14.3	4.3	0.2	46.4	34.8	18.8
	중소득	(1,383)	2.0	11.1	25.1	33.0	23.1	5.4	0.4	38.1	33.0	28.9
	고소득	(589)	3.4	7.8	20.7	36.2	24.4	7.1	0.3	31.9	36.2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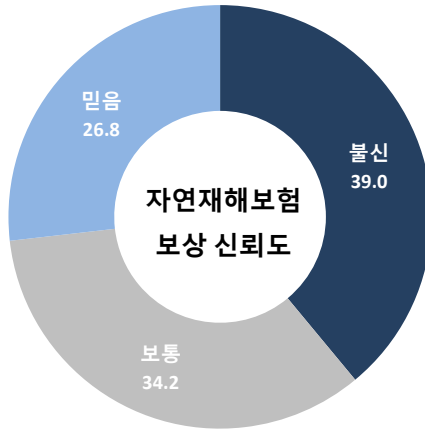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라. 자연재해보험의 서비스 제공의 진실성

-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정직하고 진실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보험회사의 보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살펴본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로, '신뢰한다'(26.8%)는 응답에 비해 12.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2〉 자연재해보험의 서비스 제공의 진실성

(N=2,440, 단위: %)



- 보험회사가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진실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은 40대(32.7%), 화이트칼라(3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4〉 자연재해보험의 서비스 제공의 진실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연재해보험의 서비스 제공 진실성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불신	보통	믿음	
전체	(2,440)	2.5	10.1	26.4	34.2	20.6	5.9	0.3	39.0	34.2	26.8	
성별	남성	(1,214)	2.5	9.7	26.1	34.2	21.3	5.9	0.3	38.3	34.2	27.5
	여성	(1,226)	2.4	10.4	26.8	34.3	20.0	5.9	0.2	39.6	34.3	26.1
연령	20대	(398)	2.0	9.0	24.4	36.7	19.3	8.5	0.0	35.4	36.7	27.9
	30대	(428)	1.9	8.6	25.9	36.7	19.9	6.3	0.7	36.4	36.7	26.9
	40대	(502)	1.4	9.4	25.9	30.7	26.3	6.0	0.4	36.7	30.7	32.7
	50대	(493)	3.2	8.7	29.4	31.4	20.9	6.1	0.2	41.4	31.4	27.2
	60대 이상	(619)	3.4	13.4	26.2	36.0	17.1	3.7	0.2	43.0	36.0	21.0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2.9	13.3	29.1	29.8	17.2	7.0	0.6	45.3	29.8	24.8
	중·소도시	(1,174)	2.1	8.0	23.5	38.3	23.0	5.0	0.0	33.6	38.3	28.0
	군지역	(163)	1.8	3.1	29.4	34.4	26.4	4.9	0.0	34.4	34.4	31.3
직업	화이트칼라	(774)	1.3	8.3	23.9	34.8	24.5	7.0	0.3	33.5	34.8	31.8
	블루칼라	(632)	2.4	9.5	28.8	32.6	20.3	6.2	0.3	40.7	32.6	26.7
	농/임/어업	(38)	5.3	7.9	18.4	34.2	31.6	2.6	0.0	31.6	34.2	34.2
	자영업	(442)	3.2	9.3	26.5	36.2	18.3	6.6	0.0	38.9	36.2	24.9
	주부	(449)	2.7	13.1	29.0	33.6	17.1	3.8	0.7	44.8	33.6	21.6
	은퇴자	(26)	7.7	23.1	11.5	38.5	11.5	7.7	0.0	42.3	38.5	19.2
	학생	(42)	4.8	9.5	28.6	35.7	16.7	4.8	0.0	42.9	35.7	21.4
	무직/기타	(37)	8.1	24.3	24.3	29.7	13.5	0.0	0.0	56.8	29.7	13.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3.3	11.3	26.8	33.8	21.6	3.3	0.0	41.3	33.8	24.9
	고졸	(1,038)	3.1	11.8	27.2	32.2	20.1	5.4	0.3	42.0	32.2	25.8
	대재 이상	(1,167)	1.6	8.4	25.7	36.3	20.7	6.9	0.3	35.7	36.3	27.9
	모름/무응답	(22)	9.1	9.1	27.3	22.7	31.8	0.0	0.0	45.5	22.7	31.8
가구 소득	저소득	(468)	4.9	13.2	26.9	33.8	18.4	2.4	0.4	45.1	33.8	21.2
	중소득	(1,383)	2.0	9.8	26.6	34.9	20.6	5.9	0.3	38.3	34.9	26.8
	고소득	(589)	1.7	8.3	25.6	33.1	22.4	8.7	0.2	35.7	33.1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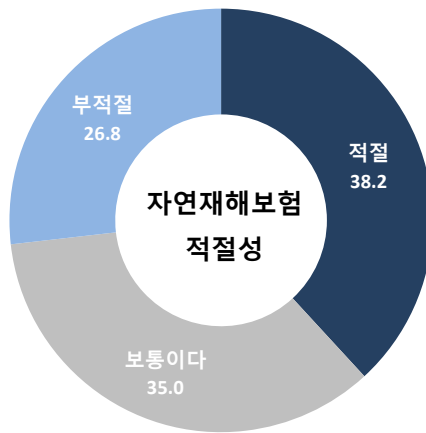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마. 자연재해보험의 자연재해 대책으로서 적절성 평가

-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안으로 적절한지 살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8.2%로, ‘적절하지 않다’(26.8%)는 응답에 비해 11.4%p 높게 나타남

〈그림 IV-33〉 자연재해보험의 자연재해 대책으로서 적절성 평가

(N=2,440, 단위: %)



-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대도시(29.6%), 화이트칼라(30.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5〉 자연재해보험의 자연재해 대책으로서 적절성 평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연재해 대책으로서 부적절성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적절	보통 이다	부적절	
전체	(2,440)	1.8	9.7	26.6	35.0	22.4	4.0	0.4	38.2	35.0	26.8	
성별	남성	(1,214)	1.5	9.1	25.9	36.3	23.1	4.0	0.2	36.5	36.3	27.2
	여성	(1,226)	2.2	10.3	27.3	33.8	21.7	4.1	0.7	39.8	33.8	26.4
연령	20대	(398)	1.3	9.8	25.1	34.9	25.4	3.0	0.5	36.2	34.9	28.9
	30대	(428)	1.2	8.6	25.7	37.1	22.9	4.2	0.2	35.5	37.1	27.3
	40대	(502)	1.6	10.6	20.7	37.6	23.1	5.6	0.8	32.9	37.6	29.5
	50대	(493)	2.4	10.1	24.9	36.3	21.7	4.1	0.4	37.5	36.3	26.2
	60대 이상	(619)	2.4	9.2	34.4	30.5	20.0	3.2	0.2	46.0	30.5	23.4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2.4	12.7	24.3	31.0	24.8	4.3	0.6	39.3	31.0	29.6
	중·소도시	(1,174)	1.3	6.7	28.4	38.4	21.0	4.0	0.2	36.5	38.4	25.1
	군지역	(163)	2.5	10.4	29.4	38.0	16.6	2.5	0.6	42.3	38.0	19.6
직업	화이트칼라	(774)	1.4	8.8	21.8	37.1	26.4	4.4	0.1	32.0	37.1	30.9
	블루칼라	(632)	1.6	9.3	28.2	31.8	24.2	4.3	0.6	39.1	31.8	29.1
	농/임/어업	(38)	5.3	5.3	34.2	39.5	13.2	2.6	0.0	44.7	39.5	15.8
	자영업	(442)	0.9	7.9	30.3	38.0	18.3	3.8	0.7	39.1	38.0	22.9
	주부	(449)	2.7	11.8	29.6	33.0	18.7	3.8	0.4	44.1	33.0	22.9
	은퇴자	(26)	3.8	11.5	19.2	30.8	34.6	0.0	0.0	34.6	30.8	34.6
	학생	(42)	2.4	26.2	21.4	28.6	19.0	2.4	0.0	50.0	28.6	21.4
무직/기타	(37)	10.8	13.5	24.3	43.2	5.4	2.7	0.0	48.6	43.2	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3.8	8.9	31.5	30.5	21.1	4.2	0.0	44.1	30.5	25.4
	고졸	(1,038)	2.2	11.7	29.2	32.3	20.7	3.3	0.7	43.1	32.3	24.7
	대재 이상	(1,167)	1.1	8.1	23.7	38.4	23.9	4.5	0.3	33.0	38.4	28.6
	모름/무응답	(22)	4.5	4.5	13.6	31.8	31.8	13.6	0.0	22.7	31.8	45.5
가구 소득	저소득	(468)	3.0	9.8	33.5	30.1	20.1	2.8	0.6	46.4	30.1	23.5
	중소득	(1,383)	1.4	10.4	26.1	36.7	21.3	3.6	0.4	38.0	36.7	25.3
	고소득	(589)	1.9	7.8	22.4	35.0	26.8	5.9	0.2	32.1	35.0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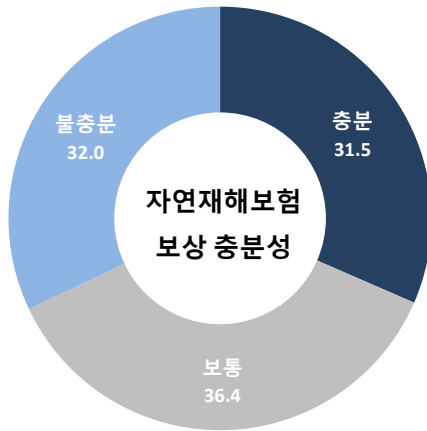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바.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충분성

-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안으로 충분한지 물어본 결과,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2.0%로, ‘충분하다’(31.5%)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IV-34〉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충분성

(N=2,440, 단위: %)



〈표 IV-36〉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충분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충분성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충분	보통	불충 분	
전체	(2,440)	1.7	7.7	22.0	36.4	24.5	7.0	0.5	31.5	36.4	32.0	
성별	남성	(1,214)	1.5	7.2	22.6	35.0	26.0	7.5	0.2	31.2	35.0	33.8
	여성	(1,226)	2.0	8.3	21.5	37.8	23.1	6.6	0.7	31.8	37.8	30.3
연령	20대	(398)	1.3	6.0	24.9	32.9	26.4	8.3	0.3	32.2	32.9	34.9
	30대	(428)	1.9	6.8	21.5	40.2	21.3	7.9	0.5	30.1	40.2	29.7
	40대	(502)	2.0	8.0	21.1	33.9	26.9	7.8	0.4	31.1	33.9	35.1
	50대	(493)	0.8	7.7	24.3	38.7	21.3	6.1	1.0	32.9	38.7	28.4
	60대 이상	(619)	2.4	9.4	19.5	36.3	26.3	5.8	0.2	31.3	36.3	32.3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2.4	10.6	22.3	31.3	24.5	8.3	0.6	35.3	31.3	33.5
	중·소도시	(1,174)	0.9	5.5	22.2	39.9	24.6	6.5	0.3	28.6	39.9	31.4
	군지역	(163)	3.7	4.3	19.0	46.0	24.5	2.5	0.0	27.0	46.0	27.0
직업	화이트칼라	(774)	1.0	7.4	24.0	34.0	25.8	7.5	0.3	32.4	34.0	33.6
	블루칼라	(632)	1.6	8.2	20.4	35.0	25.6	8.5	0.6	30.2	35.0	34.8
	농/임/어업	(38)	7.9	7.9	23.7	26.3	31.6	2.6	0.0	39.5	26.3	34.2
	자영업	(442)	0.9	5.2	23.1	40.0	23.8	6.3	0.7	29.2	40.0	30.8
	주부	(449)	3.1	8.9	20.5	39.4	22.5	5.1	0.4	32.5	39.4	28.1
	은퇴자	(26)	3.8	11.5	15.4	38.5	19.2	11.5	0.0	30.8	38.5	30.8
	학생	(42)	2.4	11.9	19.0	38.1	19.0	9.5	0.0	33.3	38.1	28.6
	무직/기타	(37)	2.7	16.2	21.6	40.5	16.2	2.7	0.0	40.5	40.5	18.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4.2	6.1	16.4	39.4	26.8	6.6	0.5	26.8	39.4	33.8
	고졸	(1,038)	2.2	9.8	21.4	35.2	23.7	7.2	0.5	33.4	35.2	31.4
	대재 이상	(1,167)	0.8	6.3	23.7	37.2	24.8	6.8	0.4	30.8	37.2	32.0
	모름/무응답	(22)	4.5	0.0	18.2	27.3	31.8	18.2	0.0	22.7	27.3	5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2.8	8.5	22.6	36.8	21.6	7.1	0.6	34.0	36.8	29.3
	중소득	(1,383)	1.7	7.7	23.1	36.2	25.5	5.8	0.2	32.4	36.2	31.5
	고소득	(589)	1.0	7.3	19.2	36.8	24.8	10.0	0.8	27.5	36.8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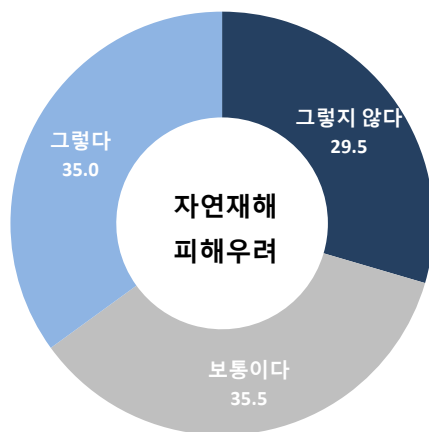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사.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상 피해 염려

-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는지 문의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5.0%로, '그렇지 않다'(29.5%)에 비해 5.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5〉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상 피해 염려

(N=2,440, 단위: %)



-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한다는 응답은 40대(34.5%), 화이트칼라(3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7〉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상 피해 염려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재산상 피해 염려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전체	(2,440)	1.6	6.9	21.1	35.5	26.8	7.1	1.0	29.5	35.5	35.0	
성별	남성	(1,214)	1.6	6.8	19.6	36.1	27.8	7.0	1.1	28.0	36.1	35.9
	여성	(1,226)	1.5	7.0	22.5	34.8	25.9	7.3	1.0	31.1	34.8	34.1
연령	20대	(398)	1.5	7.0	18.3	36.2	27.4	8.3	1.3	26.9	36.2	36.9
	30대	(428)	1.9	6.1	18.5	33.6	30.6	7.9	1.4	26.4	33.6	40.0
	40대	(502)	1.0	6.4	22.9	35.3	25.9	7.4	1.2	30.3	35.3	34.5
	50대	(493)	1.4	8.5	21.9	34.9	25.8	6.3	1.2	31.8	34.9	33.3
	60대 이상	(619)	2.1	6.5	22.5	36.8	25.5	6.3	0.3	31.0	36.8	32.1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2.0	10.1	23.5	29.6	24.0	9.0	1.8	35.5	29.6	34.8
	중·소도시	(1,174)	0.9	4.4	19.6	40.1	29.6	5.0	0.3	25.0	40.1	34.9
	군지역	(163)	3.7	3.1	15.3	41.1	25.8	9.8	1.2	22.1	41.1	36.8
직업	화이트칼라	(774)	0.8	6.2	19.6	35.0	28.8	8.3	1.3	26.6	35.0	38.4
	블루칼라	(632)	2.1	7.8	17.7	36.1	27.5	8.2	0.6	27.5	36.1	36.4
	농/임/어업	(38)	7.9	2.6	15.8	34.2	23.7	13.2	2.6	26.3	34.2	39.5
	자영업	(442)	0.9	3.6	24.2	37.3	26.0	6.6	1.4	28.7	37.3	33.9
	주부	(449)	1.8	9.4	25.8	33.9	23.6	4.7	0.9	37.0	33.9	29.2
	은퇴자	(26)	0.0	7.7	26.9	34.6	23.1	7.7	0.0	34.6	34.6	30.8
	학생	(42)	4.8	14.3	11.9	26.2	40.5	2.4	0.0	31.0	26.2	42.9
무직/기타	(37)	8.1	10.8	24.3	43.2	13.5	0.0	0.0	43.2	43.2	13.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4.7	5.6	18.8	36.2	28.2	6.6	0.0	29.1	36.2	34.7
	고졸	(1,038)	1.9	8.7	21.8	34.2	25.4	7.1	0.9	32.4	34.2	33.4
	대재 이상	(1,167)	0.7	5.6	20.7	36.5	27.8	7.3	1.4	27.0	36.5	36.5
	모름/무응답	(22)	4.5	4.5	27.3	31.8	27.3	4.5	0.0	36.4	31.8	31.8
가구 소득	저소득	(468)	2.6	6.6	22.0	37.2	24.4	6.6	0.6	31.2	37.2	31.6
	중소득	(1,383)	1.4	7.7	20.7	35.4	26.9	7.3	0.6	29.8	35.4	34.8
	고소득	(589)	1.4	5.1	21.2	34.1	28.7	7.1	2.4	27.7	34.1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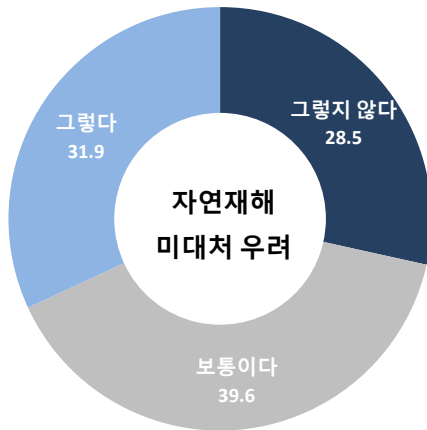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아.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 부재에 따른 손해 염려

-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 손해에 대해 걱정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1.9%로 ‘그렇지 않다’(28.5%)에 비해 3.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6〉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 부재에 따른 손해 염려

(N=2,440, 단위: %)



-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블루칼라 (3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8〉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 부재에 따른 손해 염려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처 능력 부재에 따른 손해 염려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	(2,440)	2.0	6.0	20.5	39.6	24.1	7.0	0.8	28.5	39.6	31.9	
성별	남성	(1,214)	2.0	6.6	19.4	39.2	23.8	8.3	0.7	28.0	39.2	32.8
	여성	(1,226)	2.0	5.4	21.5	40.0	24.4	5.7	0.9	29.0	40.0	31.0
연령	20대	(398)	2.5	6.5	18.6	41.2	24.6	6.0	0.5	27.6	41.2	31.2
	30대	(428)	1.4	5.8	17.1	40.2	26.6	7.9	0.9	24.3	40.2	35.5
	40대	(502)	1.6	5.2	18.9	42.0	23.7	7.6	1.0	25.7	42.0	32.3
	50대	(493)	1.8	6.9	21.1	38.3	23.1	7.5	1.2	29.8	38.3	31.8
	60대 이상	(619)	2.6	5.7	24.9	37.3	23.1	6.1	0.3	33.1	37.3	29.6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2.6	7.9	24.0	32.5	23.2	8.3	1.5	34.5	32.5	33.0
	중·소도시	(1,174)	1.2	4.8	17.7	45.8	25.7	4.6	0.2	23.7	45.8	30.5
	군지역	(163)	3.7	1.8	16.6	43.6	18.4	16.0	0.0	22.1	43.6	34.4
직업	화이트칼라	(774)	0.9	5.6	18.1	41.3	25.7	7.8	0.6	24.5	41.3	34.1
	블루칼라	(632)	2.1	7.0	19.6	35.8	25.9	8.5	1.1	28.6	35.8	35.6
	농/임/어업	(38)	7.9	5.3	10.5	42.1	13.2	21.1	0.0	23.7	42.1	34.2
	자영업	(442)	1.4	2.9	23.1	41.9	23.5	6.3	0.9	27.4	41.9	30.8
	주부	(449)	2.0	8.0	24.7	39.9	20.9	3.8	0.7	34.7	39.9	25.4
	은퇴자	(26)	3.8	7.7	19.2	30.8	26.9	11.5	0.0	30.8	30.8	38.5
	학생	(42)	14.3	7.1	16.7	38.1	23.8	0.0	0.0	38.1	38.1	23.8
	무직/기타	(37)	10.8	8.1	18.9	45.9	13.5	2.7	0.0	37.8	45.9	16.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5.2	5.6	14.1	43.7	24.9	5.6	0.9	24.9	43.7	31.5
	고졸	(1,038)	2.6	7.0	24.0	35.6	22.4	7.4	0.9	33.6	35.6	30.7
	대재 이상	(1,167)	0.9	5.1	18.7	42.5	25.2	6.9	0.7	24.7	42.5	32.8
	모름/무응답	(22)	4.5	4.5	13.6	36.4	36.4	4.5	0.0	22.7	36.4	40.9
가구 소득	저소득	(468)	3.2	6.2	23.5	39.1	22.9	4.7	0.4	32.9	39.1	28.0
	중소득	(1,383)	1.8	6.4	21.5	39.6	22.2	8.0	0.5	29.7	39.6	30.7
	고소득	(589)	1.5	4.9	15.6	40.1	29.5	6.6	1.7	22.1	40.1	37.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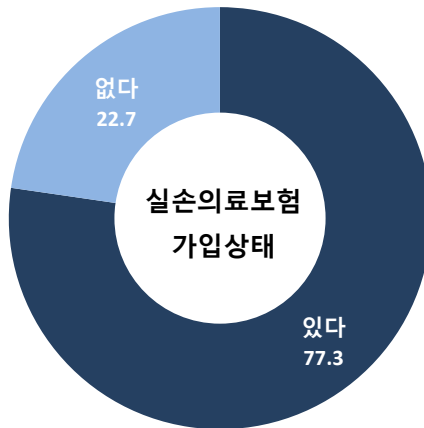
4.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실태

가. 최근 6개월 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 상태

- 최근 6개월 동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77.3%로, '없다'(22.7%)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 IV-37〉 최근 6개월 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 상태

(N=2,440, 단위: %)



-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40대(85.9%), 화이트칼라(86.2%), 대재 이상(8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9〉 최근 6개월 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 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440)	77.3	22.7
성별	남성	(1,214)	77.2	22.8
	여성	(1,226)	77.4	22.6
연령	20대	(398)	79.6	20.4
	30대	(428)	83.9	16.1
	40대	(502)	85.9	14.1
	50대	(493)	81.5	18.5
	60대 이상	(619)	60.9	39.1
지역규모	대도시	(1,103)	77.5	22.5
	중·소도시	(1,174)	77.6	22.4
	군지역	(163)	73.6	26.4
직업	화이트칼라	(774)	86.2	13.8
	블루칼라	(632)	73.4	26.6
	농/임/어업	(38)	42.1	57.9
	자영업	(442)	78.1	21.9
	주부	(449)	73.5	26.5
	은퇴자	(26)	57.7	42.3
	학생	(42)	81.0	19.0
	무직/기타	(37)	40.5	59.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49.8	50.2
	고졸	(1,038)	75.9	24.1
	대재 이상	(1,167)	83.5	16.5
	모름/무응답	(22)	77.3	22.7
가구 소득	저소득	(468)	57.5	42.5
	중소득	(1,383)	81.3	18.7
	고소득	(589)	83.7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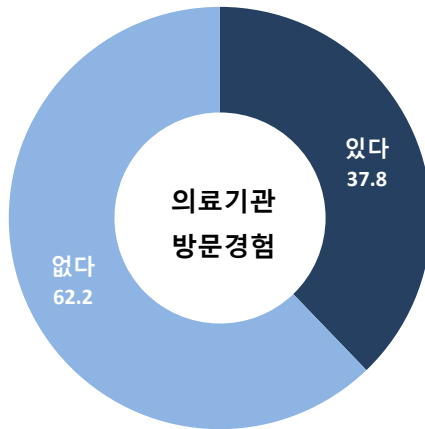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의료기관 방문 경험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최근 6개월간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37.8%로 ‘없다’(62.2%)에 비해 24.4%p 낮게 나타남

〈그림 IV-38〉 의료기관 방문 경험

(N=1,886, 단위: %)



-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주부(4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0〉 의료기관 방문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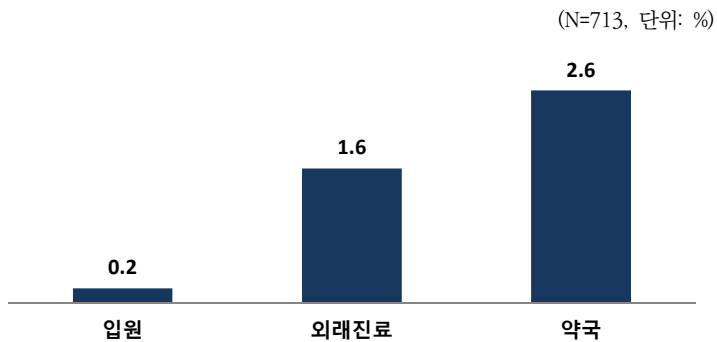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886)	37.8	62.2
성별	남성	(937)	36.0	64.0
	여성	(949)	39.6	60.4
연령	20대	(317)	30.0	70.0
	30대	(359)	32.3	67.7
	40대	(431)	34.8	65.2
	50대	(402)	43.0	57.0
	60대 이상	(377)	47.5	52.5
지역규모	대도시	(855)	38.6	61.4
	중·소도시	(911)	38.3	61.7
	군지역	(120)	28.3	71.7
직업	화이트칼라	(667)	34.9	65.1
	블루칼라	(464)	32.1	67.9
	농/임/어업	(16)	43.8	56.3
	자영업	(345)	38.6	61.4
	주부	(330)	48.2	51.8
	은퇴자	(15)	73.3	26.7
	학생	(34)	32.4	67.6
	무직/기타	(15)	66.7	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6)	43.4	56.6
	고졸	(788)	38.2	61.8
	대재 이상	(975)	37.4	62.6
	모름/무응답	(17)	5.9	94.1
가구 소득	저소득	(269)	41.6	58.4
	중소득	(1,124)	36.7	63.3
	고소득	(493)	38.1	61.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의료기관 방문 횟수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목적별 방문 횟수를 살펴본 결과, 입원의 경우 평균 0.2회, 외래진료(1.6회), 약국(2.6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9〉 의료기관 방문 횟수



- 입원을 목적으로 외래진료 및 약국을 방문한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1〉 의료기관 방문 횟수: 입원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건	1건	2건	3건	평균: (건)
전체		(713)	86.3	10.4	2.9	0.4	0.2
성별	남성	(337)	83.4	12.8	3.3	0.6	0.2
	여성	(376)	88.8	8.2	2.7	0.3	0.1
연령	20대	(95)	92.6	2.1	4.2	1.1	0.1
	30대	(116)	89.7	7.8	1.7	0.9	0.1
	40대	(150)	88.0	8.0	4.0	0.0	0.2
	50대	(173)	82.7	13.3	3.5	0.6	0.2
	60대 이상	(179)	82.7	15.6	1.7	0.0	0.2
지역규모	대도시	(330)	88.8	10.6	0.6	0.0	0.1
	중·소도시	(349)	83.4	10.6	5.2	0.9	0.2
	군지역	(34)	91.2	5.9	2.9	0.0	0.1
직업	화이트칼라	(233)	85.0	8.2	6.0	0.9	0.2
	블루칼라	(149)	87.2	12.1	0.7	0.0	0.1
	농/임/어업	(7)	71.4	28.6	0.0	0.0	0.3
	자영업	(133)	82.7	15.0	1.5	0.8	0.2
	주부	(159)	89.9	8.2	1.9	0.0	0.1
	은퇴자	(11)	72.7	18.2	9.1	0.0	0.4
	학생	(11)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10)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6)	80.4	17.4	2.2	0.0	0.2
	고졸	(301)	85.0	13.3	1.3	0.3	0.2
	대재 이상	(365)	88.2	7.1	4.1	0.5	0.2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2.0
가구 소득	저소득	(112)	91.1	8.0	0.9	0.0	0.1
	중소득	(413)	85.5	10.7	3.1	0.7	0.2
	고소득	(188)	85.1	11.2	3.7	0.0	0.2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외래진료 및 약국을 방문한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2〉 의료기관 방문 횟수: 외래진료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평균: (건)
전체		(1,205)	1.5	69.8	14.0	6.8	2.7	5.2	1.6
성별	남성	(577)	2.3	66.7	16.5	7.5	2.8	4.3	1.6
	여성	(628)	0.8	72.6	11.8	6.2	2.5	6.1	1.6
연령	20대	(169)	1.2	65.7	24.3	4.7	1.8	2.4	1.5
	30대	(186)	2.2	67.2	17.2	7.0	4.8	1.6	1.5
	40대	(266)	1.9	76.7	10.5	5.6	1.9	3.4	1.4
	50대	(281)	1.8	68.3	13.2	7.8	2.8	6.0	1.7
	60대 이상	(303)	0.7	69.0	10.2	7.9	2.3	9.9	1.9
지역규모	대도시	(330)	3.9	24.2	32.7	14.8	8.2	16.1	2.8
	중·소도시	(800)	0.6	87.3	7.0	3.9	0.6	0.6	1.2
	군지역	(75)	0.0	84.0	6.7	2.7	0.0	6.7	1.4
직업	화이트칼라	(368)	1.6	63.3	20.4	8.4	2.7	3.5	1.6
	블루칼라	(276)	2.2	72.8	12.0	4.7	3.6	4.7	1.6
	농/임/어업	(18)	0.0	88.9	5.6	5.6	0.0	0.0	1.2
	자영업	(231)	2.2	72.7	9.1	8.7	1.7	5.6	1.6
	주부	(257)	0.4	72.4	12.5	4.7	2.7	7.4	1.7
	은퇴자	(16)	0.0	43.8	12.5	18.8	0.0	25.0	2.8
	학생	(18)	0.0	66.7	22.2	5.6	5.6	0.0	1.5
무직/기타	(21)	0.0	85.7	4.8	4.8	0.0	4.8	1.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4)	0.0	69.0	10.7	7.1	1.2	11.9	1.9
	고졸	(533)	1.5	73.9	9.4	6.0	2.6	6.6	1.7
	대재 이상	(576)	1.7	65.6	18.9	7.6	3.0	3.1	1.6
	모름/무응답	(12)	0.0	91.7	8.3	0.0	0.0	0.0	1.1
가구 소득	저소득	(219)	1.4	76.3	10.0	5.5	1.4	5.5	1.6
	중소득	(700)	1.6	69.7	14.3	6.7	2.4	5.3	1.6
	고소득	(286)	1.4	65.0	16.4	8.0	4.2	4.9	1.7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약국을 방문한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3〉 의료기관 방문 횟수: 약국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평균: (건)
전체		(713)	6.0	19.8	34.5	18.2	7.9	13.6	2.6
성별	남성	(337)	7.4	21.1	35.6	18.4	5.9	11.6	2.4
	여성	(376)	4.8	18.6	33.5	18.1	9.6	15.4	2.7
연령	20대	(95)	8.4	24.2	46.3	10.5	5.3	5.3	2.0
	30대	(116)	10.3	19.0	31.9	17.2	16.4	5.2	2.3
	40대	(150)	4.7	22.0	39.3	20.7	4.0	9.3	2.3
	50대	(173)	5.8	16.8	37.6	16.8	8.7	14.5	2.6
	60대 이상	(179)	3.4	19.0	22.9	22.3	6.1	26.3	3.2
지역규모	대도시	(330)	7.3	23.9	31.2	14.5	6.7	16.4	2.6
	중·소도시	(349)	5.4	15.5	36.7	22.6	9.5	10.3	2.6
	군지역	(34)	0.0	23.5	44.1	8.8	2.9	20.6	2.7
직업	화이트칼라	(233)	7.3	23.2	39.5	16.7	6.9	6.4	2.2
	블루칼라	(149)	10.1	16.8	35.6	17.4	7.4	12.8	2.5
	농/임/어업	(7)	0.0	28.6	28.6	42.9	0.0	0.0	2.1
	자영업	(133)	3.0	19.5	30.1	21.8	6.0	19.5	2.9
	주부	(159)	3.8	17.6	31.4	16.4	10.7	20.1	3.0
	은퇴자	(11)	0.0	0.0	18.2	45.5	0.0	36.4	3.7
	학생	(11)	0.0	27.3	54.5	9.1	9.1	0.0	2.0
무직/기타	(10)	10.0	30.0	10.0	10.0	30.0	10.0	2.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6)	0.0	26.1	23.9	19.6	4.3	26.1	3.0
	고졸	(301)	6.0	15.3	31.2	18.6	8.6	20.3	3.0
	대재 이상	(365)	6.8	22.7	38.4	17.8	7.7	6.6	2.2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2.0
가구 소득	저소득	(112)	6.3	20.5	25.9	20.5	9.8	17.0	2.8
	중소득	(413)	6.5	19.9	34.6	17.4	8.0	13.6	2.6
	고소득	(188)	4.8	19.1	39.4	18.6	6.4	11.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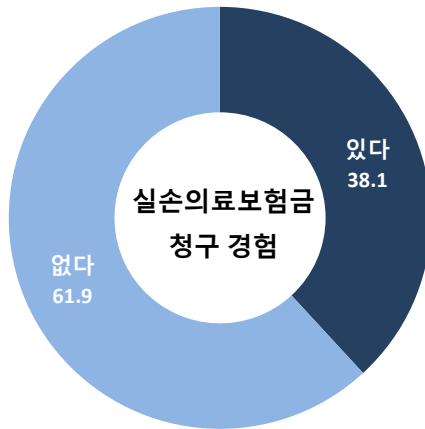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

- 의료기관 혹은 약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 진료(약제)비를 지급한 후 보험 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8.1%로, ‘경험이 없다’(61.9%)에 비해 23.8%p 낮게 나타남

〈그림 IV-40〉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

(N=713, 단위: %)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42.7%),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4〉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713)	38.1	61.9
성별	남성	(337)	39.5	60.5
	여성	(376)	37.0	63.0
연령	20대	(95)	31.6	68.4
	30대	(116)	32.8	67.2
	40대	(150)	34.7	65.3
	50대	(173)	40.5	59.5
	60대 이상	(179)	45.8	54.2
지역규모	대도시	(330)	42.7	57.3
	중·소도시	(349)	35.2	64.8
	군지역	(34)	23.5	76.5
직업	화이트칼라	(233)	39.1	60.9
	블루칼라	(149)	38.9	61.1
	농/임/어업	(7)	57.1	42.9
	자영업	(133)	36.8	63.2
	주부	(159)	35.8	64.2
	은퇴자	(11)	54.5	45.5
	학생	(11)	18.2	81.8
	무직/기타	(10)	50.0	5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6)	41.3	58.7
	고졸	(301)	39.2	60.8
	대재 이상	(365)	37.0	63.0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112)	42.0	58.0
	중소득	(413)	36.3	63.7
	고소득	(188)	39.9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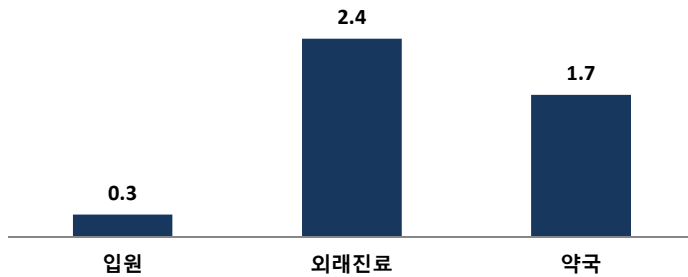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마.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 최근 6개월 내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자를 대상으로 목적별 청구건수를 살펴본 결과, 입원은 평균 0.3건, 외래진료는 2.4건, 그리고 약국은 1.7건으로 나타남

〈그림 IV-41〉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단위: %)



- 입원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횟수는 60대 이상(평균 0.4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5〉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입원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건	1건	2건	평균: (건)
전체		(272)	74.3	23.9	1.8	0.3
성별	남성	(133)	69.2	27.8	3.0	0.3
	여성	(139)	79.1	20.1	0.7	0.2
연령	20대	(30)	93.3	6.7	0.0	0.1
	30대	(38)	81.6	18.4	0.0	0.2
	40대	(52)	75.0	21.2	3.8	0.3
	50대	(70)	71.4	25.7	2.9	0.3
	60대 이상	(82)	65.9	32.9	1.2	0.4
지역규모	대도시	(141)	79.4	19.9	0.7	0.2
	중·소도시	(123)	68.3	28.5	3.3	0.3
	군지역	(8)	75.0	25.0	0.0	0.3
직업	화이트칼라	(91)	82.4	15.4	2.2	0.2
	블루칼라	(58)	69.0	29.3	1.7	0.3
	농/임/어업	(4)	75.0	25.0	0.0	0.3
	자영업	(49)	61.2	36.7	2.0	0.4
	주부	(57)	75.4	22.8	1.8	0.3
	은퇴자	(6)	66.7	33.3	0.0	0.3
	학생	(2)	100.0	0.0	0.0	0.0
	무직/기타	(5)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	68.4	31.6	0.0	0.3
	고졸	(118)	65.3	33.1	1.7	0.4
	대재 이상	(135)	83.0	14.8	2.2	0.2
가구 소득	저소득	(47)	83.0	17.0	0.0	0.2
	중소득	(150)	70.0	27.3	2.7	0.3
	고소득	(75)	77.3	21.3	1.3	0.2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외래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횟수는 60대 이상(평균 3.0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6〉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외래진료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평균: (건)
전체		(272)	7.4	32.4	27.6	14.0	7.4	11.4	2.4
성별	남성	(133)	12.0	29.3	31.6	12.0	6.8	8.3	2.2
	여성	(139)	2.9	35.3	23.7	15.8	7.9	14.4	2.6
연령	20대	(30)	0.0	50.0	43.3	3.3	3.3	0.0	1.6
	30대	(38)	10.5	36.8	31.6	5.3	7.9	7.9	2.0
	40대	(52)	9.6	50.0	13.5	7.7	9.6	9.6	2.0
	50대	(70)	8.6	25.7	27.1	20.0	7.1	11.4	2.7
	60대 이상	(82)	6.1	18.3	29.3	20.7	7.3	18.3	3.0
지역규모	대도시	(141)	3.5	35.5	27.0	14.9	7.8	11.3	2.6
	중·소도시	(123)	12.2	30.1	27.6	12.2	7.3	10.6	2.2
	군지역	(8)	0.0	12.5	37.5	25.0	0.0	25.0	2.9
	화이트칼라	(91)	9.9	39.6	34.1	7.7	4.4	4.4	1.8
직업	블루칼라	(58)	6.9	24.1	31.0	12.1	8.6	17.2	2.9
	농/임/어업	(4)	0.0	25.0	25.0	50.0	0.0	0.0	2.3
	자영업	(49)	14.3	36.7	8.2	20.4	8.2	12.2	2.3
	주부	(57)	0.0	29.8	28.1	17.5	5.3	19.3	2.9
	은퇴자	(6)	0.0	0.0	50.0	33.3	16.7	0.0	2.7
	학생	(2)	0.0	50.0	50.0	0.0	0.0	0.0	1.5
	무직/기타	(5)	0.0	20.0	20.0	0.0	60.0	0.0	3.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	0.0	15.8	36.8	21.1	10.5	15.8	2.8
	고졸	(118)	9.3	24.6	22.9	18.6	6.8	17.8	3.0
	대재 이상	(135)	6.7	41.5	30.4	8.9	7.4	5.2	1.9
가구 소득	저소득	(47)	6.4	34.0	29.8	10.6	4.3	14.9	2.4
	중소득	(150)	7.3	30.7	24.7	15.3	7.3	14.7	2.7
	고소득	(75)	8.0	34.7	32.0	13.3	9.3	2.7	1.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약제비로 인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횟수는 60대 이상(평균 2.3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7〉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건수: 약 처방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평균: (건)
전체		(272)	33.1	20.2	22.1	11.4	4.4	8.8	1.7
성별	남성	(133)	35.3	21.1	21.8	10.5	3.8	7.5	1.6
	여성	(139)	30.9	19.4	22.3	12.2	5.0	10.1	1.9
연령	20대	(30)	43.3	20.0	33.3	3.3	0.0	0.0	1.0
	30대	(38)	47.4	15.8	23.7	0.0	7.9	5.3	1.2
	40대	(52)	38.5	28.8	15.4	5.8	7.7	3.8	1.3
	50대	(70)	25.7	20.0	25.7	15.7	2.9	10.0	2.0
	60대 이상	(82)	25.6	17.1	18.3	19.5	3.7	15.9	2.3
지역규모	대도시	(141)	34.0	22.7	19.9	9.9	2.8	10.6	1.8
	중·소도시	(123)	34.1	17.9	23.6	12.2	6.5	5.7	1.6
	군지역	(8)	0.0	12.5	37.5	25.0	0.0	25.0	2.9
직업	화이트칼라	(91)	39.6	23.1	27.5	4.4	3.3	2.2	1.2
	블루칼라	(58)	32.8	12.1	24.1	8.6	6.9	15.5	2.1
	농/임/어업	(4)	0.0	25.0	25.0	50.0	0.0	0.0	2.3
	자영업	(49)	26.5	30.6	12.2	18.4	2.0	10.2	1.9
	주부	(57)	31.6	14.0	21.1	15.8	3.5	14.0	2.1
	은퇴자	(6)	33.3	0.0	33.3	33.3	0.0	0.0	1.7
	학생	(2)	0.0	100.0	0.0	0.0	0.0	0.0	1.0
	무직/기타	(5)	40.0	20.0	0.0	0.0	40.0	0.0	1.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	21.1	10.5	26.3	21.1	5.3	15.8	2.3
	고졸	(118)	30.5	18.6	16.9	15.3	5.1	13.6	2.2
	대재 이상	(135)	37.0	23.0	25.9	6.7	3.7	3.7	1.3
가구 소득	저소득	(47)	40.4	10.6	27.7	8.5	4.3	8.5	1.6
	중소득	(150)	33.3	18.7	16.7	12.7	6.0	12.7	2.0
	고소득	(75)	28.0	29.3	29.3	10.7	1.3	1.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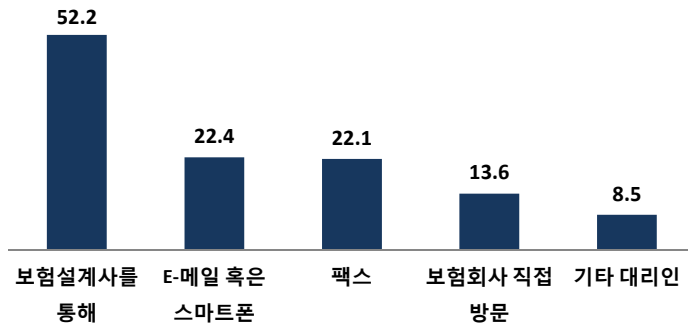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바.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이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을 살펴본 결과, ‘보험설계사를 통해’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22.4%), ‘팩스’(22.1%), ‘보험회사 직접 방문’(13.6%), ‘기타 대리인’(8.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2〉 최근 6개월 내 실손의료보험 주 청구 방법

(N=272, 단위: %)



- 보험설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75.6%), 고졸(6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8〉 최근 6개월 내 실손의료보험 주 청구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설계사 를 통해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	팩스	보험회사 직접 방문	기타 대리인
전체		(272)	52.2	22.4	22.1	13.6	8.5
성별	남성	(133)	48.9	24.8	23.3	12.0	7.5
	여성	(139)	55.4	20.1	20.9	15.1	9.4
연령	20대	(30)	40.0	40.0	30.0	6.7	3.3
	30대	(38)	10.5	50.0	34.2	2.6	2.6
	40대	(52)	42.3	36.5	28.8	13.5	1.9
	50대	(70)	60.0	10.0	24.3	15.7	10.0
	60대 이상	(82)	75.6	4.9	7.3	19.5	15.9
지역규모	대도시	(141)	51.8	23.4	19.9	13.5	9.2
	중·소도시	(123)	51.2	22.0	25.2	14.6	5.7
	군지역	(8)	75.0	12.5	12.5	0.0	37.5
직업	화이트칼라	(91)	42.9	29.7	26.4	5.5	2.2
	블루칼라	(58)	41.4	34.5	25.9	13.8	5.2
	농/임/어업	(4)	75.0	25.0	0.0	0.0	50.0
	자영업	(49)	61.2	12.2	28.6	20.4	8.2
	주부	(57)	61.4	12.3	12.3	22.8	15.8
	은퇴자	(6)	100.0	0.0	0.0	0.0	16.7
	학생	(2)	100.0	0.0	0.0	50.0	0.0
	무직/기타	(5)	60.0	0.0	0.0	0.0	4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	84.2	5.3	10.5	10.5	21.1
	고졸	(118)	65.3	11.9	16.1	23.7	11.0
	대재 이상	(135)	36.3	34.1	28.9	5.2	4.4
가구 소득	저소득	(47)	68.1	14.9	12.8	14.9	12.8
	중소득	(150)	47.3	28.7	24.0	13.3	8.0
	고소득	(75)	52.0	14.7	24.0	13.3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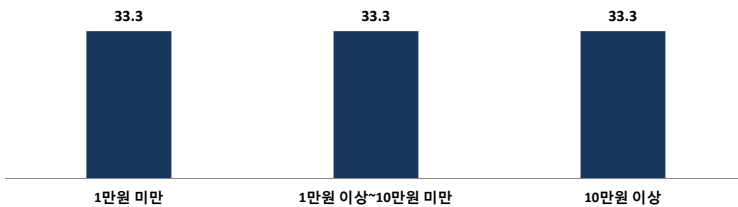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사.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입원

- 최근 6개월간 입원 관련 실손의료보험에 미청구한 금액으로 '10만 원 이상'이 33.3%, '1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이 33.3%, '1만 원 미만' 또한 33.3%로 나타남
- 최근 6개월간 입원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의 평균은 334,833.3원으로 나타남(중복 응답 중 가장 큰 금액 기준)

〈그림 IV-43〉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입원(첫 번째로 큰 금액)

(N=3, 단위: %)



〈표 IV-49〉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입원(첫 번째로 큰 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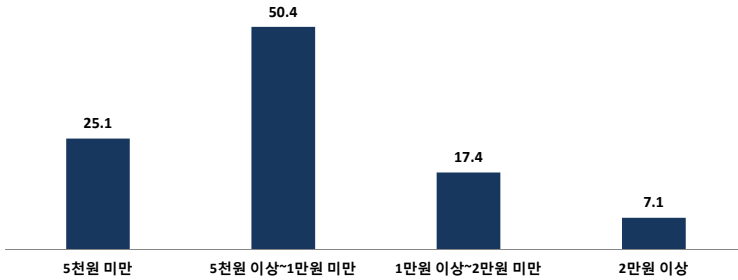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3)	33.3	33.3	33.3	334,833.3
성별	남성	(2)	50.0	50.0	0.0	18,250.0
	여성	(1)	0.0	0.0	100.0	968,000.0
연령	40대	(1)	0.0	100.0	0.0	30,000.0
	50대	(2)	50.0	0.0	50.0	487,250.0
지역규모	대도시	(1)	0.0	0.0	100.0	968,000.0
	중·소도시	(2)	50.0	50.0	0.0	18,250.0
직업	화이트칼라	(1)	0.0	100.0	0.0	30,000.0
	자영업	(2)	50.0	0.0	50.0	487,25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0.0	0.0	100.0	968,000.0
	대재 이상	(2)	50.0	50.0	0.0	18,250.0
가구 소득	중소득	(2)	50.0	0.0	50.0	487,250.0
	고소득	(1)	0.0	100.0	0.0	30,000.0

아.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

- 최근 6개월간 외래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의 평균은 9,339.9원으로 나타남(중복 응답 중 가장 큰 금액 기준)

〈그림 IV-44〉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첫 번째로 큰 금액)

(N=351, 단위: %)



〈표 IV-50〉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첫 번째로 큰 금액)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351)	25.1	50.4	17.4	7.1	9,339.9
성별	남성	(171)	19.9	52.6	18.7	8.8	9,808.8
	여성	(180)	30.0	48.3	16.1	5.6	8,894.4
연령	20대	(57)	26.3	54.4	12.3	7.0	9,110.5
	30대	(64)	25.0	54.7	12.5	7.8	9,156.3
	40대	(69)	18.8	49.3	23.2	8.7	9,437.7
	50대	(79)	20.3	60.8	12.7	6.3	9,626.6
	60대 이상	(82)	34.1	35.4	24.4	6.1	9,284.1
지역규모	대도시	(152)	18.4	53.3	18.4	9.9	10,886.8
	중·소도시	(191)	30.4	48.2	16.2	5.2	8,226.7
	군지역	(8)	25.0	50.0	25.0	0.0	6,525.0
직업	화이트칼라	(119)	20.2	58.8	12.6	8.4	9,098.3
	블루칼라	(76)	23.7	53.9	17.1	5.3	8,625.0
	농/임/어업	(1)	0.0	0.0	100.0	0.0	12,000.0
	자영업	(63)	30.2	34.9	25.4	9.5	11,076.2
	주부	(77)	28.6	48.1	18.2	5.2	9,137.7
	은퇴자	(5)	0.0	60.0	20.0	20.0	14,580.0
	학생	(6)	33.3	50.0	16.7	0.0	5,916.7
	무직/기타	(4)	75.0	25.0	0.0	0.0	4,57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43.8	18.8	31.3	6.3	10,043.8
	고졸	(148)	26.4	44.6	19.6	9.5	10,534.5
	대재 이상	(187)	22.5	57.8	14.4	5.3	8,334.2
가구 소득	저소득	(57)	35.1	35.1	24.6	5.3	9,922.8
	중소득	(200)	26.0	49.0	17.5	7.5	9,084.0
	고소득	(94)	17.0	62.8	12.8	7.4	9,530.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V-51〉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두 번째로 큰 금액)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257)	52.5	38.1	6.2	3.1	6,363.8
성별	남성	(116)	44.0	44.0	7.8	4.3	7,039.7
	여성	(141)	59.6	33.3	5.0	2.1	5,807.8
연령	20대	(39)	66.7	28.2	5.1	0.0	5,066.7
	30대	(44)	45.5	45.5	2.3	6.8	6,488.6
	40대	(48)	52.1	31.3	14.6	2.1	6,147.9
	50대	(63)	47.6	42.9	7.9	1.6	6,768.3
	60대 이상	(63)	54.0	39.7	1.6	4.8	6,839.7
지역규모	대도시	(100)	50.0	39.0	6.0	5.0	7,544.0
	중·소도시	(153)	53.6	37.9	6.5	2.0	5,627.5
	군지역	(4)	75.0	25.0	0.0	0.0	5,025.0
직업	화이트칼라	(82)	57.3	34.1	6.1	2.4	5,859.8
	블루칼라	(54)	51.9	42.6	3.7	1.9	5,490.7
	자영업	(46)	50.0	39.1	8.7	2.2	7,000.0
	주부	(62)	43.5	43.5	8.1	4.8	7,348.4
	은퇴자	(5)	40.0	40.0	0.0	20.0	10,560.0
	학생	(5)	100.0	0.0	0.0	0.0	3,560.0
	무직/기타	(3)	100.0	0.0	0.0	0.0	3,4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	44.4	55.6	0.0	0.0	5,522.2
	고졸	(119)	52.9	36.1	6.7	4.2	6,969.7
	대재 이상	(129)	52.7	38.8	6.2	2.3	5,863.6
가구 소득	저소득	(41)	56.1	36.6	4.9	2.4	6,704.9
	중소득	(142)	49.3	39.4	7.7	3.5	6,193.7
	고소득	(74)	56.8	36.5	4.1	2.7	6,501.4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V-52〉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세 번째로 큰 금액)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130)	63.8	31.5	3.8	0.8	4,959.2
성별	남성	(54)	50.0	42.6	5.6	1.9	5,768.5
	여성	(76)	73.7	23.7	2.6	0.0	4,384.2
연령	20대	(13)	92.3	7.7	0.0	0.0	3,746.2
	30대	(16)	68.8	18.8	6.3	6.3	6,362.5
	40대	(24)	62.5	33.3	4.2	0.0	4,820.8
	50대	(30)	46.7	50.0	3.3	0.0	4,953.3
	60대 이상	(47)	66.0	29.8	4.3	0.0	4,891.5
지역규모	대도시	(48)	70.8	18.8	8.3	2.1	5,366.7
	중·소도시	(79)	58.2	40.5	1.3	0.0	4,749.4
	군지역	(3)	100.0	0.0	0.0	0.0	3,966.7
직업	화이트칼라	(31)	74.2	22.6	0.0	3.2	4,835.5
	블루칼라	(27)	59.3	33.3	7.4	0.0	4,848.1
	자영업	(25)	56.0	40.0	4.0	0.0	5,492.0
	주부	(39)	61.5	35.9	2.6	0.0	4,687.2
	은퇴자	(4)	50.0	25.0	25.0	0.0	7,625.0
	학생	(1)	100.0	0.0	0.0	0.0	3,000.0
	무직/기타	(3)	100.0	0.0	0.0	0.0	3,4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83.3	16.7	0.0	0.0	4,116.7
	고졸	(70)	58.6	38.6	2.9	0.0	4,992.9
	대재 이상	(54)	68.5	24.1	5.6	1.9	5,009.3
가구 소득	저소득	(28)	71.4	28.6	0.0	0.0	4,196.4
	중소득	(72)	66.7	26.4	5.6	1.4	5,094.4
	고소득	(30)	50.0	46.7	3.3	0.0	5,346.7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V-53〉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외래진료(네 번째로 큰 금액)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61)	63.9	29.5	4.9	1.6	4,862.3
성별	남성	(23)	52.2	34.8	8.7	4.3	5,678.3
	여성	(38)	71.1	26.3	2.6	0.0	4,368.4
연령	20대	(4)	100.0	0.0	0.0	0.0	2,950.0
	30대	(8)	37.5	50.0	0.0	12.5	8,087.5
	40대	(9)	66.7	33.3	0.0	0.0	4,255.6
	50대	(14)	50.0	42.9	7.1	0.0	5,171.4
	60대 이상	(26)	73.1	19.2	7.7	0.0	4,207.7
지역규모	대도시	(26)	69.2	19.2	7.7	3.8	5,515.4
	중·소도시	(34)	58.8	38.2	2.9	0.0	4,423.5
	군지역	(1)	100.0	0.0	0.0	0.0	2,800.0
직업	화이트칼라	(6)	83.3	0.0	0.0	16.7	7,433.3
	블루칼라	(12)	50.0	41.7	8.3	0.0	4,550.0
	자영업	(16)	62.5	31.3	6.3	0.0	4,743.8
	주부	(23)	65.2	34.8	0.0	0.0	4,404.3
	은퇴자	(1)	0.0	0.0	100.0	0.0	11,000.0
	학생	(1)	100.0	0.0	0.0	0.0	3,000.0
	무직/기타	(2)	100.0	0.0	0.0	0.0	3,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66.7	33.3	0.0	0.0	4,133.3
	고졸	(41)	58.5	36.6	4.9	0.0	4,682.9
	대재 이상	(17)	76.5	11.8	5.9	5.9	5,423.5
가구 소득	저소득	(13)	76.9	23.1	0.0	0.0	3,723.1
	중소득	(35)	62.9	28.6	5.7	2.9	5,280.0
	고소득	(13)	53.8	38.5	7.7	0.0	4,8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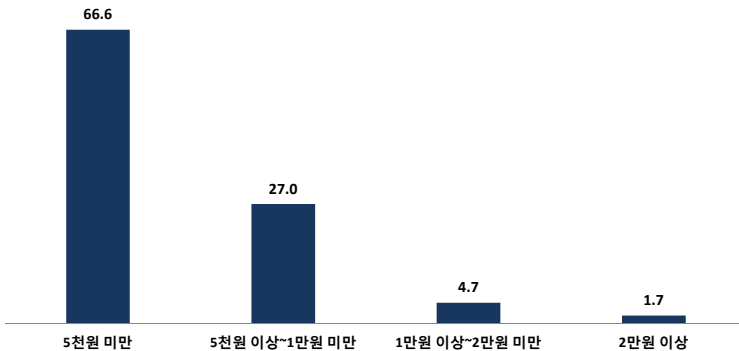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자.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처방

- 최근 6개월간 약 처방 관련 실손의료보험에 미청구한 금액으로 '5천 원 미만'이 6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천 원 이상~1만 원 미만'(27.0%), '1만 원 이상~2만 원 미만'(4.7%), '2만 원 이상'(1.7%) 순으로 나타남
- 최근 6개월간 약 처방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의 평균은 4,867.9원으로 나타남(중복 응답 중 가장 큰 금액 기준)

〈그림 IV-45〉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처방(첫 번째로 큰 금액)

(N=344, 단위: %)



〈표 IV-54〉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처방(첫 번째로 큰 금액)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344)	66.6	27.0	4.7	1.7	4,867.9
성별	남성	(171)	62.0	31.0	4.7	2.3	5,167.5
	여성	(173)	71.1	23.1	4.6	1.2	4,571.7
연령	20대	(54)	59.3	37.0	3.7	0.0	4,507.4
	30대	(56)	66.1	26.8	5.4	1.8	4,795.5
	40대	(76)	65.8	30.3	2.6	1.3	4,492.1
	50대	(79)	68.4	25.3	2.5	3.8	5,372.2
	60대 이상	(79)	70.9	19.0	8.9	1.3	5,022.8
지역규모	대도시	(150)	59.3	31.3	6.0	3.3	5,775.7
	중·소도시	(186)	72.6	23.1	3.8	0.5	4,169.4
	군지역	(8)	62.5	37.5	0.0	0.0	4,087.5
직업	화이트칼라	(112)	64.3	31.3	2.7	1.8	4,764.7
	블루칼라	(76)	71.1	27.6	1.3	0.0	3,951.3
	농/임/어업	(1)	100.0	0.0	0.0	0.0	4,000.0
	자영업	(66)	68.2	22.7	6.1	3.0	5,440.9
	주부	(74)	64.9	25.7	8.1	1.4	4,968.9
	은퇴자	(5)	40.0	20.0	20.0	20.0	12,100.0
	학생	(5)	40.0	40.0	20.0	0.0	6,740.0
교육 수준	무직/기타	(5)	100.0	0.0	0.0	0.0	3,120.0
	중졸 이하	(17)	82.4	11.8	0.0	5.9	4,764.7
	고졸	(145)	64.8	27.6	6.9	0.7	4,956.6
가구 소득	대재 이상	(182)	66.5	28.0	3.3	2.2	4,806.9
	저소득	(56)	64.3	25.0	10.7	0.0	5,016.1
	중소득	(199)	67.8	28.1	2.0	2.0	4,677.1
	고소득	(89)	65.2	25.8	6.7	2.2	5,201.1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V-55〉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처방(두 번째로 큰 금액)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244)	81.1	15.2	2.5	1.2	3,962.5
성별	남성	(112)	76.8	18.8	2.7	1.8	4,177.2
	여성	(132)	84.8	12.1	2.3	0.8	3,780.3
연령	20대	(35)	77.1	22.9	0.0	0.0	3,582.9
	30대	(39)	79.5	15.4	2.6	2.6	4,560.3
	40대	(54)	79.6	18.5	1.9	0.0	3,381.5
	50대	(60)	85.0	13.3	0.0	1.7	4,151.7
	60대 이상	(56)	82.1	8.9	7.1	1.8	4,141.1
지역규모	대도시	(99)	71.7	22.2	3.0	3.0	5,021.7
	중·소도시	(141)	87.2	10.6	2.1	0.0	3,246.1
	군지역	(4)	100.0	0.0	0.0	0.0	3,000.0
직업	화이트칼라	(71)	74.6	21.1	2.8	1.4	4,175.4
	블루칼라	(58)	84.5	15.5	0.0	0.0	3,182.8
	자영업	(48)	85.4	12.5	2.1	0.0	3,468.8
	주부	(55)	83.6	10.9	3.6	1.8	4,390.9
	은퇴자	(5)	60.0	0.0	20.0	20.0	10,000.0
	학생	(4)	75.0	25.0	0.0	0.0	4,875.0
	무직/기타	(3)	100.0	0.0	0.0	0.0	2,76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	88.9	11.1	0.0	0.0	3,355.6
	고졸	(113)	85.0	11.5	2.7	0.9	3,873.5
	대재 이상	(122)	77.0	18.9	2.5	1.6	4,089.8
가구 소득	저소득	(39)	82.1	7.7	10.3	0.0	4,000.0
	중소득	(138)	79.7	18.1	1.4	0.7	3,795.3
	고소득	(67)	83.6	13.4	0.0	3.0	4,285.1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V-56〉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금액: 약 처방(세 번째로 큰 금액)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2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121)	91.7	6.6	0.8	0.8	3,203.5
성별	남성	(47)	91.5	4.3	2.1	2.1	3,668.1
	여성	(74)	91.9	8.1	0.0	0.0	2,908.4
연령	20대	(13)	92.3	7.7	0.0	0.0	2,676.9
	30대	(17)	82.4	11.8	0.0	5.9	4,748.2
	40대	(21)	95.2	4.8	0.0	0.0	2,728.6
	50대	(29)	96.6	3.4	0.0	0.0	2,896.6
	60대 이상	(41)	90.2	7.3	2.4	0.0	3,190.2
지역규모	대도시	(49)	85.7	10.2	2.0	2.0	3,857.6
	중·소도시	(69)	95.7	4.3	0.0	0.0	2,759.4
	군지역	(3)	100.0	0.0	0.0	0.0	2,733.3
직업	화이트칼라	(29)	93.1	3.4	0.0	3.4	3,727.6
	블루칼라	(22)	95.5	4.5	0.0	0.0	2,572.7
	자영업	(26)	96.2	3.8	0.0	0.0	2,969.2
	주부	(36)	88.9	11.1	0.0	0.0	3,092.2
	은퇴자	(4)	75.0	0.0	25.0	0.0	5,175.0
	학생	(1)	0.0	100.0	0.0	0.0	5,600.0
	무직/기타	(3)	100.0	0.0	0.0	0.0	2,7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100.0	0.0	0.0	0.0	2,812.5
	고졸	(63)	92.1	7.9	0.0	0.0	3,033.3
	대재 이상	(50)	90.0	6.0	2.0	2.0	3,480.4
가구 소득	저소득	(25)	92.0	8.0	0.0	0.0	3,096.0
	중소득	(66)	92.4	6.1	0.0	1.5	3,251.8
	고소득	(30)	90.0	6.7	3.3	0.0	3,1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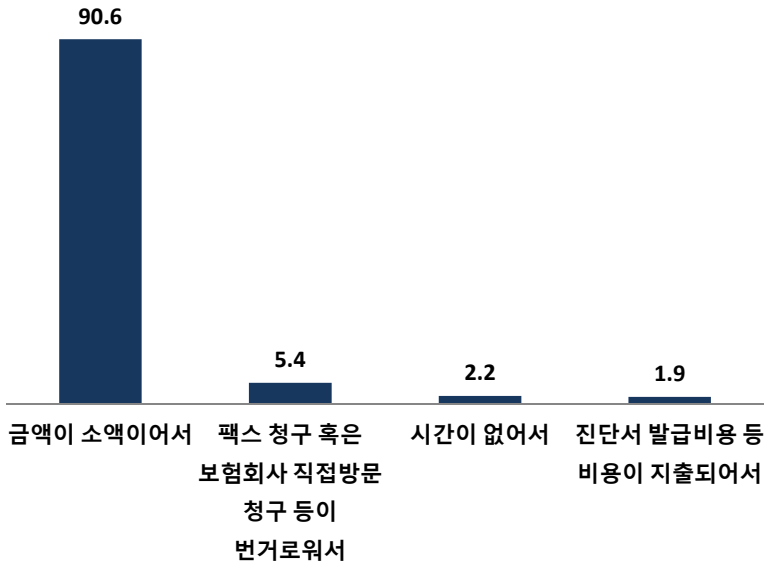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차.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최근 6개월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금액이 소액이어서’라는 응답이 90.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팩스 청구 혹은 보험회사 직접방문 청구 등이 번거로워서’(5.4%), ‘시간이 없어서’(2.2%), ‘진단서 발급비용 등 비용이 지출되어서’(1.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6〉 최근 6개월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N=372, 단위: %)



-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금액이 소액이어서’를 꼽은 응답자는 대재 이상(9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7〉 최근 6개월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금액이 소액이어서	팩스 청구 혹은 보험회사 직접방문 청구 등이 번거로워서	시간이 없어서	진단서 발급비용 등 비용이 지출되어서
전체		(372)	90.6	5.4	2.2	1.9
성별	남성	(183)	92.9	3.8	1.6	1.6
	여성	(189)	88.4	6.9	2.6	2.1
연령	20대	(59)	93.2	0.0	5.1	1.7
	30대	(66)	97.0	3.0	0.0	0.0
	40대	(79)	93.7	2.5	2.5	1.3
	50대	(84)	89.3	4.8	3.6	2.4
	60대 이상	(84)	82.1	14.3	0.0	3.6
지역규모	대도시	(162)	91.4	4.3	2.5	1.9
	중·소도시	(202)	91.1	5.9	2.0	1.0
	군지역	(8)	62.5	12.5	0.0	25.0
직업	화이트칼라	(123)	93.5	3.3	2.4	0.8
	블루칼라	(82)	92.7	2.4	2.4	2.4
	농/임/어업	(1)	0.0	0.0	0.0	100.0
	자영업	(68)	86.8	8.8	2.9	1.5
	주부	(82)	87.8	8.5	1.2	2.4
	은퇴자	(5)	80.0	20.0	0.0	0.0
	학생	(6)	100.0	0.0	0.0	0.0
	무직/기타	(5)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	76.5	11.8	0.0	11.8
	고졸	(155)	85.8	8.4	3.9	1.9
	대재 이상	(200)	95.5	2.5	1.0	1.0
가구 소득	저소득	(59)	79.7	13.6	1.7	5.1
	중소득	(214)	91.6	3.7	2.8	1.9
	고소득	(99)	94.9	4.0	1.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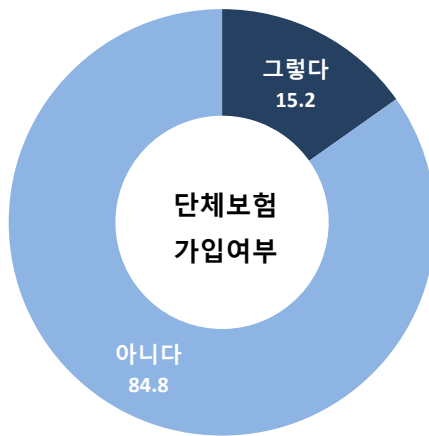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카. 단체보험 가입 여부

-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문의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15.2%로 '아니다'(84.8%)는 응답에 비해 69.6%p 낮게 나타남

〈그림 IV-47〉 단체보험 가입 여부

(N=2,440, 단위: %)



-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남성(20.5%), 대도시(17.7%), 화이트칼라(32.2%), 대재 이상(2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8〉 단체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2,440)	15.2	84.8
성별	남성	(1,214)	20.5	79.5
	여성	(1,226)	10.0	90.0
연령	20대	(398)	23.9	76.1
	30대	(428)	20.6	79.4
	40대	(502)	20.3	79.7
	50대	(493)	13.6	86.4
	60대 이상	(619)	3.1	96.9
지역규모	대도시	(1,103)	17.7	82.3
	중·소도시	(1,174)	13.5	86.5
	군지역	(163)	10.4	89.6
직업	화이트칼라	(774)	32.2	67.8
	블루칼라	(632)	16.1	83.9
	농/임/어업	(38)	0.0	100.0
	자영업	(442)	2.3	97.7
	주부	(449)	1.3	98.7
	은퇴자	(26)	0.0	100.0
	학생	(42)	7.1	92.9
	무직/기타	(37)	2.7	97.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3.3	96.7
	고졸	(1,038)	7.6	92.4
	대재 이상	(1,167)	24.1	75.9
	모름/무응답	(22)	18.2	81.8
가구 소득	저소득	(468)	8.1	91.9
	중소득	(1,383)	14.0	86.0
	고소득	(589)	23.8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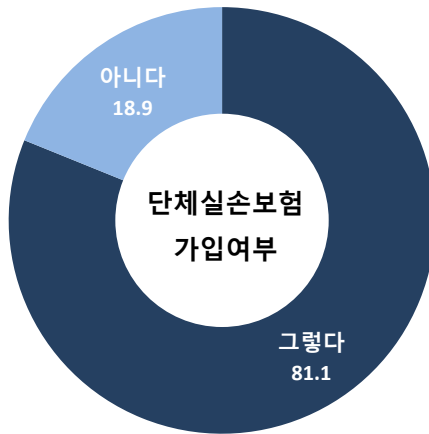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타. 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응답자 중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1.1%로 '아니다'(18.9%)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 IV-48〉 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N=371, 단위: %)



-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여성(86.9%), 중·소도시(9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9〉 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371)	81.1	18.9
성별	남성	(249)	78.3	21.7
	여성	(122)	86.9	13.1
연령	20대	(95)	83.2	16.8
	30대	(88)	75.0	25.0
	40대	(102)	84.3	15.7
	50대	(67)	82.1	17.9
	60대 이상	(19)	78.9	21.1
지역규모	대도시	(195)	74.9	25.1
	중·소도시	(159)	90.6	9.4
	군지역	(17)	64.7	35.3
직업	화이트칼라	(249)	82.7	17.3
	블루칼라	(102)	76.5	23.5
	자영업	(10)	90.0	10.0
	주부	(6)	66.7	33.3
	학생	(3)	100.0	0.0
	무직/기타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	100.0	0.0
	고졸	(79)	77.2	22.8
	대재 이상	(281)	81.9	18.1
	모름/무응답	(4)	75.0	25.0
가구 소득	저소득	(38)	76.3	23.7
	중소득	(193)	78.2	21.8
	고소득	(140)	86.4	13.6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건강생활서비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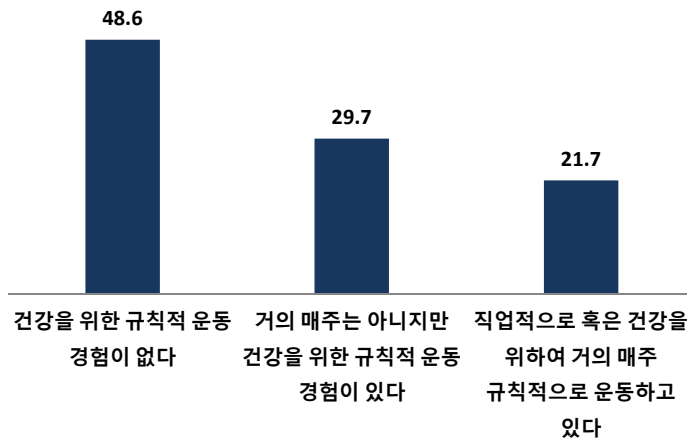
가.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규칙적 운동

1) 최근 6개월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적어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 유무

- 최근 6개월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적어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없다'가 48.6%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있다'(29.7%), '직업적으로 혹은 건강을 위하여 거의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21.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9〉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N=1,614, 단위: %)



-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65.4%), 블루칼라(55.7%), 농/임/어업(8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8) 건강생활서비스 관련 문항 응답 대상은 만40세 이상임

〈표 IV-60〉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없다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있다	직업적으로 혹은 건강을 위하여 거의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전체		(1,614)	48.6	29.7	21.7
성별	남성	(782)	50.4	28.5	21.1
	여성	(832)	47.0	30.8	22.2
연령	40대	(502)	50.4	27.7	21.9
	50대	(493)	49.5	27.4	23.1
	60대 이상	(619)	46.5	33.1	20.4
지역규모	대도시	(714)	45.1	32.2	22.7
	중·소도시	(767)	49.0	28.0	22.9
	군지역	(133)	65.4	25.6	9.0
직업	화이트칼라	(322)	46.9	29.2	23.9
	블루칼라	(415)	55.7	28.0	16.4
	농/임/어업	(38)	86.8	13.2	0.0
	자영업	(412)	50.7	30.1	19.2
	주부	(370)	38.9	31.4	29.7
	은퇴자	(26)	23.1	46.2	30.8
	무직/기타	(31)	35.5	38.7	25.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54.5	34.2	11.4
	고졸	(873)	49.5	29.3	21.2
	대재 이상	(527)	44.8	28.7	26.6
	모름/무응답	(12)	58.3	25.0	16.7
가구 소득	저소득	(353)	51.3	32.6	16.1
	중소득	(889)	49.5	26.9	23.6
	고소득	(372)	44.1	33.6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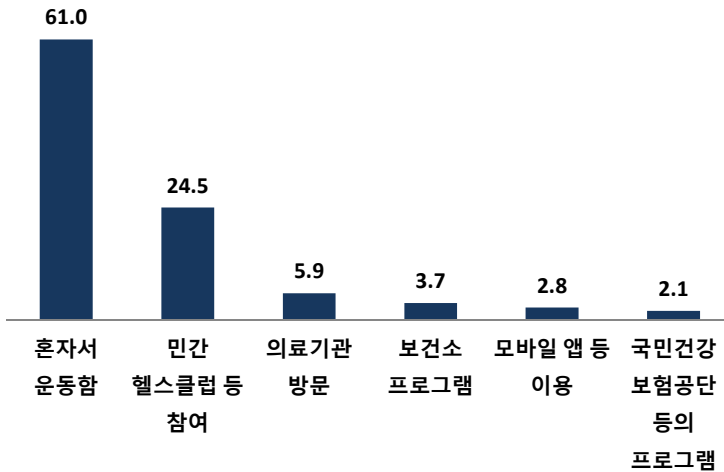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최근 6개월 동안 규칙적 운동 실천 방법

-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운동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서 운동함’이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간 헬스클럽 등 참여’(24.5%), ‘의료기관 방문’(5.9%), ‘보건소 프로그램’(3.7%), ‘모바일 앱 등 이용’(2.8%),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프로그램’(2.1%)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IV-50〉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실천 방법

(N=829, 단위: %)



- 규칙적 운동을 혼자서 실천했다는 응답은 중·소도시(6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1〉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실천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서 운동함	민간 헬스클럽 등 참여	의료기관 방문	보건소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이용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의 프로그램
전체		(829)	61.0	24.5	5.9	3.7	2.8	2.1
성별	남성	(388)	58.5	25.0	6.4	3.6	3.6	2.8
	여성	(441)	63.3	24.0	5.4	3.9	2.0	1.4
연령	40대	(249)	58.2	26.1	4.8	3.2	5.2	2.4
	50대	(249)	63.1	22.9	5.6	3.6	2.8	2.0
	60대 이상	(331)	61.6	24.5	6.9	4.2	0.9	1.8
지역규모	대도시	(392)	54.1	27.8	9.4	4.1	2.3	2.3
	중·소도시	(391)	67.0	21.5	2.6	3.6	3.3	2.0
	군지역	(46)	69.6	21.7	4.3	2.2	2.2	0.0
직업	화이트칼라	(171)	59.6	22.2	5.3	4.1	7.0	1.8
	블루칼라	(184)	61.4	24.5	6.0	3.8	2.2	2.2
	농·임·어업	(5)	60.0	0.0	20.0	20.0	0.0	0.0
	자영업	(203)	59.6	26.1	3.9	4.4	2.0	3.9
	주부	(226)	63.3	26.1	6.2	3.1	1.3	0.0
	은퇴자	(20)	50.0	35.0	15.0	0.0	0.0	0.0
	무직/기타	(20)	70.0	5.0	15.0	0.0	0.0	1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2)	66.3	13.0	13.0	5.4	0.0	2.2
	고졸	(441)	61.7	24.7	5.9	3.6	2.3	1.8
	대재 이상	(291)	58.1	27.8	3.8	3.4	4.5	2.4
	모름/무응답	(5)	80.0	2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72)	64.0	19.8	8.7	4.1	0.6	2.9
	중소득	(449)	61.5	24.9	4.9	4.7	2.2	1.8
	고소득	(208)	57.7	27.4	5.8	1.4	5.8	1.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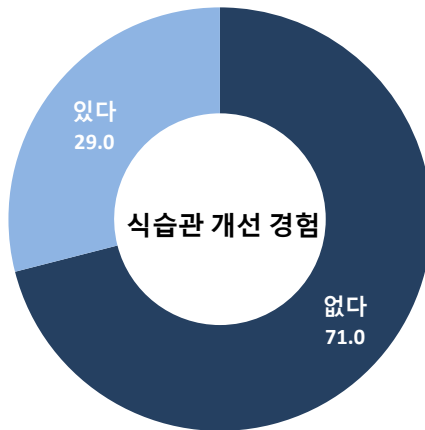
나.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식생활 습관

1) 최근 6개월 동안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유무

- 최근 6개월간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없다’는 응답이 71.0%로 ‘있다’(29.0%)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 IV-51〉 최근 6개월간 식생활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N=1,614, 단위: %)



-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38.0%), 50대(33.5%), 중·소도시(32.5%), 주부(39.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2〉 최근 6개월간 식생활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1,614)	71.0	29.0
성별	남성	(782)	80.6	19.4
	여성	(832)	62.0	38.0
연령	40대	(502)	74.1	25.9
	50대	(493)	66.5	33.5
	60대 이상	(619)	72.1	27.9
지역규모	대도시	(714)	73.8	26.2
	중·소도시	(767)	67.5	32.5
	군지역	(133)	75.9	24.1
직업	화이트칼라	(322)	68.0	32.0
	블루칼라	(415)	76.1	23.9
	농/임/어업	(38)	92.1	7.9
	자영업	(412)	77.2	22.8
	주부	(370)	60.3	39.7
	은퇴자	(26)	46.2	53.8
	무직/기타	(31)	74.2	25.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74.3	25.7
	고졸	(873)	72.1	27.9
	대재 이상	(527)	68.1	31.9
	모름/무응답	(12)	66.7	33.3
가구 소득	저소득	(353)	74.5	25.5
	중소득	(889)	70.9	29.1
	고소득	(372)	68.0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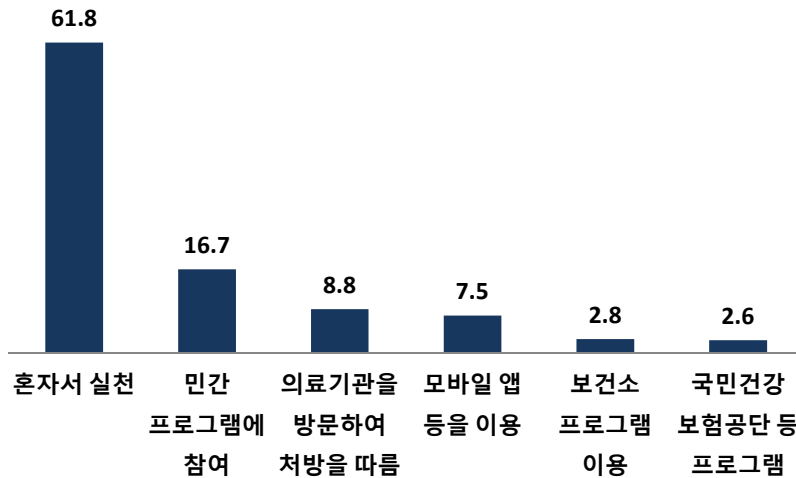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 실천 방법

-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서 실천'이 61.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민간 프로그램에 참여'(16.7%),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따름'(8.8%), '모바일 앱 등을 이용'(7.5%),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2.8%),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프로그램 이용'(2.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2〉 최근 6개월간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 실천 방법

(N=468, 단위: %)



-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혼자서 실천했다는 응답은 군지역(6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3〉 최근 6개월간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 실천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서 실천	민간 프로그램에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따름	모바일 앱 등을 이용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프로그램
전체		(468)	61.8	16.7	8.8	7.5	2.8	2.6
성별	남성	(152)	60.5	15.1	8.6	9.2	2.6	3.9
	여성	(316)	62.3	17.4	8.9	6.6	2.8	1.9
연령	40대	(130)	55.4	23.8	3.8	13.8	1.5	1.5
	50대	(165)	63.0	17.0	8.5	5.5	3.6	2.4
	60대 이상	(173)	65.3	11.0	12.7	4.6	2.9	3.5
지역규모	대도시	(187)	56.7	17.1	11.8	8.6	3.2	2.7
	중·소도시	(249)	64.7	15.3	7.6	7.2	2.8	2.4
	군지역	(32)	68.8	25.0	0.0	3.1	0.0	3.1
직업	화이트칼라	(103)	55.3	24.3	3.9	11.7	1.0	3.9
	블루칼라	(99)	62.6	16.2	10.1	7.1	3.0	1.0
	농/임/어업	(3)	66.7	0.0	33.3	0.0	0.0	0.0
	자영업	(94)	60.6	14.9	8.5	7.4	3.2	5.3
	주부	(147)	64.6	15.0	9.5	5.4	4.1	1.4
	은퇴자	(14)	78.6	7.1	7.1	7.1	0.0	0.0
	무직/기타	(8)	62.5	0.0	37.5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2)	65.4	9.6	23.1	0.0	0.0	1.9
	고졸	(244)	65.2	13.9	9.4	5.7	2.9	2.9
	대재 이상	(168)	56.0	23.2	3.6	11.3	3.6	2.4
	모름/무응답	(4)	50.0	0.0	0.0	5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90)	62.2	12.2	16.7	1.1	2.2	5.6
	중소득	(259)	69.5	12.4	5.4	7.3	3.1	2.3
	고소득	(119)	44.5	29.4	10.1	12.6	2.5	0.8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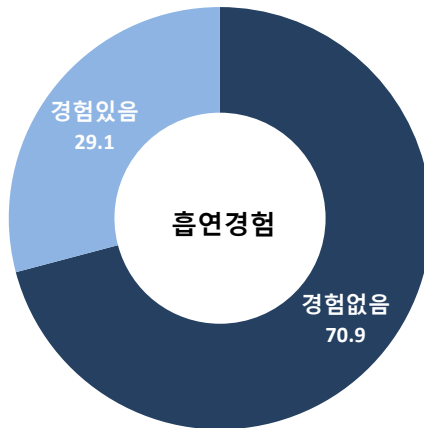
다.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흡연

1) 최근 6개월 동안 1개비 이상 흡연 경험

- 최근 6개월간 1개비 이상 흡연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0.9%로 '경험이 있다'(29.1%)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3〉 최근 6개월간 흡연 경험

(N=1,614, 단위: %)



- 흡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54.1%), 화이트칼라(42.2%), 블루칼라(34.7%) 및 자영업(36.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4〉 최근 6개월간 흡연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1,614)	70.9	29.1
성별	남성	(782)	45.9	54.1
	여성	(832)	94.4	5.6
연령	40대	(502)	67.9	32.1
	50대	(493)	70.2	29.8
	60대 이상	(619)	73.8	26.2
지역규모	대도시	(714)	72.8	27.2
	중·소도시	(767)	69.8	30.2
	군지역	(133)	66.9	33.1
직업	화이트칼라	(322)	57.8	42.2
	블루칼라	(415)	65.3	34.7
	농/임/어업	(38)	71.1	28.9
	자영업	(412)	63.6	36.4
	주부	(370)	95.9	4.1
	은퇴자	(26)	69.2	30.8
	무직/기타	(31)	80.6	19.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84.2	15.8
	고졸	(873)	71.8	28.2
	대재 이상	(527)	64.3	35.7
	모름/무응답	(12)	66.7	33.3
가구 소득	저소득	(353)	75.4	24.6
	중소득	(889)	69.5	30.5
	고소득	(372)	69.9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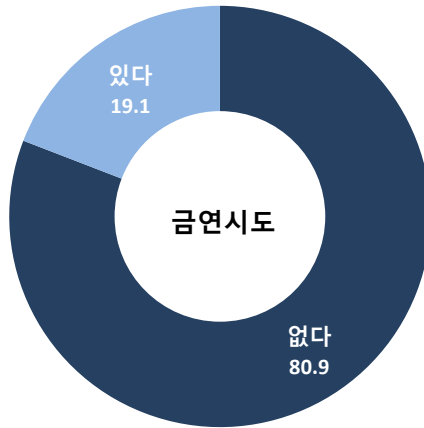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최근 6개월 동안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 경험

- 최근 6개월간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시도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0.9%로 '시도한 경험이 있다'(19.1)는 응답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4〉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경험

(N=470, 단위: %)



-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화이트칼라(2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5〉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470)	80.9	19.1
성별	남성	(423)	80.6	19.4
	여성	(47)	83.0	17.0
연령	40대	(161)	77.0	23.0
	50대	(147)	78.9	21.1
	60대 이상	(162)	86.4	13.6
지역규모	대도시	(194)	77.8	22.2
	중·소도시	(232)	81.9	18.1
	군지역	(44)	88.6	11.4
직업	화이트칼라	(136)	73.5	26.5
	블루칼라	(144)	88.2	11.8
	농/임/어업	(11)	100.0	0.0
	자영업	(150)	82.0	18.0
	주부	(15)	80.0	20.0
	은퇴자	(8)	62.5	37.5
	무직/기타	(6)	33.3	6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2)	87.5	12.5
	고졸	(246)	83.3	16.7
	대재 이상	(188)	77.7	22.3
	모름/무응답	(4)	25.0	75.0
가구 소득	저소득	(87)	88.5	11.5
	중소득	(271)	83.0	17.0
	고소득	(112)	69.6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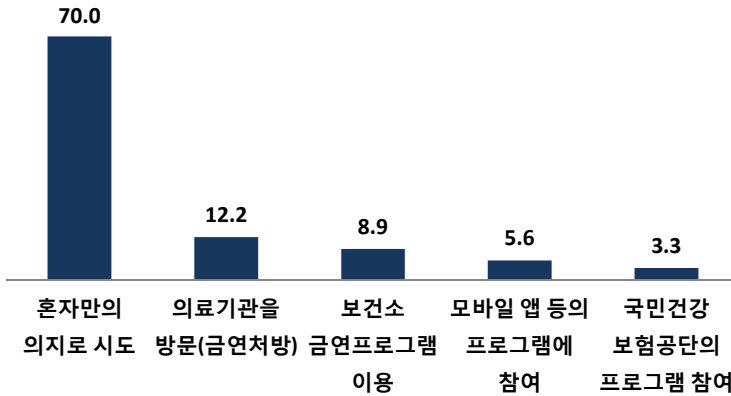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최근 6개월 동안 금연 시도 방법

-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금연 시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혼자만의 의지로 시도'라는 응답이 7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기관을 방문(금연처방)'(12.2%), '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이용'(8.9%), '모바일 앱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5.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프로그램 참여'(3.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5〉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방법

(N=90, 단위: %)



〈표 IV-66〉 최근 6개월간 금연 시도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만의 의지로 시도	의료기관을 방문(금연 처방)	보건소 금연프로그 램 이용	모바일 앱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프로그램 참여
전체		(90)	70.0	12.2	8.9	5.6	3.3
성별	남성	(82)	72.0	11.0	9.8	6.1	1.2
	여성	(8)	50.0	25.0	0.0	0.0	25.0
연령	40대	(37)	54.1	18.9	13.5	8.1	5.4
	50대	(31)	77.4	12.9	3.2	6.5	0.0
	60대 이상	(22)	86.4	0.0	9.1	0.0	4.5
지역규모	대도시	(43)	60.5	16.3	11.6	9.3	2.3
	중·소도시	(42)	76.2	9.5	7.1	2.4	4.8
	군지역	(5)	100.0	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6)	69.4	16.7	2.8	11.1	0.0
	블루칼라	(17)	70.6	11.8	11.8	0.0	5.9
	자영업	(27)	77.8	3.7	14.8	3.7	0.0
	주부	(3)	0.0	66.7	0.0	0.0	33.3
	은퇴자	(3)	33.3	0.0	33.3	0.0	33.3
	무직/기타	(4)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75.0	0.0	0.0	0.0	25.0
	고졸	(41)	73.2	7.3	12.2	7.3	0.0
	대재 이상	(42)	64.3	19.0	7.1	4.8	4.8
	모름/무응답	(3)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0)	70.0	0.0	20.0	0.0	10.0
	중소득	(46)	69.6	10.9	10.9	6.5	2.2
	고소득	(34)	70.6	17.6	2.9	5.9	2.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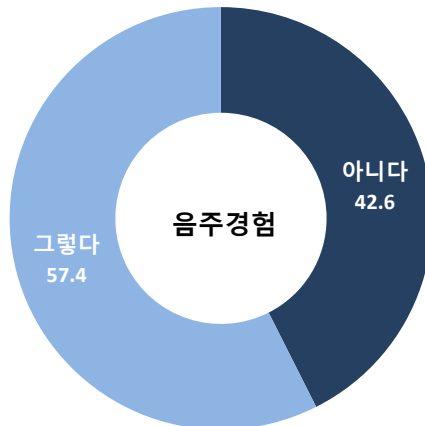
라.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음주

1) 최근 6개월 동안 평균 일주일에 1번 이상 1잔 이상의 음주 경험

- 최근 6개월간 평균 일주일에 1번 이상 1잔 이상의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57.4%로 '아니다'(42.6%)에 비해 14.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6〉 최근 6개월간 음주 경험

(N=1,614, 단위: %)



- 음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81.3%), 40대(65.3%), 화이트칼라(74.5%), 블루칼라(63.4%), 자영업(6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7〉 최근 6개월간 음주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614)	42.6	57.4
성별	남성	(782)	18.7	81.3
	여성	(832)	65.0	35.0
연령	40대	(502)	34.7	65.3
	50대	(493)	42.8	57.2
	60대 이상	(619)	48.8	51.2
지역규모	대도시	(714)	42.3	57.7
	중·소도시	(767)	43.3	56.7
	군지역	(133)	39.8	60.2
직업	화이트칼라	(322)	25.5	74.5
	블루칼라	(415)	36.6	63.4
	농/임/어업	(38)	47.4	52.6
	자영업	(412)	35.9	64.1
	주부	(370)	71.6	28.4
	은퇴자	(26)	34.6	65.4
	무직/기타	(31)	41.9	5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59.9	40.1
	고졸	(873)	43.6	56.4
	대재 이상	(527)	34.0	66.0
	모름/무응답	(12)	50.0	50.0
가구 소득	저소득	(353)	53.0	47.0
	중소득	(889)	40.3	59.7
	고소득	(372)	38.2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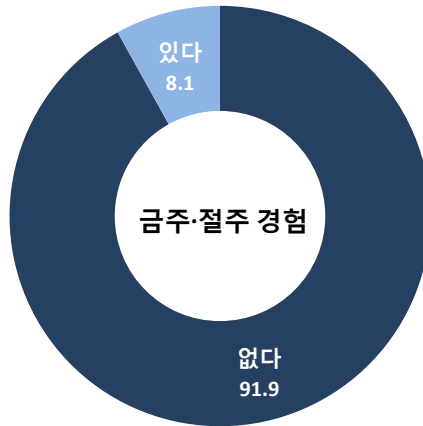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최근 6개월 동안 1달 이상 금주 혹은 절주 경험

- 최근 6개월 동안 1달 이상 금주 혹은 절주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1.9%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금주 혹은 절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7〉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경험

(N=927, 단위: %)



- 금주 혹은 절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9.6%), 60대 이상(10.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8〉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927)	91.9	8.1
성별	남성	(636)	90.4	9.6
	여성	(291)	95.2	4.8
연령	40대	(328)	91.5	8.5
	50대	(282)	94.7	5.3
	60대 이상	(317)	89.9	10.1
지역규모	대도시	(412)	91.5	8.5
	중·소도시	(435)	91.5	8.5
	군지역	(80)	96.3	3.8
직업	화이트칼라	(240)	91.7	8.3
	블루칼라	(263)	90.9	9.1
	농/임/어업	(20)	90.0	10.0
	자영업	(264)	93.2	6.8
	주부	(105)	96.2	3.8
	은퇴자	(17)	64.7	35.3
	무직/기타	(18)	94.4	5.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1)	92.6	7.4
	고졸	(492)	92.3	7.7
	대재 이상	(348)	91.1	8.9
	모름/무응답	(6)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66)	92.8	7.2
	중소득	(531)	90.4	9.6
	고소득	(230)	94.8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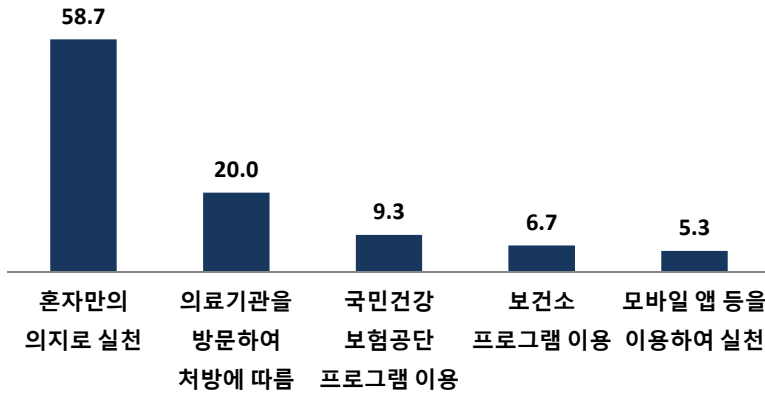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최근 6개월 동안 금주 혹은 절주 실천 방법

- 금주 혹은 절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만의 의지로 실천'했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에 따름'(20.0%),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이용'(9.3%),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6.7%),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실천'(5.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8〉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실천 방법

(N=75, 단위: %)



〈표 IV-69〉 최근 6개월간 금주 혹은 절주 실천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만의 의지로 실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에 따름	국민건강 보험공단 프로그램 이용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실천
전체		(75)	58.7	20.0	9.3	6.7	5.3
성별	남성	(61)	59.0	21.3	6.6	8.2	4.9
	여성	(14)	57.1	14.3	21.4	0.0	7.1
연령	40대	(28)	60.7	7.1	14.3	3.6	14.3
	50대	(15)	53.3	33.3	6.7	6.7	0.0
	60대 이상	(32)	59.4	25.0	6.3	9.4	0.0
지역규모	대도시	(35)	54.3	20.0	2.9	14.3	8.6
	중·소도시	(37)	62.2	21.6	13.5	0.0	2.7
	군지역	(3)	66.7	0.0	33.3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0)	55.0	20.0	10.0	0.0	15.0
	블루칼라	(24)	66.7	20.8	4.2	4.2	4.2
	농/임/어업	(2)	50.0	0.0	50.0	0.0	0.0
	자영업	(18)	55.6	22.2	16.7	5.6	0.0
	주부	(4)	50.0	50.0	0.0	0.0	0.0
	은퇴자	(6)	50.0	0.0	0.0	5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83.3	0.0	16.7	0.0	0.0
	고졸	(38)	57.9	23.7	7.9	10.5	0.0
	대재 이상	(31)	54.8	19.4	9.7	3.2	12.9
가구 소득	저소득	(12)	50.0	25.0	8.3	16.7	0.0
	중소득	(51)	68.6	17.6	7.8	3.9	2.0
	고소득	(12)	25.0	25.0	16.7	8.3	25.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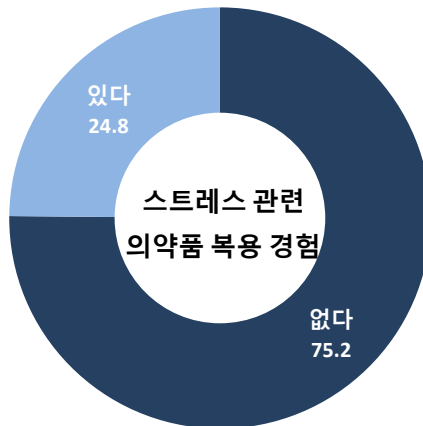
마. 현재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스트레스

1) 최근 6개월 동안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 최근 6개월간 일상생활 속에서 소화불량, 두통, 수면장애와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징후 때문에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복용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5.2%로 '경험이 있다'(24.8%)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9〉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련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N=1,614, 단위: %)



- 스트레스 관련 의약품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26.9%), 60대 이상(2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0〉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련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1,614)	75.2	24.8
성별	남성	(782)	77.4	22.6
	여성	(832)	73.1	26.9
연령	40대	(502)	77.1	22.9
	50대	(493)	77.1	22.9
	60대 이상	(619)	72.1	27.9
지역규모	대도시	(714)	73.0	27.0
	중·소도시	(767)	75.9	24.1
	군지역	(133)	82.7	17.3
직업	화이트칼라	(322)	73.3	26.7
	블루칼라	(415)	75.4	24.6
	농/임/어업	(38)	86.8	13.2
	자영업	(412)	76.5	23.5
	주부	(370)	73.2	26.8
	은퇴자	(26)	84.6	15.4
	무직/기타	(31)	74.2	25.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72.3	27.7
	고졸	(873)	75.1	24.9
	대재 이상	(527)	76.1	23.9
	모름/무응답	(12)	83.3	16.7
가구 소득	저소득	(353)	74.5	25.5
	중소득	(889)	74.1	25.9
	고소득	(372)	78.2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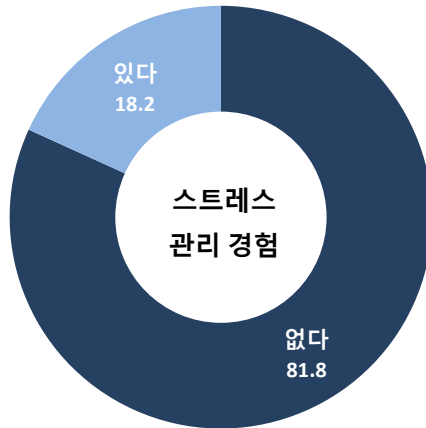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최근 6개월 동안 스트레스 관리 경험

- 스트레스 관련 의약품 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1.8%로 '경험이 있다'(18.2%)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60〉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경험

(N=401, 단위: %)



- 스트레스 관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20.2%), 대도시(2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1〉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있다
전체		(401)	81.8	18.2
성별	남성	(177)	83.1	16.9
	여성	(224)	80.8	19.2
연령	40대	(115)	80.9	19.1
	50대	(113)	85.8	14.2
	60대 이상	(173)	79.8	20.2
지역규모	대도시	(193)	79.3	20.7
	중·소도시	(185)	83.8	16.2
	군지역	(23)	87.0	13.0
직업	화이트칼라	(86)	81.4	18.6
	블루칼라	(102)	79.4	20.6
	농/임/어업	(5)	80.0	20.0
	자영업	(97)	84.5	15.5
	주부	(99)	84.8	15.2
	은퇴자	(4)	25.0	75.0
	무직/기타	(8)	75.0	2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6)	87.5	12.5
	고졸	(217)	79.7	20.3
	대재 이상	(126)	82.5	17.5
	모름/무응답	(2)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90)	81.1	18.9
	중소득	(230)	80.9	19.1
	고소득	(81)	85.2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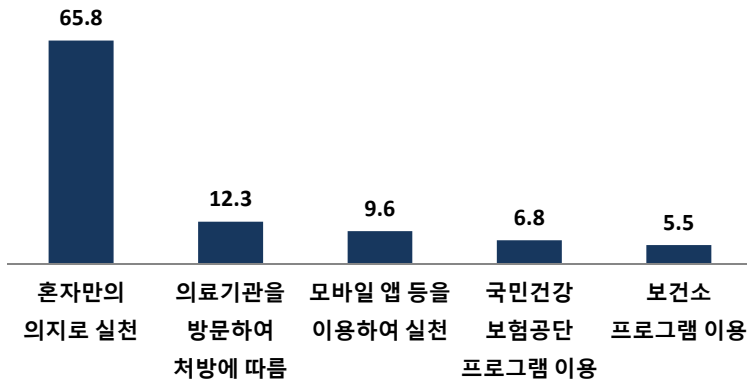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최근 6개월 동안 스트레스 관리 방법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이용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만의 의지로 실천'했다는 응답이 65.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에 따름'(12.3%),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실천'(9.6%),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이용'(6.8%),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5.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1〉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방법

(N=73, 단위: %)



〈표 IV-72〉 최근 6개월간 스트레스 관리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혼자만의 의지로 실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에 따름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실천	국민건강 보험공단 프로그램 이용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
전체		(73)	65.8	12.3	9.6	6.8	5.5
성별	남성	(30)	53.3	16.7	13.3	10.0	6.7
	여성	(43)	74.4	9.3	7.0	4.7	4.7
연령	40대	(22)	59.1	13.6	18.2	4.5	4.5
	50대	(16)	75.0	18.8	0.0	6.3	0.0
	60대 이상	(35)	65.7	8.6	8.6	8.6	8.6
지역규모	대도시	(40)	72.5	2.5	7.5	7.5	10.0
	중·소도시	(30)	56.7	26.7	13.3	3.3	0.0
	군지역	(3)	66.7	0.0	0.0	33.3	0.0
직업	화이트칼라	(16)	43.8	25.0	18.8	6.3	6.3
	블루칼라	(21)	71.4	4.8	9.5	9.5	4.8
	농/임/어업	(1)	0.0	0.0	0.0	0.0	100.0
	자영업	(15)	73.3	13.3	6.7	0.0	6.7
	주부	(15)	73.3	13.3	6.7	6.7	0.0
	은퇴자	(3)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2)	50.0	0.0	0.0	5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	71.4	0.0	0.0	0.0	28.6
	고졸	(44)	72.7	11.4	6.8	9.1	0.0
	대재 이상	(22)	50.0	18.2	18.2	4.5	9.1
가구 소득	저소득	(17)	70.6	0.0	11.8	11.8	5.9
	중소득	(44)	63.6	18.2	6.8	4.5	6.8
	고소득	(12)	66.7	8.3	16.7	8.3	0.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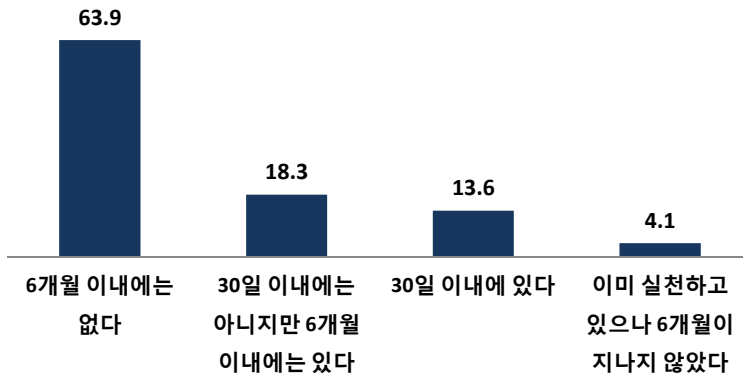
바.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1) 규칙적 운동하기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3.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8.3%), ‘30일 이내에 있다’(13.6%),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4.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2〉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N=785,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68.0%), 농/임/어업(81.8%), 고졸(67.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3〉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785)	63.9	18.3	13.6	4.1
성별	남성	(394)	68.0	17.0	12.2	2.8
	여성	(391)	59.8	19.7	15.1	5.4
연령	40대	(253)	62.1	17.8	14.2	5.9
	50대	(244)	63.5	18.0	13.9	4.5
	60대 이상	(288)	66.0	19.1	12.8	2.1
지역규모	대도시	(322)	66.5	20.8	10.6	2.2
	중·소도시	(376)	59.8	16.0	18.1	6.1
	군지역	(87)	72.4	19.5	5.7	2.3
직업	화이트칼라	(151)	52.3	17.9	25.2	4.6
	블루칼라	(231)	68.4	17.3	11.7	2.6
	농/임/어업	(33)	81.8	15.2	3.0	0.0
	자영업	(209)	66.0	18.2	11.5	4.3
	주부	(144)	61.8	20.8	10.4	6.9
	은퇴자	(6)	50.0	16.7	33.3	0.0
	무직/기타	(11)	72.7	27.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0)	63.6	22.7	11.8	1.8
	고졸	(432)	67.4	17.4	11.3	3.9
	대재 이상	(236)	58.5	18.6	17.4	5.5
	모름/무응답	(7)	42.9	0.0	57.1	0.0
가구 소득	저소득	(181)	71.3	17.1	9.9	1.7
	중소득	(440)	62.5	20.2	12.7	4.5
	고소득	(164)	59.8	14.6	20.1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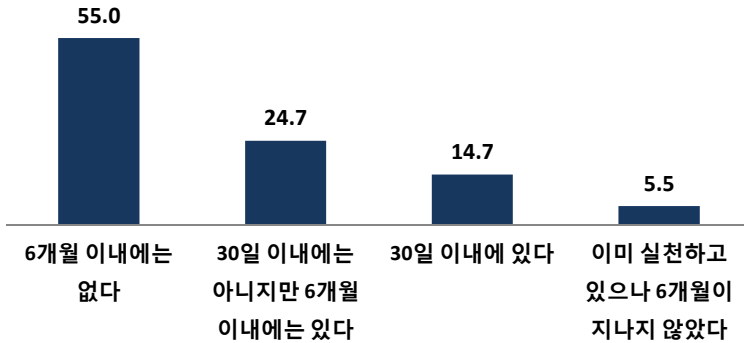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식생활 개선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5.0%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4.7%), '30일 이내에 있다'(14.7%),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5.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3〉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N=1,614,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63.4%), 농/임/어업(76.3%), 자영업(62.9%), 고졸(5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4〉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1,614)	55.0	24.7	14.7	5.5
성별	남성	(782)	63.4	21.7	10.6	4.2
	여성	(832)	47.1	27.5	18.6	6.7
연령	40대	(502)	53.6	26.9	13.9	5.6
	50대	(493)	56.6	22.1	14.4	6.9
	60대 이상	(619)	54.9	25.0	15.7	4.4
지역규모	대도시	(714)	56.0	26.5	12.5	5.0
	중·소도시	(767)	53.7	22.7	17.3	6.3
	군지역	(133)	57.1	27.1	12.0	3.8
직업	화이트칼라	(322)	48.8	24.5	17.4	9.3
	블루칼라	(415)	57.8	25.8	12.3	4.1
	농/임/어업	(38)	76.3	13.2	10.5	0.0
	자영업	(412)	62.9	20.4	11.7	5.1
	주부	(370)	48.6	28.9	17.6	4.9
	은퇴자	(26)	38.5	23.1	30.8	7.7
	무직/기타	(31)	41.9	35.5	19.4	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50.0	26.7	21.8	1.5
	고졸	(873)	57.5	23.3	13.9	5.4
	대재 이상	(527)	52.8	26.9	13.1	7.2
	모름/무응답	(12)	58.3	0.0	33.3	8.3
가구 소득	저소득	(353)	58.6	22.4	15.9	3.1
	중소득	(889)	54.0	26.4	14.2	5.4
	고소득	(372)	54.0	22.8	15.1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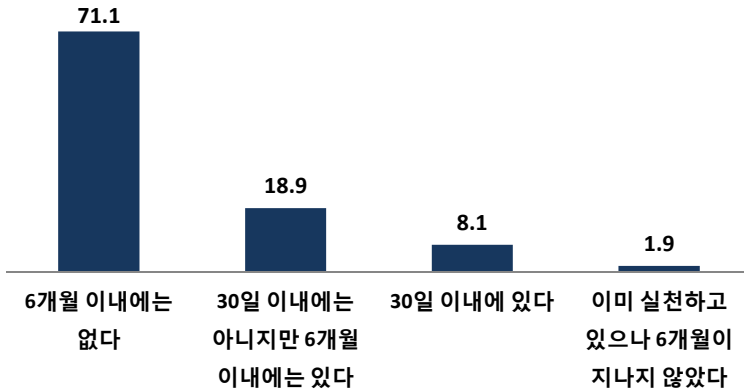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금연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1.1%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8.9%), '30일 이내에 있다'(8.1%),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1.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4〉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470,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73.3%) 50대(7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5〉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470)	71.1	18.9	8.1	1.9
성별	남성	(423)	73.3	18.0	7.8	0.9
	여성	(47)	51.1	27.7	10.6	10.6
연령	40대	(161)	70.2	21.1	8.7	0.0
	50대	(147)	77.6	12.9	6.8	2.7
	60대 이상	(162)	66.0	22.2	8.6	3.1
지역규모	대도시	(194)	72.7	22.7	4.1	0.5
	중·소도시	(232)	69.4	16.8	12.1	1.7
	군지역	(44)	72.7	13.6	4.5	9.1
직업	화이트칼라	(136)	66.2	19.1	12.5	2.2
	블루칼라	(144)	74.3	17.4	7.6	0.7
	농/임/어업	(11)	90.9	0.0	0.0	9.1
	자영업	(150)	73.3	20.0	4.7	2.0
	주부	(15)	66.7	13.3	13.3	6.7
	은퇴자	(8)	50.0	50.0	0.0	0.0
	무직/기타	(6)	50.0	33.3	16.7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2)	62.5	21.9	12.5	3.1
	고졸	(246)	74.0	17.1	6.5	2.4
	대재 이상	(188)	69.7	20.7	8.5	1.1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87)	72.4	19.5	5.7	2.3
	중소득	(271)	72.3	18.5	7.4	1.8
	고소득	(112)	67.0	19.6	11.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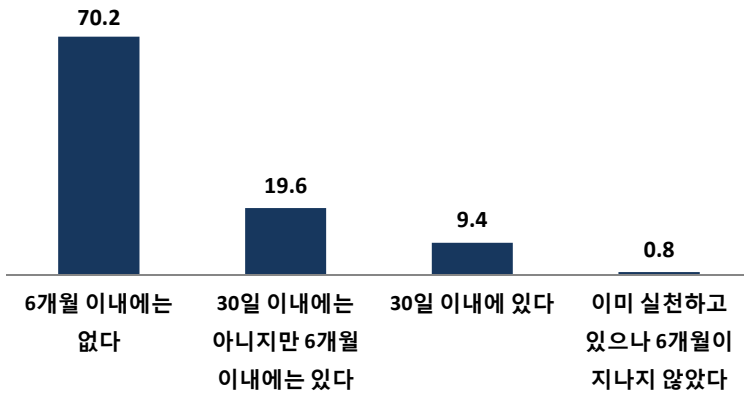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금주 혹은 절주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0.2%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9.6%), '30일 이내에 있다'(9.4%),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0.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5〉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927,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7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6〉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927)	70.2	19.6	9.4	0.8
성별	남성	(636)	72.6	19.7	7.1	0.6
	여성	(291)	64.9	19.6	14.4	1.0
연령	40대	(328)	72.0	22.3	5.2	0.6
	50대	(282)	71.6	16.7	10.6	1.1
	60대 이상	(317)	67.2	19.6	12.6	0.6
지역규모	대도시	(412)	70.6	20.9	8.5	0.0
	중·소도시	(435)	69.9	18.2	10.3	1.6
	군지역	(80)	70.0	21.3	8.8	0.0
직업	화이트칼라	(240)	64.2	25.8	8.8	1.3
	블루칼라	(263)	69.2	19.4	11.0	0.4
	농/임/어업	(20)	95.0	5.0	0.0	0.0
	자영업	(264)	74.6	17.0	7.6	0.8
	주부	(105)	72.4	17.1	9.5	1.0
	은퇴자	(17)	52.9	11.8	35.3	0.0
	무직/기타	(18)	77.8	16.7	5.6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1)	70.4	19.8	9.9	0.0
	고졸	(492)	72.0	16.9	10.4	0.8
	대재 이상	(348)	68.1	23.9	7.2	0.9
	모름/무응답	(6)	50.0	0.0	5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66)	73.5	16.9	9.6	0.0
	중소득	(531)	68.2	21.3	10.0	0.6
	고소득	(230)	72.6	17.8	7.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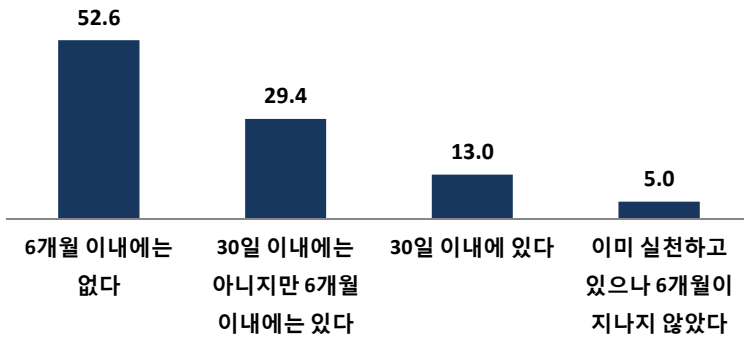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52.6%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4%), '30일 이내에 있다'(13.0%),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5.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6〉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N=401,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고졸(5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7〉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401)	52.6	29.4	13.0	5.0
성별	남성	(177)	52.5	31.6	11.3	4.5
	여성	(224)	52.7	27.7	14.3	5.4
연령	40대	(115)	51.3	29.6	15.7	3.5
	50대	(113)	56.6	31.9	8.0	3.5
	60대 이상	(173)	50.9	27.7	14.5	6.9
지역규모	대도시	(193)	56.5	31.1	9.8	2.6
	중·소도시	(185)	45.9	29.7	16.8	7.6
	군지역	(23)	73.9	13.0	8.7	4.3
직업	화이트칼라	(86)	34.9	43.0	16.3	5.8
	블루칼라	(102)	54.9	28.4	15.7	1.0
	농/임/어업	(5)	40.0	40.0	20.0	0.0
	자영업	(97)	57.7	30.9	5.2	6.2
	주부	(99)	60.6	20.2	12.1	7.1
	은퇴자	(4)	25.0	0.0	75.0	0.0
	무직/기타	(8)	75.0	0.0	12.5	1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6)	51.8	28.6	14.3	5.4
	고졸	(217)	57.6	27.2	11.5	3.7
	대재 이상	(126)	45.2	33.3	14.3	7.1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90)	58.9	24.4	10.0	6.7
	중소득	(230)	53.9	27.4	14.8	3.9
	고소득	(81)	42.0	40.7	11.1	6.2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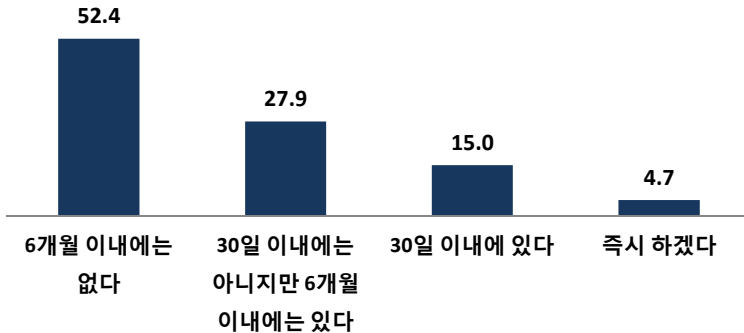
사.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1) 규칙적 운동하기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52.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7.9%), '30일 이내에 있다'(15.0%), '즉시 하겠다'(4.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7〉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N=785,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58.4%), 군지역(69.0%), 농/임/어업(8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8〉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785)	52.4	27.9	15.0	4.7
성별	남성	(394)	58.4	28.2	10.7	2.8
	여성	(391)	46.3	27.6	19.4	6.6
연령	40대	(253)	50.2	25.3	16.6	7.9
	50대	(244)	51.6	32.4	11.5	4.5
	60대 이상	(288)	54.9	26.4	16.7	2.1
지역규모	대도시	(322)	50.9	33.9	12.4	2.8
	중·소도시	(376)	49.7	24.2	19.1	6.9
	군지역	(87)	69.0	21.8	6.9	2.3
직업	화이트칼라	(151)	43.7	26.5	21.2	8.6
	블루칼라	(231)	52.8	29.9	14.7	2.6
	농/임/어업	(33)	84.8	6.1	6.1	3.0
	자영업	(209)	57.9	28.7	10.5	2.9
	주부	(144)	44.4	29.2	18.8	7.6
	은퇴자	(6)	33.3	50.0	16.7	0.0
	무직/기타	(11)	72.7	27.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0)	56.4	18.2	23.6	1.8
	고졸	(432)	53.7	31.5	11.8	3.0
	대재 이상	(236)	48.7	25.8	16.5	8.9
	모름/무응답	(7)	28.6	28.6	28.6	14.3
가구 소득	저소득	(181)	56.4	24.9	17.1	1.7
	중소득	(440)	53.9	27.7	14.1	4.3
	고소득	(164)	43.9	31.7	15.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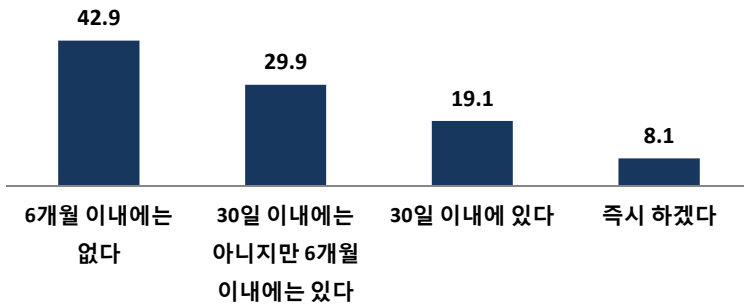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식생활 개선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2.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9%), '30일 이내에 있다'(19.1%), '즉시 하겠다'(8.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8〉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N=1,614,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46.3%), 군지역(54.9%), 농/임/어업(76.3%), 자영업(50.7%), 고졸(4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9〉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1,614)	42.9	29.9	19.1	8.1
성별	남성	(782)	46.3	29.9	16.1	7.7
	여성	(832)	39.7	29.8	22.0	8.5
연령	40대	(502)	37.3	32.9	20.3	9.6
	50대	(493)	45.4	29.4	15.6	9.5
	60대 이상	(619)	45.4	27.8	21.0	5.8
지역규모	대도시	(714)	40.2	31.7	20.3	7.8
	중·소도시	(767)	43.3	28.4	19.6	8.7
	군지역	(133)	54.9	28.6	10.5	6.0
직업	화이트칼라	(322)	33.5	33.9	20.5	12.1
	블루칼라	(415)	42.9	30.4	20.2	6.5
	농/임/어업	(38)	76.3	10.5	7.9	5.3
	자영업	(412)	50.7	27.7	13.1	8.5
	주부	(370)	40.8	29.5	23.2	6.5
	은퇴자	(26)	19.2	26.9	46.2	7.7
	무직/기타	(31)	38.7	41.9	12.9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43.1	24.8	27.7	4.5
	고졸	(873)	45.9	29.8	17.5	6.8
	대재 이상	(527)	37.8	31.7	18.6	12.0
	모름/무응답	(12)	41.7	41.7	16.7	0.0
가구 소득	저소득	(353)	48.2	26.6	21.2	4.0
	중소득	(889)	42.4	29.7	19.1	8.8
	고소득	(372)	39.0	33.3	17.2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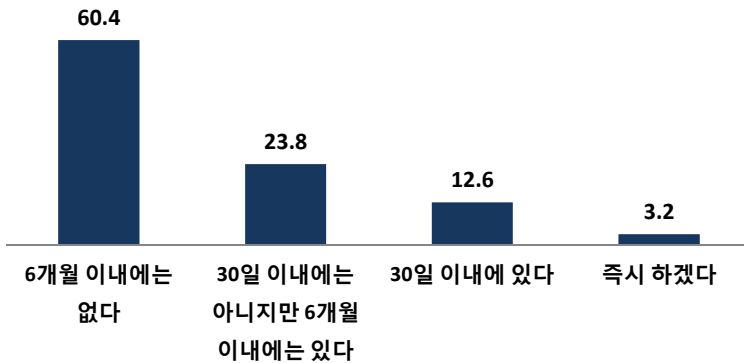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금연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60.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3.8%), '30일 이내에 있다'(12.6%), '즉시 하겠다'(3.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9〉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470, 단위: %)



〈표 IV-80〉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70)	60.4	23.8	12.6	3.2
성별	남성	(423)	61.2	22.9	13.0	2.8
	여성	(47)	53.2	31.9	8.5	6.4
연령	40대	(161)	57.1	25.5	16.1	1.2
	50대	(147)	66.7	19.0	9.5	4.8
	60대 이상	(162)	58.0	26.5	11.7	3.7
지역규모	대도시	(194)	56.7	26.3	14.4	2.6
	중·소도시	(232)	62.1	22.0	12.9	3.0
	군지역	(44)	68.2	22.7	2.3	6.8
직업	화이트칼라	(136)	55.1	23.5	17.6	3.7
	블루칼라	(144)	62.5	25.7	10.4	1.4
	농/임/어업	(11)	90.9	0.0	0.0	9.1
	자영업	(150)	63.3	22.0	10.0	4.7
	주부	(15)	66.7	26.7	6.7	0.0
	은퇴자	(8)	0.0	62.5	37.5	0.0
	무직/기타	(6)	66.7	16.7	16.7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2)	56.3	31.3	9.4	3.1
	고졸	(246)	63.4	21.5	11.4	3.7
	대재 이상	(188)	58.0	24.5	14.9	2.7
	모름/무응답	(4)	25.0	75.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87)	67.8	20.7	9.2	2.3
	중소득	(271)	59.8	24.4	12.2	3.7
	고소득	(112)	56.3	25.0	16.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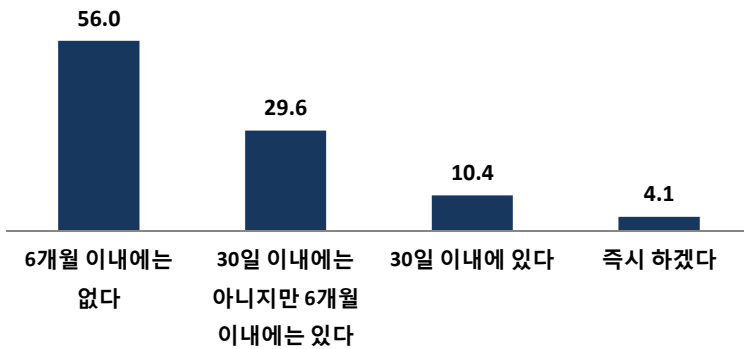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금주 혹은 절주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56.0%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6%), '30일 이내에 있다'(10.4%), '즉시 하겠다'(4.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0〉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927, 단위: %)



〈표 IV-81〉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927)	56.0	29.6	10.4	4.1
성별	남성	(636)	57.9	27.5	11.0	3.6
	여성	(291)	51.9	34.0	8.9	5.2
연령	40대	(328)	59.8	27.1	10.7	2.4
	50대	(282)	54.3	31.2	11.0	3.5
	60대 이상	(317)	53.6	30.6	9.5	6.3
지역규모	대도시	(412)	54.6	33.5	9.2	2.7
	중·소도시	(435)	56.8	25.7	12.2	5.3
	군지역	(80)	58.8	30.0	6.3	5.0
직업	화이트칼라	(240)	52.1	32.1	10.8	5.0
	블루칼라	(263)	56.3	29.7	9.9	4.2
	농/임/어업	(20)	85.0	0.0	5.0	10.0
	자영업	(264)	61.0	25.4	9.8	3.8
	주부	(105)	52.4	35.2	10.5	1.9
	은퇴자	(17)	23.5	52.9	23.5	0.0
	무직/기타	(18)	50.0	33.3	11.1	5.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1)	50.6	35.8	6.2	7.4
	고졸	(492)	58.1	28.7	9.3	3.9
	대재 이상	(348)	54.0	29.9	12.4	3.7
	모름/무응답	(6)	66.7	0.0	33.3	0.0
가구 소득	저소득	(166)	60.2	27.7	7.8	4.2
	중소득	(531)	53.9	31.1	11.3	3.8
	고소득	(230)	57.8	27.4	10.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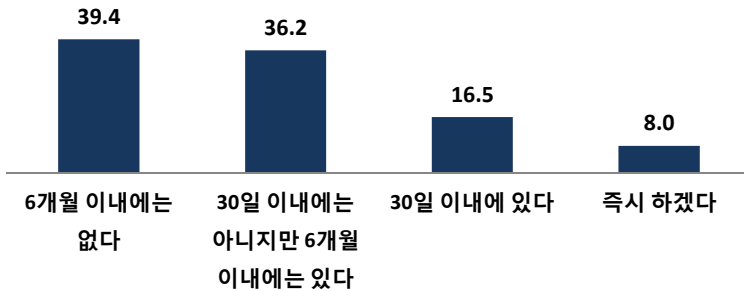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9.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6.2%), '30일 이내에 있다'(16.5%), '즉시 하겠다'(8.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1〉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N=401,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블루칼라(52.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2〉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01)	39.4	36.2	16.5	8.0
성별	남성	(177)	42.9	37.3	13.6	6.2
	여성	(224)	36.6	35.3	18.8	9.4
연령	40대	(115)	41.7	27.8	21.7	8.7
	50대	(113)	32.7	44.2	18.6	4.4
	60대 이상	(173)	42.2	36.4	11.6	9.8
지역규모	대도시	(193)	42.0	38.3	16.1	3.6
	중·소도시	(185)	34.6	34.1	18.4	13.0
	군지역	(23)	56.5	34.8	4.3	4.3
직업	화이트칼라	(86)	32.6	30.2	26.7	10.5
	블루칼라	(102)	52.9	26.5	15.7	4.9
	농/임/어업	(5)	20.0	40.0	20.0	20.0
	자영업	(97)	38.1	44.3	10.3	7.2
	주부	(99)	33.3	42.4	16.2	8.1
	은퇴자	(4)	0.0	75.0	0.0	25.0
교육 수준	무직/기타	(8)	62.5	25.0	0.0	12.5
	중졸 이하	(56)	35.7	37.5	17.9	8.9
	고졸	(217)	41.0	38.2	12.9	7.8
	대재 이상	(126)	38.1	31.7	22.2	7.9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0.0
	저소득	(90)	45.6	30.0	16.7	7.8
	중소득	(230)	40.9	36.1	14.3	8.7
	고소득	(81)	28.4	43.2	22.2	6.2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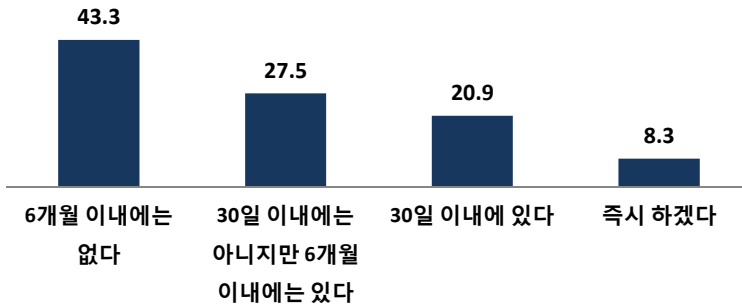
아.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1) 규칙적 운동하기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3.3%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7.5%), '30일 이내에 있다'(20.9%), '즉시 하겠다'(8.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2〉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N=785,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69.0%), 농/임/어업(8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3〉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785)	43.3	27.5	20.9	8.3
성별	남성	(394)	45.2	32.5	14.2	8.1
	여성	(391)	41.4	22.5	27.6	8.4
연령	40대	(253)	41.5	25.7	20.6	12.3
	50대	(244)	43.9	27.9	21.3	7.0
	60대 이상	(288)	44.4	28.8	20.8	5.9
지역규모	대도시	(322)	43.5	29.8	20.5	6.2
	중·소도시	(376)	37.2	26.9	25.0	10.9
	군지역	(87)	69.0	21.8	4.6	4.6
직업	화이트칼라	(151)	34.4	26.5	26.5	12.6
	블루칼라	(231)	42.0	33.3	19.0	5.6
	농/임/어업	(33)	81.8	3.0	9.1	6.1
	자영업	(209)	47.4	28.2	15.3	9.1
	주부	(144)	39.6	22.2	30.6	7.6
	은퇴자	(6)	16.7	50.0	16.7	16.7
	무직/기타	(11)	63.6	36.4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0)	46.4	21.8	28.2	3.6
	고졸	(432)	45.1	28.2	19.9	6.7
	대재 이상	(236)	39.0	28.0	19.5	13.6
	모름/무응답	(7)	28.6	57.1	14.3	0.0
가구 소득	저소득	(181)	49.7	28.7	19.9	1.7
	중소득	(440)	43.0	27.7	20.5	8.9
	고소득	(164)	37.2	25.6	23.2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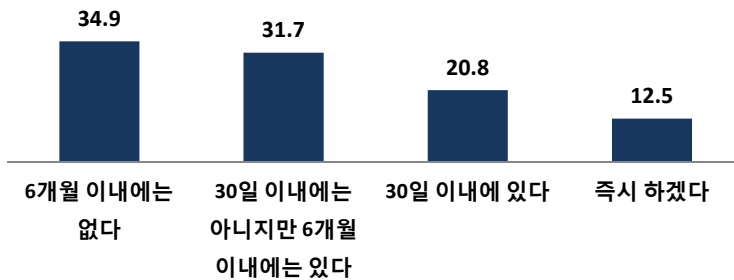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식생활 개선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4.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7%), '30일 이내에 있다'(20.8%), '즉시 하겠다'(12.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3〉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N=1,614,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37.9%), 60대 이상(38.0%), 군지역(51.1%), 농/임/어업(76.3%) 및 자영업(4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4〉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1,614)	34.9	31.7	20.8	12.5
성별	남성	(782)	37.9	35.2	18.0	9.0
	여성	(832)	32.2	28.5	23.4	15.9
연령	40대	(502)	30.3	34.1	21.3	14.3
	50대	(493)	35.9	31.6	20.7	11.8
	60대 이상	(619)	38.0	29.9	20.5	11.6
지역규모	대도시	(714)	31.2	35.3	21.7	11.8
	중·소도시	(767)	35.6	29.7	21.3	13.4
	군지역	(133)	51.1	24.1	13.5	11.3
직업	화이트칼라	(322)	28.3	32.3	21.4	18.0
	블루칼라	(415)	30.8	38.6	20.2	10.4
	농/임/어업	(38)	76.3	5.3	7.9	10.5
	자영업	(412)	43.9	27.4	19.4	9.2
	주부	(370)	31.6	29.7	24.3	14.3
	은퇴자	(26)	19.2	46.2	19.2	15.4
	무직/기타	(31)	41.9	35.5	16.1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39.6	26.2	20.3	13.9
	고졸	(873)	36.3	32.4	20.6	10.7
	대재 이상	(527)	30.7	32.4	21.8	15.0
	모름/무응답	(12)	41.7	41.7	0.0	16.7
가구 소득	저소득	(353)	42.2	28.3	17.0	12.5
	중소득	(889)	32.5	33.7	23.3	10.5
	고소득	(372)	33.9	30.1	18.5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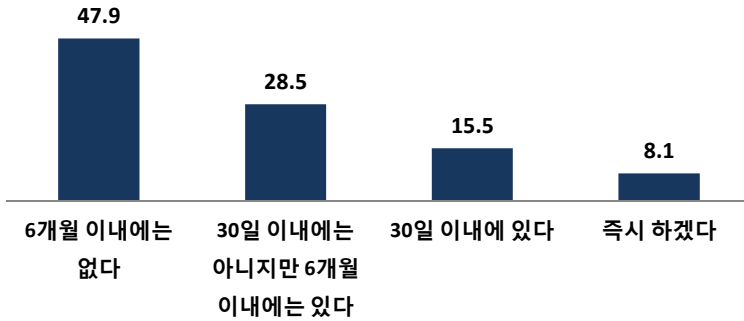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금연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7.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8.5%), '30일 이내에 있다'(15.5%), '즉시 하겠다'(8.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4〉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470, 단위: %)



〈표 IV-85〉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70)	47.9	28.5	15.5	8.1
성별	남성	(423)	48.2	28.1	15.4	8.3
	여성	(47)	44.7	31.9	17.0	6.4
연령	40대	(161)	49.1	28.0	11.2	11.8
	50대	(147)	46.9	27.9	20.4	4.8
	60대 이상	(162)	47.5	29.6	15.4	7.4
지역규모	대도시	(194)	41.2	33.0	19.6	6.2
	중·소도시	(232)	50.9	26.3	13.4	9.5
	군지역	(44)	61.4	20.5	9.1	9.1
직업	화이트칼라	(136)	46.3	24.3	17.6	11.8
	블루칼라	(144)	46.5	38.2	9.0	6.3
	농/임/어업	(11)	90.9	0.0	0.0	9.1
	자영업	(150)	47.3	27.3	18.0	7.3
	주부	(15)	66.7	26.7	6.7	0.0
	은퇴자	(8)	0.0	12.5	87.5	0.0
	무직/기타	(6)	66.7	0.0	16.7	1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2)	53.1	18.8	21.9	6.3
	고졸	(246)	47.6	32.1	13.8	6.5
	대재 이상	(188)	47.3	25.5	16.5	10.6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0.0
가구 소득	저소득	(87)	57.5	20.7	17.2	4.6
	중소득	(271)	50.2	29.5	12.2	8.1
	고소득	(112)	34.8	32.1	22.3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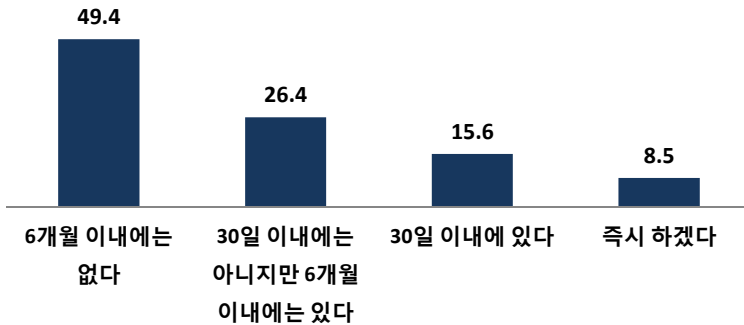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금주 혹은 절주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9.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6.4%), '30일 이내에 있다'(15.6%), '즉시 하겠다'(8.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5〉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927,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60.0%), 자영업(5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6〉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927)	49.4	26.4	15.6	8.5
성별	남성	(636)	50.8	27.5	14.3	7.4
	여성	(291)	46.4	24.1	18.6	11.0
연령	40대	(328)	50.3	27.4	13.1	9.1
	50대	(282)	47.2	29.1	17.4	6.4
	60대 이상	(317)	50.5	23.0	16.7	9.8
지역규모	대도시	(412)	46.6	29.4	15.0	9.0
	중·소도시	(435)	50.1	25.1	16.8	8.0
	군지역	(80)	60.0	18.8	12.5	8.8
직업	화이트칼라	(240)	41.7	32.5	15.4	10.4
	블루칼라	(263)	51.3	26.2	14.8	7.6
	농/임/어업	(20)	80.0	0.0	5.0	15.0
	자영업	(264)	54.5	24.6	13.6	7.2
	주부	(105)	50.5	21.0	19.0	9.5
	은퇴자	(17)	11.8	41.2	47.1	0.0
	무직/기타	(18)	44.4	22.2	22.2	11.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1)	54.3	13.6	17.3	14.8
	고졸	(492)	51.2	26.4	15.9	6.5
	대재 이상	(348)	45.7	29.0	15.2	10.1
	모름/무응답	(6)	50.0	5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66)	57.2	16.9	18.1	7.8
	중소득	(531)	48.8	27.9	14.3	9.0
	고소득	(230)	45.2	30.0	17.0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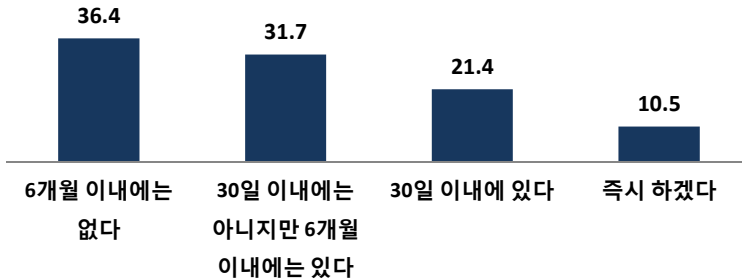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6.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7%), '30일 이내에 있다'(21.4%), '즉시 하겠다'(10.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6〉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N=401,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대도시(4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7〉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01)	36.4	31.7	21.4	10.5
성별	남성	(177)	34.5	39.5	18.6	7.3
	여성	(224)	37.9	25.4	23.7	12.9
연령	40대	(115)	37.4	30.4	16.5	15.7
	50대	(113)	38.1	29.2	24.8	8.0
	60대 이상	(173)	34.7	34.1	22.5	8.7
지역규모	대도시	(193)	42.0	31.1	21.8	5.2
	중·소도시	(185)	30.8	31.4	22.2	15.7
	군지역	(23)	34.8	39.1	13.0	13.0
직업	화이트칼라	(86)	30.2	27.9	20.9	20.9
	블루칼라	(102)	42.2	29.4	22.5	5.9
	농/임/어업	(5)	20.0	20.0	60.0	0.0
	자영업	(97)	30.9	43.3	19.6	6.2
	주부	(99)	42.4	27.3	20.2	10.1
	은퇴자	(4)	0.0	25.0	50.0	25.0
	무직/기타	(8)	50.0	25.0	12.5	1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6)	26.8	33.9	30.4	8.9
	고졸	(217)	39.6	30.9	20.3	9.2
	대재 이상	(126)	34.9	31.7	19.8	13.5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90)	37.8	31.1	20.0	11.1
	중소득	(230)	38.7	32.6	17.8	10.9
	고소득	(81)	28.4	29.6	33.3	8.6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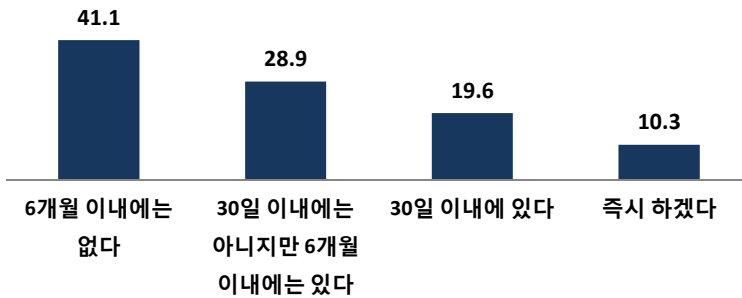
자.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1) 규칙적 운동하기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1.1%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8.9%), '30일 이내에 있다'(19.6%), '즉시 하겠다'(10.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7〉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N=785,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47.0%), 군지역(6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8〉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785)	41.1	28.9	19.6	10.3
성별	남성	(394)	47.0	29.7	15.7	7.6
	여성	(391)	35.3	28.1	23.5	13.0
연령	40대	(253)	36.8	30.0	20.6	12.6
	50대	(244)	43.4	27.0	18.4	11.1
	60대 이상	(288)	43.1	29.5	19.8	7.6
지역규모	대도시	(322)	40.1	34.8	18.6	6.5
	중·소도시	(376)	36.2	25.5	23.4	14.9
	군지역	(87)	66.7	21.8	6.9	4.6
직업	화이트칼라	(151)	31.8	29.8	26.5	11.9
	블루칼라	(231)	42.9	32.5	17.3	7.4
	농/임/어업	(33)	78.8	6.1	6.1	9.1
	자영업	(209)	47.4	24.9	17.7	10.0
	주부	(144)	30.6	30.6	23.6	15.3
	은퇴자	(6)	16.7	66.7	16.7	0.0
	무직/기타	(11)	54.5	45.5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0)	46.4	27.3	22.7	3.6
	고졸	(432)	41.9	29.4	18.1	10.6
	대재 이상	(236)	37.7	29.7	19.9	12.7
	모름/무응답	(7)	28.6	0.0	57.1	14.3
가구 소득	저소득	(181)	48.6	30.9	16.0	4.4
	중소득	(440)	40.0	29.8	20.7	9.5
	고소득	(164)	36.0	24.4	20.7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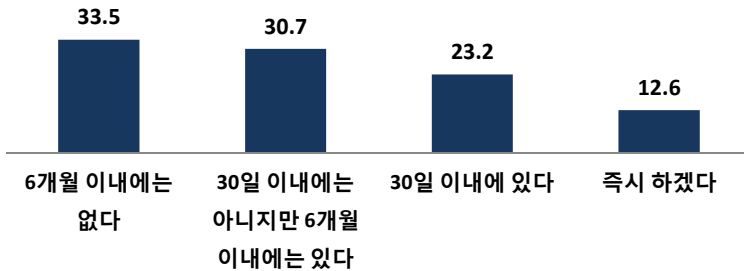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식생활 개선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3.5%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0.7%), '30일 이내에 있다'(23.2%), '즉시 하겠다'(12.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8〉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N=1,614,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48.1%), 농/임/어업(68.4%), 자영업(3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9〉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1,614)	33.5	30.7	23.2	12.6
성별	남성	(782)	35.0	34.0	21.9	9.1
	여성	(832)	32.0	27.6	24.4	16.0
연령	40대	(502)	29.9	35.1	22.9	12.2
	50대	(493)	36.1	28.0	22.7	13.2
	60대 이상	(619)	34.2	29.4	23.7	12.6
지역규모	대도시	(714)	32.8	31.2	25.9	10.1
	중·소도시	(767)	31.6	31.2	22.7	14.6
	군지역	(133)	48.1	25.6	11.3	15.0
직업	화이트칼라	(322)	27.0	31.1	26.7	15.2
	블루칼라	(415)	32.8	36.6	20.0	10.6
	농/임/어업	(38)	68.4	13.2	7.9	10.5
	자영업	(412)	38.6	30.1	22.1	9.2
	주부	(370)	31.6	26.8	25.1	16.5
	은퇴자	(26)	15.4	15.4	50.0	19.2
	무직/기타	(31)	35.5	38.7	16.1	9.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36.1	28.2	24.3	11.4
	고졸	(873)	34.2	29.8	23.0	12.9
	대재 이상	(527)	30.9	33.2	23.3	12.5
	모름/무응답	(12)	41.7	33.3	8.3	16.7
가구 소득	저소득	(353)	38.8	26.9	21.5	12.7
	중소득	(889)	32.2	33.1	22.4	12.4
	고소득	(372)	31.5	28.8	26.6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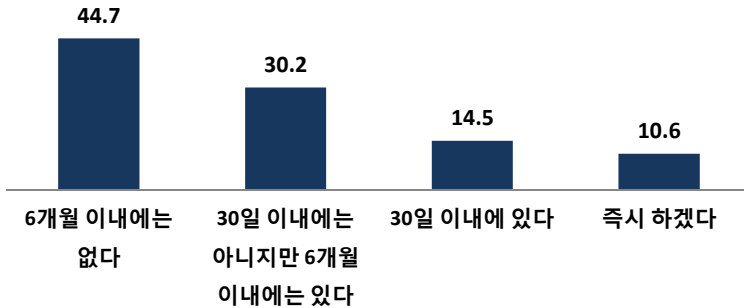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금연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4.7%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0.2%), '30일 이내에 있다'(14.5%), '즉시 하겠다'(10.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9〉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470,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중·소도시(4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0〉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70)	44.7	30.2	14.5	10.6
성별	남성	(423)	44.4	30.7	14.2	10.6
	여성	(47)	46.8	25.5	17.0	10.6
연령	40대	(161)	49.1	21.7	16.1	13.0
	50대	(147)	42.2	36.1	12.2	9.5
	60대 이상	(162)	42.6	33.3	14.8	9.3
지역규모	대도시	(194)	37.6	34.5	18.6	9.3
	중·소도시	(232)	49.6	26.3	12.5	11.6
	군지역	(44)	50.0	31.8	6.8	11.4
직업	화이트칼라	(136)	36.8	33.1	14.0	16.2
	블루칼라	(144)	44.4	35.4	13.2	6.9
	농/임/어업	(11)	90.9	0.0	0.0	9.1
	자영업	(150)	48.0	26.0	16.7	9.3
	주부	(15)	73.3	13.3	13.3	0.0
	은퇴자	(8)	0.0	62.5	25.0	12.5
교육 수준	무직/기타	(6)	50.0	0.0	16.7	33.3
	중졸 이하	(32)	37.5	34.4	12.5	15.6
	고졸	(246)	47.6	28.9	15.9	7.7
	대재 이상	(188)	42.0	31.4	13.3	13.3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4)	50.0	25.0	0.0	25.0
	저소득	(87)	51.7	25.3	14.9	8.0
	중소득	(271)	48.0	26.9	15.5	9.6
	고소득	(112)	31.3	42.0	11.6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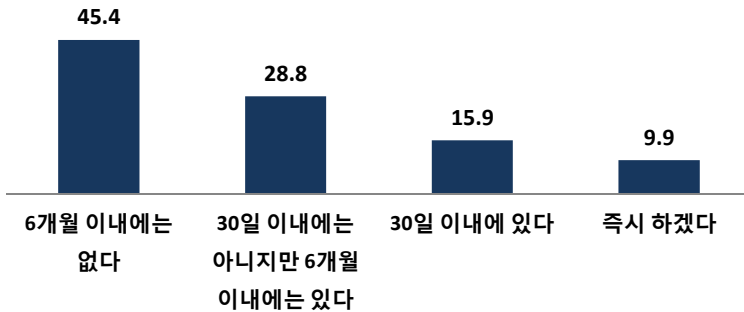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금주 혹은 절주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5.4%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8.8%), '30일 이내에 있다'(15.9%), '즉시 하겠다'(9.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0〉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927,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48.3%), 자영업(5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1〉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가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927)	45.4	28.8	15.9	9.9
성별	남성	(636)	48.3	29.4	13.8	8.5
	여성	(291)	39.2	27.5	20.3	13.1
연령	40대	(328)	43.6	32.3	14.6	9.5
	50대	(282)	45.7	27.7	17.0	9.6
	60대 이상	(317)	47.0	26.2	16.1	10.7
지역규모	대도시	(412)	43.0	31.6	16.7	8.7
	중·소도시	(435)	46.7	26.4	16.1	10.8
	군지역	(80)	51.3	27.5	10.0	11.3
직업	화이트칼라	(240)	40.4	31.3	15.8	12.5
	블루칼라	(263)	49.8	27.0	14.8	8.4
	농/임/어업	(20)	80.0	0.0	5.0	15.0
	자영업	(264)	50.8	26.5	14.0	8.7
	주부	(105)	34.3	35.2	20.0	10.5
	은퇴자	(17)	5.9	47.1	35.3	11.8
	무직/기타	(18)	33.3	33.3	27.8	5.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1)	51.9	19.8	18.5	9.9
	고졸	(492)	44.9	30.3	16.5	8.3
	대재 이상	(348)	44.5	29.3	14.1	12.1
	모름/무응답	(6)	50.0	0.0	33.3	16.7
가구 소득	저소득	(166)	54.2	21.1	18.1	6.6
	중소득	(531)	44.1	30.3	15.6	10.0
	고소득	(230)	42.2	30.9	14.8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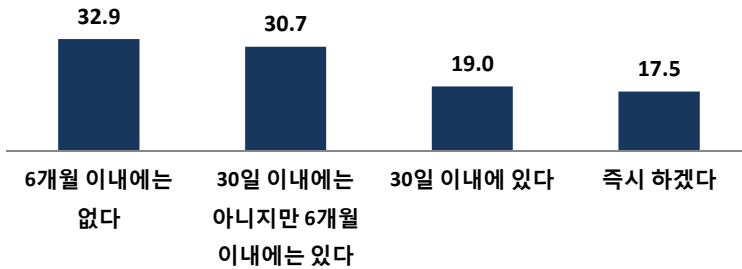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2.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0.7%), '30일 이내에 있다'(19.0%), '즉시 하겠다'(17.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1〉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N=401,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대도시(3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2〉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건강상태 판단 없음)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01)	32.9	30.7	19.0	17.5
성별	남성	(177)	35.6	29.4	19.2	15.8
	여성	(224)	30.8	31.7	18.8	18.8
연령	40대	(115)	32.2	29.6	19.1	19.1
	50대	(113)	33.6	32.7	19.5	14.2
	60대 이상	(173)	32.9	30.1	18.5	18.5
지역규모	대도시	(193)	39.4	32.6	18.1	9.8
	중·소도시	(185)	27.0	25.9	21.6	25.4
	군지역	(23)	26.1	52.2	4.3	17.4
직업	화이트칼라	(86)	32.6	23.3	18.6	25.6
	블루칼라	(102)	38.2	24.5	19.6	17.6
	농/임/어업	(5)	20.0	20.0	40.0	20.0
	자영업	(97)	33.0	35.1	19.6	12.4
	주부	(99)	29.3	40.4	16.2	14.1
	은퇴자	(4)	0.0	25.0	25.0	50.0
	무직/기타	(8)	37.5	25.0	25.0	1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6)	21.4	33.9	30.4	14.3
	고졸	(217)	34.6	32.3	14.3	18.9
	대재 이상	(126)	34.9	27.0	21.4	16.7
	모름/무응답	(2)	50.0	0.0	5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90)	36.7	25.6	20.0	17.8
	중소득	(230)	34.3	33.9	13.5	18.3
	고소득	(81)	24.7	27.2	33.3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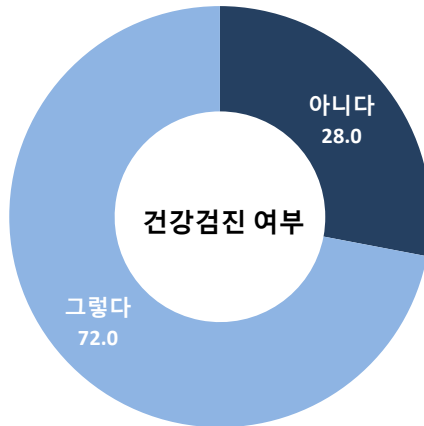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받은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2.0%로 10명 중 7명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8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받은 경험

(N=1,614, 단위: %)



-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응답은 중·소도시(7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614)	28.0	72.0
성별	남성	(782)	26.7	73.3
	여성	(832)	29.2	70.8
연령	40대	(502)	30.5	69.5
	50대	(493)	25.8	74.2
	60대 이상	(619)	27.8	72.2
지역규모	대도시	(714)	30.7	69.3
	중·소도시	(767)	22.7	77.3
	군지역	(133)	44.4	55.6
직업	화이트칼라	(322)	25.2	74.8
	블루칼라	(415)	24.8	75.2
	농/임/어업	(38)	44.7	55.3
	자영업	(412)	32.0	68.0
	주부	(370)	26.5	73.5
	은퇴자	(26)	38.5	61.5
	무직/기타	(31)	35.5	64.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35.1	64.9
	고졸	(873)	26.9	73.1
	대재 이상	(527)	26.9	73.1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12)	33.3	66.7
	저소득	(353)	31.7	68.3
	중소득	(889)	28.2	71.8
	고소득	(372)	23.9	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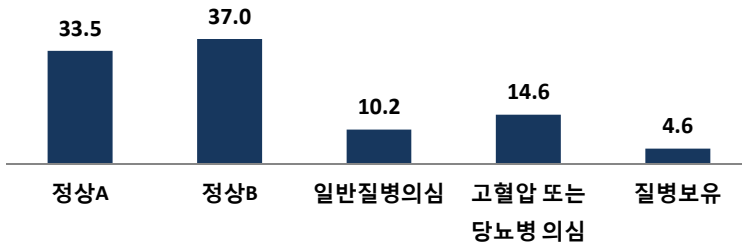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정상A+정상B)'이 7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14.6%), '일반 질병 의심'(10.2%), 질병보유(4.6%)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등급

(N=1,162, 단위: %)



〈표 IV-9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등급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정상A	정상B	일반질병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질병보유
전체		(1,162)	33.5	37.0	10.2	14.6	4.6
성별	남성	(573)	31.6	38.7	9.6	15.7	4.4
	여성	(589)	35.3	35.3	10.9	13.6	4.9
연령	40대	(349)	45.3	41.8	5.4	6.0	1.4
	50대	(366)	35.8	39.1	11.7	10.7	2.7
	60대 이상	(447)	22.4	31.5	12.8	24.6	8.7
지역규모	대도시	(495)	32.3	39.8	10.9	13.3	3.6
	중·소도시	(593)	34.7	34.9	9.6	15.2	5.6
	군지역	(74)	31.1	35.1	10.8	18.9	4.1
직업	화이트칼라	(241)	44.0	36.1	12.0	6.6	1.2
	블루칼라	(312)	32.1	36.5	9.9	14.7	6.7
	농/임/어업	(21)	9.5	52.4	9.5	23.8	4.8
	자영업	(280)	31.1	36.1	7.1	20.7	5.0
	주부	(272)	31.6	39.0	12.5	13.2	3.7
	은퇴자	(16)	43.8	25.0	0.0	25.0	6.3
	무직/기타	(20)	5.0	35.0	15.0	25.0	2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1)	18.3	28.2	9.9	29.0	14.5
	고졸	(638)	31.5	37.8	11.1	15.7	3.9
	대재 이상	(385)	41.3	39.5	9.1	7.5	2.6
	모름/무응답	(8)	62.5	0.0	0.0	37.5	0.0
가구 소득	저소득	(241)	20.3	35.3	11.2	24.5	8.7
	중소득	(638)	35.7	38.1	9.2	12.9	4.1
	고소득	(283)	39.6	36.0	11.7	10.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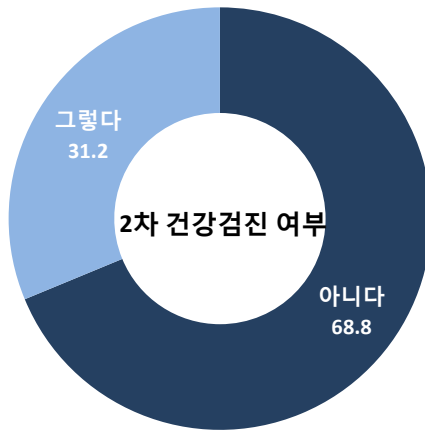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차 검진 참여 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차 검진을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1.2%로 10명 중 3명 정도가 2차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8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차 검진 참여 여부

(N=1,162, 단위: %)



○ 2차 검진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자영업(3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차 검진 참여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162)	68.8	31.2
성별	남성	(573)	68.6	31.4
	여성	(589)	68.9	31.1
연령	40대	(349)	78.2	21.8
	50대	(366)	68.9	31.1
	60대 이상	(447)	61.3	38.7
지역규모	대도시	(495)	71.7	28.3
	중·소도시	(593)	66.3	33.7
	군지역	(74)	68.9	31.1
직업	화이트칼라	(241)	76.3	23.7
	블루칼라	(312)	69.2	30.8
	농/임/어업	(21)	61.9	38.1
	자영업	(280)	63.2	36.8
	주부	(272)	68.8	31.3
	은퇴자	(16)	68.8	31.3
	무직/기타	(20)	55.0	4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1)	56.5	43.5
	고졸	(638)	66.6	33.4
	대재 이상	(385)	76.4	23.6
	모름/무응답	(8)	75.0	25.0
가구 소득	저소득	(241)	62.7	37.3
	중소득	(638)	69.0	31.0
	고소득	(283)	73.5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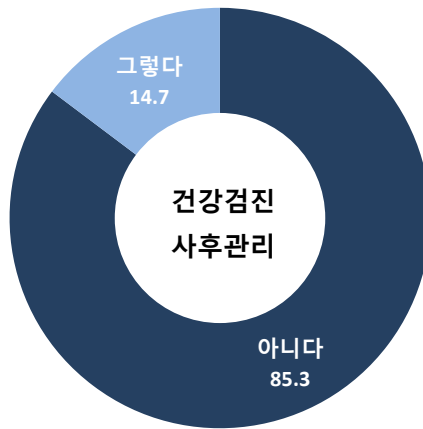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받은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14.7%로 약 10명 중 1명 정도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8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받은 경험

(N=1,162, 단위: %)



-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9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162)	85.3	14.7
성별	남성	(573)	85.5	14.5
	여성	(589)	85.1	14.9
연령	40대	(349)	89.1	10.9
	50대	(366)	85.8	14.2
	60대 이상	(447)	81.9	18.1
지역규모	대도시	(495)	84.6	15.4
	중·소도시	(593)	86.0	14.0
	군지역	(74)	83.8	16.2
직업	화이트칼라	(241)	88.0	12.0
	블루칼라	(312)	86.2	13.8
	농/임/어업	(21)	76.2	23.8
	자영업	(280)	83.6	16.4
	주부	(272)	84.6	15.4
	은퇴자	(16)	87.5	12.5
	무직/기타	(20)	80.0	2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1)	76.3	23.7
	고졸	(638)	85.9	14.1
	대재 이상	(385)	87.5	12.5
	모름/무응답	(8)	75.0	25.0
가구 소득	저소득	(241)	84.2	15.8
	중소득	(638)	84.5	15.5
	고소득	(283)	88.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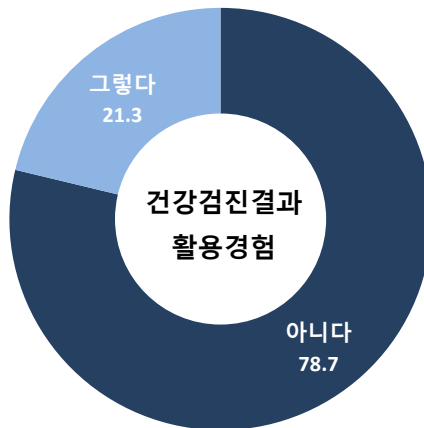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21.3%로 10명 중 약 2명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8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N=1,162, 단위: %)



-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2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162)	78.7	21.3
성별	남성	(573)	78.9	21.1
	여성	(589)	78.6	21.4
연령	40대	(349)	79.7	20.3
	50대	(366)	82.8	17.2
	60대 이상	(447)	74.7	25.3
지역규모	대도시	(495)	79.0	21.0
	중·소도시	(593)	77.7	22.3
	군지역	(74)	85.1	14.9
직업	화이트칼라	(241)	83.8	16.2
	블루칼라	(312)	77.2	22.8
	농/임/어업	(21)	71.4	28.6
	자영업	(280)	77.5	22.5
	주부	(272)	79.0	21.0
	은퇴자	(16)	75.0	25.0
	무직/기타	(20)	65.0	3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1)	70.2	29.8
	고졸	(638)	79.6	20.4
	대재 이상	(385)	80.0	20.0
	모름/무응답	(8)	87.5	12.5
가구 소득	저소득	(241)	78.4	21.6
	중소득	(638)	77.0	23.0
	고소득	(283)	83.0	17.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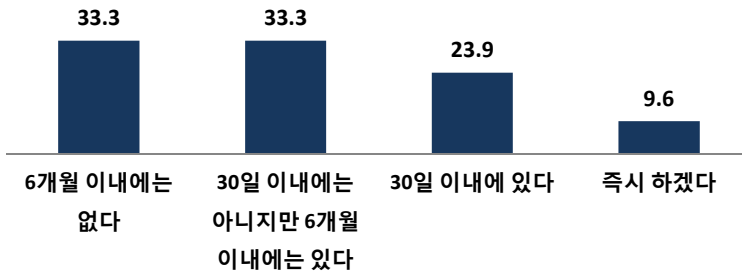
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1) 규칙적 운동하기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와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가 33.3%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 있다'(23.9%), '즉시 하겠다'(9.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7〉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N=553,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5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는 응답은 남성(39.2%), 대도시(4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8〉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553)	33.3	33.3	23.9	9.6
성별	남성	(273)	31.9	39.2	21.2	7.7
	여성	(280)	34.6	27.5	26.4	11.4
연령	40대	(171)	35.7	29.2	22.8	12.3
	50대	(175)	32.6	33.1	23.4	10.9
	60대 이상	(207)	31.9	36.7	25.1	6.3
지역규모	대도시	(211)	29.9	41.2	21.3	7.6
	중·소도시	(298)	31.9	29.5	27.2	11.4
	군지역	(44)	59.1	20.5	13.6	6.8
직업	화이트칼라	(110)	23.6	32.7	30.0	13.6
	블루칼라	(169)	36.7	37.3	22.5	3.6
	농/임/어업	(18)	66.7	11.1	16.7	5.6
	자영업	(140)	35.7	31.4	20.7	12.1
	주부	(109)	29.4	33.9	23.9	12.8
	은퇴자	(4)	25.0	0.0	75.0	0.0
	무직/기타	(3)	33.3	66.7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6)	40.9	25.8	30.3	3.0
	고졸	(308)	31.8	36.0	23.1	9.1
	대재 이상	(174)	32.8	31.6	22.4	13.2
	모름/무응답	(5)	40.0	20.0	4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16)	40.5	32.8	22.4	4.3
	중소득	(311)	31.5	34.7	23.8	10.0
	고소득	(126)	31.0	30.2	25.4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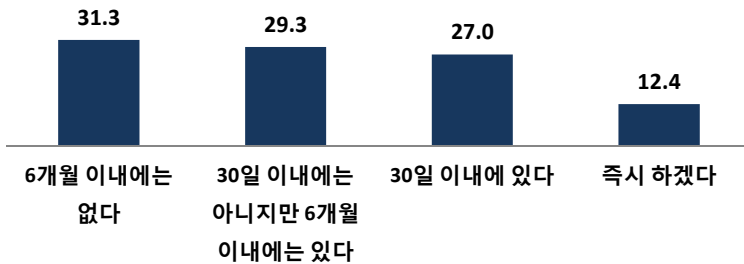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식생활 개선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1.3%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3%), '30일 이내에 있다'(27.0%), '즉시 하겠다'(12.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8〉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N=1,162,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자영업(36.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9〉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1,162)	31.3	29.3	27.0	12.4
성별	남성	(573)	33.0	35.3	21.6	10.1
	여성	(589)	29.7	23.4	32.3	14.6
연령	40대	(349)	30.7	32.4	25.2	11.7
	50대	(366)	33.9	26.0	26.2	13.9
	60대 이상	(447)	29.8	29.5	29.1	11.6
지역규모	대도시	(495)	29.1	32.1	28.5	10.3
	중·소도시	(593)	31.2	27.7	27.2	14.0
	군지역	(74)	47.3	23.0	16.2	13.5
직업	화이트칼라	(241)	29.0	32.8	26.1	12.0
	블루칼라	(312)	32.7	31.1	25.6	10.6
	농/임/어업	(21)	57.1	14.3	19.0	9.5
	자영업	(280)	36.4	28.6	23.2	11.8
	주부	(272)	26.8	25.4	32.7	15.1
	은퇴자	(16)	12.5	31.3	37.5	18.8
	무직/기타	(20)	15.0	35.0	35.0	1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1)	33.6	25.2	30.5	10.7
	고졸	(638)	31.2	29.0	27.6	12.2
	대재 이상	(385)	30.9	30.9	24.7	13.5
	모름/무응답	(8)	25.0	37.5	37.5	0.0
가구 소득	저소득	(241)	39.4	22.4	28.6	9.5
	중소득	(638)	29.2	30.7	27.4	12.7
	고소득	(283)	29.3	31.8	24.7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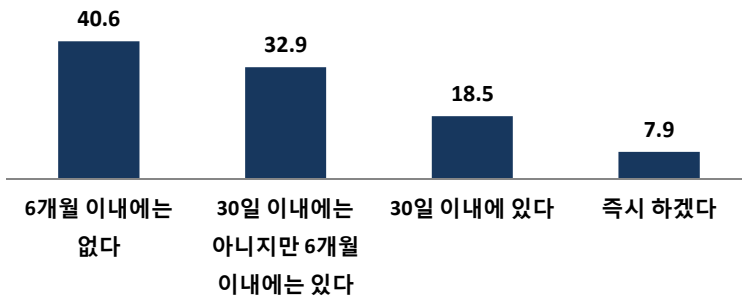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금연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0.6%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2.9%), '30일 이내에 있다'(18.5%), '즉시 하겠다'(7.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9〉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340, 단위: %)



〈표 IV-100〉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340)	40.6	32.9	18.5	7.9
성별	남성	(309)	40.5	32.4	19.1	8.1
	여성	(31)	41.9	38.7	12.9	6.5
연령	40대	(112)	45.5	27.7	17.9	8.9
	50대	(110)	41.8	28.2	22.7	7.3
	60대 이상	(118)	34.7	42.4	15.3	7.6
지역규모	대도시	(129)	36.4	39.5	18.6	5.4
	중·소도시	(190)	40.0	29.5	20.5	10.0
	군지역	(21)	71.4	23.8	0.0	4.8
직업	화이트칼라	(103)	40.8	33.0	17.5	8.7
	블루칼라	(108)	39.8	35.2	19.4	5.6
	농/임/어업	(7)	100.0	0.0	0.0	0.0
	자영업	(105)	38.1	32.4	21.0	8.6
	주부	(11)	54.5	36.4	9.1	0.0
	은퇴자	(3)	0.0	66.7	0.0	33.3
	무직/기타	(3)	0.0	0.0	33.3	6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	50.0	35.0	0.0	15.0
	고졸	(175)	37.7	33.1	22.3	6.9
	대재 이상	(142)	43.0	32.4	16.2	8.5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0.0
가구 소득	저소득	(54)	46.3	31.5	13.0	9.3
	중소득	(193)	44.0	31.6	19.2	5.2
	고소득	(93)	30.1	36.6	20.4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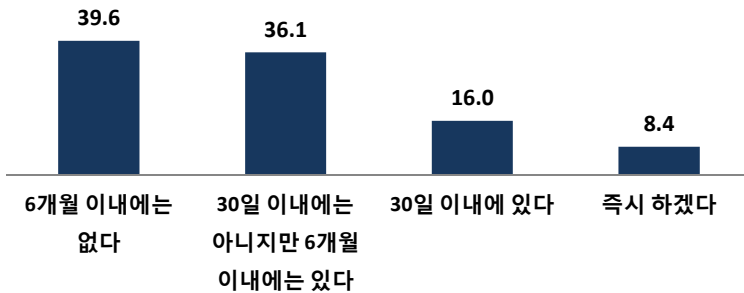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금주 혹은 절주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9.6%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6.1%), '30일 이내에 있다'(16.0%), '즉시 하겠다'(8.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0〉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670,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5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1〉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670)	39.6	36.1	16.0	8.4
성별	남성	(464)	39.9	38.1	12.7	9.3
	여성	(206)	38.8	31.6	23.3	6.3
연령	40대	(219)	40.2	37.4	15.5	6.8
	50대	(212)	41.5	34.0	16.5	8.0
	60대 이상	(239)	37.2	36.8	15.9	10.0
지역규모	대도시	(289)	37.0	39.1	16.6	7.3
	중·소도시	(338)	39.6	34.3	16.6	9.5
	군지역	(43)	55.8	30.2	7.0	7.0
직업	화이트칼라	(177)	36.7	37.9	15.8	9.6
	블루칼라	(202)	41.1	41.1	11.4	6.4
	농/임/어업	(13)	76.9	7.7	7.7	7.7
	자영업	(178)	44.9	33.1	12.9	9.0
	주부	(80)	30.0	37.5	28.8	3.8
	은퇴자	(7)	0.0	14.3	57.1	28.6
	무직/기타	(13)	23.1	7.7	38.5	30.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4)	40.7	38.9	9.3	11.1
	고졸	(360)	40.0	36.1	16.7	7.2
	대재 이상	(252)	38.5	36.1	15.9	9.5
	모름/무응답	(4)	50.0	0.0	5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13)	48.7	26.5	17.7	7.1
	중소득	(381)	37.3	38.1	16.3	8.4
	고소득	(176)	38.6	38.1	14.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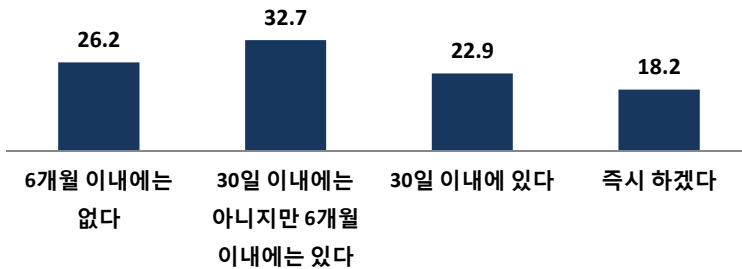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가 32.7%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에는 없다'(26.2%), '30일 이내에 있다'(22.9%), '즉시 하겠다'(18.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1〉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N=275, 단위: %)



〈표 IV-102〉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275)	26.2	32.7	22.9	18.2
성별	남성	(127)	28.3	35.4	21.3	15.0
	여성	(148)	24.3	30.4	24.3	20.9
연령	40대	(72)	27.8	26.4	25.0	20.8
	50대	(78)	30.8	37.2	17.9	14.1
	60대 이상	(125)	22.4	33.6	24.8	19.2
지역규모	대도시	(128)	37.5	35.2	19.5	7.8
	중·소도시	(135)	15.6	28.1	28.1	28.1
	군지역	(12)	25.0	58.3	0.0	16.7
직업	화이트칼라	(61)	26.2	24.6	24.6	24.6
	블루칼라	(73)	39.7	27.4	17.8	15.1
	농/임/어업	(4)	0.0	25.0	50.0	25.0
	자영업	(69)	21.7	42.0	20.3	15.9
	주부	(61)	18.0	37.7	26.2	18.0
	은퇴자	(3)	0.0	66.7	33.3	0.0
	무직/기타	(4)	25.0	0.0	50.0	2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8)	10.5	34.2	39.5	15.8
	고졸	(155)	31.0	31.6	16.8	20.6
	대재 이상	(80)	25.0	33.8	26.3	15.0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8)	31.0	22.4	27.6	19.0
	중소득	(151)	25.2	35.1	20.5	19.2
	고소득	(66)	24.2	36.4	24.2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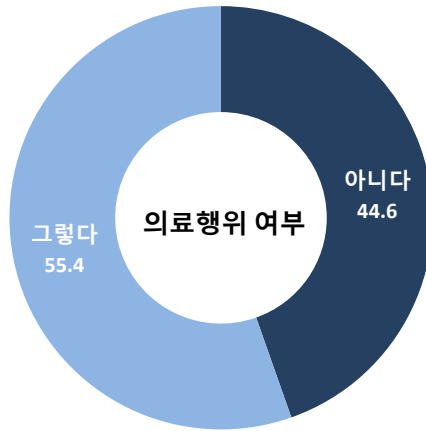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너. 모바일 혹은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생체 정보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등의 개입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되는지 여부

-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의 생체 정보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등에 개입하는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5.4%로 '아니다'(44.6%)에 비해 10.8%p 높게 나타남

〈그림 IV-92〉 생체 정보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등의 개입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되는지 여부

(N=1,614, 단위: %)



〈표 IV-103〉 생체 정보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등의 개입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되는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니다	그렇다
전체		(1,614)	44.6	55.4
성별	남성	(782)	45.9	54.1
	여성	(832)	43.4	56.6
연령	40대	(502)	41.4	58.6
	50대	(493)	45.4	54.6
	60대 이상	(619)	46.5	53.5
지역규모	대도시	(714)	46.9	53.1
	중·소도시	(767)	42.4	57.6
	군지역	(133)	45.1	54.9
직업	화이트칼라	(322)	40.7	59.3
	블루칼라	(415)	46.0	54.0
	농/임/어업	(38)	50.0	50.0
	자영업	(412)	45.9	54.1
	주부	(370)	43.8	56.2
	은퇴자	(26)	42.3	57.7
	무직/기타	(31)	54.8	45.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2)	47.0	53.0
	고졸	(873)	45.1	54.9
	대재 이상	(527)	42.9	57.1
	모름/무응답	(12)	41.7	58.3
가구 소득	저소득	(353)	51.6	48.4
	중소득	(889)	42.6	57.4
	고소득	(372)	42.7	57.3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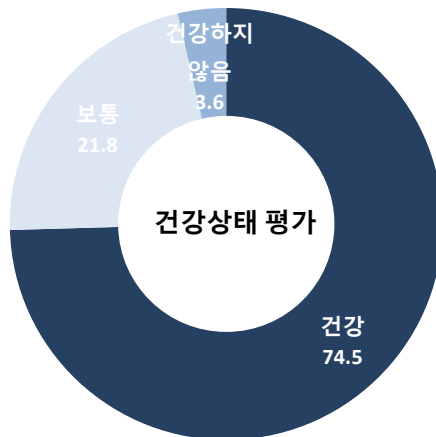
6. 노후생활 준비 실태

가. 현재 건강상태

-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건강하다'(매우 건강함+건강함)는 응답이 74.5%로 나타나 '건강하지 않다'(전혀 건강하지 않음+건강하지 않음, 3.6%)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았음

〈그림 IV-93〉 현재 건강상태

(N=2,440, 단위: %)



- '건강하다'는 응답은 대도시(78.5%), 학생(97.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104〉 현재 건강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현재 건강상태					종합평가			
		매우 건강	건강	보통	건강하지 않음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	보통	건강하지 않음	
전체	(2,440)	17.3	57.3	21.8	3.5	0.1	74.5	21.8	3.6	
성별	남성	(1,214)	18.3	57.7	21.2	2.8	0.0	76.0	21.2	2.8
	여성	(1,226)	16.2	56.9	22.5	4.2	0.2	73.1	22.5	4.4
연령	20대	(398)	41.7	54.0	3.8	0.5	0.0	95.7	3.8	0.5
	30대	(428)	23.1	68.5	7.2	1.2	0.0	91.6	7.2	1.2
	40대	(502)	15.3	68.7	15.1	0.8	0.0	84.1	15.1	0.8
	50대	(493)	8.3	59.6	28.0	3.9	0.2	68.0	28.0	4.1
	60대 이상	(619)	6.1	40.5	44.1	9.0	0.2	46.7	44.1	9.2
지역규모	대도시	(1,103)	21.0	57.5	18.3	3.1	0.1	78.5	18.3	3.2
	중·소도시	(1,174)	14.2	57.4	25.0	3.3	0.1	71.6	25.0	3.4
	군지역	(163)	13.5	55.2	23.3	8.0	0.0	68.7	23.3	8.0
직업	화이트칼라	(774)	22.7	65.0	11.0	1.3	0.0	87.7	11.0	1.3
	블루칼라	(632)	19.9	52.2	24.4	3.3	0.2	72.2	24.4	3.5
	농/임/어업	(38)	2.6	55.3	31.6	10.5	0.0	57.9	31.6	10.5
	자영업	(442)	12.2	51.6	31.9	4.3	0.0	63.8	31.9	4.3
	주부	(449)	7.3	61.5	26.7	4.2	0.2	68.8	26.7	4.5
	은퇴자	(26)	11.5	57.7	23.1	7.7	0.0	69.2	23.1	7.7
	학생	(42)	59.5	38.1	2.4	0.0	0.0	97.6	2.4	0.0
	무직/기타	(37)	8.1	24.3	37.8	29.7	0.0	32.4	37.8	29.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4.2	34.7	49.8	10.8	0.5	39.0	49.8	11.3
	고졸	(1,038)	13.6	53.1	28.9	4.4	0.0	66.7	28.9	4.4
	대재 이상	(1,167)	23.1	64.9	10.6	1.3	0.1	88.0	10.6	1.4
	모름/무응답	(22)	4.5	72.7	13.6	9.1	0.0	77.3	13.6	9.1
가구 소득	저소득	(468)	15.0	39.1	37.0	8.8	0.2	54.1	37.0	9.0
	중소득	(1,383)	16.6	61.4	19.5	2.5	0.0	78.0	19.5	2.5
	고소득	(589)	20.5	62.1	15.4	1.7	0.2	82.7	15.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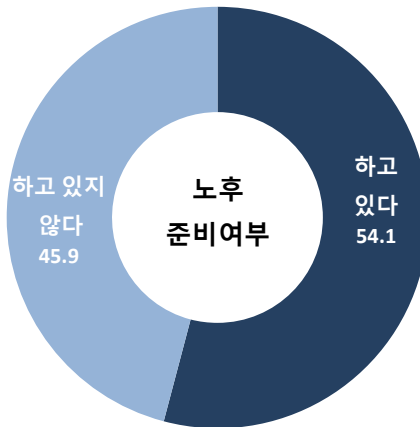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노후 준비 여부

-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54.1%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45.9%)는 응답에 비해 높았음

〈그림 IV-94〉 노후 준비 여부

(N=2,440, 단위: %)



- 특히, 40대(64.9%), 50대(72.8%)와 60대 이상(61.7%), 군지역 거주자(63.2%), 자영업(73.1%)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105〉 노후 준비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전체		(2,440)	54.1	45.9
성별	남성	(1,214)	55.0	45.0
	여성	(1,226)	53.2	46.8
연령	20대	(398)	19.6	80.4
	30대	(428)	40.9	59.1
	40대	(502)	64.9	35.1
	50대	(493)	72.8	27.2
	60대 이상	(619)	61.7	38.3
지역규모	대도시	(1,103)	52.1	47.9
	중·소도시	(1,174)	54.7	45.3
	군지역	(163)	63.2	36.8
직업	화이트칼라	(774)	51.6	48.4
	블루칼라	(632)	48.4	51.6
	농/임/어업	(38)	55.3	44.7
	자영업	(442)	73.1	26.9
	주부	(449)	54.1	45.9
	은퇴자	(26)	57.7	42.3
	학생	(42)	2.4	97.6
	무직/기타	(37)	32.4	67.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41.3	58.7
	고졸	(1,038)	60.6	39.4
	대재 이상	(1,167)	50.8	49.2
	모름/무응답	(22)	45.5	54.5
가구 소득	저소득	(468)	40.6	59.4
	중소득	(1,383)	55.5	44.5
	고소득	(589)	61.6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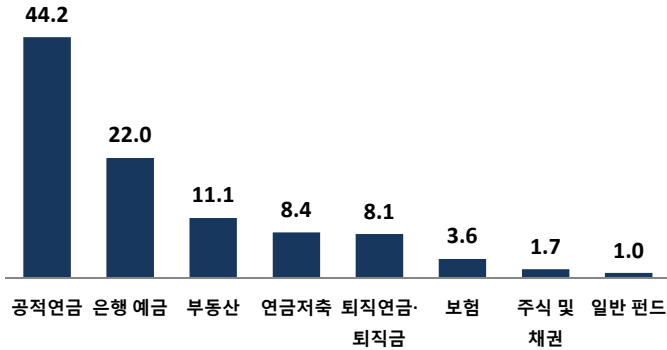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1) 노후 준비 방법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으로는 ‘공적연금’(44.2%)을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은행예금’(22.0%), ‘부동산’(11.1%), ‘연금저축’(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5〉 노후 준비 방법(1순위)

(N=1,320, 단위: %)



- 노후 대비를 위해 공적연금을 가입했다는 응답은 20대(64.1%)와 30대(53.1%), 화이트칼라(5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6〉 노후 준비 방법(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공적 연금	은행 예금	부동 산	연금 저축	퇴직 연금· 퇴직금	보험	주식 및 채권	일반 펀드
전체		(1,320)	44.2	22.0	11.1	8.4	8.1	3.6	1.7	1.0
성별	남성	(668)	49.6	15.3	12.6	8.5	8.4	3.1	1.8	0.7
	여성	(652)	38.7	29.0	9.5	8.3	7.8	4.0	1.5	1.2
연령	20대	(78)	64.1	12.8	2.6	10.3	2.6	2.6	3.8	1.3
	30대	(175)	53.1	22.9	3.4	6.9	5.7	4.0	2.3	1.7
	40대	(326)	43.9	17.8	8.6	9.8	12.6	4.3	1.8	1.2
	50대	(359)	41.5	22.0	12.0	8.6	9.2	4.2	1.7	0.8
	60대 이상	(382)	38.7	27.2	17.5	7.3	5.5	2.4	0.8	0.5
지역규모	대도시	(575)	43.5	24.9	11.8	6.4	7.3	2.8	1.9	1.4
	중·소도시	(642)	46.7	20.2	9.5	8.4	8.7	4.0	1.6	0.8
	군지역	(103)	32.0	17.5	16.5	19.4	8.7	4.9	1.0	0.0
직업	화이트칼라	(399)	51.9	16.0	6.5	4.8	12.0	4.3	3.5	1.0
	블루칼라	(306)	46.7	21.2	8.2	10.1	7.5	4.2	0.3	1.6
	농/임/어업	(21)	33.3	38.1	9.5	9.5	4.8	0.0	0.0	4.8
	자영업	(323)	38.7	22.6	15.8	14.6	3.7	2.5	1.2	0.9
	주부	(243)	36.2	31.7	16.0	4.9	7.4	2.9	0.8	0.0
	은퇴자	(15)	40.0	20.0	0.0	0.0	33.3	6.7	0.0	0.0
	학생	(1)	0.0	0.0	0.0	0.0	0.0	0.0	100.0	0.0
무직/기타	(12)	58.3	8.3	25.0	0.0	0.0	8.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8)	39.8	28.4	17.0	9.1	3.4	1.1	0.0	1.1
	고졸	(629)	40.2	27.5	13.4	9.1	6.2	2.5	0.6	0.5
	대재 이상	(593)	48.9	15.7	7.6	7.8	10.6	4.9	3.0	1.5
	모름/무응답	(10)	50.0	0.0	20.0	0.0	20.0	1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90)	45.8	28.4	10.0	6.8	5.8	2.1	0.5	0.5
	중소득	(767)	45.0	22.2	11.0	8.7	6.3	4.3	1.8	0.8
	고소득	(363)	41.6	18.5	11.8	8.5	13.2	2.8	1.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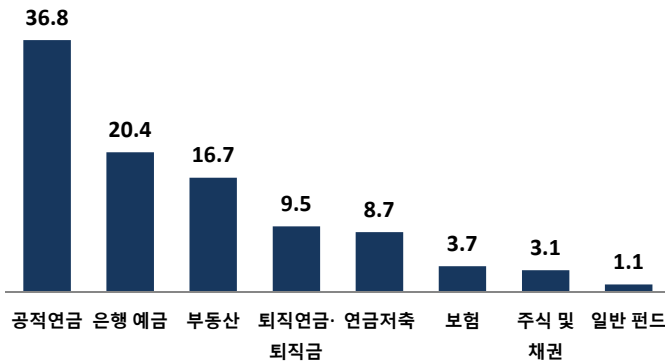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예상하는 노후 소득 중 가장 큰 수입원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 중 가장 큰 수입원으로 예상하는 상품으로는 '공적연금'이 36.8%로 가장 높았고, '은행예금'(20.4%), 부동산(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6〉 예상하는 노후 소득 중 가장 큰 수입원(1순위)

(N=1,320, 단위: %)



- 예상하는 노후 소득 중 가장 큰 수입원으로 '공적연금'을 꼽은 응답자는 남성(39.7%), 중·소도시(4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7〉 예상하는 노후 소득 중 가장 큰 수입원(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공적 연금	은행 예금	부동 산	퇴직 연금· 퇴직금	연금 저축	보험	주식 및 채권	일반 펀드
전체		(1,320)	36.8	20.4	16.7	9.5	8.7	3.7	3.1	1.1
성별	남성	(668)	39.7	14.8	18.4	10.8	8.7	3.3	3.3	1.0
	여성	(652)	33.9	26.1	14.9	8.3	8.7	4.1	2.9	1.1
연령	20대	(78)	50.0	14.1	6.4	3.8	19.2	1.3	2.6	2.6
	30대	(175)	40.6	21.1	8.6	9.1	9.7	4.6	4.0	2.3
	40대	(326)	35.9	14.7	13.8	16.0	9.2	5.2	4.3	0.9
	50대	(359)	35.1	21.4	17.8	8.9	10.0	2.8	2.8	1.1
	60대 이상	(382)	34.8	25.1	23.8	6.0	4.5	3.4	2.1	0.3
지역규모	대도시	(575)	31.1	21.7	20.7	9.2	8.0	3.1	4.3	1.7
	중·소도시	(642)	42.5	19.5	13.1	9.7	8.1	4.0	2.5	0.6
	군지역	(103)	33.0	18.4	16.5	10.7	16.5	4.9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99)	36.8	17.3	10.5	15.8	8.8	4.8	3.8	2.3
	블루칼라	(306)	42.5	19.9	16.7	8.5	7.5	3.6	0.7	0.7
	농/임/어업	(21)	42.9	28.6	19.0	4.8	4.8	0.0	0.0	0.0
	자영업	(323)	33.7	19.5	22.3	4.0	12.7	2.8	4.3	0.6
	주부	(243)	32.5	27.6	18.9	7.0	6.2	3.7	3.7	0.4
	은퇴자	(15)	40.0	13.3	6.7	40.0	0.0	0.0	0.0	0.0
	학생	(1)	0.0	0.0	0.0	0.0	0.0	0.0	100.0	0.0
	무직/기타	(12)	50.0	8.3	33.3	0.0	0.0	8.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8)	44.3	26.1	19.3	2.3	5.7	2.3	0.0	0.0
	고졸	(629)	35.1	24.2	19.2	7.2	7.5	3.0	3.3	0.5
	대재 이상	(593)	37.9	15.7	13.2	13.0	10.5	4.6	3.4	1.9
	모름/무응답	(10)	10.0	10.0	40.0	20.0	10.0	1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90)	45.3	25.8	16.8	5.3	3.7	1.6	1.1	0.5
	중소득	(767)	35.3	20.1	18.0	8.5	8.6	4.3	4.0	1.2
	고소득	(363)	35.5	18.2	13.8	14.0	11.6	3.6	2.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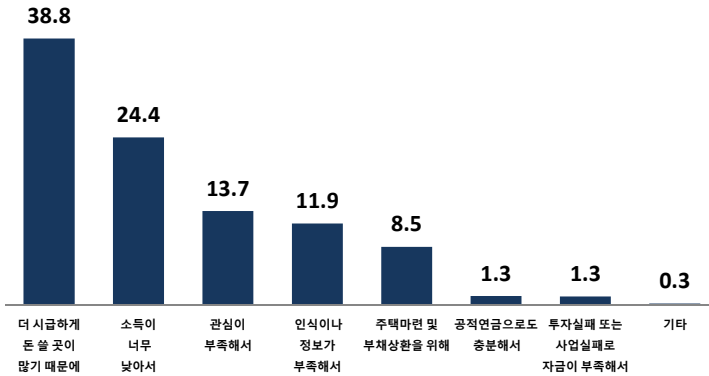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 노후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24.4%), ‘관심이 부족해서’(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7〉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N=1,120, 단위: %)



-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은 40대(61.9%), 자영업자(52.9%) 및 주부(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8〉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더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낮아서	관심이 부족해 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주택 마련 및 부채 상환을 위해서	공적연금 으로도 충분 하다고 생각해서	자금이 부족 해서	기타	
전체	(1,120)	38.8	24.4	13.7	11.9	8.5	1.3	1.3	0.3	
성별	남성	(546)	35.9	23.8	15.9	11.9	9.7	1.1	1.3	0.4
	여성	(574)	41.5	24.9	11.5	11.8	7.3	1.6	1.2	0.2
연령	20대	(320)	23.4	27.5	25.0	19.1	3.1	0.9	0.0	0.9
	30대	(253)	47.0	12.6	14.2	9.1	16.2	0.8	0.0	0.0
	40대	(176)	61.9	13.1	6.8	5.1	9.1	0.6	3.4	0.0
	50대	(134)	50.0	23.1	5.2	10.4	7.5	3.0	0.7	0.0
	60대 이상	(237)	27.0	41.8	7.6	11.0	7.6	2.1	3.0	0.0
지역 규모	대도시	(528)	37.9	24.1	13.3	11.7	10.0	1.3	1.3	0.4
	중·소도시	(532)	39.8	24.1	14.5	12.4	6.6	1.5	0.9	0.2
	군지역	(60)	36.7	30.0	10.0	8.3	11.7	0.0	3.3	0.0
직업	화이트칼라	(375)	36.3	16.3	19.2	16.8	9.6	1.3	0.5	0.0
	블루칼라	(326)	33.1	33.4	15.3	8.3	7.1	0.6	2.1	0.0
	농/임/어업	(17)	17.6	41.2	11.8	11.8	11.8	0.0	5.9	0.0
	자영업	(119)	52.9	16.8	8.4	5.9	13.4	2.5	0.0	0.0
	주부	(206)	50.0	23.8	4.4	10.7	8.7	1.0	1.5	0.0
	은퇴자	(11)	18.2	36.4	0.0	18.2	0.0	27.3	0.0	0.0
	학생	(41)	31.7	19.5	22.0	19.5	0.0	0.0	0.0	7.3
무직/기타	(25)	24.0	60.0	4.0	8.0	0.0	0.0	4.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5)	18.4	50.4	9.6	10.4	3.2	0.8	7.2	0.0
	고졸	(409)	43.5	24.4	11.7	9.5	8.1	1.7	0.2	0.7
	대재 이상	(574)	39.2	19.0	16.0	13.9	9.9	1.2	0.7	0.0
	모름/무응답	(12)	66.7	8.3	8.3	8.3	8.3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78)	28.1	44.2	8.6	10.4	3.6	1.1	4.0	0.0
	중소득	(616)	45.1	18.0	14.6	10.1	11.0	0.6	0.2	0.3
	고소득	(226)	34.5	17.3	17.3	18.6	7.5	3.5	0.9	0.4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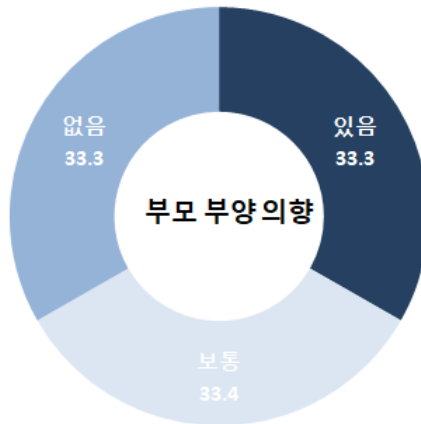
다. 부모 부양 의향 및 본인 자식의 부모 부양에 대한 기대

1) 향후 본인 부모 부양 의향

- 향후 본인의 부모를 부양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3.3%로 응답자 10명 중 3명 정도만 향후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있었음

〈그림 IV-98〉 향후 본인 부모 부양 의향

(N=2,440, 단위: %)



- 부모 부양 의향이 '있음'은 20대(38.7%), 화이트칼라(4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9〉 향후 본인 부모 부양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향후 본인 부모 부양 의향					종합결과		
			매우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보통 이다	별로 없다	절대 없다	있음	보통	없음
전체		(2,440)	4.0	29.3	33.4	26.8	6.5	33.3	33.4	33.3
성별	남성	(1,214)	5.9	31.9	34.2	22.7	5.4	37.8	34.2	28.0
	여성	(1,226)	2.0	26.8	32.7	30.8	7.7	28.8	32.7	38.5
연령	20대	(398)	3.8	34.9	41.0	19.6	0.8	38.7	41.0	20.4
	30대	(428)	4.9	32.7	35.5	25.5	1.4	37.6	35.5	26.9
	40대	(502)	3.8	32.5	36.3	24.7	2.8	36.3	36.3	27.5
	50대	(493)	4.7	29.2	31.2	29.2	5.7	33.9	31.2	34.9
	60대 이상	(619)	3.1	20.8	26.7	32.0	17.4	23.9	26.7	49.4
지역규모	대도시	(1,103)	4.0	24.8	32.1	31.1	8.0	28.8	32.1	39.1
	중·소도시	(1,174)	3.6	33.2	35.3	22.9	5.0	36.8	35.3	27.9
	군지역	(163)	6.7	31.3	29.4	25.2	7.4	38.0	29.4	32.5
직업	화이트칼라	(774)	6.5	34.0	39.1	19.1	1.3	40.4	39.1	20.4
	블루칼라	(632)	2.2	28.6	32.4	28.6	8.1	30.9	32.4	36.7
	농/임/어업	(38)	5.3	28.9	18.4	23.7	23.7	34.2	18.4	47.4
	자영업	(442)	4.5	27.8	29.6	29.2	8.8	32.4	29.6	38.0
	주부	(449)	2.0	25.4	30.3	35.0	7.3	27.4	30.3	42.3
	은퇴자	(26)	0.0	11.5	19.2	30.8	38.5	11.5	19.2	69.2
	학생	(42)	0.0	31.0	40.5	28.6	0.0	31.0	40.5	28.6
	무직/기타	(37)	5.4	18.9	32.4	24.3	18.9	24.3	32.4	4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1.4	19.2	20.7	33.3	25.4	20.7	20.7	58.7
	고졸	(1,038)	3.2	25.0	33.5	30.9	7.3	28.2	33.5	38.2
	대재 이상	(1,167)	5.1	34.9	35.6	21.9	2.4	40.0	35.6	24.3
	모름/무응답	(22)	4.5	31.8	36.4	22.7	4.5	36.4	36.4	27.3
가구 소득	저소득	(468)	2.1	20.5	25.9	33.8	17.7	22.6	25.9	51.5
	중소득	(1,383)	4.9	30.4	33.1	27.5	4.1	35.3	33.1	31.6
	고소득	(589)	3.2	33.8	40.2	19.5	3.2	37.0	40.2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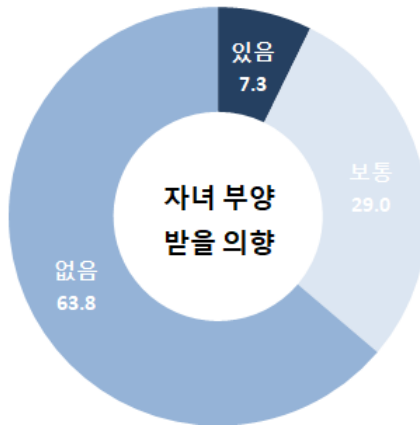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

-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양 받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63.8%로 나타남

〈그림 IV-99〉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

(N=2,440, 단위: %)



〈표 IV-110〉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					종합결과		
		매우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보통 이다	별로 없다	절대 없다	있음	보통	없음
전체	(2,440)	0.4	6.8	29.0	51.3	12.5	7.3	29.0	63.8
성별	남성 (1,214)	0.7	7.7	29.5	50.7	11.4	8.3	29.5	62.2
	여성 (1,226)	0.2	6.0	28.5	51.9	13.5	6.2	28.5	65.3
연령	20대 (398)	0.5	7.5	32.2	50.8	9.0	8.0	32.2	59.8
	30대 (428)	0.7	8.2	29.2	54.0	7.9	8.9	29.2	61.9
	40대 (502)	0.4	7.4	29.3	50.4	12.5	7.8	29.3	62.9
	50대 (493)	0.4	4.7	28.4	51.5	15.0	5.1	28.4	66.5
	60대 이상 (619)	0.2	6.8	27.0	50.4	15.7	6.9	27.0	66.1
지역규모	대도시 (1,103)	0.2	6.5	28.7	52.2	12.3	6.7	28.7	64.6
	중·소도시 (1,174)	0.4	7.8	28.1	50.9	12.8	8.2	28.1	63.7
	군지역 (163)	1.8	2.5	36.8	47.9	11.0	4.3	36.8	58.9
직업	화이트칼라 (774)	0.6	9.3	32.6	49.0	8.5	9.9	32.6	57.5
	블루칼라 (632)	0.2	4.6	28.0	52.7	14.6	4.7	28.0	67.2
	농/임/어업 (38)	0.0	2.6	31.6	50.0	15.8	2.6	31.6	65.8
	자영업 (442)	0.5	5.2	24.2	55.4	14.7	5.7	24.2	70.1
	주부 (449)	0.2	6.7	29.0	51.0	13.1	6.9	29.0	64.1
	은퇴자 (26)	3.8	19.2	11.5	46.2	19.2	23.1	11.5	65.4
	학생 (42)	0.0	4.8	35.7	52.4	7.1	4.8	35.7	59.5
	무직/기타 (37)	0.0	13.5	29.7	35.1	21.6	13.5	29.7	56.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0.0	8.5	22.1	53.5	16.0	8.5	22.1	69.5
	고졸 (1,038)	0.6	5.0	30.2	50.1	14.2	5.6	30.2	64.3
	대재 이상 (1,167)	0.2	8.1	29.2	52.0	10.5	8.2	29.2	62.6
	모름/무응답 (22)	9.1	13.6	27.3	50.0	0.0	22.7	27.3	50.0
가구 소득	저소득 (468)	0.2	6.4	25.0	51.5	16.9	6.6	25.0	68.4
	중소득 (1,383)	0.4	7.4	29.8	50.6	11.7	7.9	29.8	62.3
	고소득 (589)	0.5	5.8	30.2	52.8	10.7	6.3	30.2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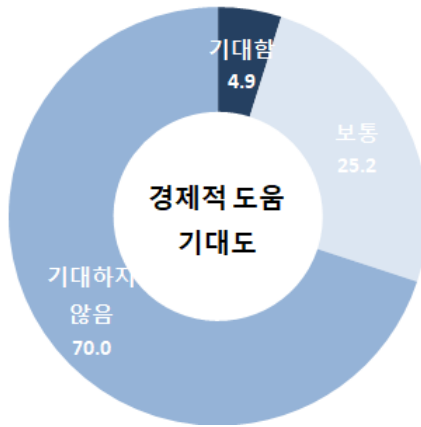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향후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도

- 향후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지 살펴본 결과, '기대한다'는 응답은 4.9%로 '기대하지 않음'(70.0%)에 비해 특히 낮았음

〈그림 IV-100〉 향후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도

(N=2,440, 단위: %)



〈표 IV-111〉 향후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향후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도					종합결과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기대함	보통	기대하 지 않음	
전체	(2,440)	0.4	4.5	25.2	52.7	17.3	4.9	25.2	70.0	
성별	남성	(1,214)	0.4	4.5	25.9	51.7	17.5	4.9	25.9	69.2
	여성	(1,226)	0.3	4.5	24.5	53.7	17.0	4.8	24.5	70.7
연령	20대	(398)	0.5	2.5	31.2	46.5	19.3	3.0	31.2	65.8
	30대	(428)	0.2	6.1	25.2	51.2	17.3	6.3	25.2	68.5
	40대	(502)	0.6	4.2	23.1	55.8	16.3	4.8	23.1	72.1
	50대	(493)	0.4	4.3	23.7	54.4	17.2	4.7	23.7	71.6
	60대 이상	(619)	0.2	5.2	24.1	54.0	16.6	5.3	24.1	70.6
지역 규모	대도시	(1,103)	0.2	4.9	25.5	51.3	18.1	5.1	25.5	69.4
	중·소도시	(1,174)	0.5	4.6	24.4	53.4	17.0	5.1	24.4	70.4
	군지역	(163)	0.6	1.2	28.2	57.1	12.9	1.8	28.2	69.9
직업	화이트칼라	(774)	0.5	5.3	27.3	51.7	15.2	5.8	27.3	66.9
	블루칼라	(632)	0.3	3.0	24.7	54.4	17.6	3.3	24.7	72.0
	농/임/어업	(38)	0.0	2.6	26.3	60.5	10.5	2.6	26.3	71.1
	자영업	(442)	0.2	3.8	24.0	53.4	18.6	4.1	24.0	71.9
	주부	(449)	0.2	5.3	22.9	55.0	16.5	5.6	22.9	71.5
	은퇴자	(26)	0.0	15.4	15.4	34.6	34.6	15.4	15.4	69.2
	학생	(42)	0.0	0.0	26.2	38.1	35.7	0.0	26.2	73.8
	무직/기타	(37)	2.7	10.8	35.1	29.7	21.6	13.5	35.1	51.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0.9	7.0	27.2	47.9	16.9	8.0	27.2	64.8
	고졸	(1,038)	0.3	4.4	23.1	55.4	16.8	4.7	23.1	72.2
	대재 이상	(1,167)	0.3	4.0	26.7	51.0	18.0	4.3	26.7	69.0
	모름/무응답	(22)	4.5	9.1	18.2	63.6	4.5	13.6	18.2	68.2
가구 소득	저소득	(468)	0.2	4.9	26.3	49.8	18.8	5.1	26.3	68.6
	중소득	(1,383)	0.3	5.4	24.4	52.6	17.3	5.7	24.4	69.9
	고소득	(589)	0.7	2.0	26.1	55.2	16.0	2.7	26.1	71.1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7.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

가. 개인연금

1) 개인연금 가입 여부

-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22.7%로 ‘비가입’(7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V-101〉 개인연금 가입 여부

(N=2,440, 단위: %)



- 개인연금 가입률은 50대(29.8%), 화이트칼라(2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12〉 개인연금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비가입
전체		(2,440)	22.7	77.3
성별	남성	(1,214)	23.4	76.6
	여성	(1,226)	22.1	77.9
연령	20대	(398)	21.9	78.1
	30대	(428)	21.0	79.0
	40대	(502)	28.3	71.7
	50대	(493)	29.8	70.2
	60대 이상	(619)	14.4	85.6
지역규모	대도시	(1,103)	22.3	77.7
	중·소도시	(1,174)	22.7	77.3
	군지역	(163)	26.4	73.6
직업	화이트칼라	(774)	28.9	71.1
	블루칼라	(632)	17.6	82.4
	농/임/어업	(38)	21.1	78.9
	자영업	(442)	24.4	75.6
	주부	(449)	18.5	81.5
	은퇴자	(26)	23.1	76.9
	학생	(42)	23.8	76.2
	무직/기타	(37)	13.5	8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9.9	90.1
	고졸	(1,038)	20.9	79.1
	대재 이상	(1,167)	26.7	73.3
	모름/무응답	(22)	22.7	77.3
가구 소득	저소득	(468)	7.9	92.1
	중소득	(1,383)	21.5	78.5
	고소득	(589)	37.4	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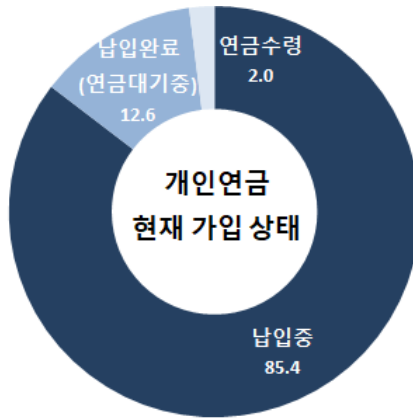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는 납입중(8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입완료(연금대기중)'(12.6%), '연금수령'(2.0%)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02〉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N=555, 단위: %)



- 개인연금 납입중 상태는 30대(96.7%)와 40대(93.0%), 화이트칼라(9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13〉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중	가입완료 (연금 대기중)	연금수령
전체		(555)	85.4	12.6	2.0
성별	남성	(284)	85.6	12.0	2.5
	여성	(271)	85.2	13.3	1.5
연령	20대	(87)	89.7	10.3	0.0
	30대	(90)	96.7	3.3	0.0
	40대	(142)	93.0	6.3	0.7
	50대	(147)	85.0	14.3	0.7
	60대 이상	(89)	58.4	31.5	10.1
지역규모	대도시	(246)	85.8	13.0	1.2
	중·소도시	(266)	83.8	13.9	2.3
	군지역	(43)	93.0	2.3	4.7
직업	화이트칼라	(224)	90.6	8.0	1.3
	블루칼라	(111)	85.6	13.5	0.9
	농/임/어업	(8)	100.0	0.0	0.0
	자영업	(108)	81.5	14.8	3.7
	주부	(83)	78.3	19.3	2.4
	은퇴자	(6)	16.7	66.7	16.7
	학생	(10)	90.0	10.0	0.0
교육 수준	무직/기타	(5)	100.0	0.0	0.0
	중졸 이하	(21)	42.9	33.3	23.8
	고졸	(217)	83.9	14.3	1.8
	대재 이상	(312)	89.1	10.3	0.6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5)	100.0	0.0	0.0
	저소득	(37)	73.0	24.3	2.7
	중소득	(298)	87.6	10.1	2.3
	고소득	(220)	84.5	14.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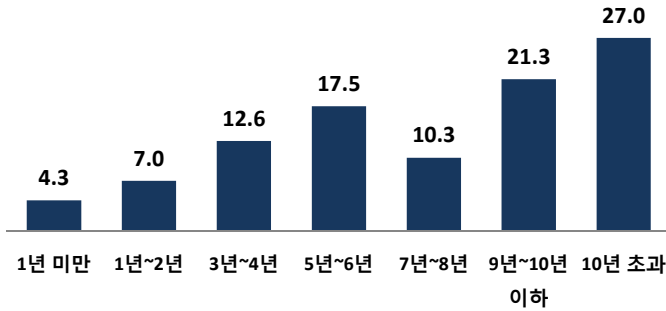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 개인연금의 현재 가입 기간은 '10년 초과'가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9~10년'(21.3%), '5~6년'(17.5%), '3~4년'(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03〉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N=555, 단위: %)



〈표 IV-114〉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이하	10년 초과
전체		(555)	4.3	7.0	12.6	17.5	10.3	21.3	27.0
성별	남성	(284)	4.9	7.7	13.7	18.3	9.9	18.3	27.1
	여성	(271)	3.7	6.3	11.4	16.6	10.7	24.4	26.9
연령	20대	(87)	2.3	13.8	18.4	16.1	8.0	21.8	19.5
	30대	(90)	5.6	15.6	24.4	27.8	3.3	8.9	14.4
	40대	(142)	6.3	3.5	8.5	26.1	14.8	22.5	18.3
	50대	(147)	3.4	3.4	10.9	13.6	13.6	22.4	32.7
	60대 이상	(89)	3.4	3.4	4.5	1.1	6.7	29.2	51.7
지역규모	대도시	(246)	5.7	9.3	13.0	17.1	8.5	19.1	27.2
	중·소도시	(266)	3.0	5.3	12.4	18.8	12.0	23.3	25.2
	군지역	(43)	4.7	4.7	11.6	11.6	9.3	20.9	37.2
직업	화이트칼라	(224)	4.0	6.7	17.0	21.0	9.4	20.5	21.4
	블루칼라	(111)	7.2	9.0	12.6	20.7	3.6	16.2	30.6
	농/임/어업	(8)	0.0	0.0	0.0	0.0	0.0	50.0	50.0
	자영업	(108)	3.7	11.1	10.2	12.0	19.4	17.6	25.9
	주부	(83)	3.6	2.4	6.0	15.7	10.8	30.1	31.3
	은퇴자	(6)	0.0	0.0	16.7	0.0	0.0	16.7	66.7
	학생	(10)	0.0	0.0	10.0	0.0	20.0	20.0	50.0
교육 수준	무직/기타	(5)	0.0	0.0	0.0	20.0	0.0	60.0	20.0
	중졸 이하	(21)	14.3	4.8	9.5	9.5	4.8	23.8	33.3
	고졸	(217)	4.6	4.6	5.5	14.7	13.4	23.5	33.6
	대재 이상	(312)	3.2	8.7	17.9	20.2	8.7	18.9	22.4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5)	20.0	20.0	0.0	0.0	0.0	60.0	0.0
	저소득	(37)	5.4	2.7	10.8	16.2	5.4	24.3	35.1
	중소득	(298)	4.0	6.7	14.4	17.4	10.4	21.1	25.8
	고소득	(220)	4.5	8.2	10.5	17.7	10.9	20.9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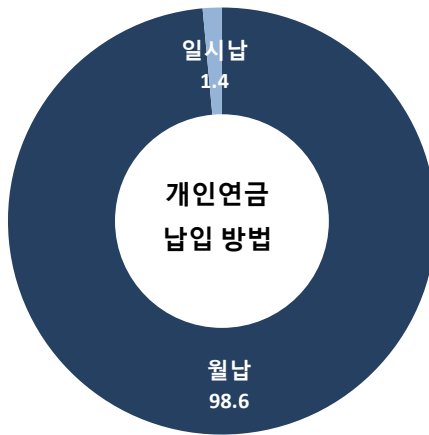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개인연금 납입 방법

- 개인연금의 납입 방법으로는 월납이 98.6%로 '일시납'(1.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IV-104〉 개인연금 납입 방법

(N=555, 단위: %)



〈표 IV-115〉 개인연금 납입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월납	일시납
전체		(555)	98.6	1.4
성별	남성	(284)	97.9	2.1
	여성	(271)	99.3	0.7
연령	20대	(87)	98.9	1.1
	30대	(90)	97.8	2.2
	40대	(142)	100.0	0.0
	50대	(147)	98.0	2.0
	60대 이상	(89)	97.8	2.2
지역규모	대도시	(246)	99.2	0.8
	중·소도시	(266)	97.7	2.3
	군지역	(43)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24)	99.1	0.9
	블루칼라	(111)	98.2	1.8
	농/임/어업	(8)	100.0	0.0
	자영업	(108)	98.1	1.9
	주부	(83)	100.0	0.0
	은퇴자	(6)	83.3	16.7
	학생	(10)	90.0	10.0
	무직/기타	(5)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90.5	9.5
	고졸	(217)	99.5	0.5
	대재 이상	(312)	98.4	1.6
	모름/무응답	(5)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7)	97.3	2.7
	중소득	(298)	98.3	1.7
	고소득	(220)	99.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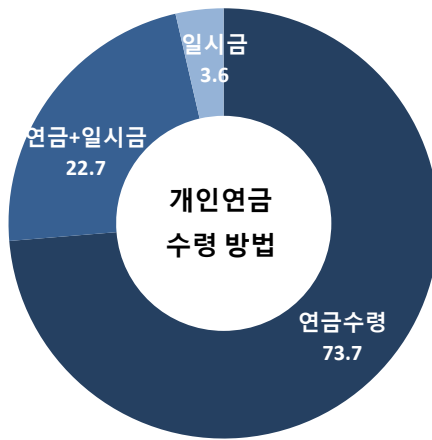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개인연금 수령 방법

- 개인연금의 수령 방법은 '연금수령'(73.7%), '연금+일시금'(22.7%), '일시금'(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05〉 개인연금 수령 방법

(N=555, 단위: %)



〈표 IV-116〉 개인연금 수령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수령	연금+일시금	일시금
전체		(555)	73.7	22.7	3.6
성별	남성	(284)	74.6	22.2	3.2
	여성	(271)	72.7	23.2	4.1
연령	20대	(87)	75.9	23.0	1.1
	30대	(90)	66.7	26.7	6.7
	40대	(142)	70.4	26.1	3.5
	50대	(147)	80.3	16.3	3.4
	60대 이상	(89)	73.0	23.6	3.4
지역규모	대도시	(246)	73.6	22.4	4.1
	중·소도시	(266)	75.9	21.1	3.0
	군지역	(43)	60.5	34.9	4.7
직업	화이트칼라	(224)	73.2	23.7	3.1
	블루칼라	(111)	64.9	30.6	4.5
	농/임/어업	(8)	37.5	62.5	0.0
	자영업	(108)	80.6	13.9	5.6
	주부	(83)	80.7	16.9	2.4
	은퇴자	(6)	66.7	33.3	0.0
	학생	(10)	80.0	20.0	0.0
	무직/기타	(5)	80.0	2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57.1	19.0	23.8
	고졸	(217)	74.2	22.6	3.2
	대재 이상	(312)	74.4	23.1	2.6
	모름/무응답	(5)	80.0	2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7)	56.8	37.8	5.4
	중소득	(298)	73.2	23.5	3.4
	고소득	(220)	77.3	19.1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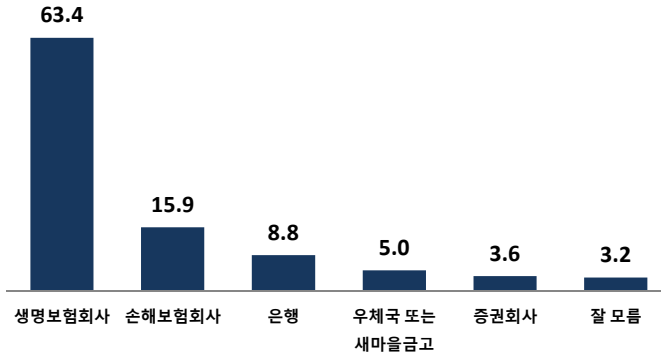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생명보험회사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106〉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N=555, 단위: %)



〈표 IV-117〉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생명 보험 회사	손해 보험 회사	은행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증권 회사	잘 모름
전체		(555)	63.4	15.9	8.8	5.0	3.6	3.2
성별	남성	(284)	63.0	16.2	9.2	5.3	4.2	2.1
	여성	(271)	63.8	15.5	8.5	4.8	3.0	4.4
연령	20대	(87)	66.7	8.0	13.8	8.0	0.0	3.4
	30대	(90)	65.6	17.8	7.8	2.2	5.6	1.1
	40대	(142)	64.8	14.8	11.3	4.9	2.8	1.4
	50대	(147)	58.5	19.7	6.1	4.1	4.8	6.8
	60대 이상	(89)	64.0	16.9	5.6	6.7	4.5	2.2
지역규모	대도시	(246)	68.3	12.6	8.5	3.7	4.1	2.8
	중·소도시	(266)	60.5	19.9	9.8	3.8	2.6	3.4
	군지역	(43)	53.5	9.3	4.7	20.9	7.0	4.7
직업	화이트칼라	(224)	67.0	10.7	8.9	5.8	4.0	3.6
	블루칼라	(111)	47.7	21.6	14.4	8.1	4.5	3.6
	농/임/어업	(8)	62.5	25.0	0.0	12.5	0.0	0.0
	자영업	(108)	68.5	17.6	4.6	3.7	2.8	2.8
	주부	(83)	68.7	18.1	8.4	1.2	2.4	1.2
	은퇴자	(6)	83.3	0.0	0.0	0.0	16.7	0.0
	학생	(10)	60.0	30.0	0.0	0.0	0.0	10.0
무직/기타	(5)	40.0	20.0	20.0	0.0	0.0	2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52.4	19.0	9.5	0.0	14.3	4.8
	고졸	(217)	61.3	20.7	7.8	5.5	2.8	1.8
	대재 이상	(312)	66.0	12.2	9.6	4.8	3.2	4.2
	모름/무응답	(5)	40.0	20.0	0.0	20.0	2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7)	56.8	16.2	13.5	8.1	5.4	0.0
	중소득	(298)	61.1	19.5	7.7	4.7	3.7	3.4
	고소득	(220)	67.7	10.9	9.5	5.0	3.2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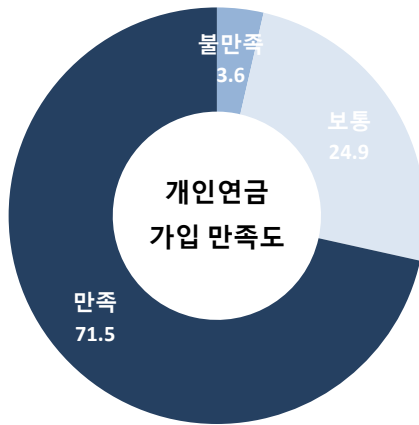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7)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개인연금의 가입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1.5%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인연금 상품에 만족하고 있었음

〈그림 IV-107〉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N=555, 단위: %)



○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는 평균 3.7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표 IV-118〉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전체		(555)	0.2	3.4	24.9	63.6	7.9	3.76
성별	남성	(284)	0.0	4.9	21.1	67.6	6.3	3.75
	여성	(271)	0.4	1.8	28.8	59.4	9.6	3.76
연령	20대	(87)	0.0	1.1	29.9	67.8	1.1	3.69
	30대	(90)	0.0	3.3	25.6	64.4	6.7	3.74
	40대	(142)	0.0	2.8	24.6	64.1	8.5	3.78
	50대	(147)	0.7	4.8	21.8	63.9	8.8	3.76
	60대 이상	(89)	0.0	4.5	24.7	57.3	13.5	3.80
지역규모	대도시	(246)	0.0	2.0	24.4	64.2	9.3	3.81
	중·소도시	(266)	0.4	4.9	25.9	62.0	6.8	3.70
	군지역	(43)	0.0	2.3	20.9	69.8	7.0	3.81
직업	화이트칼라	(224)	0.4	4.9	22.8	67.9	4.0	3.70
	블루칼라	(111)	0.0	2.7	31.5	59.5	6.3	3.69
	농/임/어업	(8)	0.0	0.0	37.5	62.5	0.0	3.63
	자영업	(108)	0.0	1.9	17.6	64.8	15.7	3.94
	주부	(83)	0.0	1.2	25.3	61.4	12.0	3.84
	은퇴자	(6)	0.0	16.7	16.7	50.0	16.7	3.67
	학생	(10)	0.0	10.0	40.0	50.0	0.0	3.40
	무직/기타	(5)	0.0	0.0	80.0	20.0	0.0	3.2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0.0	23.8	14.3	47.6	14.3	3.52
	고졸	(217)	0.0	1.4	28.6	58.5	11.5	3.80
	대재 이상	(312)	0.0	3.5	23.4	67.9	5.1	3.75
	모름/무응답	(5)	20.0	0.0	0.0	80.0	0.0	3.40
가구 소득	저소득	(37)	0.0	8.1	37.8	40.5	13.5	3.59
	중소득	(298)	0.3	2.3	24.8	63.4	9.1	3.79
	고소득	(220)	0.0	4.1	22.7	67.7	5.5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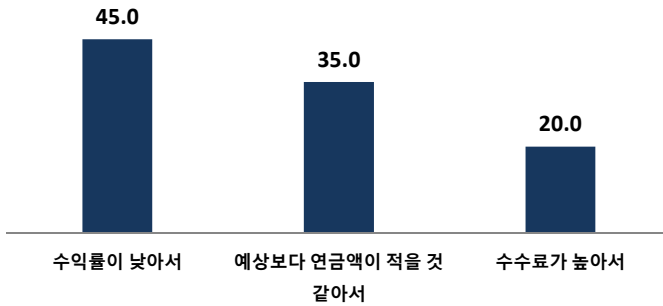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8)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로는 '수익률이 낮아서'(45.0%),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35.0%), '수수료가 높아서'(20.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08〉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N=20, 단위: %)



〈표 IV-119〉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수익률이 낮아서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수수료가 높아서
전체		(20)	45.0	35.0	20.0
성별	남성	(14)	42.9	35.7	21.4
	여성	(6)	50.0	33.3	16.7
연령	20대	(1)	0.0	100.0	0.0
	30대	(3)	66.7	0.0	33.3
	40대	(4)	50.0	25.0	25.0
	50대	(8)	50.0	37.5	12.5
	60대 이상	(4)	25.0	50.0	25.0
지역규모	대도시	(5)	80.0	20.0	0.0
	중·소도시	(14)	35.7	42.9	21.4
	군지역	(1)	0.0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12)	50.0	33.3	16.7
	블루칼라	(3)	33.3	33.3	33.3
	자영업	(2)	50.0	0.0	50.0
	주부	(1)	0.0	100.0	0.0
	은퇴자	(1)	100.0	0.0	0.0
	학생	(1)	0.0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40.0	20.0	40.0
	고졸	(3)	33.3	33.3	33.3
	대재 이상	(11)	45.5	45.5	9.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	66.7	33.3	0.0
	중소득	(8)	12.5	50.0	37.5
	고소득	(9)	66.7	22.2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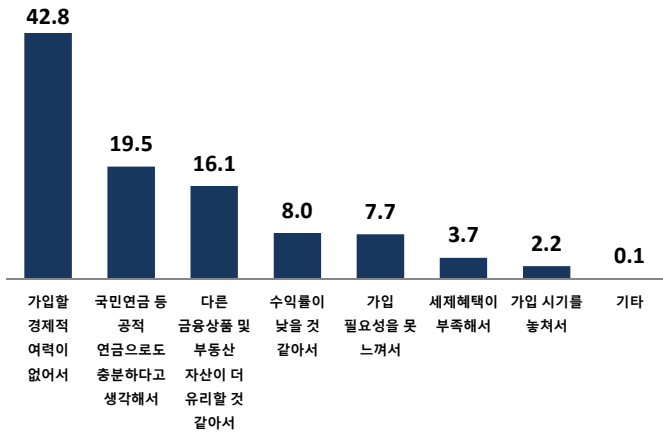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9)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42.8%),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19.5%), ‘다른 금융상품 및 부동산 자산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09〉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N=1,885, 단위: %)



〈표 IV-120〉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금융상품 및 부동산 자산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수익률이 낮을 것 같아서	가입 필요성을 못 느껴서	세제 혜택이 부족해서	가입 시기를 놓쳐서	기타	
전체	(1,885)	42.8	19.5	16.1	8.0	7.7	3.7	2.2	0.1	
성별	남성	(930)	40.6	21.5	16.5	8.9	6.6	4.2	1.6	0.1
	여성	(955)	44.8	17.6	15.8	7.0	8.9	3.1	2.7	0.0
연령	20대	(311)	51.8	16.4	11.6	3.9	11.9	2.9	1.3	0.3
	30대	(338)	48.8	17.8	12.7	10.1	6.8	3.0	0.9	0.0
	40대	(360)	35.0	23.1	21.1	9.4	6.9	4.2	0.3	0.0
	50대	(346)	36.4	19.4	21.7	8.1	7.8	4.9	1.7	0.0
	60대 이상	(530)	43.0	20.2	14.0	7.9	6.4	3.4	5.1	0.0
지역 규모	대도시	(857)	42.6	18.7	17.2	8.8	6.8	4.2	1.8	0.1
	중·소도시	(908)	42.8	21.1	15.0	7.7	7.4	3.6	2.3	0.0
	군지역	(120)	43.3	13.3	17.5	4.2	17.5	0.0	4.2	0.0
직업	화이트칼라	(550)	36.9	24.2	18.5	8.5	7.8	3.1	0.7	0.2
	블루칼라	(521)	48.6	15.0	15.2	8.3	6.5	4.2	2.3	0.0
	농/임/어업	(30)	50.0	13.3	3.3	6.7	23.3	0.0	3.3	0.0
	자영업	(334)	34.1	23.4	16.5	9.0	8.7	5.1	3.3	0.0
	주부	(366)	48.6	16.1	16.4	6.8	6.3	3.3	2.5	0.0
	은퇴자	(20)	15.0	50.0	20.0	5.0	0.0	5.0	5.0	0.0
	학생	(32)	59.4	15.6	6.3	3.1	15.6	0.0	0.0	0.0
무직/기타	(32)	65.6	3.1	3.1	3.1	15.6	0.0	9.4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2)	54.2	12.5	11.5	4.7	4.7	2.6	9.9	0.0
	고졸	(821)	43.2	19.6	16.9	8.0	7.6	2.9	1.7	0.0
	대재 이상	(855)	39.8	21.1	16.5	8.4	8.7	4.6	0.9	0.1
	모름/무응답	(17)	41.2	17.6	11.8	17.6	5.9	5.9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31)	53.1	14.8	10.2	4.2	9.0	3.2	5.3	0.0
	중소득	(1,085)	42.7	19.2	17.2	9.5	6.4	3.6	1.4	0.1
	고소득	(369)	30.9	26.0	19.8	7.9	10.3	4.3	0.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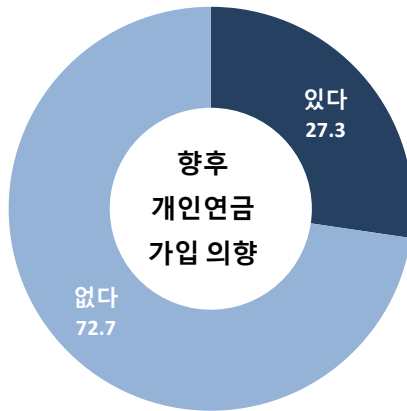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10)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을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7.3%로 '없다'(72.7%)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IV-110〉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N=1,885, 단위: %)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있음'은 남성(29.6%), 30대(48.2%) 그리고 화이트칼라(3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21〉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885)	27.3	72.7
성별	남성	(930)	29.6	70.4
	여성	(955)	25.1	74.9
연령	20대	(311)	46.9	53.1
	30대	(338)	48.2	51.8
	40대	(360)	30.6	69.4
	50대	(346)	17.9	82.1
	60대 이상	(530)	6.4	93.6
지역규모	대도시	(857)	31.2	68.8
	중·소도시	(908)	25.0	75.0
	군지역	(120)	17.5	82.5
직업	화이트칼라	(550)	39.6	60.4
	블루칼라	(521)	30.3	69.7
	농/임/어업	(30)	3.3	96.7
	자영업	(334)	16.5	83.5
	주부	(366)	18.3	81.7
	은퇴자	(20)	5.0	95.0
	학생	(32)	37.5	62.5
	무직/기타	(32)	9.4	90.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2)	5.2	94.8
	고졸	(821)	19.4	80.6
	대재 이상	(855)	40.0	60.0
	모름/무응답	(17)	23.5	76.5
가구 소득	저소득	(431)	16.0	84.0
	중소득	(1,085)	30.2	69.8
	고소득	(369)	32.0	68.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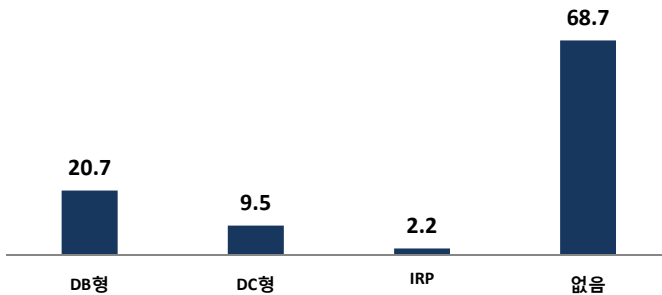
8.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68.7%로 가장 많았고, ‘DB형’(확정급여형, 20.7%), DC형(확정기여형, 9.5%), IRP(개인형 퇴직연금, 2.2%)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11〉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N=1,915, 단위: %)



- 개인연금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73.2%), 60대 이상(89.3%), 군지역(86.0%), 농/임/어업(100.0%) 및 자영업(96.2%), 저소득(8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22〉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DB형	DC형	IRP	없음
전체		(1,915)	20.7	9.5	2.2	68.7
성별	남성	(1,166)	24.0	9.4	2.2	65.8
	여성	(749)	15.6	9.6	2.3	73.2
연령	20대	(348)	27.3	12.4	4.0	58.0
	30대	(351)	27.9	16.8	1.4	55.3
	40대	(398)	25.6	10.3	2.5	63.1
	50대	(387)	17.8	7.2	2.3	73.1
	60대 이상	(431)	7.7	2.6	1.2	89.3
지역규모	대도시	(867)	23.3	11.9	2.9	63.0
	중·소도시	(912)	19.8	8.2	1.8	71.5
	군지역	(136)	10.3	2.9	1.5	86.0
직업	화이트칼라	(774)	34.2	15.6	3.7	48.1
	블루칼라	(632)	18.5	8.7	1.4	72.3
	농/임/어업	(38)	0.0	0.0	0.0	100.0
	자영업	(442)	2.0	1.1	0.9	96.2
	은퇴자	(26)	23.1	3.8	3.8	76.9
	무직/기타	(3)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9)	5.0	2.9	2.2	93.5
	고졸	(740)	10.8	5.9	1.2	82.7
	대재 이상	(1,017)	30.2	13.1	2.9	54.9
	모름/무응답	(19)	15.8	5.3	5.3	78.9
가구 소득	저소득	(349)	12.0	7.7	0.9	80.2
	중소득	(1,059)	21.0	9.4	2.1	68.7
	고소득	(507)	26.2	10.8	3.6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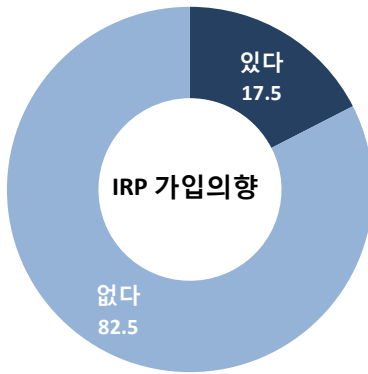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의향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7.5%로 '가입 의향이 없다'(82.5%)는 응답의 4분의 1 수준이었음

〈그림 IV-112〉 IRP 가입 의향

(N=1,872, 단위: %)



○ 20대(28.4%), 화이트칼라(25.4%)에서 IRP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23〉 IRP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872)	17.5	82.5
성별	남성	(1,140)	17.3	82.7
	여성	(732)	17.8	82.2
연령	20대	(334)	28.4	71.6
	30대	(346)	25.7	74.3
	40대	(388)	17.3	82.7
	50대	(378)	15.1	84.9
	60대 이상	(426)	4.5	95.5
지역규모	대도시	(842)	18.1	81.9
	중·소도시	(896)	18.2	81.8
	군지역	(134)	9.0	91.0
직업	화이트칼라	(745)	25.4	74.6
	블루칼라	(623)	16.2	83.8
	농/임/어업	(38)	0.0	100.0
	자영업	(438)	8.0	92.0
	은퇴자	(25)	4.0	96.0
	무직/기타	(3)	33.3	6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6)	2.2	97.8
	고졸	(731)	9.7	90.3
	대재 이상	(987)	25.2	74.8
	모름/무응답	(18)	22.2	77.8
가구 소득	저소득	(346)	11.0	89.0
	중소득	(1,037)	17.5	82.5
	고소득	(489)	22.1	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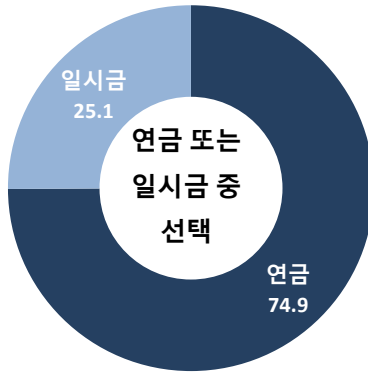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은퇴시점이 다가왔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살펴본 결과, '연금'이라는 응답이 74.9%로 '일시금'(25.1%)이라는 응답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113〉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N=1,915, 단위: %)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24〉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	일시금
전체		(1,915)	74.9	25.1
성별	남성	(1,166)	73.8	26.2
	여성	(749)	76.6	23.4
연령	20대	(348)	73.3	26.7
	30대	(351)	79.8	20.2
	40대	(398)	77.6	22.4
	50대	(387)	74.9	25.1
	60대 이상	(431)	69.8	30.2
지역규모	대도시	(867)	74.2	25.8
	중·소도시	(912)	75.3	24.7
	군지역	(136)	77.2	22.8
직업	화이트칼라	(774)	77.3	22.7
	블루칼라	(632)	74.1	25.9
	농/임/어업	(38)	63.2	36.8
	자영업	(442)	73.5	26.5
	은퇴자	(26)	69.2	30.8
	무직/기타	(3)	66.7	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9)	64.0	36.0
	고졸	(740)	73.4	26.6
	대재 이상	(1,017)	77.5	22.5
	모름/무응답	(19)	78.9	21.1
가구 소득	저소득	(349)	67.3	32.7
	중소득	(1,059)	76.1	23.9
	고소득	(507)	77.7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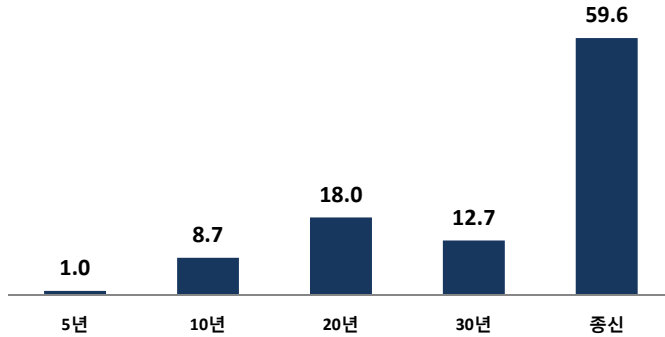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라.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을 살펴본 결과, '종신'이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년'(18.0%), '30년'(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14〉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N=1,435, 단위: %)



〈표 IV-125〉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년	10년	20년	30년	종신
전체		(1,435)	1.0	8.7	18.0	12.7	59.6
성별	남성	(861)	1.0	8.7	16.7	12.5	61.0
	여성	(574)	1.0	8.7	19.9	12.9	57.5
연령	20대	(255)	1.2	7.1	16.5	16.1	59.2
	30대	(280)	0.4	9.6	15.7	17.1	57.1
	40대	(309)	0.6	7.8	17.5	11.3	62.8
	50대	(290)	1.7	9.7	18.3	10.0	60.3
	60대 이상	(301)	1.3	9.3	21.6	9.6	58.1
지역규모	대도시	(643)	1.9	5.9	17.0	14.9	60.3
	중·소도시	(687)	0.4	12.4	20.5	11.4	55.3
	군지역	(105)	0.0	1.9	7.6	7.6	82.9
직업	화이트칼라	(598)	0.5	8.7	21.4	15.9	53.5
	블루칼라	(468)	0.9	8.5	12.6	10.5	67.5
	농/임/어업	(24)	0.0	8.3	12.5	16.7	62.5
	자영업	(325)	2.5	9.5	19.1	9.8	59.1
	은퇴자	(18)	0.0	0.0	33.3	11.1	55.6
	무직/기타	(2)	0.0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9)	1.1	7.9	14.6	7.9	68.5
	고졸	(543)	1.8	8.7	19.2	12.7	57.6
	대재 이상	(788)	0.5	8.6	17.4	13.2	60.3
	모름/무응답	(15)	0.0	20.0	26.7	13.3	40.0
가구 소득	저소득	(235)	1.3	9.4	20.9	14.9	53.6
	중소득	(806)	1.5	9.6	18.5	11.4	59.1
	고소득	(394)	0.0	6.6	15.2	14.0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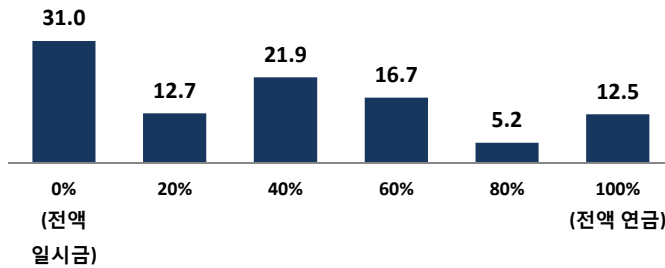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마. 퇴직연금 연금+일시금으로 수령 시 선호하는 연금 비중

- 퇴직연금을 연금과 일시금 혼합하여 수령 시 선호하는 연금비율을 살펴 본 결과, '0%(전액 일시금)'이 31.0%로 가장 많았고, '40%(21.9%)', '60%(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15〉 퇴직연금 연금+일시금으로 수령 시 선호하는 연금 비중

(N=480, 단위: %)



- '0%(전액 일시금)'는 군지역(61.3%)에서 특히 높았음

〈표 IV-126〉 퇴직연금 연금+일시금으로 수령 시 선호하는 연금 비중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 (전액 일시금)	20%	40%	60%	80%	100% (전액 연금)
전체		(480)	31.0	12.7	21.9	16.7	5.2	12.5
성별	남성	(305)	31.8	12.8	21.3	15.4	5.9	12.8
	여성	(175)	29.7	12.6	22.9	18.9	4.0	12.0
연령	20대	(93)	29.0	18.3	19.4	14.0	5.4	14.0
	30대	(71)	21.1	14.1	25.4	21.1	1.4	16.9
	40대	(89)	31.5	11.2	25.8	20.2	5.6	5.6
	50대	(97)	35.1	14.4	22.7	13.4	4.1	10.3
	60대 이상	(130)	34.6	7.7	18.5	16.2	7.7	15.4
지역규모	대도시	(224)	28.6	10.7	19.2	21.4	7.6	12.5
	중·소도시	(225)	29.3	16.4	25.8	13.3	2.7	12.4
	군지역	(31)	61.3	0.0	12.9	6.5	6.5	12.9
직업	화이트칼라	(176)	23.3	17.0	25.6	17.6	4.0	12.5
	블루칼라	(164)	32.3	11.0	22.6	15.2	7.3	11.6
	자영업	(117)	34.2	10.3	17.9	20.5	3.4	13.7
	은퇴자	(8)	62.5	12.5	25.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0)	48.0	8.0	18.0	8.0	6.0	12.0
	고졸	(197)	28.4	12.2	22.3	18.3	5.1	13.7
	대재 이상	(229)	29.7	14.0	21.8	17.5	5.2	11.8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14)	32.5	8.8	21.1	18.4	6.1	13.2
	중소득	(253)	30.0	11.9	22.5	17.8	4.7	13.0
	고소득	(113)	31.9	18.6	21.2	12.4	5.3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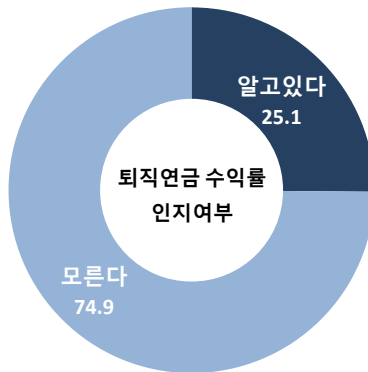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바. 퇴직연금 수익률 인지 여부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5.1%로 '모른다'(74.9%) 응답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 IV-116〉 퇴직연금 수익률 인지 여부

(N=183, 단위: %)



〈표 IV-127〉 퇴직연금 수익률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183)	25.1	74.9
성별	남성	(111)	21.6	78.4
	여성	(72)	30.6	69.4
연령	20대	(43)	16.3	83.7
	30대	(59)	28.8	71.2
	40대	(41)	29.3	70.7
	50대	(29)	31.0	69.0
	60대 이상	(11)	9.1	90.9
지역규모	대도시	(103)	30.1	69.9
	중·소도시	(76)	19.7	80.3
	군지역	(4)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121)	33.9	66.1
	블루칼라	(55)	3.6	96.4
	농/임/어업	(6)	50.0	50.0
	자영업	(1)	0.0	100.0
	은퇴자	(4)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5)	22.2	77.8
	고졸	(133)	27.1	72.9
	대재 이상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27)	11.1	88.9
	중소득	(100)	20.0	80.0
	고소득	(56)	41.1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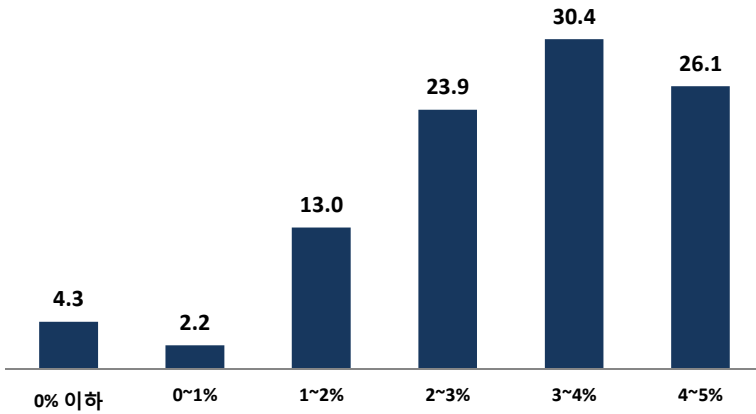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사. 지난 1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

- 지난 1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3~4%'가 30.4%로 가장 많았고, '4~5%'(26.1%), '2~3%'(23.9%), '1~2%'(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17〉 지난 1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

(N=46, 단위: %)



〈표 IV-128〉 지난 1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 이하	0~1%	1~2%	2~3%	3~4%	4~5%
전체		(46)	4.3	2.2	13.0	23.9	30.4	26.1
성별	남성	(24)	4.2	4.2	12.5	12.5	37.5	29.2
	여성	(22)	4.5	0.0	13.6	36.4	22.7	22.7
연령	20대	(7)	0.0	0.0	0.0	42.9	42.9	14.3
	30대	(17)	5.9	5.9	5.9	23.5	23.5	35.3
	40대	(12)	0.0	0.0	16.7	25.0	41.7	16.7
	50대	(9)	11.1	0.0	22.2	11.1	22.2	33.3
	60대 이상	(1)	0.0	0.0	100.0	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31)	3.2	0.0	9.7	25.8	32.3	29.0
	중·소도시	(15)	6.7	6.7	20.0	20.0	26.7	20.0
직업	화이트칼라	(41)	4.9	2.4	9.8	22.0	34.1	26.8
	블루칼라	(2)	0.0	0.0	0.0	50.0	0.0	50.0
	자영업	(3)	0.0	0.0	66.7	33.3	0.0	0.0
교육 수준	고졸	(10)	0.0	0.0	30.0	10.0	10.0	50.0
	대재 이상	(36)	5.6	2.8	8.3	27.8	36.1	19.4
가구 소득	저소득	(3)	0.0	0.0	33.3	33.3	0.0	33.3
	중소득	(20)	5.0	5.0	5.0	25.0	30.0	30.0
	고소득	(23)	4.3	0.0	17.4	21.7	34.8	21.7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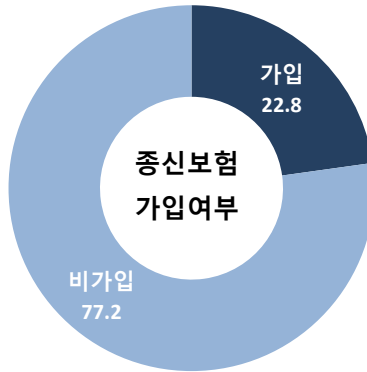
9.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가. 종신보험 가입 여부

- 종신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입'한 응답자는 22.8%로 나타남

〈그림 IV-118〉 종신보험 가입 여부

(N=2,440, 단위: %)



- 종신보험 가입률은 남성(27.9%), 50대(32.0%), 화이트칼라(31.1%)와 자영업(31.0%), 대재 이상(2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29〉 종신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비가입
전체		(2,440)	22.8	77.2
성별	남성	(1,214)	27.9	72.1
	여성	(1,226)	17.7	82.3
연령	20대	(398)	11.3	88.7
	30대	(428)	23.1	76.9
	40대	(502)	30.5	69.5
	50대	(493)	32.0	68.0
	60대 이상	(619)	16.3	83.7
지역규모	대도시	(1,103)	23.1	76.9
	중·소도시	(1,174)	22.0	78.0
	군지역	(163)	26.4	73.6
직업	화이트칼라	(774)	31.1	68.9
	블루칼라	(632)	14.9	85.1
	농/임/어업	(38)	5.3	94.7
	자영업	(442)	31.0	69.0
	주부	(449)	15.4	84.6
	은퇴자	(26)	23.1	76.9
	학생	(42)	4.8	95.2
	무직/기타	(37)	13.5	8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8.9	91.1
	고졸	(1,038)	21.1	78.9
	대재 이상	(1,167)	26.7	73.3
	모름/무응답	(22)	27.3	72.7
가구 소득	저소득	(468)	8.8	91.2
	중소득	(1,383)	23.6	76.4
	고소득	(589)	32.1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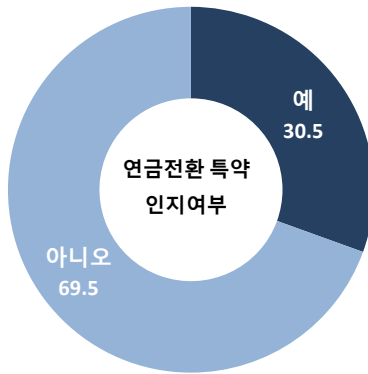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인지도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예”라는 응답이 30.5%로 나타남

〈그림 IV-119〉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인지도

(N=2,440, 단위: %)



- 남성(32.8%), 40대(39.6%), 화이트칼라(39.9%)에서 연금 전환 특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30〉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40)	30.5	69.5
성별	남성	(1,214)	32.8	67.2
	여성	(1,226)	28.3	71.7
연령	20대	(398)	20.4	79.6
	30대	(428)	32.0	68.0
	40대	(502)	39.6	60.4
	50대	(493)	37.1	62.9
	60대 이상	(619)	23.4	76.6
지역규모	대도시	(1,103)	30.3	69.7
	중·소도시	(1,174)	31.2	68.8
	군지역	(163)	27.6	72.4
직업	화이트칼라	(774)	39.9	60.1
	블루칼라	(632)	25.5	74.5
	농/임/어업	(38)	13.2	86.8
	자영업	(442)	29.9	70.1
	주부	(449)	26.1	73.9
	은퇴자	(26)	23.1	76.9
	학생	(42)	9.5	90.5
	무직/기타	(37)	29.7	70.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17.8	82.2
	고졸	(1,038)	29.5	70.5
	대재 이상	(1,167)	33.7	66.3
	모름/무응답	(22)	36.4	63.6
가구 소득	저소득	(468)	17.9	82.1
	중소득	(1,383)	31.3	68.7
	고소득	(589)	38.7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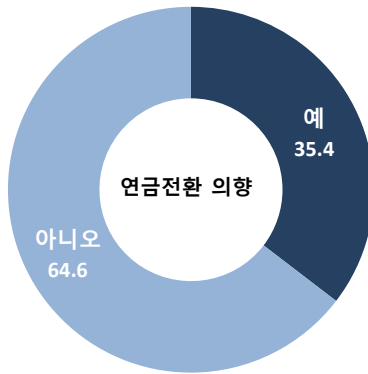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예'라는 응답이 35.4%로 '아니오'(64.6%)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IV-120〉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N=2,440, 단위: %)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의향은 50대(42.2%), 자영업(4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31〉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40)	35.4	64.6
성별	남성	(1,214)	35.7	64.3
	여성	(1,226)	35.1	64.9
연령	20대	(398)	31.7	68.3
	30대	(428)	36.0	64.0
	40대	(502)	39.4	60.6
	50대	(493)	42.2	57.8
	60대 이상	(619)	28.8	71.2
지역규모	대도시	(1,103)	35.3	64.7
	중·소도시	(1,174)	36.4	63.6
	군지역	(163)	29.4	70.6
직업	화이트칼라	(774)	38.8	61.2
	블루칼라	(632)	29.6	70.4
	농/임/어업	(38)	15.8	84.2
	자영업	(442)	44.6	55.4
	주부	(449)	31.4	68.6
	은퇴자	(26)	42.3	57.7
	학생	(42)	26.2	73.8
	무직/기타	(37)	29.7	70.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18.3	81.7
	고졸	(1,038)	36.1	63.9
	대재 이상	(1,167)	37.5	62.5
	모름/무응답	(22)	54.5	45.5
가구 소득	저소득	(468)	24.1	75.9
	중소득	(1,383)	35.7	64.3
	고소득	(589)	43.6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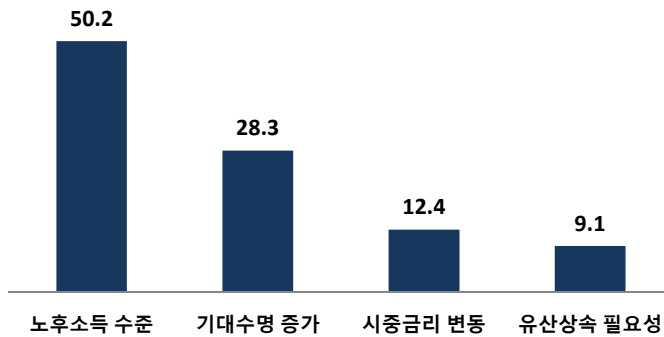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라. 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후소득 수준'이 50.2%로 가장 높았고, '기대수명 증가'(28.3%), '시중금리 변동'(12.4%), '유산 상속 필요성'(9.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21〉 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사항

(N=2,440, 단위: %)



- '노후소득 수준'이라는 응답은 여성(53.0%), 군지역(61.3%), 주부(5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32〉 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사항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노후소득 수준	기대수명 증가	시중금리 변동	유산상속 필요성
전체		(2,440)	50.2	28.3	12.4	9.1
성별	남성	(1,214)	47.3	29.4	12.6	10.7
	여성	(1,226)	53.0	27.2	12.2	7.6
연령	20대	(398)	47.5	30.7	13.1	8.8
	30대	(428)	53.5	23.6	14.0	8.9
	40대	(502)	45.2	29.1	14.9	10.8
	50대	(493)	51.1	30.4	9.3	9.1
	60대 이상	(619)	52.8	27.6	11.3	8.2
지역규모	대도시	(1,103)	46.7	30.1	13.5	9.7
	중·소도시	(1,174)	51.9	27.1	11.9	9.1
	군지역	(163)	61.3	24.5	8.6	5.5
직업	화이트칼라	(774)	47.8	28.9	12.1	11.1
	블루칼라	(632)	50.6	29.9	10.4	9.0
	농/임/어업	(38)	55.3	28.9	10.5	5.3
	자영업	(442)	45.9	29.0	16.1	9.0
	주부	(449)	56.1	25.2	11.8	6.9
	은퇴자	(26)	61.5	34.6	0.0	3.8
	학생	(42)	54.8	19.0	23.8	2.4
	무직/기타	(37)	51.4	21.6	13.5	13.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61.0	24.4	7.0	7.5
	고졸	(1,038)	51.3	27.0	13.3	8.4
	대재 이상	(1,167)	46.9	30.2	12.9	10.1
	모름/무응답	(22)	63.6	27.3	0.0	9.1
가구 소득	저소득	(468)	56.0	29.1	8.3	6.6
	중소득	(1,383)	48.8	27.8	13.2	10.2
	고소득	(589)	48.7	28.7	13.9	8.7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문 6. 귀하께서 최근 3년 내(2016년~2018년)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보기3)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액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 상품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최근 3년 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무8번으로 가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회사 (보기3)	가입 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6-1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⑤	
6-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6-3 재해(상해)보험		①	②	③	④	⑤	
6-4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⑤	
6-5 사망보험	종신보험(치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정기보험	①	②	③	④	⑤	
6-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②	③	④	⑤	
6-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⑤	
6-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⑤	
6-9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⑤	
	변액유니버설	연금	①	②	③	④	⑤
		종신	①	②	③	④	⑤
	변액종신	①	②	③	④	⑤	

(보기3) 생명 보험 회사

- ①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② 삼성생명 ③ 교보생명
- ④ 흥국생명 ⑤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⑥ 신한생명
- ⑦ DB생명(구 동부생명) ⑧ 중앙생명 ⑨ DGB생명(구 우리아비바, 구 LG생명)
- ⑩ KDB생명 ⑪ 미래에셋생명(구 PCA생명) ⑫ 하나생명(구 하나HSBC)
- ⑬ ING생명 ⑭ KB생명 ⑮ 교보라이프플래닛
- ⑯ IBK연금보험 ⑰ NH농협생명
- ⑱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⑲ 메트라이프생명 ⑳ 푸르덴셜생명
- ㉑ 처브라이프생명(구 ACE생명, 뉴욕생명) ㉒ BNP파리바카디프생명(구 카디프생명, 구 SH&C생명)
- ㉓ AIA생명(구 AIG생명) ㉔ 라이나생명
- ㉕ 우체국 ㉖ 새마을금고 등 기타공제
- ㉗ 기타()

문 7. 귀하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생명보험회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해당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7-1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X
7-2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X
7-3 ☞ 문 3-1 ~ 문 3-12에서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불만지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문8.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아래 항목 중 향후 보험 가입 의향의 ③, ④번 응답자만) 또한, 향후 생명보험 상품 가입 시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보험 상품별로 가입 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4), 선호이유(보기5)는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 의향				가입의향 ③,④ 응답자만 선호 가입경로 (보기4)	가입경로 선호 이유(보기5)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순위	2순위	
8-1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8-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8-3 재해(상해)보험	①	②	③	④				
8-4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8-5 사망보험	중신보험(비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중신보험 등)		①	②	③	④		
	정기보험		①	②	③	④		
8-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②	③	④				
8-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8-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8-9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변액유니버설	연금	①	②	③	④		
		중신	①	②	③	④		
	변액중신		①	②	③	④		

(보기4) 선호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 ④ 인터넷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 ⑧ 대형 할인점
- ⑨ 기타()

(보기5) 가입 경로 선호 이유

- ① 가입이 편리해서
- ② 가격이 저렴해서
-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 ⑦ 보험회사의 서비스가 좋아서
- ⑧ 보험설계사가 친절해서
- ⑨ 기타()

문9. 귀하께서 향후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 ③ 가격 경쟁력
-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 ⑥ 과거 거래경험
- ⑦ 회사 규모
-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 ⑩ 보험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 ⑪ 기타()

II. 손해보험 가입실태

문10.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맥에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11번으로 ② 없다 ➡ 문17번으로

문11. (문10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맥에서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 상품별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11-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1-2	장기 손해 보험 (3년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저축성보험(전체 : 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만)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1-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1-4	기타 ()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문12.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맥에서 가입하신 손해보험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은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건수	금액
12-1	실손의료보험	입원	()건 ()원
		외래	()건 ()원
		약	()건 ()원
12-2	중증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건	()원
12-3	일반질병	()건	()원
12-4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건	()원
12-5	재해(상해)	()건	()원
12-6	지매	()건	()원
12-7	사망	()건	()원
12-8	저축(전체 : 개인연금 등 포함)	()건	()원
12-8-1	저축(개인연금 만)	()건	()원
12-9	교통사고(자동차, 기타 교통) : 교통사고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경우도 포함	()건	()원
12-10	재산손실	()건	()원
12-11	자녀(15세 미만)에 대한 보장	()건	()원
12-12	기타	()건	()원
12-13	지급받은 경험 없음 ➡ 문13번으로		

문13. (응답자 본인 기준) 귀하께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14번으로 ② 없다 ➡ 문17번으로

문14. (문13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6)와 가입이유(보기7)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이유는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보험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6)	가입 이유 (보기7)
14-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4-2	장기손해보 (3년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다음 페이지 문항 계속)

보험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6)	가입 이유 (보기7)
14-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 손해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저축성보험(전체 : 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만)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14-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14-4	기타()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보기6)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 ④ 인터넷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 ⑧ 대형 할인점
- ⑨ 기타()

(보기7) 가입 이유

-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 ④ 노후자금 마련
-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 ⑦ 기타()

문15. 귀하(본인)께서 최근 3년 내(2016년~2018년) 가입하신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보기8)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최근 3년 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무17번으로 가세요

보험상품종류	가입 회사 (보기8)	가입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15-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1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15-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⑤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⑤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 손해 등)	①	②	③	④	⑤
		저축성보험(전체 : 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⑤
15-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만)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⑤
15-4	기타()	①	②	③	④	⑤	

(보기8) 손해보험회사

- ① 삼성화재
- ② 현대해상(현대하이카다이렉트 포함)
- ③ KB손해보험(구UG손해보험)
- ④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
- ⑤ 메리츠화재(구 동양화재)
- ⑥ 한화손해보험
- ⑦ 롯데손해보험(구 대한화재)
- ⑧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 ⑨ 흥국화재(구 흥국상용화재)
- ⑩ NH협손해보험
- ⑩ AIG손해보험(구 자티스, AHA손해보험)
- ⑪ 에이시아메리컨화재(ACE, CHUBB)
- ⑫ AXA손해보험(구 교보AXA손해보험, 구 교보자동차보험)
- ⑬ 더케이손해보험회사(구 교원나라 자동차보험)
- ⑭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구 에르고다움다이렉트)
- ⑮ 우체국
- ⑯ 기타공제
- ⑰ 기타()

문16. 귀하께서 가입하신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손해보험회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해당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편	보통	만족하는편	매우 만족	
16-1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6-2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6-3 문12-1 ~ 문 12-12에서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문17.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래 항목 중 향후 보험 가입 의향의 ③, ④번 응답자만) 또한, 향후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시,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보험 상품별로 가입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9)와 선호이유(보기10)는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 의향				(가입의향 ③,④ 응답자만) 선호 가입경로 (보기9)	가입 경로 선호 이유(보기10)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유1	이유2
17-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②	③	④			
17-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②	③	④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①	②	③	④		
	저축성보험(전체 : 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17-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만)	①	②	③	④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17-4 기타()	①	②	③	④			

(보기9) 선호 가입 경로

- 0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

(보기10) 가입 경로 선호 이유

- ① 가입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⑦ 보험회사의 서비스가 좋아서 ⑧ 보험설계사가 친절해서 ⑨ 기타()

문18. 귀하께서 향후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③ 가격 경쟁력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⑥ 과거 거래경험
 ⑦ 회사 규모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⑩ 보험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⑪ 기타()

III.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문19. 귀하께서 평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인터넷
- ② 텔레비전/라디오
- ③ 신문
- ④ 부모, 친구 등 주위사람

문20. 귀하께서 지난 일주일(7일)동안 친구 등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 ② 이메일
- ③ 전화
- ④ 직접 만나서 대화

문21. 귀하께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이 음성 혹은 문자로 사람과 대화/채팅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등으로 직접 대화/채팅해 보았다
- ② 영상물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채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③ 인공지능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적은 없다
- ④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문22. 귀하께서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소비재, 금융상품, 서비스 등을 구입(가입) 시 구매결정을 위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주위 사람의 추천
- ② 해당 업체의 광고
- ③ 블로그 및 SNS등을 통한 지인들의 추천
- ④ 구매 사이트(오픈마켓 등)에 남긴 사용자들의 평점 및 후기

문23. 귀하께서 인터넷 혹은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소비재, 금융상품, 서비스 등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목	구입경험 여부	
	있다	없다
23-1 소비재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 (공산품, 장보기 등)	①	②
23-2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가사도우미, 배달 등)	①	②
23-3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 (예적금, 펀드, 보험 등)	① 문24번으로	② 문27번으로

문24. (문23-3번 ①번 응답자만)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상품 가입경험이 있다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예적금
- ② 주식 혹은 펀드
- ③ 보험

문25. 귀하께서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① 보험료 혹은 수수료가 저렴해서(예:적금의 경우 금리가 높아서)
- ② 금융기관에 직접방문하는 것 보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편리해서
- ③ 금융기관 종사자 혹은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 ④ 기타()

문26. 귀하(본인)께서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에 가입 하실 때 제공받았고 동의하셨던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 ① 읽고 잘 이해했다
- ② 읽고 대략적으로 이해했다
- ③ 읽었으나 잘 이해하지 못했다
- ④ 읽지 않고 상품가입을 위해 동의하였다

VII. 건강생활서비스 : 만40세 이상만 응답해주시요.

(보기12) 새로운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답해 주십시오.

- 1)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모바일 앱(스마트폰, 웹사이트 등)은 환자 맞춤형 진단·치료법 제공 없이 고혈압, 비만, 당뇨 환자들이 영양섭취, 체중조절 등 생활습관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 2)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는 어떤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하거나, 만성질환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도·장려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보기1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답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그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요청할 경우 '대사증후군 관리지침서'와 '나의 맞춤 건강노트'를 발송하고, 6개월 동안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가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영양상담, 체력 측정,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흡연자에게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금연상담 및 약 처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당뇨병 신규 판정자에게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유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문55. 귀하께서는 조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을 적어도 2주 이상(1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 ① 직업적으로 혹은 건강을 위하여 거의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 문56번으로](#)
- ②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없다 [☞ 문56번으로](#)
- ③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있다 [☞ 문55-1번으로](#)

문55-1. 건강을 위한 규칙적 운동 경험이 있다면 운동을 실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 ① 보건소 프로그램을 이용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건강증진센터 혹은 '대사증후군 관리지침서'와 '나의 맞춤 건강노트'를 이용
- ③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따름
- ④ 자발적으로 민간 헬스클럽, 운동 동호회 등에 참여함
- ⑤ 모바일 앱,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함
- ⑥ 기관이나 앱 혹은 기기의 도움 없이 혼자서 운동함

문56.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하루당 300 칼로리 이상 줄이기 등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식생활습관 관리는 다음을 말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하기 /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기 / 가끔적이면 외식을 줄이기 / 튀김이나 볶음요리보다는 구이, 찜, 무침요리 먹기 / 육류는 가능하면 살코기 위주로 먹기 / 닭과 오리의 껍질은 벗기고 먹기 /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음료수와 같은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간식은 삼가 하기 / 국,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기 / 절절, 장아찌, 조림 등의 짠 반찬 섭취는 줄이기 등)
- ① 없다 [☞ 문57번으로](#)
 - ② 있다 [☞ 문56-1번으로](#)

문56-1. 있다면 2주 이상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를 실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 ①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건강증진센터 혹은 '대사증후군 관리지침서'와 '나의 맞춤 건강노트'를 이용
- ③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따름
- ④ 자발적으로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 혹은 식품 이용
- ⑤ 모바일 앱,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실천
- ⑥ 기관이나 앱 혹은 기기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실천

문57.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1개비 이상 흡연을 하고 있으십니까?

- ① 아니다 [☞ 문58번으로](#)
- ② 그렇다 [☞ 문57-1번으로](#)

문61. 현재 귀하께서는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이십니까? (계속)

문항	생활습관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문61-4	금주 혹은 절주 (6개월 평균 1주에 1회 1잔 이상 음주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61-5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처방전 없는 스트레스 관련 약 복용 경험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62. 만약, 귀하가 모바일 앱 혹은 개인용 건강관리기기를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스스로 생체 현상을 측정 및 분석을 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지원서비스를 무료(앱 및 기기 제공 포함)로 제공한다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번호	프로그램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문62-1	규칙적 운동하기 (직업적 운동자, 최근 6개월 동안 1주 1일 이상 거의 매주 운동자 제외)	①	②	③	④
문62-2	식생활 개선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항상 식단관리 중인 경우 제외하고 응답)	①	②	③	④
문62-3	금연 (최근 6개월 간 1개비 이상 흡연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62-4	금주 혹은 절주 (6개월 평균 1주에 1회 1잔 이상 음주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62-5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처방전 없는 스트레스 관련 약 복용 경험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63. 만약, 보험회사가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를 무료(앱 및 기기 제공 포함)로 제공하면서, 추가로 귀하의 자율적 실천행동(예: 1만보 걷기, 녹색 식단, 관리프로그램 참여, 체중 감량 등)에 대해 현금, 포인트, 보혐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번호	프로그램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문63-1	규칙적 운동하기 (직업적 운동자, 최근 6개월 동안 1주 1일 이상 거의 매주 운동자 제외)	①	②	③	④
문63-2	식생활 개선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항상 식단관리 중인 경우 제외하고 응답)	①	②	③	④
문63-3	금연 (최근 6개월 간 1개비 이상 흡연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63-4	금주 혹은 절주 (6개월 평균 1주에 1회 1잔 이상 음주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63-5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처방전 없는 스트레스 관련 약 복용 경험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68-3. (문68번 ②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너무 낮아서
- ②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
- ③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 ④ 주택마련 및 부채상환을 위해서
- ⑤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 ⑥ 투자실패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이 부족해서
- ⑦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⑧ 기타 (_____)

문69. 귀하께서는 향후 본인의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어느 정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절대 없다

문70. 귀하께서는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어느 정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절대 없다

문71. 귀하께서는 향후 자녀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72.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맥에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이 있으십니까? 다음과 같이 가입여부, 가입상태, 가입기간, 납입방법, 월납보험료, 향후 수령방법, 가입 금융회사를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 가입하신 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 중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가입 여부	2.현재 가입 상태	3.가입 기간	4.납입방법	5.향후 수령방법	6.가입 금융회사	7.가입 만족도
①가입	①납입중	(보기15)	①월납	①연금수령 ②연금+일시금 ③일시금	(보기16)	(보기17)
	②납입완료		①월납 ②일시납	①연금수령 ②연금+일시금 ③일시금		
	③연금 수령중		①월납 ②일시납	①연금수령 ②연금+일시금 ③일시금		
②비가입						

(보기15) 가입 기간

-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3년~4년 ④ 5년~6년
- ⑤ 7년~8년 ⑥ 9년~10년 이하 ⑦ 10년 초과

(보기16) 가입 금융회사

- ① 은행 ② 생명보험회사(농협생명 포함) ③ 손해보험회사
- ④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 ⑤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⑥ 잘 모름
- ⑦ 기타(_____)

(보기17)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문73. (문72-1의 가입여부에서 ②응답한 경우(개인연금 비가입자만) 귀하의 맥에서 현재까지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 ②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③ 다른 금융상품 및 부동산 자산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 ④ 세제혜택이 부족해서
- ⑤ 수익률이 낮을 것 같아서
- ⑥ 가입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⑦ 가입 시기를 놓쳐서
- ⑧ 기타 (_____)

문73-1. (문72-1에서 ② 응답한 경우만) 귀하의 데에서는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74. (문72-7에서 가입 만족도에서 ① 또는 ② 응답한 경우만) 개인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수익률이 낮아서
- ② 수수료가 높아서
- ③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 ④ 개인연금 가입, 납입, 장기유지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 ⑤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 ⑥ 지급방법 및 급부와 관련된 세제혜택 등 안내가 부족해서
- ⑦ 세제혜택이 부족해서
- ⑧ 기타 ()

▣ 용어 설명 ▣

- 퇴직연금제도 : 정부는 기존 퇴직금의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자신의 근무년 수에 퇴직 직전의 평균급여를 곱하여 지급금이 산정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자산운용 등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 매년 한달치 급여수준이 적립되고 가입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운용실적이 지급금에 반영되는 제도입니다.
- IRP : IRP는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이 퇴직연금 용도로 근로복지관리공단 등에 가입하는 '기업형IRP',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중간정산금 포함)이나 개인이 여유 돈을 추가로 금융회사의 계좌에 적립·운용하는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납입한 보험료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적립형)와 함께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문75. 귀하께서는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DB형 [문75-1번으로](#) ② DC형 [문75-1번으로](#) ③ IRP ④ 없음 [문75-1번으로](#)

문75-1. (문75의 ①, ②, ④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향후 개인형 IRP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76. 퇴직연금 수령시점이 다가온다면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 일시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연금 [문77번으로](#) ② 일시금 [문78번으로](#)

문77. (문76의 ① 응답한 경우만) 연금을 선택할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년 ② 10년 ③ 20년 ④ 30년 ⑤ 중신

문78. (문76의 ② 응답한 경우만)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과 일시금을 혼합해서 선택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선택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십니까?
 ① 0% (전액 일시금) ② 20% ③ 40% ④ 60% ⑤ 80% ⑥ 100%(전액 연금)

문79. (문75의 DC형 가입자의 경우) 귀하께서는 지난 1년 평균 퇴직연금수익률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문80번으로](#) ② 아니오

문80. (문79의 ① 응답한 경우만) 지난 1년 평균 퇴직연금수익률은 다음 중 어느 범위에 있습니까?
 ① 0% 이하 ② 0~1% ③ 1~2% ④ 2~3% ⑤ 3~4% ⑥ 4~5% ⑦ 5% 이상

문81. 귀하께서는 현재 중신보험에 가입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82.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노후소득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전환 특약이 제공 됩니다. 선생님은 종신보험에 연금전환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83. 귀하께서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종신보험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84. 귀하께서 종신보험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노후소득 수준 ② 유산상속 필요성 ③ 기대수명 증가 ④ 시중금리 변동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DQ1. (SQ8 및 SQ9에서 ①~⑧번 응답자만) 귀하 또는 가구주가 소속된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인미만 ② 10 ~ 29인 ③ 30 ~ 99인
 ④ 100 ~ 299인 ⑤ 300 ~ 499인 ⑥ 500인이상

본인	세대주
----	-----

DQ2. (SQ8 및 SQ9에서 ⑧번 응답자만) 귀하 또는 가구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제조업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운수업
 ④ 숙박 및 음식점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 및 임대업
 ⑦ 교육 서비스업 ⑧ 개인 서비스업(세탁소, 이마용실 등) ⑨ 기타()

본인	세대주
----	-----

DQ3. 실례지만, 귀하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을 동일하게 작성

DQ3-1. 본인의 학력	DQ3-2. 세대주의 학력
① 중졸이하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③ 대졸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⑤ 모름/무응답	⑤ 모름/무응답

DQ4. 귀하의 개인 연간 총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연 만 원

DQ5. 귀하의 소득을 포함한 귀하 핵(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연 만 원

DQ5-1. 귀하 핵의 연간 총수입 가운데 얼마정도를 저축 또는 투자 (납입보험료 포함)하고 계십니까?

총 수입의 %

DQ6.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귀하 핵의 한 달 납입보험료는 얼마나 되십니까?

월 만 원

DQ7. 귀하 핵에서 최근 1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 여기에서 가구는 동일 거처에 생계를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단위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주말부부, 학생, 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인 이상 ⑥ 없음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상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진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호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

- 김혜란·정승연 2016.4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혜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계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향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080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5 / cbyun@kiri.or.kr)

저 자 약 력

전 용 식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ongsik.jeon@kiri.or.kr)

조 용 운

The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wcho@kiri.or.kr)

임 준

Michigan 주립대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limjoon@kiri.or.kr)

정 원 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김 세 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이 상 우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일본 중앙대 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swlee@kiri.or.kr)

김 진 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
(E-mail : kjo990@kiri.or.kr)

연구보고서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89-3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

